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충청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지혜를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MRO사업, 관광 및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의회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17일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약 3년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로부터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청취와 간담회, 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책 대안도 제시하고, 의정발언, 건의안 채택 등을 통해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300만 명 돌파('19년), 국내선 최대 운송실적('21년),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국토부, '19. 12.), 에어로케이 거점항공사 출범('21. 4.), 국내선·국제선 청사 및 주차장 확충, 평행 유도로 주기장 확장 등 시설인프라 확충과 노선 다변화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공항 주변 에어로폴리스 개발사업도 가속화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청주국제공항은 무궁한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항공정비 및 항공 R&D산업 등 에어로

폴리스 조성 사업과 청주국제공항 광역교통망 구축, 활주로 연장, 국제여객선 확충 등 시설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더 나아가 남북 평화통일시대에 ‘남북간 거점공항’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선 섯다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어려운 실정으로 항공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더욱 절실합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응집된 도민의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의회는 민의의 대의기관으로 도정발전을 위한 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와 청주국제공항 관계자,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위 위원으로 함께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허 창 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제출)함.

2022. 4.

위원장 허창원

부위원장 송미애

위원 육미선

위원 이상식

위원 이상욱

위원 이옥규

위원 임동현

contents

제1장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 1.1. 구성 목적
- 1.2. 구성 경과
- 1.3. 위원회 구성
- 1.4. 활동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
- 1.5. 중점 활동 방향
- 1.6. 특위 위원 명단

제1장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1.1. 구성 목적

- 청주국제공항은 거점항공사 취항을 계기로 세종시 관문공항 및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 충청북도는 청주국제공항 인프라 구축 및 국제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도민들의 공항 전반에 걸친 발전방안에 대한 기대 충족과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효성 있는 청주국제공항 정책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이용자 중심의 개별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공항 정책에 대한 도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바, 공항 관련 사안과 정책들에 대한 조정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한 공항발전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구성함.

1.2. 구성 경과

- 구성발의 : 의회운영위원회 제안(2019. 4. 17.)
- 의안심사 : 제368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2019. 4. 17.)
- 발의의결 : 제3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 4. 17.)
- 위원선임 : 제3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 4. 17.)

1.3. 위원회 구성 |

- 위 원 수 : 7인(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5)
- 활동기간 : 2019. 4. 17. ~ 2022. 6. 30.
 - 특위 활동기간 1차 연장(본회의 의결, 2020. 6. 24.)
 - 특위 활동기간 2차 연장(본회의 의결, 2021. 6. 23.)
- 위원 명단(소속 상임위원회)

| 직 위 | 성 명 | 소 속 위 원 회 | 직 위 | 성 명 | 소 속 위 원 회 |
|------|-------|-----------|-----|-------|-----------|
| 위원장 | 허 창 원 | 정책복지위원회 | 위 원 | 이 상 옥 | 정책복지위원회 |
| 부위원장 | 송 미 애 | 산업경제위원회 | 위 원 | 이 옥 규 | 행정문화위원회 |
| 위 원 | 육 미 선 | 행정문화위원회 | 위 원 | 임 동 현 | 교 육 위 원 회 |
| 위 원 | 이 상 식 | 산업경제위원회 | | | |

※ 연종석, 임영은 위원(2018. 4. 17. ~ 2021. 1. 28. / 위원사임)

※ 임동현 위원(2021. 1. 28. ~ 2021. 6. 22. / 위원선임)

※ 위원장 변경(이상식 ⇒ 허창원 / 2021. 7. 8.)

- 활동지원(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직 위 | 성 명 | 비 고 | 직 위 | 성 명 | 비 고 |
|----------------|-------|-----|--------------------|-------|-----|
| 의회운영수석 전문위원 | 김 광 래 | | 운 영 특 위 전 문 위 원 | 정 훈 | |
| 행 정 6 급 | 이 형 령 | | 교 육 행 정 6 급 | 금 진 혁 | |
| 행 정 7 급 | 박 충 순 | | 행 정 7 급 | 오 수 진 | |

- 운영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5조(특별위원회)

1.4. 활동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

가. 활동대상 기관

- 중 앙 : 국회, 중앙부처 등
- 지 방 : 충청북도(문화체육관광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나. 사무 범위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상황 점검 및 활동지원

1.5. 중점 활동 방향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 관광·항공·광역교통망 확충
- MRO산업 및 에어로폴리스사업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 지원 등

1.6. 특위 위원 명단

| 구 분 | | 성 명 | 주 요 경 력 |
|--------------|---|------------------------|--|
| 위원장 (정책) |  | 허 창 원 (청주4) | (前)충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現)충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 부위원장 (산업) |  | 송 미 애 (비례) | (前)충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現)충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 부위원장 |
| 행정 |  | 육 미 선 (청주5) | (前)충북도의회 제11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現)충북도의회 제11대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 산업 |  | 이 상 식 (청주7) | (前)충북도의회 제11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現)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 정책 |  | 이 상 욱 (청주11) | (前)충북도의회 제11대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現)충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 행정 |  | 이 욱 규 (비례) | (前)충북도의회 제11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現)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 교육 |  | 임 동 현 (청주10) | (前)충북도의회 제11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現)충북도의회 제11대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contents

제2장

주요 활동 상황

- 2.1. 특위 활동 일지
- 2.2. 특위 위원
- 2.3. 특위 활동 사진
- 2.4. 회의 개최
- 2.5. 간담회 개최
- 2.6. 토론회
- 2.7. 기관 및 현장방문
- 2.8. 5분자유발언 및 기타활동

제2장 주요 활동상황

2.1. 특위 활동 일지

《 특위 구성 》

- 2019. 4. 17. :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2019. 4. 17. :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운영위원회 통과
(제37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 2019. 4. 17. :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제3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019. 4. 17. :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8명)
(제3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020. 6. 24.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20. 6. 30 → '21. 6. 30.)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1. 1. 28. :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1명) / 교육위원회 임동현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1.1.28. 연정, 임명, 위원 선임
- 2021. 6. 23.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21. 6. 30 → '22. 6. 30)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회의 개최 》

- 2019. 4. 17. :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이상식 위원장, 송미애 부위원장)
- 2019. 6. 10. :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 추진상황 업무보고

- 2020. 6. 9. :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포스트코로나19 대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등 업무보고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 2020. 9. 16. :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에어로폴리스 1~3지구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업무보고
- 2020. 11. 25. :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 채택
- 2021. 1. 28. :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 위원사임 동의(연종석, 임영은 위원)
- 2021. 3. 17. :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청주공항 중심) 업무보고
 - 국가철도망 구축 관련 청주국제공항 발전전략 업무보고
- 2021. 6. 22. :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 2021. 7. 8. :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
 - 위원장 선임(허창원 위원장)
- 2021. 9. 9. :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
 -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
- 2022. 1. 24. :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최
 - 2022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업무보고
 -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
- 2022. 3. 24. :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최
 - 기간별(단기·중기·장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업무보고
 - 기간별(단기·중기·장기)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계획 업무보고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토론회 》

- 2019. 11. 21. ~ 22. : 2019년 항공·관광 활성화 정책 토론회
 - 충북 항공·관광산업 육성 관련 추진상황, 특강 등
- 2020. 11. 23. : 2020년 항공·관광 활성화 정책 토론회
 - 코로나 이후의 관광 변화 대응전략 정책토론회 및 특강

《 간담회 개최 》

- 2019. 7. 4.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1차)
 - 유관기관(청주국제공항장, 에어로케이 대표) 현안사항 브리핑
 - 청주국제공항 인프라 시설 현장 확인
- 2019. 10. 14. : 청주국제공항 관광인프라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2차)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콘텐츠 확충 관련 지원 및 계획 등 브리핑(충청북도, 한국관광공사, 충북관광협회)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콘텐츠 확충방안 토론
- 2020. 9. 22.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간담회(3차)
 - 에어로케이 항공 운항증명 조기발급 추진상황 업무보고
 - 제386회 임시회 향후 특위 활동 관련 논의 등
- 2020. 10. 5.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간담회(4차)
 - 에어로케이 항공 운항증명 발급 관련 상황 및 향후 계획 보고
- 2020. 11. 2. : 충북 항공·관광산업 육성 범도민 추진위 간담회(5차)
 -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추진상황 공유
- 2021. 1. 13.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간담회(6차)
 -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발급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및 대응전략 논의
- 2021. 1. 26.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간담회(7차)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협의 등(청주국제공항장 참석)

《 5분자유발언 및 기타활동 》

- 2019. 6. 10. : 제37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발언자 : 이상욱 위원
 -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민 특별지원 대책 마련 촉구
- 2019. 10. 17. : 이스타항공, 신규 국제정기노선 취항식
 - 이스타항공 중국 장가계·하이커우 신규 국제정기노선 취항식 참석
- 2019. 12. 24. : 청주국제공항 300만 명 달성 기념행사
 - 청주국제공항 300만 명 달성 세레모니, 기념촬영, 축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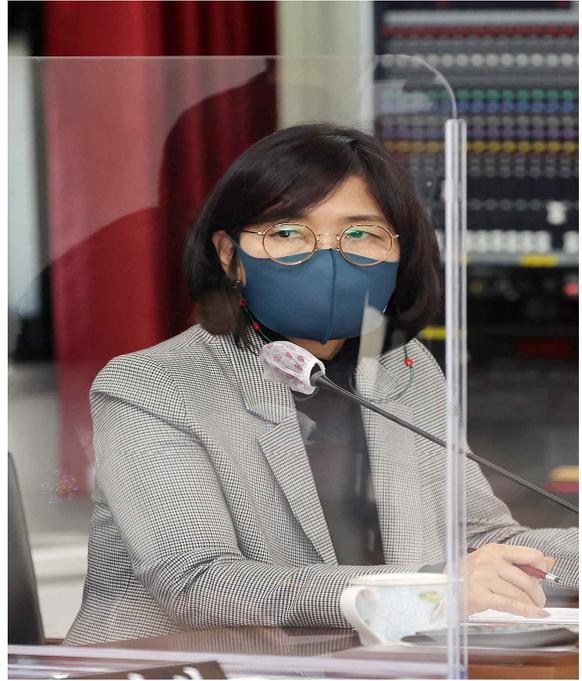
《 현장방문 》

- 2021. 11. 5. ~ 6.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현장방문
 - 제주공항·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방문
 - 충북·제주도의회 간담회(공항·관광 활성화 관련 공생방안 논의)

2.2. 특위 위원



허창원 위원장(청주 제4선거구)



송미애 부위원장(비례대표)



육미선 위원(청주 제5선거구)



이상식 위원(청주 제7선거구)



이상욱 위원(청주 제11선거구)



이옥규 위원(비례대표)



임동현 위원(청주 제10선거구)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전체)

2.3. 특위 활동사진



제1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2019. 4. 17.)



제1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2019. 4. 17.)



제2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2019. 6. 10.)



제373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이상욱 위원, 2019. 6. 10.)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1차 간담회(2019. 7. 4.)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청주공항 현장 확인(2019. 7. 4.)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2차 간담회(2019. 10. 14.)



이스타항공, 신규국제노선 취항식(2019. 10. 17.)



2019년 항공·관광활성화 정책토론회(2019. 1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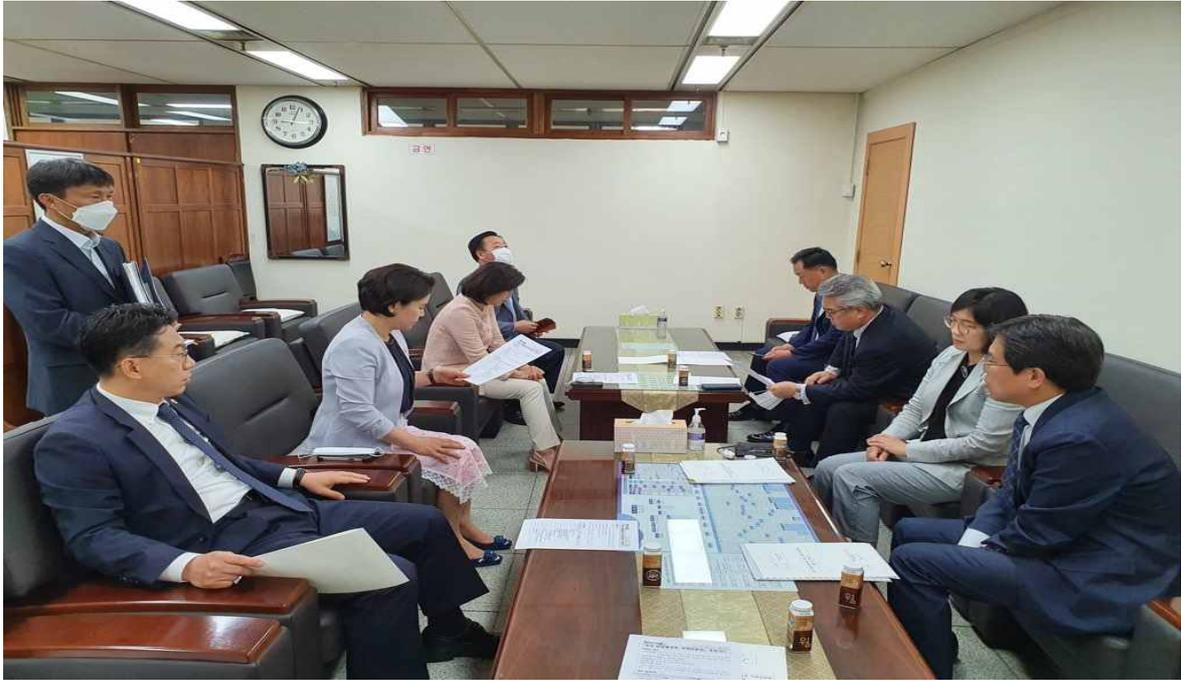
청주국제공항 300만 명 달성 기념식(2019. 12. 24.)



제3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2020. 6. 9.)



제4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2020. 9. 16.)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3차 간담회(2020. 9. 22.)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4차 간담회(2020. 10. 5.)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5차 간담회(2020. 11. 2.)



2020년 항공·관광 활성화 정책토론회(2020. 11.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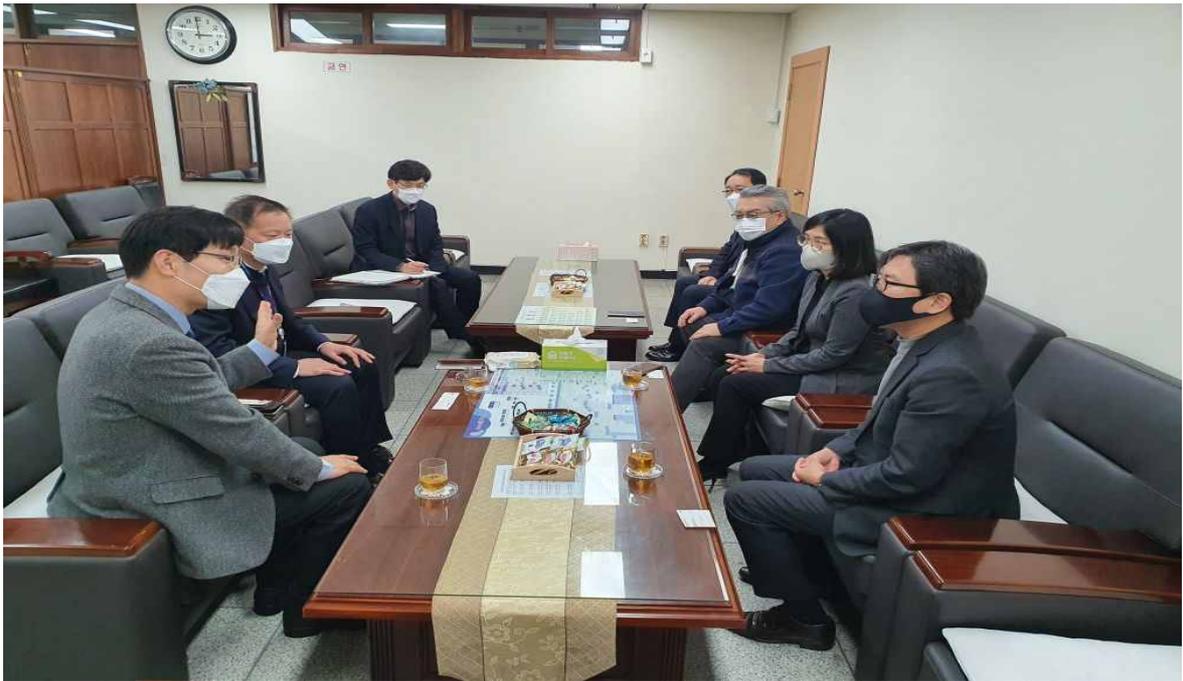
2020년 항공·관광 활성화 정책토론회(2020. 11. 23.)



제5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2020. 11. 25.)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6차 간담회(2021. 1. 13.)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7차 간담회(2021. 1. 26.)



제6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2021. 1. 28.)



제7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2021. 3. 17.)



제8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2021. 6. 22.)



제9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2021. 7. 8.)



제10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2021. 9. 9.)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청주공항방문(2021. 11. 5.)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제주도의회 방문(2021. 11. 5.)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제주도 공항소음민원센터 방문(2021. 11. 5.)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제주4·3평화공원 방문(2021. 11. 6.)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방문(2021. 11. 6.)



제11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2022. 1. 24.)



제11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2022. 1. 24.)

2.4. 회의 개최

2.4.1. 제1차 회의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4. 17.(수) 15: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5층)
- 참석현황 : 8명
 - 특위위원(8) : 이상식 위원장, 송미애 부위원장, 육미선 위원, 연종석 위원, 이상욱 위원, 이옥규 위원, 임영은 위원, 허창원 위원
- 안 건
 - 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 선임의 건

I 회의 내용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II 회의 결과

- 위원장 선임 :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7)
- 부위원장 선임 : 송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III 기타 협의사항

- 제2차 회의 일정 협의 : 2019. 6. 10.(월) 10:00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관련 추진상황 업무보고

2.4.2. 제2차 회의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6. 10.(월) 10: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5층)
- 참석현황 : 11명
 - 특위위원(8) : 이상식 위원장, 송미애 부위원장, 연종석 위원, 육미선 위원, 이상욱 위원, 이옥규 위원, 임영은 위원, 허창원 위원
 - 충청북도(3) :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희 균형건설국장, 임성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 안 건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관련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

I 회의 내용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관련 추진상황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문화체육관광국, 균형건설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II 질의 · 답변내용

< 임영은 위원 >

- 동탄~안성~진천~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한 우리도 생각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청권뿐 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많은 이용객이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노력 바람.
- ▶ (균형건설국장) 현재 충북의 철도망에 대한 구축용역을 하고 있으며 동탄~청주국제공항 간 사업타당성이 나온다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이상욱 위원 >

- 철도공사가 한번 시작하면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주국제공항 안으로 화물 등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철도시설도 사전에 검토해야 할 필요 있음.
- ▶ (균형건설국장) 세종~오송역~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며, 말씀한 내용은 검토해 보겠음.
- 청주국제공항의 국제노선 확보도 중요하지만 황금시간대 노선 유치도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제노선 추가로 검토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 ▶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객들이 꼭 필요한 시간대에 항공편 유치를 위해 항공사와 잘 협의해 보겠음. 현재 진에어가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데 완화해 달라고 내부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완화시 노선이 대폭 늘어날 수 있음.
- 활주로 확장부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청주시 소재 대기업의 부품이 활주로가 짧아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데 활주로를 확장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 (문화체육관광국장) 국토부에 계속 건의 중에 있으며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 등에 반영하는게 우선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음.

< 허창원 위원 >

-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이 공정률이 51%로 돼 있는데 공사 나갈 때 100% 조건인지 아니면 51% 조건인지? 에어로케이가 이 부분에 대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데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것인지?
- ▶ (충북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당초에는 100%로 하려고 했으나 아시아나가 포기를 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긴 상태임. 당초에는 조성원가로 계획했으나 활용계획에 따라 검토해야 될 사항임.

〈 이상식 위원장 〉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가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여 비행기를 이용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 보다는 도내에 하루정도 머물 수 있는 관광개발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특위활동을 펼쳐가겠음.

2.4.3. 제3차 회의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6. 9.(화) 09: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5층)
- 참석현황 : 10명
 - 특위위원(8) : 이상식 위원장, 송미애 부위원장, 연종석 위원, 육미선 위원, 이상욱 위원, 이옥규 위원, 임영은 위원, 허창원 위원
 - 충청북도(2) :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승기 관광항공과장
- 안 건
 - 포스트코로나19 대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등 업무보고의 건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I 회의 내용

- 포스트코로나19 대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등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문화체육관광국)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 활동기간 연장사유
 - 청주국제공항은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항 이후 최초로 연간 공항이용객 300만 달성, 거점공항사 에어로-K 취항 등 세종시 관문공항이자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
 -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제선 셧다운과 국내선 운항 감축으로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및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어 청주국제공항의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음

- 특별위원회 활동을 2020년 6월 30일에 종료할 경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특별위원회의 당초 구성 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Ⅱ 질의 · 답변내용

< 임영은 위원 >

- 4개 광역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동탄에서 청주국제공항 까지 내륙선 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 (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경제성 분석 등을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

< 이상욱 위원 >

- 청주국제공항의 장거리노선 확충을 위해서는 활주로 연장 계획이 있는 것인지? 수요가 있으면 활주로 확장하는 개념보다는 활주로를 확장해야 수요가 생기는 방향으로 추진바람.
- ▶ (문화체육관광국장) 청주국제공항 장거리노선 확충을 하려면 활주로 연장은 필요한 사업이며,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수요를 늘려 B/C를 확충해서 추진할 계획임.
- 전남이나 제주의 경우 한국여행작가협회라는 곳을 초빙해서 관광 인프라를 홍보하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 ▶ (문화체육관광국장) 여행사 대표 등을 초빙해서 관광코스를 안내하는 사업들을 해 봤으나 여행작가협회 초빙은 처음 듣는 아이디어로 적극 검토하겠음.

- 에어로케이 1호기가 노후기가 들어온다는 우려가 있는데 확인 가능한지? 아니면 홍보나 해명 등이 필요하다 생각됨.
- ▶ (문화체육관광국장) 노후기는 아니며 10년 정도 된 비행기로 알고 있으며, 신형비행기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에어로케이가 얼른 정상적으로 운행 되는게 급하다고 보며 국토부에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어도 되겠음.

< 연종석 위원 >

-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광업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어떤 대책 마련 중인지? 국내 관광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 있는지? 외국인 다국어 표지판 설치 확대 사업 등이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된다고 봄.
- ▶ (문화체육관광국장)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활성화 대해 20개 이상 마련해 준비 중에 있었으나 코로나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 충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체전문가를 모시고 논의할 계획이며, 외국인 안내시스템은 청주 국제공항에 인바운드 중심공항 육성하기 위해 설치 계획임.

< 이상식 위원장 >

- 제가 한국여행작가협회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관광인프라를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충북을 소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항 활주로 연장관련 B/C 기대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충북관광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게 '충북톡톡' 관광 안내앱 사용량을 체크바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집단적으로 모이는 관광지보다는 사찰 등에서 힐링관광하는 방향으로 준비가 필요함.

Ⅲ 회의 결과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채택(1차)
⇒ 원안의결('19. 4. 17. ~ '20. 6. 30. → '21. 6. 30. / 1년)

2.4.4. 제4차 회의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9. 16.(수) 13:3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5층)
- 참석현황 : 13명
 - 특위위원(8) : 이상식 위원장, 송미애 부위원장, 연종석 위원, 육미선 위원, 이상욱 위원, 이옥규 위원, 임영은 위원, 허창원 위원
 - 충북경제자유구역청(5) : 전형식 청장, 이강명 본부장, 박노학 기획행정부장, 이석식 개발사업부장, 윤치호 투자유치부장
- 안 건
 - 에어로폴리스 1~3지구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업무보고의 건

I 회의 내용

- 에어로폴리스 1~3지구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충북경제자유구역청)

II 질의 · 답변내용

< 임영은 위원 >

- 이주자 지구 지정문제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원활하게 협의하여 에어로폴리스지구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 이상욱 위원 >

- 지구 외 이주희망가구가 16가구이고 구성3리로 이주할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주자문제 해결을 위해 신경써주기 바람.

- ▶ (경제자유구역청장) 구성리 땅 소유주와 협의하여 빠르게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음.

〈 이상식 위원장 〉

- 1지구의 회전익 사업은 대체적으로 국내용이니 최대한 앞당겼으면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 ▶ (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51% 공정까지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 기업들은 11월부터 격납고 공사가 시작되어 준공이 당겨질 수 있음.
- 3지구의 입주수요가 105%라고 하는데 이게 현 시점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코로나19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수요변동에 대해 체크를 잘해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 ▶ (경제자유구역청장) 3지구에 있는 기업들을 2지구로 입주시키는 식으로 2지구 물량을 채워 국토부에 심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3지구의 경우 기업들을 2지구로 끌어들이었으니 다시 입주 수요를 더 받아야 함.

2.4.5. 제5차 회의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11. 25.(수) 9:3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5층)
- 참석현황 : 7명
 - 특위위원(7) : 이상식 위원장, 송미애 부위원장, 연종석 위원, 육미선 위원, 이상욱 위원, 이옥규 위원, 허창원 위원
- 안 건
 -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I 회의 내용

-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 채택

II 건의안 주요내용

- 2019년 3월 에어로케이 항공면허 취득 이후 1년 8개월간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발급이 미뤄지고 있음.
-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 대표공항으로 신수도권시대에 걸맞는 중심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거점항공사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충청북도의원 전원은 에어로케이에 대한 운항증명의 조속한 발급을 건의 드림.

III 향후계획

-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등 건의문 발송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

충청권 지역민들의 뜻을 모아 에어로케이
항공운항증명 발급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본래 군사공항이었던 청주공항은 1997년 4월,
충청권 지역민들의 염원과 지지 속에 여객터미널을
개장하고 현재의 민군 공용비행장인 청주국제공항
으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개항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던 청주국제공항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2005년 취항한 국내 1호 LCC 한성항공이 2008년 운항을 중단하면서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또한 2017년 사드문제로 인한 중국인 이용객 급감 등 어려운 시기를 겪었
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청권 지역민들의 하나된 의지는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지속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청주국제공항은 연 이용객 300만명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국제공항 중 4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지속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의 대전제는 충청권 공조라는 거버넌스를 만들었고, 한성항공 철수 이후 11년만인 2019년 3월에 에어로케이 항공면허 취득이라는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거점항공사 유치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처럼,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 공항이자, 행정수도 관문공항’ 으로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한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향후 에어로케이는 2023년까지 총 6대의 항공기를 도입하고 450여명의 운영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업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부에 신청한 운항증명(AOC) 발급의 기약없는 지연으로 적지 않은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항공면허를 취득한 후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에어로케이는 날갯짓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어로케이는 운항증명(AOC) 신청 이후 1차로 150여명의 인력 채용, 1호기 도입 등 기본 여건을 갖추고, 서류검사와 시험비행까지 무사히 완료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현장검사 시 보완을 요구한사항도 지난 9월에 제출하였으며 현재까지 추가 보완 요청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달 25일 기준 역대 최장기간인 418일째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발급이 미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어로케이와 함께 항공면허를 취득했던 ‘플라이강원’은 6개월 만에 운항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충청권 지역민들은 플라이강원 사례를 보면서 적지 않은 박탈감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은 명실공히 중부권 대표공항입니다.

충청권 지역민들이 **절전지훈(折箭之訓)**의 마음가짐으로 합심해 이루어낸 성과가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초집중화로 인한 국가 불균형 해소가 시대적 과제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도 행정수도 완성론과 함께 **신수도권시대에 걸맞는 중심공항**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점항공사**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의원 전원은 **에어로케이**에 대한 **운항증명의 조속한 발급을 위해 한 목소리로 건의**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이자, 충청권 지역민들의 염원인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충청권 지역민들의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국토부에서 **항공운항증명을 조속히 발급해 줄 것을 충청북도 의회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0. 11. 25.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2.4.6. 제6차 회의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1. 28.(목) 9: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5층)
- 참석현황 : 7명
 - 특위위원(7) : 이상식 위원장, 송미애 부위원장, 연중석 위원, 육미선 위원, 이상욱 위원, 이옥규 위원, 임영은 위원
- 안 건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동의의 건

I 회의 내용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동의

II 회의 결과

- 연중석 위원, 임영은 위원 사임서 제출(2021. 1. 22.)
-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동의의 건 ⇒ 원안의결

※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일 시 : '21. 1. 28.(목). 10:00
2.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임동현 위원(교육)

2.4.7. 제7차 회의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3. 17.(수) 10: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5층)
- 참석현황 : 10명
 - 특위위원(6) : 이상식 위원장, 송미애 부위원장, 육미선 위원, 이상욱 위원, 이옥규 위원, 임동현 위원
 - 충청북도(4) :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 임보열 관광항공과장, 김인 균형건설국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 안 건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청주공항 중심) 업무보고의 건
 - 국가철도망 구축 관련 청주국제공항 발전전략 업무보고의 건

I 회의 내용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청주공항 중심)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균형건설국)
- 국가철도망 구축 관련 청주국제공항 발전전략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문화체육관광국)

II 질의 · 답변내용

< 이상식 위원장 >

- 충남에서 주장하는 서산공항에 대한 현재 상황은 어떤지? 충청권에 공항이 실질적으로 2개가 존립하는 경우 경쟁이 불가피하므로 사전에 논리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 (문화체육관광국장) 서산공항 진척상황 등 구체화 된 것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음.

< 이상욱 위원 >

- 국제공항 역할을 위해서라면 하루에 20편 정도 국제선이 필요한데 청주국제공항은 12편 이상 뜨기 어려운 실정으로 코로나19가 해결됐을 때를 대비하여 국외 비행편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 ▶ (문화체육관광국장) 국토교통부, 국방부,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음.

< 이상식 위원장 >

-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청주도심 통과 노선, 수도권 내륙광역철도, 중부내륙지선 이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반응은?
- ▶ (균형건설국장) 국토교통부는 충북선고속화 사업 인근에 청주도심 통과 노선을 건설하는 것에 타 시도와 형평성 차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음. 그래서 우리도는 충북선은 산업철도로 도심과 10km 떨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민들 수요자 측면에서 필요하는 것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당이나 정치권에도 도움을 요청 중임.
- 중부내륙지선은 수도권내륙광역철도에 비해 중요도가 다소 낮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적절히 대응 바라며, 청주도심 통과 노선에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논리를 결합시켜 설득하면 좋겠음. 그리고 충청권광역철도가 결국 수도권과 연결돼 수도권의 여객 수요까지 교통량 분산이 가능한 점 등을 강하게 어필해 줄 필요가 있음.

▶ (균형건설국장) 청주도심 통과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인정하지만 도시철도로 봐야한다는 입장임. 하지만 우리도는 대전, 세종, 청주를 거치는 광역철도가 맞으며 광역철도로 해서 도심 통과시 공항 이용객도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로 국토부 등을 이해시키고 있음.

< 임동현 위원 >

- 청주공항 활성화 비전 및 추진 전략에 보면 준비에 대한 것은 많은데 실질적인 생산효과나 일자리 창출효과 등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 (문화체육관광국장) 인프라나 공항자체 활주로 재포장 등 사업에 치중했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취업 유발효과 등을 점검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는 기회를 갖겠음.
- 충북선 고속화사업을 보니까 목포에서 익산은 고속철도, 오송에서 강릉까지 고속화인데 익산에서 오송까지 완행열차로 돼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 ▶ (균형건설국장) 그건 일반철도로 보시면 되고, 저희는 호남선 고속선과 연결, 충북선 고속화 등을 통해 강호축을 구축할 예정임.

2.4.8. 제8차 회의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6. 22.(화) 13:3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5층)
- 참석현황 : 5명
 - 특위위원(5) : 이상식 위원장, 송미애 부위원장, 이상욱 위원, 임동현 위원, 허창원 위원
- 안 건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I 회의 내용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 활동기간 연장사유
 -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행 중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주국제공항 거점공항사 에어로케이 취항 등의 성과를 거둬.
 -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으로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코로나19 극복 이후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관광수요를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반영한 교통망개선 방안 및 청주국제공항 주변 개발사업인 에어로폴리스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정책대안 제시와 지원이 필요함.
-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위원 의견 수렴

II 회의 결과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채택(2차)
⇒ 원안의결('19. 4. 17. ~ '21. 6. 30. → '22. 6. 30. / 1년)

2.4.9. 제9차 회의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7. 8.(목) 09: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5층)
- 참석현황 : 7명
 - 특위위원(7) : 송미애 부위원장, 육미선 위원, 이상식 위원, 이상욱 위원, 이옥규 위원, 임동현 위원, 허창원 위원
- 안 건
 - 위원장 선임의 건

I 회의 내용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II 회의 결과

- 위원장 선임 : 허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4선거구)

III 향후계획

- 선임 위원장 본회의 보고 및 인사말씀(제3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이상식 前위원장 사임

- '21. 7. 5. : 위원장 사임 / 충청북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
- '21. 7. 7. : 위원장 사임 허가(의장)

2.4.10. 제10차 회의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9. 9.(목) 11: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5층)
- 참석현황 : 10명
 - 특위위원(6) : 허창원 위원장, 송미애 부위원장, 이상욱 위원, 이옥규 위원, 이상식 위원, 임동현 위원
 - 충청북도(4) : 전형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곽홍근 기획행정부장, 류재부 개발사업부장, 강성규 투자유치부장
- 안 건
 -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

I 회의 내용

-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II 질의 · 답변내용

< 송미애 위원 >

- 에어로폴리스 3지구가 산단 지정 이후에도 준비를 잘하여 제반시설 등을 갖춰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 (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지정은 단지가 어느 정도 조성돼야 지정 승인해 주는 형태로 산업단지로 출발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임.

< 이상욱 위원 >

- 에어로폴리스 2지구 16가구에 대한 이주자 문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며, 경자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에 보상받은 분들은 오히려 손해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거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경제자유구역청장) 구성리 이주자택지 보상문제에 대해 감평금액과 소유자가 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음. 재감평을 위해서는 1년 이후에나 가능하여 10월에 재감평을 시작할 예정이며,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임.
- 보상이 너무 딜레이 되니까 기존에 보상받고 절차를 다 마친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피해의식을 느끼기 시작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식시키려면 신속하게 대처하는게 필요함.
-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검토하여 경자청에서 공항관련 사업을 할 때 검토하여 다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정리하여 다시 한번 보고해주길 바람.
- 이주자들 대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잘 세워 계획대로 움직일 필요가 있음.

< 임동현 위원 >

- 에어로폴리스 3지구, 복합신도시 조성사업 토지협상 보상계획을 보면 다른데에서 문제점들이 이미 그 지역 주민들에게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 ▶ (경제자유구역청장) 최대한 주민을 설득하는 노력으로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음. 3지구는 저희가 볼 때 조금 수용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복합신도시 부분은 굉장히 험난할 걸로 생각함.
- 복합신도시의 경우 정주여건이 만들어지는 동네인데 토지보상이나 계획을 서둘러 여기 새로 입주하는 분들이나 회사들도 안정적인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 (경제자유구역청장) 보상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행정절차 부분은 최대한 단축시켜 추진하겠음.

< 이상식 위원 >

- 에어로폴리스 1, 2지구 다소 딜레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3지구나 복합신도시도 과연 우리 계획대로 같거나 하는 우려가 있음. UAM특화단지가 실제적으로 2025년이면 상용화될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 3지구에 UAM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다소 늦는게 아닌지?
- ▶ (경제자유구역청장) UAM특화 단지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함.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군데도 정부에서 한데가 없고 청주에 먼저 시범적으로 해달라, 그러면 관련기업도 들어옴. 국토부에 충북의 핵심 현안사업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행정절차도 조금 빨라질 수 있음.
- UAM에 대해 우리 충북에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깐 조금 더 정부에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면 좋겠음. 에어로폴리스 3지구와 복합신도시개발은 미호강, 철도사업도 앞당길 수 있으므로 힘들더라도 사업을 서둘러 지역현안을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림.

< 이옥규 위원 >

- 경자청 내에 분양이라든지 입주대책에 대한 실무자분들의 잦은 이동은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음.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쇼핑몰 유치가 돼서 정주여건도 갖춰지고 하면 도내 관광 활성화와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큰데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안타까움.

< 허창원 위원장 >

- 복합신도시 그리고 에어로폴리스 1·2·3지구 하면서 공항의 소음이나 이런 문제는 없는지?
- ▶ (경제자유구역청장) 1·2지구는 어차피 헬기정비, 물류 이런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들어옴. 3지구까지는 주거시설을 안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복합신도시 쪽으로 주거시설을 밀집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문제는 충분히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에어로폴리스 사업을 준비하면서 유치할 사업이 정치논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체산업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 (경제자유구역청장) UAM산업의 경우 우리가 먼저 선점하여 추진해 보려 하고 있으며, 충북이 국토 정중앙이기 때문에 헬기업체 및 물류 기업들이 청주공항쪽으로 들어오려고 함.

2.4.11. 제11차 회의

회의 개요

- 일 시 : 2022. 1. 24.(월) 10: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5층)
- 참석현황 : 11명
 - 특위위원(7) : 허창원 위원장, 송미애 부위원장, 이상욱 위원, 육미선 위원, 이옥규 위원, 이상식 위원, 임동현 위원
 - 충청북도(4) :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설호 관광항공과장, 맹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곽홍근 기획행정부장
- 안 건
 - 2022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업무보고의 건
 -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

I 회의 내용

- 2022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문화체육관광국)
-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II 질의 · 답변내용

< 이상식 위원 >

- 청주공항 활성화 이야기가 공항 개항 이후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발전된 모습은 보이지 않음. 경자청에서 추진하는 외적

인프라, 내적으로는 주민 이용객의 편의를 통해 이용객 다수를 확보해야 하지만 사업 추진 예산이 크게 보이지 않음.

- 주차비 할인도 없고, 주차 후 공항까지 이동하는 것도 힘들. 현재 국내선 이용고객은 많고 국외노선은 운행되고 있지 않으니 탄력적으로 국외노선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용객의 편의성 증진임. 이용객이 있음에도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 불편함이 쌓이면 이용에 한계가 올 수 있음. 국제선 운행이 안되고 있을 때 시설을 정비하여 필요가 있으며,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수반한 실제적인 정책이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국장) 가장 수요가 많은 경기도 지역의 버스노선을 조정한다든지 노선을 신설하여 여러 방안을 통해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편의시설에 대해 더욱 고민해보겠음.

- 에어로폴리스 1지구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된 적이 없어 2지구도 지금 120%분양되었다고 했는데 신뢰할 수가 있느냐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히 사업시행을 해 주길 바람.
- 전국에서 드론이나 UAM에 대한 각 지자체의 전략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굉장히 치열한 경쟁속에 있음. 그래서 연구센터 외에 드론이나 UAM에 대한 신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길 바람.

< 이상욱 위원 >

- 충청북도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금 공항 업무를 보는 이유가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련되어 있어서인데 현재 사업을 보면 활주로 연장 등 건설사업 연관업무가 많으므로 관광업무와 공항업무를 분리하여 조직을 개편할 의향은 없으신지?

- 활주로 연장과 관련하여 수요가 없어서 못한다는 생각보다는 활주로 연장이 돼야 수요가 생긴다고 봄. 논리를 개발하여 국토부를 설득을 통한 활주로 연장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 ▶ (문화체육관광국장) 활주로는 생겨야 국제선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저희 항공수요를 확충해서 국토부가 수요가 적다는 말에 대응하려고 양쪽으로 노력하고 있음.
- 이주자택지 16가구가 취소된 사유는? 이주자택지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6년, 8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국토부의 의견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는 부분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이게 6월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얘기를 주민에게 들었는데 주민들이 이에 대해 반발이 있으므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좀 더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음.
- ▶ (경제자유구역청장) 국토부의 의견을 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주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함. 이주자택지 내에서 그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겠음.

〈 임동현 위원 〉

- 자료를 보면 이용객이 '19년 이용객 300만을 거의 회복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로 인한 충북의 이익이 된 경제적 효과는? 제가 볼 때 사실 이용객이 는 것은 제주도 여행객이 늘어난 청주공항을 그냥 거쳐 가는 것으로 보여짐. 향후 계획을 보면 활주로 연장 이런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음. 충북 특성을 가진 공항만의 어떤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함. 공항을 잘 꾸미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청북도의 실질적인 경제가 높아지는 부분도 고민해 주길 바람.

- ▶ (문화체육관광국장) 도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많은 분들이 들러서 머무르고 숙박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심형항공교통(UAM) 특화단지 주변으로 엄청난 산단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지역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잡아주길 바랍니다.
- ▶ (경제자유구역청장) 드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착륙장, 정비센터, R&D센터 등을 만들고 이런 부품을 제조해 주는 생산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 에어로폴리스 3지구 에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 이옥규 위원 >

- 3월부터 공항셔틀버스 운행되어 이용객의 불편은 한 가지 해소가 된 거 같습니다. 에어로폴리스 1, 2지구가 생기면 소음피해민원이 생겼을 때 피해보상도 사전에 논의가 돼야 합니다. 3월 9일 대선공약에 공항 활성화를 부분을 확실하게 건의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육미선 위원 >

- 청주공항 국제선 추진상황은? 오미크론 확산 등 확진자가 1만명 이상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규 취항을 신중하게 검토바랍니다.
- ▶ (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 코로나 환자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면밀히 관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 허창원 위원장 >

- 에어로폴리스 1지구, 2지구, 3지구가 쪽 지연공사가 되고, 10년이 지나도 공정률이 낮음. 또한 맨처음 계획과 다르게 추진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척이 다각도로 빨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공항 활성화를 시키지 위해서는, 공항을 활성화 시키지만 그로 인해 우리 도민들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 더 준비해야 함. 주차장 문제, 관광상품 연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 오히려 위기인 상황을 기회로 보고 알뜰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람.

2.4.12. 제12차 회의

회의 개요

- 일 시 : 2022. 3. 24.(목) 16: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5층)
- 참석현황 : 10명
 - 특위위원(7) : 허창원 위원장, 송미애 부위원장, 이상욱 위원, 육미선 위원, 이옥규 위원, 이상식 위원, 임동현 위원
 - 충청북도(3) :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맹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기영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 안 건
 - 업무보고의 건
 - 기간별(단기·중기·장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 기간별(단기·중기·장기)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계획
 -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I 회의 내용

- 기간별(단기·중기·장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문화체육관광국)
- 기간별(단기·중기·장기)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계획 청취 및 질의답변(충북경제자유구역청)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II 회의결과

-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보고

2.5. 간담회 개최

2.5.1. 제1차 간담회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9. 7. 4.(목), 16:00
- 장 소 :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회의실
- 참석현황 : 25명
 - 도의회(15) : 이상식 위원장 등 특위위원 8명, 관계공무원 7명
 - 충청북도(3) : 관광항공과장 등 3명
 - 유관기관(7) : 남창희 한국공항공사청주지사장, 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 등 7명
- 안 건 : 유관기관별 현안사항 브리핑 및 인프라 구축현장 확인

I 간담회 내용

- 청주국제공항 인프라 구축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 청주국제공항 인프라 시설 현장 확인
- 에어로케이 노선 운영, 인력 충원 및 운영계획 보고

II 간담회 결과

- 청주국제공항 일반현황, 주요사업 현황 등에 관한 논의
- 에어로케이 사업계획을 토대로 한 정착방안 등 논의
- 청주국제공항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특위 활동방향 논의

2.5.2. 제2차 간담회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9. 10. 14.(월), 16:00
- 장 소 : 충청북도의회 회의실(신관 7층)
- 참석현황 : 26명
 - 도의회(15) : 이상식 위원장 등 특위위원 8명, 관계공무원 7명
 - 충청북도(7) : 관광항공과장 등 7명
 - 유관기관(4) :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장, 충북관광협회 사무국장 등 4명
- 안 건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관련 관광인프라·콘텐츠 확충 방안 마련 토론 및 질의응답 등

I 간담회 내용

- 관광 인프라 및 콘텐츠 확충 방안 업무보고 및 논의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관광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지원방안 마련과 정보 공유(관광상품 개발, 충북관광지 할인혜택, SNS홍보 등)
 - 청주국제공항 중심 관광자원과 협력적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 도모
 -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사업 사례 등을 통하여 청주국제공항 연계형 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II 간담회 결과

- 청주국제공항을 충북 경제의 한축으로 성장시켜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 협조

2.5.3. 제3차 간담회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20. 9. 22.(수), 16:00
- 장 소 : 특위 위원장실(신관 5층)
- 참석현황 : 11명(이상식 위원장 등 특위위원 7명, 관계 공무원 4명)
- 안 건
 - 에어로케이 항공 운항증명 조기발급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제386회 임시회 향후 특위 활동 관련 논의 등

I 간담회 내용

-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조기 발급 관련 국토부 면담 내용 공유
 - 경영권 분쟁,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운항증명(AOC) 발급 지연
 - 현장검사 중 보완요구사항 보완 조치시 종합검토 후 조기발급 추진
 - 에어로케이 추가 자본력 확보 및 지자체 지원방안 검토 필요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특위 활동기간 연장('21. 6. 24.본회의 의결)에 따른 향후 특위 활동 관련 논의 등

II 간담회 결과

- 에어로케이 현장검사 대응지원, 국토부 운항증명 조기발급 협조
- 신규취항 시 재정지원 등 안정화 지원책 강구 요청(청주시와 협의)
- 충북도, 한국공항공사, 충북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활동 추진

2.5.4. 제4차 간담회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20. 10. 5.(월), 11:00
- 장 소 : 특위 위원장실(신관 5층)
- 참석현황 : 3명(이상식 위원장, 송미애 부위원장, 관광항공과장)
- 안 건 : 에어로케이 항공운항 증명 발급 관련 상황 및 향후 계획 보고의 건

I 간담회 내용

- 운항증명 발급 추진상황 점검
- 운항증명 발급 관련 현장검사시 지적된 보완요구사항 확인
 - 보완 조치계획 9월 8일까지 제출 예정
- 코로나19의 불확실한 상황 등에서 취항시 고정비용 추가 소요 우려
 - 운항증명 발급 시 자본투자유치 등 자본금 확보계획서 제출(9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신규 취항 시 국내선 경쟁 가열에 대한 대책 논의

II 간담회 결과

- 국토부 운항증명(AOC) 발급관련 동향파악 및 발급 지속건의
 -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활용한 국토부 운항증명 발급 촉구
- 에어로케이 출범 대비 취항식(청주~제주) 지원 및 홍보 마케팅 강화

2.5.5. 제5차 간담회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20. 11. 2.(월), 11:30
- 장 소 : 섬섬옥수
- 참석현황 : 15명
 - 도의회(4) : 이상식 위원장, 송미애 부위원장, 관계공무원 2명
 - 충북도(3) :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3명
 - 충북 항공·관광산업육성 범도민 추진위(6) : 유철웅 위원장 등 6명
 - 유관기관(2) : 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 등 2명
- 안 건 : 에어로케이 항공운항 증명 추진상황 공유 등

I 간담회 내용

-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및 사업추진 현황 공유
 - 에어로케이 인력고용 등으로 재무부담 가중
 - 자본금 추가 증자 검토 중이나 운항 증명이 없어 증자에 대한 우려
- 국제노선 취항 정부 건의 촉구(인천공항 ⇒ 지방공항 확대)
- 보완 요구건수가 플라이 강원과 비교하여 두 배로 운항증명 조기 발급 촉구에 대한 명분 확보

II 간담회 결과

- 특위 차원 촉구 성명서 발표(운항증명 조기 발급, 지방공항 국제선 허용 등)
- 도의회 및 범도민 추진위에서 항공운항증명 조기 발급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

2.5.6. 제6차 간담회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21. 1. 13.(수), 14:00
- 장 소 : 특위 위원장실(신관 5층)
- 참석현황 : 10명
 - 도의회(5) : 이상식 위원장 등 5명
 - 충북도(3) : 임보열 관광항공과장 등 3명
 - 유관기관(2) : 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 등 2명
- 안 건 : 운항증명 발급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및 대응전략 논의

I 간담회 내용

- 에어로케이 운항증명(AOC) 추진경과 보고
 - 국토부에서 운항증명 발급('20.12.28.)시 안전관리 이행조건 제시
 - 에어로케이 전담감독관 지정 및 안전운항체계 유지여부 종합점검
 - 재무건전성 확보 계획 등 주기적으로 이행상태 확인
- 에어로케이 운송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및 논의

II 간담회 결과

-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안정화 지원대책 추진
 -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거점항공사 재정지원방안 논의
 - 취항노선 홍보 및 신규노선 개척 마케팅 지원 등
- 코로나19 진정 시 국제선 취항 및 추가인력 채용

2.5.7. 제7차 간담회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21. 1. 26.(화), 15:00
- 장 소 : 특위 위원장실(신관 5층)
- 참석현황 : 5명
 - 도의회(3) : 이상식 위원장, 송미애 부위원장, 이상욱 위원
 - 유관기관(2) : 신용구 청주국제공항장 등 2명
- 안 건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협의 등

I 간담회 내용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논의
 - 충청권 교통망 확보가 중요(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한 접근성 개선)
 - 코로나19 종식 이후 대비 공격적인 마케팅 등으로 공항 활성화 추진
-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 취항에 따른 협조
 - 사무실 및 편의시설 제공 등 거점항공사 정착에 적극 협조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활주로 연장 필요 의견 제시

II 간담회 결과

-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소통 및 정보 공유
 - 연락망 구축 및 청주국제공항 관련 자료 공유
- 코로나19 상황 안정시 특위에서 청주국제공항 방문 추진

2.6. 토 론 회

2.6.1. 항공·관광활성화 정책 토론회(2019년)

토 론 회 개 요

- 일 시 : 2019. 11. 21.(목) ~ 11. 22.(금)
- 장 소 : 보은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 참석현황 : 50명
 - 특위위원(4) : 이상식 위원장, 송미애 부위원장, 임영은 위원, 허창원 위원
 - 충북 항공·관광산업 육성 범도민 추진위(46) :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 주요내용
 - 충북 항공·관광산업 육성 관련 추진상황, 특강 등
 - 주요관광지 체험(속리산 세조길)

I 토론회 주요내용

- 청주국제공항 중심 항공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발전방안 모색
- 거점항공사 면허 발급에 따른 정책 건의사항 및 활성화 방안 논의 등

II 토론회 사진



토론회 사진



토론회 사진

2.6.2. 항공·관광활성화 정책 토론회(2020년)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0. 11. 23.(월)
- 장 소 : 괴산 소금랜드
- 주최/주관 : 충청북도 / 충청북도 관광협회
- 참석현황 : 20명
 - 특위위원(3) : 이상식 위원장, 송미애 부위원장, 임영은 위원
 - 충북 항공·관광산업 육성 범도민 추진위(17) : 이승기 관광항공과장 등 17명
- 주요내용 : 코로나19 이후의 관광변화 및 대응전략 정책토론회 등

I 토론회 주요내용

- 뉴노멀시대 지역관광 정책방향 특강, 괴산군 관광정책 청취
- 코로나 이후 관광 변화에 대응한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
 - 에어로케이 조속한 항공운항증명 발급을 통한 운항으로 관광수요 창출

II 토론회 사진



토론회 사진



토론회 사진

2.7. 기관 및 현장방문

2.7.1.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제주도 현장방문

현장방문 개요

- 일 시 : 2021. 11. 5.(금) ~ 11. 6.(토)
- 장 소 : 제주도
- 방 문 자 : 7명
 - 특위위원(7) : 허창원 위원장, 송미애 부위원장, 육미선 위원, 이상식 위원, 이상욱 위원, 이옥규 위원, 임동현 위원
- 주요내용
 - 제주공항·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방문
 - 충북·제주도의회 간담회(공항·관광 활성화 관련 공생방안 논의)

I 현장방문 개요

①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현안브리핑

- 일 시 : 11. 5.(금)
- 장 소 : 청주국제공항
- 주요내용 : 청주국제공항 현안사업 등 청취 및 활성화 방안 논의

② 충북·제주도의회 간담회

- 일 시 : 11. 5.(금), 14:00 ~ 15:00
- 장 소 : 제주도의회
- 주요내용 : 공항·관광 활성화 관련 공생방안 논의 등

③ 제주도 공항소음민원센터 방문

- 일 시 : 11. 5.(금)
- 장 소 : 제주도 공항소음센터
- 주요내용 : 공항주변 소음피해 지원사업 및 상생발전 방안 브리핑 및 질의응답

④ 제주4·3평화공원 방문

- 일 시 : 11. 6.(토)
- 장 소 : 제주시 봉개동
- 주요내용 : 제주4·3평화공원 참배 및 평화기념관 관람

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방문

- 일 시 : 11. 6.(토)
- 장 소 : 독자봉전망대(서귀포시 성산읍)
- 주요내용 : 제주 제2공항 현황 확인 및 현장 시찰

Ⅱ 방문 주요내용

①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현안브리핑

- 공항특위 주요의견
 - 국제선 인프라 확충 및 노선 다변화, 활주로 확장 필요
 - 창고 등을 마련하여 물류운송도 가능한 공항으로 준비 필요
 -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 대책 마련 요구
 - 공항과 연계한 충북관광사업 개발 필요
 - 경기남부지역 이용객 유치를 위한 방안 강구
 - 충청북도, 청주시, 공항공사 등이 협력하여 사업 추진

○ 충청북도, 공항공사 주요답변

- 지자체와 공항공사 간 협력을 통해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겠음.
- 경기남부 이용객을 많이 유치하여야 노선 신설에 용이하며, 노선이 신설되어야 지역민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음.

② 충북·제주도의회 간담회

- 충북·제주도 의회 간 공항, 관광 활성화 상호교류 지속 노력
- 제주도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등 청취
-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등 시설 현황 견학

③ 제주도 공항소음민원센터 방문

- 제주도 공항소음민원센터 현황 및 주요사업 브리핑
 - 민원접수 및 소통강화 사업(공항주변 주요 민원 및 대책)
 - 공항소음측정·관측사업, 공항소음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등
- 공항소음 민원해결 방법, 관련 법률 등에 대한 질의응답

④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방문

- 제주 제2공항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확인
- 제주 제2공항 사업예정지 현장 시찰

IV

현장방문사진



청주국제공항 간담회



청주국제공항 점검



제주도의회 방문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 방문



제주4·3공원 참배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방문

2.8. 5분자유발언 및 기타활동

2.8.1. 5분자유발언

개 요

- 일 시 : 2019. 6. 10.(월), 14:00
- 장 소 :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
- 발언의원 : 이상욱 특별위원회 위원
- 내 용 :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민 특별지원 대책 마련 촉구

I 추진 배경

-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거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통한 재정착과 생활안정 도모
- 사업구역 편입된 주민들에게 충분치 못한 보상금액과 적정한 지원 방안 부재로 이주를 통한 재정착과 생활안정에 어려움 발생 예상

II 주요내용

-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항공기·전투기 소음으로 피해가 크고, 공익 사업으로 주민들이 두 차례의 이주의 아픔을 겪은 곳으로 새로운 정착지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
-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필요
- 현실적인 이주대책 수립과 보상 현실화 등 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한 도 차원의 특별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민 특별지원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 제11선거구 이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거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통한 재정착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현실적인 이주대책 수립과 보상 현실화 등을 위한 도 차원의 특별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2016년부터 내수읍 입동리 및 신안리 일원에 710억원 (도50%, 시50%)의 사업비를 투입해 320,627㎡(9.7만평) 규모의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활용하여 충청북도의 경제수준을 성장시킬 교두보적인 사업이며, 또한 강호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역량을 높여 세계속의 충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 기관인 경자청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사업구역에 편입된 주민들에게는 충분치 못한 보상금액과 적정한 지원방안의 부재로 이주를 통한 재정착과 생활안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현재 조성 중인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청주국제공항 인근으로 민간 항공기와 제17전투비행장의 전투기 소음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곳입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소음 영향도가 75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곳 주민들은 80웨클 이상의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본 법률에서 제외한다는 상위법 규정에 의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채, 악조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을 말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제외하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공항은 포함한다.**

또한, 주민들은 1976년 제17전투비행장 건설로 첫 번째 이주를 해야 했고, 1991년 청주국제공항건설로 두 번째 이주를 했으며, 이번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 세 번째 이주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주시민, 충청도인,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편의를 위해 이용되는 청주공항의 소음과 그 연계사업의 추진으로 초래되는 불편과 피해를 우리 모두가 그 곳 주민들만의 일로 치부하는 편협된 사고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정든 고향과 집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슬픈 심정과 지난 두 차례의 이주로 인한 상실감, 그리고 이미 고령의 나이에 들어선 관계로 새로운 정착지에서 또다시 집을 짓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을 위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세 번째 이주를 감내해야 하는 주민들이 현행 법규에 따라 산정된 최소한의 보상금액만으로 현재의 토지와 집에 거주하며 살아오던 생활을 새로운 정착지에서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헌법에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식선에서 볼 때, 정당한 보상이란 보상 이전의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한다고 봅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당연한 조치이며, 주거복지 지원 차원에서라도 이주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에어로폴리스 조성이라는 공익사업의 명분하에 기존의 생활터전을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그리고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충북의 지속적 발전을 견인해 낼 수 있기 위해, 현실적인 이주대책 수립과 보상 현실화 등 주민들의 안정적 재정착을 위한 도 차원의 특별 지원 대책마련을 촉구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8.2. 이스타항공, 신규 국제정기노선 취항식

취항식 개요

- 일 시 : 2019. 10. 17.(월)
- 장 소 : 청주국제공항
- 주 최 : 이스타항공
- 참석현황 : 50명
 - 특위위원(6) : 송미애 부위원장, 연종석 위원, 이상욱 위원, 이옥규 위원, 임영은 위원, 허창원 위원
 - 충청북도 및 유관기관(44) : 이장섭 정무부지사 및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등
- 주요내용 : 이스타항공 중국 장가계·하이커우 신규 국제정기노선 취항식

I 주요내용

- 이스타항공, 중국 장가계·하이커우 신규 국제정기노선 취항식 행사
 - 축사, 테이프 커팅, 꽃다발 증정, 기념촬영 등

II 행사 사진



취항식 기념촬영



취항식 테이프 커팅

2.8.3. 청주국제공항 300만명 달성 기념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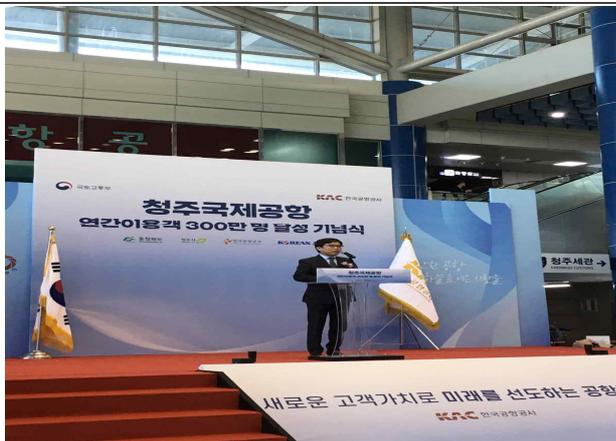
기념행사 개요

- 일 시 : 2019. 12. 24.(화)
- 장 소 : 청주국제공항
- 주 최 :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 참석현황 : 100명
 - 특위위원(6) : 이상식 위원장, 송미애 부위원장, 육미선 위원, 이상욱 위원, 이육규 위원, 임영은 위원
 - 충청북도 및 유관기관(94명) : 이장섭 정무부지사,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 94명
- 주요내용 : 청주국제공항 300만명 달성 기념행사

I 주요내용

- 청주국제공항 300만명 달성 기념행사
 - 축하공연, 시상, 기념사 및 격려사, 이벤트 등

II 행사 사진



기념행사 축사



기념행사 배너 퍼포먼스

contents

제3장

주요 활동 결과

3.1. 특위 활동 결과

3.2. 특위 활동의 아쉬운 점

3.3. 정책제언

3.4. 맺음말

3.1. 특위활동 결과

3.1.1.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결과

① 청주국제공항 사업 추진상황 종합점검 및 지원

-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관련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등 보고(수시)
- 청주국제공항 현안사항에 관한 질의 및 대책 마련 논의
- 청주국제공항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 및 항공업계 지원대책 점검
- 충북 항공·관광산업 육성 범도민 추진위원회 활동

② 거점항공사 유치 및 취항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활동

- 유관기관(에어로케이,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현안사항 브리핑 및 토의
 - 청주국제공항 인프라 구축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논의
 - 에어로케이 항공기·노선운영과 인력충원 및 운영계획 청취
-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 채택

③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 관광·광역교통망사업 점검

- 코로나19 시대 이후 청주국제공항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 다양한 마케팅으로 공항 인지도 제고 및 국제노선 다변화 방법 강구
 - 관광인프라·콘텐츠 확충방안에 관한 의견 교환
 - 항공·관광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통한 관광사업 등 육성 방안 모색

- 청주국제공항 중심의 광역교통망 사업 확충 노력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청주국제공항 중심) 업무보고 및 국가철도망 구축 관련 청주국제공항 발전 전략 논의
 - 수도권·경기남부 지역의 청주국제공항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광역 철도망 구축계획 점검

④ 청주국제공항 주변 에어로폴리스 사업 등에 대한 점검 및 의정발언

- 청주국제공항 관련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 등 업무보고
 - 에어로폴리스 1~3지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논의
 - 청주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용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논의
-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민 특별대책 강구(5분자유발언)

3.1.2.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 성과

① 청주국제공항 행정수도 관문공항 및 중부권 거점공항 도약 기틀 마련

-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300만 명 돌파(2019년), 국내선 최대운송실적(2021년)
-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국토부, '19.12.)과 거점항공사 출범('21.4.) 등으로 노선 다변화 기반 마련
- 공항이용객 500만 명 대비 국내선·국제선 청사확충, 평행유도로, 주기장 확장 등 시설인프라 확충
- 철저한 방역체제로 청정공항 구축(국제 보건인증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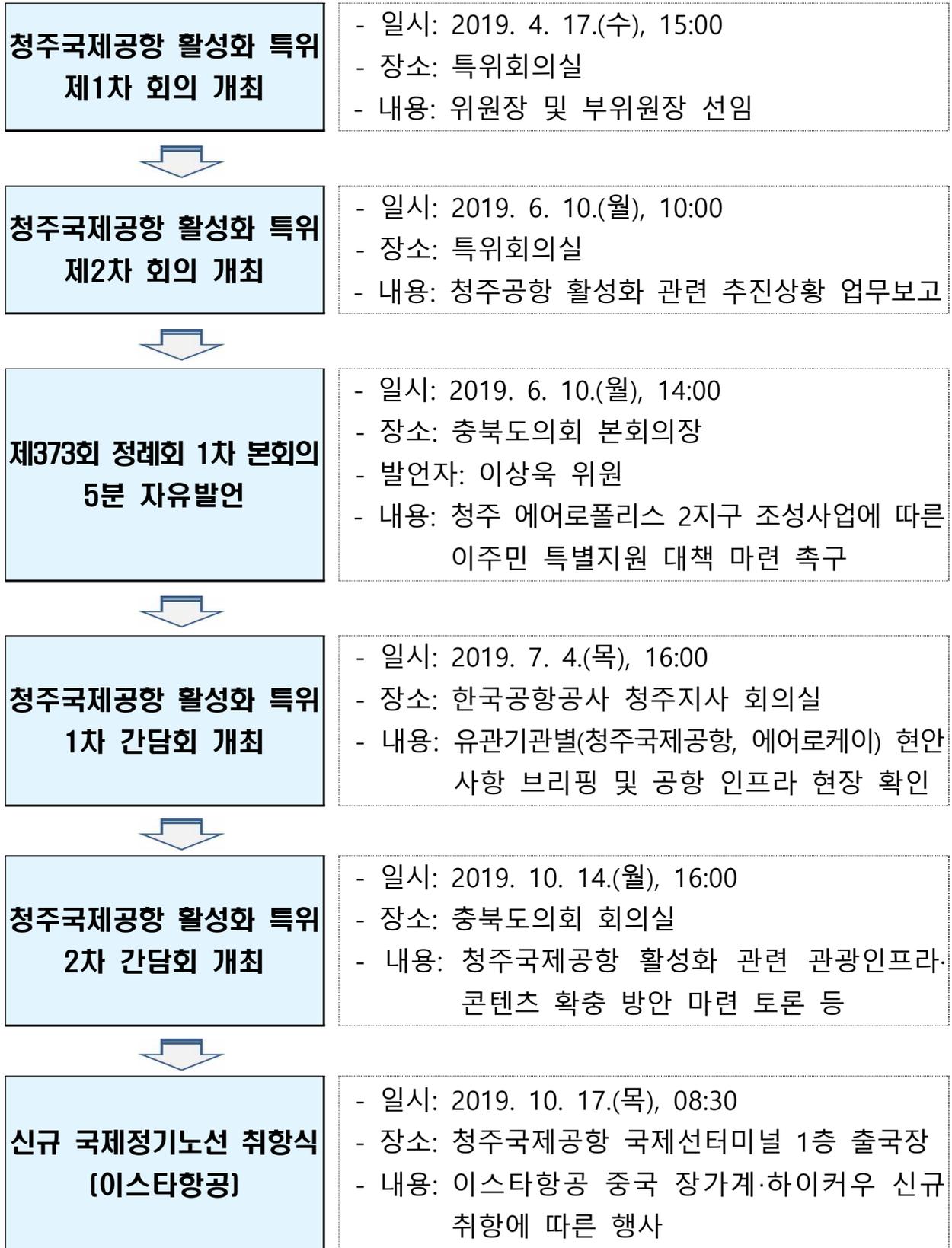
② 청주국제공항 거점 신규 항공사(에어로케이) 출범 및 지원

-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운항증명 발급을 위한 다양한 활동
 - 충청북도, 에어로케이와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논의
 -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 채택
- 에어로케이 유치 및 취항으로 노선 다변화 및 지역인재 채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2022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에어로케이 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322백만 원)

③ 청주국제공항 주변 에어로폴리스 개발사업 가속화

- 에어로폴리스 1지구 항공정비 및 항공운송, 2지구 핵심 항공정비 부품산업 및 기타장비 제조사업, 3지구 항공부품제조·복합물류 산업·항공R&D산업 추진
- 에어로폴리스 2지구(지구외) 이주주택지 조성사업 민원 해결 노력

3.1.3.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연혁



**항공관광활성화
정책토론회
(2019년)**

- 일시: 2019. 11. 21.(목) ~ 11. 22.(금)
- 장소: 보은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 내용: 충북 항공·관광산업 육성 관련 추진상황 등



**청주국제공항 300만명
달성 기념행사**

- 일시: 2019. 12. 24.(화), 14:00
- 장소: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여객청사
- 내용: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300만명 달성 기념행사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위
제3차 회의 개최**

- 일시: 2020. 6. 9.(화), 09:00
- 장소: 특위회의실
- 내용: 포스트코로나 대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등 업무보고,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위
제4차 회의 개최**

- 일시: 2020. 9. 16.(수), 13:30
- 장소: 특위회의실
- 내용: 에어로폴리스 1~3지구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업무보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위
3차 간담회 개최**

- 일시: 2020. 9. 22.(수), 17:30
- 장소: 특위위원장실
- 내용: 에어로케이 항공 운항증명 조기발급 추진 상황 보고 및 향후 특위활동 관련 논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위
4차 간담회 개최**

- 일시: 2020. 10. 5.(월), 11:00
- 장소: 특위위원장실
- 내용: 에어로케이 항공 운항증명 발급관련 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위
5차 간담회 개최**

- 일시: 2020. 11. 2.(월), 11:30
- 장소: 섬섬옥수
- 내용: 항공·관광활성화 정책토론회 추진계획 일정 협의,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추진상황 공유 등



**항공·관광활성화
정책토론회
(2020년)**

- 일시: 2020. 11. 23.(월)
- 장소: 괴산 소금랜드
- 내용: 코로나 이후의 관광변화 및 대응전략 논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위
제5차 회의 개최**

- 일시: 2020. 11. 25.(수), 09:30
- 장소: 특위회의실
- 내용: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 채택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위
6차 간담회 개최**

- 일시: 2021. 1. 13.(수), 14:30
- 장소: 특위위원장실
- 내용: 운항증명 발급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및 대응전략 논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위
7차 간담회 개최**

- 일시: 2021. 1. 26.(화), 15:00
- 장소: 특위위원장실
- 내용: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논의 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위
제6차 회의 개최**

- 일시: 2021. 1. 28.(수), 09:00
- 장소: 특위회의실
- 내용: 위원사임 동의의 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위
제7차 회의 개최**

- 일시: 2021. 3. 17.(수), 10:00
- 장소: 특위회의실
- 내용: 국가철도망 구축관련 청주국제공항 발전 전략 등 업무보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위
제8차 회의 개최**

- 일시: 2021. 6. 22.(화), 13:30
- 장소: 특위회의실
- 내용: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위
제9차 회의 개최**

- 일시: 2021. 7. 8.(목), 09:00
- 장소: 특위회의실
- 내용: 위원장 선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위
제10차 회의 개최**

- 일시: 2021. 9. 9.(목), 11:00
- 장소: 특위회의실
- 내용: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위
현장방문**

- 일시: 2021. 11. 5.(금) ~ 11. 6.(토)
- 장소: 제주도
- 내용: 제주공항·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방문 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위
제11차 회의 개최**

- 일시: 2022. 1. 24.(월), 10:00
- 장소: 특위회의실
- 내용: 2022년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추진계획 등 업무보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위
제12차 회의 개최**

- 일시: 2022. 3. 24.(목), 16:00
- 장소: 특위회의실
- 내용: 기간별(단기·중기·장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등 업무보고 및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3.2. 특위활동의 아쉬운 점

- “세종시 관문 공항 및 중부권 거점공항 도약”을 위해 항공운항 증명서, MRO산업, 관광 및 교통인프라 구축 등 다수의 소관 위원회에 걸쳐 있는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 업무에 대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공항발전 향상을 도모하고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선 다변화 및 관광개발 상품개발 추진에 어려움이 컸으며, 또한 다른 공항을 방문하여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특위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
- 지역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발급이 지연 되면서 자본금 잠식으로 취항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취항 후에도 코로나19로 국제선 운영을 하지 못해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부 지원했으나, 지자체가 직접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하는데 한계가 있음.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관광·항공·광역교통망 구축 및 에어로폴리스 사업 등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특위 활동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3.3. 정책 제언

3.3.1. 국제노선 다변화 및 공항인프라 확충에 행정력 집중필요

- 코로나19 위기극 복 이후 국제선 노선 신속한 운항재개 및 노선 다변화를 강구하여 공항 이용객 증가시켜 중부권 거점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 글로벌시대에 국제공항으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하여 청주 국제공항 광역교통망 구축, 활주로 연장, 국제여객 터미널 확충 등 공항인프라가 개선되어야 함.

3.3.2. 청주국제공항 연계 관광활성화 대책 강구

-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이 다른 지역을 가기위한 운송 수단만으로 이용하기보다는 1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주변관광지를 개발하고 도내 유명관광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선 섯다운으로 외국인 관광객 입국 불가 등으로 국내 관광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데 코로나 시대 이후 상황에 대해 예측하여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3.3.3. 에어로폴리스 등 청주국제공항 주변 개발 신속 추진

- 청주국제공항 주변에 항공정비, 항공부품제조, 항공R&D산업 등 에어로폴리스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항공관련 기업을 다수 유치하고,
- 충청북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는 복합신도시는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미호강 프로젝트 및 주변 거점공간과 연계하여 클러스터화로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3.3.4. 국토부 제4차 광역철도 구축계획과 연계한 공항 활성화 대책 강구

- 충청권 광역철도,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등 청주국제공항과 연계된 국가철도망을 잘 활용하여 충청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이용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 청주국제공항 역세권 개발도 철저히 준비하여 공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함.

3.4. 맺 음 말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년 2개월 동안 청주국제공항이 행정수도 관문공항 및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북도의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고,
- 지역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 한국공항공사 청주공사, 충북관광협회 등과의 간담회, 토론회, 현장방문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연구 및 제언하였으며, 청주국제공항 방문을 통해 인프라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침.
- 이런 다양한 활동으로 2019년 12월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300만명 달성하였고, 충북도민의 염원이었던 거점항공사(에어로케이)를 유치하여 지난 4월부터 본격 취항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음.

-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특위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허창원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특위 위원은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특위 활동에 매진하여 위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 비록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위 활동은 종료되지만 공항이용객 500만 돌파, 공항 인프라 확충, 국제선 노선 재개,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관광산업에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contents

제4장

부 록

- 4.1. 주요 언론보도 자료
- 4.2. 특별위원회 회의록
- 4.3. 충청북도 업무보고
- 4.4. 충청북도 간담회 보고자료

4.1. 주요 언론보도 자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위 구성

충북도의회, 위원장에 이상식·부위원장엔 송미애 체계·종합적 정책대안 제시... 거점공항 도약 기대

충북도의회는 17일 제3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원특위 위원장에는 이상식 의원(청주7), 부위원장에는 송미애 의원(비례대표)을 선임했다. 위원에는

연종석(증평), 육미선(청주5), 이상욱(청주11), 이육규(비례), 임영은(진천1), 허창원(청주4) 등 6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지원특위는 도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이용자 중심의 개별적인 지원제도

제안 등 거점항공사 취항을 계기로 '세종시 관문공항 및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구성했다.
이상식 특위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정이 중심성성(衆心成城)의 일치단결된 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인 특위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재동기자
tjrhf0@cctimes.kr

충청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구성(2019. 4. 17.)

忠清日報

2019년 04월 18일 (목)
02면 종합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구성



충북도의회는 17일 제3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상식 의원(청주7·더불어민주당·사진)을 부위원장에 송미애 의원(비례대표·*)을 선임했다.
위원장을 포함 8명이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특위는 도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이용자 중심의 개별적인 지원제도 제안 등 거점항공사 취항을 계기로 '세종시 관문공항 및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지원을 위해 구성했다.

이상식 특위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정이 중심성성(衆心成城)의 일치단결된 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적인 특위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민기자

동양일보

2019년 04월 18일 (목)
05면 종합

충북도의회 '청주공항' 특위 구성

충북도의회는 17일 3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이상식(청주7) 의원이 위원장, 송미애(민주당 비례대표)이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위원장을 포함 8명이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특위는 도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이용자 중심의 개별적인 지원제도 제안 등 거점항공사 취항을 계기로 '세종시 관문공항 및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하고 있는 청주공항 활성화지원을 위해 구성했다.

이 위원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정이 중심성성(衆心成城)의 일치단결된 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인 특위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충북일보

2019년 04월 18일 (목)
02면 종합

이상식 도의원, 청주공항 '특위 위원장'

송미애 의원 부위원장 선출
활성화 지원 동 정책 마련

까지 활동한다. 위원장에는 도의회 대변인 이상식 의원이 선출됐고 부위원장은 송미애(비례) 의원이 뽑혔다.

충북도의회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식(청주7) 의원이 선출됐다.

도의회는 17일 3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특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됐고 오는 2020년 6월 30일

연종석(증평)·육미선(청주5)·이상욱(청주11)·임영은(진천1)·허창원(청주4)·이육규(비례) 의원이 위원으로 뽑혔다.

자유한국당인 이육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상식 위원장은 "세종시 관문공항 및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순자기자

충청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구성(2019. 4. 17.)

도의회, 청주공항·충북선 고속화 지원 팔 걷었다

공항특위 "미래지향적 대안 모색" 철도특위 "오송연결선 관철 집중"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위해 충북도의회가 지원 활동에 나섰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0일 2차 회의를 열어 △관광·항공분야 △광역교통망 △MRO산업 및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어 거점 항공사 에어로-K의 항공운송 면허 취득 등으로 인한 공항 인프라 확충, 항공노선 다양화, 공항 접근성 향상, 국외 관광객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 공항 활성화 방안 등에 토론을 했다.

이상식 특위 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10일 2차 회의를 열어 광역교통망 구축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를 시작으로 공항발전을 위해 보다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해 청주공항이 지역경제활성화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데 특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이날 여창희 균형건설국장과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중 하나인 오송연결선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간담회를 했다.

오송연결선 사업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근본 목적인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구축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안전과 기술적인 문제로 국토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KDI의 적정성 검토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연철훈 특위 위원장은 "강호축 개발의 근간이 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성공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송연결선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특위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혜주기자

제2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회의(2019. 6. 10.)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방안 모색

충북도의회 현안추진특위 개최

충북도의회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등 충북 핵심 현안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사업 지원에 들어갔다.

도의회 청주공항활성화지원 특위는 10일 회의를 열어 거점 항공사 에어로 케이의 항공운송 면허 취득 등을 계기로 세종시 관문공항과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하고 있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공항특위는 △관광·항공분야 △광역교통망 △MRO(항공정비)산업 및 에어로폴리스 2지구 등 분야별 집의시간을 가졌다.

이어 공항 인프라 확충, 항공노선 다양화, 공항 접근성 향상, 국외 관광객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 공항 활성화 방안 등에 토론도 벌였다.

이상식 위원장을 비롯한 대다수 위원들은 청주국제공항이 관문공항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분야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공항특위는 청주공항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공항발전을 위해 보다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해 청주공항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데 특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지원 특위(위원장 연철훈)도 이날 간담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최근 안전과 기술적인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오송 연결선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오송연결선 사업은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근본 목적인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구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최근 안전과 기술적인 문제로 국토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적정성 검토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진행상황과 오송 연결선 사업의 반영을 위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눴다.

연 위원장은 "강호축 개발의 근간이 되는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성공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송연결선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특위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자경수 기자

제2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회의(2019. 6. 10.)

“청주공항, 에어로K 유치 계기로 지역 활성화 기회 잡자”

이상식 충북도의회 특위 위원장

세종시 관문·중부권 거점공항 도약- 선순환구조 구축

“격납고·계류장 부지 에어로폴리스 3지구에 입주 가능”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위 특별위원회’는 10일 청주공항의 거점항공사 ‘에어로-K’의 항공운송면허 취득 등을 계기로 세종시 관문공항과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상식 특위 위원장은 이날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2차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청주공항 활성화가 공항안의 활성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쪽으로 선순환구조가 구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거점항공사 ‘에어로K’ 유치를 기점으로 발전된 계기를 만들었지만 이것이 전부라 아니라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에어로폴리스 1지구를 원하고 있지만 1지구는 공영율이 51%로 활용방안이 범람되어 계획이 다시 수립돼야 할 것”이

이번 특위의 주요활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에어로K의 청사 부지 등과 관련해서는 “에어로K는 격납고와 계류장 부지 등을 위해

라며 “2지구는 이미 16개 기업과 MOU를 체결해 지리나 없는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3지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날 청주공항특위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관련해 공항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망 개선, MRO산업 및 에어로폴리스 2지구 등에 대한 협의시간을 갖고 공항활성화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글·서진/김미정

제2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회의(2019. 6. 10.)

청주공항 활성화·충북선 고속화 ‘속도’

도의회, 특위 열고 본격 지원
“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 집중”

충북도의회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등 충북 핵심 현안 추진을 위한 특위를 잇달아 열고 사업 지원에 들어갔다.

도의회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는 10일 2차 회의를 열어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K)의 항공운송 면허 취득 등을 계기로 세종시 관문공항과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도약하고 있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본격적

인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특위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관련해 △관문-항공사 △광역교통망 △항공공비(MRO)산업 및 에어로폴리스 2지구 등 분야별 협의시간을 가졌다.

이어 공항 인프라 확충, 항공노선 다양화, 공항 접근성 향상, 국외 관광객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 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이상식 위원장을 비롯한 대다수 위원들은 청주국제공항이 관문공항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분야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들 특위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식 특위 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공항발전을 위해 보다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해, 청주국제공항이 지역경제활성화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데 특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특위도 같은 날 간담회를 열고 여타면제 후 최근 안전과 기술적인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오송 연결선 사업 진행상황에 대

해 근황간담회장과 간담회를 했다.

오송연결선 사업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근본 목적인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구축하는데 특필요한 사업이지만, 최근 안전과 기술적인 문제로 국토교통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연철충 특위위원장은 “강호축 개발의 근간이 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성공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송연결선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특위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홍민기자

제2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회의(2019. 6. 10.)

“에어로폴리스 이주민 지원책 마련을”

이상욱 의원(청주11)

충북도의회 이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11)은 10일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민 특별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373회 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익을 위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세 번째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이 현재의 토지와 집에 거주하며 살아오던 생활을 새 정착지에서 유지할 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사업구역에 편입된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보상금액과 적정한 지원방안의 부재로 이주를 통한 재정착과 생활안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말했다. 특히 “헌법에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식선에서 정당한 보상이란 보상 이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당연한 조치”라며 “주거복지 지원 차원에서라도 이주하기 전에 현실적인 이주대책 수립과 보상 현실화 등 특별지원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내수읍 입동리 및 신안리 일원에 710억원(도비 50%, 시50%)의 사업비를 투입해 32만 627㎡(9만 7000평) 규모의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민기 기자 mgnews2@kcpa.co.kr

청주 에어로폴리스2지구 주민 특별지원을

이상욱 충북도의원

【청주】청주국제공항인근에 조성중인 에어로폴리스 2지구 거주민들의 현실적인 이주대책 수립 등을 위한 도 차원의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욱<사견> 도의원은 10일 열린 제37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업수행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사업구역에 편입된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보상금액과 적절한 지원방안 부재로 재정착과 생활안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북도와 청주시는 2016년부터 청주 내수읍 입동리 및 신안리 일원에 710억원(도비 50%, 시50%)의 사업비를 투입해 32만 627㎡ 규모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조성 중인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청주국제공항 인근으로 민간항공기와 제17전

투비행장의 건투기소음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곳”이라며 “공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소음영향도가 75데클(WECPNL) 이상인 경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곳 주민들은 80데클 이상의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항공작전기지를 결하는 공청은 년 법률에서 제외한다는 상위법 규정에 의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채 역조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주민들은 1976년 제17전투비행장 건설로 첫 번째 이주를 해야 했고, 1991년 청주국제공항건설로 두 번째 이주를 했으며, 이번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 세 번째 이주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로 기자

제37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9. 6. 10.)

충청매일

2019년 07월 05일 (금)
02면 종합

청주공항 지원 특위, 공항 활성화 힘 보탠다

인프라 구축현장 방문·유관기관 간담회 가져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공항을 직접 방문해 인프라 구축현장을 둘러보는 등 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상식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4일 청주공항 내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서 충북도와 에어로케이, 한국공항공사 등 청주공항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사진)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제373회 정례회 제2차 특위회의에서 충북도로부터 주요업무 보고 받고 본회 특위원들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특위원들은 청주국제공항 인프라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에어로케이의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식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은 남창희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장과 신정환 에어로K 운항기획본부장으로부터 공항 인프라 구축사업 현황과 항공기



노선운영, 인력 충원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어 국내선 여객터미널 증축사업과 계류장 확장공사 등 현재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인프라 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이상식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청

주공항 활성화 관련 사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에어로K의 향후 운영계획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청주국제공항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병갑기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1차 간담회(2019. 7. 4.)

청주공항지원특위, 공항활성화 본격 행보

국내선 터미널 증축·계류장 확장공사 등 현장 방문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4일 공항을 방문해 인프라 구축현장을 둘러보는 등 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상식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이날 청주공항 내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서 충북도와 에어로케이, 한국공항공사 등 청주공항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도의회 373회 정례회 2차 특위회의에서 충북도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본격 특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남창희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장과 신정환 에어로케이 운항기획본부장으로부터 공항 인프라 구축사업 현황과 항공기 노선운행, 인력 증원, 향후 운영계획 등을 들었다.

이어 국내선 여객터미널 증축 사업과 계류장 확장공사 등 현재 청주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인프라 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 사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에어로케이와 향후 운영계획을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청주공항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명수 기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1차 간담회(2019. 7. 4.)

충북도의회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가동'

특위, 간담회 개최-인프라 조성사업 구축 현장 방문 에어로케이 향후 운영계획 등 청취·지원방안 논의도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식)가 공항을 직접 방문해 인프라 구축현장을 둘러보는 등 본격적인 특위가동에 나섰다.

청주공항지원특위는 4일 청주공항 내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서 충북도와 에어로케이항공, 공항공사 등 청주공항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청주공항 인프라 조성 사업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에어로케이의 향후 운영계획 등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식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 사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에어로케이의 향후 운영계획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청주국제공항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도

의회 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4일 청주공항 지원특위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항공의 항공운송면허 취득을 계기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항공정비 산업과 에어로플러스 2지구 사업 등을 지원하는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서재동기자

tirthf0@cotimes.kr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1차 간담회(2019. 7. 4.)

청주공항지원특위, 공항활성화 본격 행보

국내선 터미널 증축·계류장 확장공사 등 현장 방문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4일 공항을 방문해 인프라 구축현장을 둘러보는 등 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상식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이날 청주공항 내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서 충북도와 에어로케이, 한국공항공사 등 청주공항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도의회 373회 정례회 2차 특위회의에서 충북도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본격 특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남철희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장과 신정환 에어로케이 운항기획본부장으로부터 공항 인프라 구축사업 현황과 항공기 노선운행, 인력충원, 향후 운영계획 등을 들었다.

이어 국내선 여객터미널 증축 사업과 계류장 확장공사 등 현재 청주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인프라 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 사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에어로케이와 향후 운영계획을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청주공항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명수 기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1차 간담회(2019. 7. 4.)

충북도의회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가동'

특위, 간담회 개최-인프라 조성사업 구축 현장 방문 에어로케이 향후 운영계획 등 청취·지원방안 논의도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식)가 공항을 직접 방문해 인프라 구축현장을 둘러보는 등 본격적인 특위가동에 나섰다.

청주공항지원특위는 4일 청주공항 내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서 충북도와 에어로케이항공, 공항공사 등 청주공항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청주공항 인프라 조성 사업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에어로케이의 향후 운영계획 등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식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 사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에어로케이의 향후 운영계획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청주국제공항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도

의회 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4일 청주공항 지원특위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항공의 항공운송면허 취득을 계기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항공정비 산업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사업 등을 지원하는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서재동기자
tirthf0@cotimes.kr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1차 간담회(2019. 7. 4.)



이상식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위원장이 관계자들과 함께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확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청주공항 활성화' 간담회

인프라·콘텐츠 확충 방안 논의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4일 의회 회의실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관련한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확충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 충북관광협회, 충북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관별 지원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을 듣고, 관광인프라와 콘텐츠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관광 수

요 창출을 위해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기존 관광 상품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와 함께 청주국제공항 이용증진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 방안과 공항이용객의 지역관광 상품에 대한 접근성 강화

대해 활발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상식 특위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들은 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청주국제공항과 지역관광의 상생 발전방안도 구체화 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재현 기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2차 간담회(2019. 10. 14.)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간담회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식)가 14일 의회 회의실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확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 충북관광협회, 충북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관별 지원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을 듣고 관광인프라와 콘텐츠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청주국제공항 이용증진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 방안과 공항이용객의 지역관광 상품에 대한 접근성 강화 대해 논의했다. /장병갑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나서

충북도의회 특별위원회 전문가들과 기관 확충 등 논의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4일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광인프라·콘텐츠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 충북관광협회, 충북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지원사업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공유했다.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 확충 방안

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은 물론 기존 관광상품과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청주공항 이용 증진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 공항 이용객의 지역관광상품 접근성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상식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출된 의견들은 충북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청주공항과 지역관광의 상생 발전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명식기자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 논의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식)가 14일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항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확충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 충북관광협회, 충북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관별 지원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을 듣고, 관광인프라와 콘텐츠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다. 최영덕기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2차 간담회(2019. 10. 14.)

충북도 항공·관광활성화 정책토론회

청주공항 중심 항공·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충북도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보은군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에서 충북 항공·관광산업육성 범도민 추진위원회 주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북 항공·관광산업육성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충북도에서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면허 발급과 관련된 지역 의견을 결집하고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항공·관광 전문가와 민간사회단체 인사 등 50명으로 구성해 항공, 물류, 교통, 관광, 마이스산업, 도시계획 등 5개 분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성장동력의 토대를 마련해 항공·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토론회는 충북연구원 이경기 박사의 항공관광산업 육성사업 진행상황과 한국교통연구원 송기한 본부장과 한국항공대학교 김기웅 교수의 항공·관광 활성화 전략에 대해 청취하고, 항공, 물류·교통 등 5개 분과별 본임 토의 및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면허 발급에 따른 정책 건의사항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철용 범도민 추진위원장은 "전문적인 민간 중심의 협의체로써 항공·관광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도민 역량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며 "공항 활성화를 통해서 청주, 충북 관광 붐을 조성하고 일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근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충북도는 보은군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에서 충북 항공·관광산업육성 범도민 추진위원회 주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은 "논의된 정책제언과 조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충북의 항공산업을 더 발전시켜, 관광객을 늘리고,

공항을 거점으로 해서 제천, 단양, 보은 관광지와도 연계되어 관광산업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임을 밝히

며, "이에 따라 항공·관광산업 육성 범도민 추진위원회의 많은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재현 기자

2019년 항공·관광 활성화 정책토론회(2019. 11. 21.)

에어로케이 출범 대비 충북도, 정책토론회 개최

항공·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5개 분과별 본임 토의·논의

충북도가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인 에어로케이 출범에 대비해 항공·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도는 21~22일 보은군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에서 충북 항공·관광산업육성 범도민 추진위원회 주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면허 발급과 관련된 지역 의견을 결집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관광 전문가와 민간사회단체 인사 등 50명으로 구성·출발했다.

항공, 물류·교통, 관광, 마이스산업, 도시계획 등 5개 분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청주공항을 중심으

로 항공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성장동력의 토대를 만들어 항공·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선 충북연구원 이경기 박사의 '항공관광산업 육성사업 진행상황', 한국교통연구원 송기한 본부장과 한국항공대학교 김기웅 교수의 '항공·관광활성화 전략'에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5개 분과별 본임 토의와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면허 발급에 따른 정책 건의사항 및 활성화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유철용 추진위원장은 "항공·관광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도민 역량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며 "공항 활성화를 통해서 청주, 충북 관광 붐을 조성하고 일구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배명식기자

2019년 항공·관광 활성화 정책토론회(2019. 11. 21.)

청주공항 중심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도 오늘까지 범도민 추진위 주최 정책토론회
거점항공사 면허발급 따른 정책 사항 등 논의

충북도는 21~22일 2일간의 일정으로 보은
군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에서 충북 항공
·관광산업육성 범도민 추진위원회 주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도민추진위는 지난해 11월 도에서 청
주공항 거점항공사 면허 발급과 관련된 지
역 의견을 결집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
해 항공·관광 전문가와 민간사회단체 인사

등 50명으로 구성된 항공과 물류·교통, 관
광, 마이스산업, 도시계획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청주공항을 중심으
로 항공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발
전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성장동력의 토대
를 마련해 항공·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됐다.
토론회에서는 이경기 충북연구원 박사
가 항공관광산업 육성사업 진행상황에 대
해, 송기환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과 김기
웅 한국항공대 교수가 항공·관광활성화전
략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범도민추진위 5개 분과별 분임 토
의와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면허 발급에 따
른 정책 건의사항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
해 논의한다.

유철웅 범도민 추진위원장은 "전문적인
민간 중심의 협의체로써 항공·관광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
는데 도민 역량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며 "관광 활성화를 통해 청주와
충북 관광 붐을 조성하고 일구는데 앞장서
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경 도 관광항공과장은
"논의된 정책제안과 조인을 충분히 검토해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충북의 항공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며 "항공·관광산업
육성 범도민 추진위원회의 많은 역할이 기
대된다"고 밝혔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00@

2019년 항공·관광 활성화 정책토론회(2019. 11. 21.)

청주국제공항 연 이용객 '300만명 돌파'

개항후 22년만에 최초-중부권 거점공항 자리매김
내년 11개 노선 늘어나며 30개 내외 국제노선 운항

청주국제공항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연간
이용객 300만명을 돌파했다.

한국항공공사 청주지사는 지난 24일 청
주공항 국제선 여객탑사 1층에서 '청주국
제공항 300만명 달성 기념' 행사를 열었
다.

행사는 손정원 한국항공공사 사장과 이
장섭 충북도 정부부지사, 이상시 청주공항
활성화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립교향악
단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와 유공
자 표창, 기념의식, 승객 환영행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청주공항은 1997년 개항과 동시에
IMF 사태로 국제노선 운항이 전면 중단
되는 사태를 겪었다. 2009년에는 운영권
매각 공랑에 선정돼 시설개선이 전면 중단
되기도 했다.

민영화 위기를 벗어났지만 2017년에는
사드사태가 터지면서 2016년 273만명이
있던 연간 이용객이 2017년 257만명,
2018년에는 245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도 일본 경제보복장기화, 환율상승
등으로 인한 항공유급 등 여객수요 둔화
추세로 인한 항공산업 침체 분위기로 상황
이 좋지 않았지만 청주공항은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해 그 의미가 더욱 크
다.

현재 청주공항은 14개의 국제정기노선
이 운항 중이며 2020년 운항종영이 무무
리대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본격 사

업을 시작하게 되면 11개 노선이 늘어난
25개 노선에 내년 기존 항공사의 신규 노
선을 더해 30개 내외의 국제노선이 운항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부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난 19
일 국토부의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 거
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내년 본격 운항은
청주공항 발전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
이라며 "도는 2022년 이용객 500만명 시
대를 위해 인바운드 항공수요 유치를 위한
관광지 개발과 홍보마케팅, 청주공항 접근
성 개선 등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청주국제공항 300만 명 달성 기념행사(2019. 12. 24.)

‘청주공항 활성화 특위’ 감염병 여파 활동 연장

충북도의회, 충북선 철도 고속화 지원 특위도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충북선 철도 고속
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에 활성화를 위
한 특별위원회가 9일 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주공항 활성화 특위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에어로
케이 위장 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 받은 뒤 분야별 안건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청주국제공항의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30일로 끝나는 특위
활동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
하기로 의결을 모았다.

이상식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산업을 침범하여 갈망이 절조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해 4월 구성된 2차례의 회
의를 열고 경제 토론회와 관계기관 간담
회를 비롯해 적극적인 활동으로 청주국제

공항 활성화를 지원해 왔다고 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
오송에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9일
6차 회의를 열고 충북도로부터 KTX 오송
연결선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KTX세종어·ITX세종어 신설 용지임대
에 따른 충북도의 대응 상황 및 향후 전략 등
을 보고 받은 후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 핵심인
오송연결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KTX
세종어·ITX세종어 신설 용지임대에 따른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특위 활
동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
기로 결정했다.

연결을 위원장은 “충북도와 유기적으
로 협조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뿐만
아니라 갈매죽 개발의 성공을 위해 도의
회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 박병갑 기자

충북선철도·청주공항 특위 활동 1년 연장

원활한 오송연결선 추진
항공 변화 대응 차원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과 청주국제
공항 활성화를 지원해 구성된 충북도
의회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1년 연장
하기로 했다.

충북도의회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에 활성화를 위한 특
별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9일 6차 회
의를 열어 오송연결선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고 활동기간을 내
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충북선철도 특위는 충북선 철도고속
화 사업 핵심인 오송연결선 사업의 원활
한 추진과 KTX세종어·ITX세종어 신
설 용지임대에 따른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

하다고 보고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식)도 이
날 3차 회의를 열어 청주국제공항 관련
사항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특위 활동기
간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청주공항 특위는 회의에서 포스트코
로나 대비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과 거점
항공사 에어로·K 위장 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 받은 후 분야별 회의
시간을 갖고 안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국제선 쇠나온과 국내선 운항 감축 등 청
주국제공항의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 항공·관광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
다.

/ 안해주 기자

충청매일

2020년 06월 10일 (수)
05면 중판

충북도의회 청주공항 활성화 특위 등 1년 연장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
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 오송에 활성화를 위
한 특별위원회가 9일 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포
스트 코로나 이후 산업을 침
범하여 갈망이 절조하고 코
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청
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박병갑 기자

이날 특위는 충북도로부터
KTX 오송 연결선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 받은 후 관련 사
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박병갑 기자

제3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회의(2020. 6. 9.)

중부매일

2020년 09월 17일 (목)
05면 정치

“청주공항, 신 수도권 시대 거점항공으로”

충북도의회 지원특위 4차 회의
팬데믹 이후 활성화 방안 논의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
식)는 16일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충북경자청으로부터
에어폴리스 1-3지구 추진상황과 청주
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용역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보고 받은 후
분야별 질의응답을 통해 청주국제공
항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회는 청주국제공항이 코로나19
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국제선 운항
중단과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의
항공운항중명발급 허가 지연 등 내·외
부 사정으로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같이했다.

위원들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사업들
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특위 차
원에서 의정역량을 집중해 지원 하겠
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상식 특위 위원장은 “코로나 안정
화 단계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 선제
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청주
국제공항이 세종시 관문 공항이자 신
수도권 시대 거점항공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항 중심 추진 사업들에 대해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 장병갑

jbnews.com

제4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회의(2020. 9. 16.)

“코로나 이후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 모색해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위, 에어플리스 추진상황 등 청취·논의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6일 385회 임시회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충북경자청으로부터 에어플리스 1~3지구 추진상황과 청주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용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보고 받은 후 분야별 질의응답을 통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회는 청주국제공항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국제선 운항 중단과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의 항공운항중명발급 허가 지연 등 내·외부 사정으로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 위원들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를 위해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의정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상식 특위 위원장은 “코로나 안정화 단계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주국제공항이 세종시 관문 공항이자 신수도권 시대 거점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항 중심 추진 사업들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는 2019년 4월에 구성된 이후 3차례에 걸친 특위 회의를 개최하고 정책토론회와 유관기관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특위활동을 펼쳐왔다. 양재현 기자

제4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회의(2020. 9. 16.)

중부매일

“청주공항, 신 수도권 시대 거점항공으로”

충북도의회 지원특위 4차 회의
팬데믹 이후 활성화 방안 논의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16일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충북경자청으로부터 에어플리스 1~3지구 추진상황과 청주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용역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보고 받은 후 분야별 질의응답을 통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회는 청주국제공항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국제선 운항 중단과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의 항공운항중명발급 허가 지연 등 내·외부 사정으로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 위원들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의정역량을 집중해 지원 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상식 특위 위원장은 “코로나 안정화 단계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청주국제공항이 세종시 관문 공항이자 신 수도권 시대 거점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항 중심 추진 사업들에 대해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 장병갑 jbjang0408@jbnews.com

제4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회의(2020. 9. 16.)

에어로케이 AOC 발급 힘 모은다

<항공운항증명>

도의회 청주공항 활성화 특위 건의문 채택·국토부 방문 계획

충북도의회가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의 조속한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5일 위원실에서 도 관광항공과로부터 에어로케이 AOC 발급 관련 경과보고를 받고, 이 같이 뜻을 모았다.

AOC는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장비, 운항·경비관리,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췄는지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는 제도다.

지난해 3월 5일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에어로케이는 같은 해 10월 7일 AOC 발급을 신청했지만, 1년 가까이 심사가 이어지며 첫 취항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5일 위원실에서 도 관광항공과로부터 에어로케이 항공운항증명 발급 관련 경과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충북도의회

특위는 AOC 발급 추이를 본 뒤 △건의문 채택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국토교통부 방문 등

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식 위원장은 "당장은 추이를 지켜 봐야겠지만, 특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AOC가 조속히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4차 간담회(2020. 10. 5.)



23일 충북 과산군 소금랜드에서 열린 '2020 항공·관광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코로나 이후 관광변화 및 대응 전략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오신영기자

“에어로케이 조속 운항으로 관광수요 창출해야”

충북 항공·관광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최적화된 지역 관광지장 회복을 위한 방안 하나로 충북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의 조속한 운항으로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도가 23일 과산군 소금랜드에서 충북 항공·관광산업육성 범도민 추진위원회 주최로 항공·관광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한 토론회자들은 최적화된 관광지장을 회복하고 충북의 관광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충북도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

가 조속히 항공운항증명을 발급받아 운항을 재개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는 코로나 이후 관광변화와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항공·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은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의 '뉴노멀시대 지역관광 정책방향' 특강이 이어졌다.

또 코로나 이후 관광변화에 대응한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 산업계 그리고 지역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충북항공·관광산업육성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2018년 11월 충북도에서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면허 발급과 관련해 지역의 의견을 종합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과 관광분야 전문가와 민간 사회단체 인사 등 50명으로 구성했다. 항공, 물류·교통, 관광, 마이스산업, 도시계획 5개 분야가 있다.

이승기 충북도 관광항공과장은 "논의된 정책제언과 조언은 적극 검토해 충북도 관광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덕기자

2020년 항공·관광활성화 정책토론회(2020. 11. 23.)

코로나 시대 '항공·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도, 산업육성 범도민 추진위 주최 정책토론회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 운항 필요" 한목소리

충북도는 23일 과산군 소금랜드에서 충북 항공·관광산업육성 범도민 추진위원회 주최로 '항공·관광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범도민 추진위는 2018년 11월 도에서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면허 발급과 관련해 지역의 의견을 결집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과 관광분야 전문가, 민간사

회단체 인사 등 50명으로 구성했으며 항공, 물류·교통, 관광, 마이스산업, 도시계획 등 5개 분야가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관광변화와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항공·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논

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는 과산군 관광정책 설명 청취와 운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의 '뉴노멀시대 지역관광 정책방향'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다. 2부는 코로나19 이후 관광변화에 대응한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와 산업계, 지역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로 진행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침체된 관광시장 회복과 충북의 관광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도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

이가 조속히 항공운항증명을 발급받아 운항을 개개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토론회 이후 과산에서 재배한 배추와 고추 등 전국 최고의 식재료를 이용한 김장담그기 행사를 열었다. 이송기 도 관광항공과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제언과 조언은 적극 검토해 도 관광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o@**

2020년 항공·관광활성화 정책토론회(2020. 11. 23.)

에어로케이 날개 펼 수 있을까

국토부, 운항증명 발급 장고 2년 이내 취항 조건 'D-100' 도의회, AOC 조속 발급 건의안 황·국회의장·총리실 등 전달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가 날개를 펼 수 있을 지 이따가 입증되고 있다.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 발급이 마땅치는 사이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조건부 시한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6일 에어로케이에 면허를 발급하면서 '1년 내 AOC 신청', '2년 내 취항'이란 조건을 달았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후 관리 차원에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못박았다. AOC는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정합을 위해 필요한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매뉴얼 등이 법령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다. 50시간에 넘는 시범비행(6월 23일~7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국내·국제선 취항을 준비 중인 에어로케이 직원들이 조일 청주공항지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에어로케이 이는 국토교통부에 운항증명 심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태훈기자

월 11일)을 통해 약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상황별 조종사의 대처능력, 비상착수와 승객탈출 모의평가(6월 22일), 예비부품의 확보상태, 취항 예정공항 운항 준비상태 등을 현장 확인했다. 일부 미흡한 항목은 보완요구를 통해 지정했으나, 9월 이후 2개월째 추가 보완요구 없이 AOC 발급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26일 기준 앞으로 100일, 내년 3월 5일까지 '2년 내 취항'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다. 이를 두고 알각에서는 코로나19로 한

공 수요가 줄어들면서 국토부가 항공운송업 실적 부진을 우려해 AOC 발급을 고의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레서와 운항하려는 노선별로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제 운항이 가능한 만큼 AOC 발급과 항공 수요는 별개라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어떤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25일 387회 2차 본회의에서 '청주공항 거점항공사에어로케이의 AOC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에어로케이의 거점공항인) 청주공항은 명실공히 중부권 대표공항으로 충청권 지역민들이 질서지존(折衝之節)의 마음가짐으로 함신에 이뤄낸 성과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원 전원은 에어로케이의 조속한 AOC 발급을 위해 한목소리로 건의한다"며 "특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충청권 지역민들의 열렬한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성공적인 인착을 위해 충청권 지역민들의 뜻을 레아려 달라"고 촉구했다. /안혜주기자

제5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회의(2020. 11. 2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충북도의회,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조속 발급 건의안도 채택

충북도의회는 2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항공운항증명(AOC)을 조속히 발급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3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의결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견제와 규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과 대등한 권한의 배분이 있어야 한다"며 "이 법률안은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자동 폐기돼

다시 21대 국회에 제출됐고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으로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개항 이후 발전하던 청주공항은 2008년 한성항공 운항 중단, 2017년 사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성항공 철수 이후 11년 만인 2019년 3월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 유치가 성공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청주공항이 중부권 거점항공이자 행정수도 판문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했다"며 "하지만 지난 해 9월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운항증명 발급은 기약 없는 지연으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열재천 기자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조속 발급 건의

충북도의회, 정부 건의안 채택 "기약없는 지연에 사업 차질"

충북도의회가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Low Cost Carrier)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조속 발급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의결도 촉구했다.

충북도의회는 25일 열린 3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의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 을 통해 "거점항공사 유치는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

점항공이자 행정수도 판문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고 있다"라며 "국토부에 신청한 운항증명(AOC) 발급의 기약없는 지연으로 적지 않은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어로케이와 함께 항공연허를 취득했던 '플라이강원'은 8개월 만에 운항증명을 발급받았다"라며 "충청권 지역민들은 플라이강원 사례를 보면서 적지 않은 박탈감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수도권 초점증화로 인한 국가 불균형 해소가 시대적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라며 "청주공항도 행정수도 완성명과 함께 신수도권시대에 걸맞은 중심공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식기자

에어로케이 면허발급 건의

충북도의회 청주공항 특위

[충주]충북도의회는 25일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식)가 제5차 위원회를 열어 청주공항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에 대한 항공운항증명(AOC)을 조속히 발급해 줄 것을 건의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는 2023년까지 총 6대의 항공기를 도입하고 450여명을 신규 채용해 5개국 11개 노선에 유망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지

난해 9월 국토부에 신청한 운항증명 발급이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적지 않은 사업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청권 지역민들이 절친자촌(折箭之村)의 마음가짐으로 협심해 이뤄낸 성과가 무시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충청권 지역민들의 염원인 에어로케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운항증명 발급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청주국제공항도 행정수도 완성명과 함께 신수도권시대 중심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거점항공사라는 신규 성장동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조속 발급해야”

충북도의회 청주공항지원특위, 대정부 건의안 채택 "국토부 발급 기약없이 지연-거점항공 취항계획 차질"

충북도의회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5일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에 대한 항공운항증명(AOC)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제안설명을 통해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는 2023년까지 모두 6대의 항공기를 도입하고 450여명을 신규 채용해

5개국, 11개 노선에 취항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9월 국토부에 신청한 운항증명 발급이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사업에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충청권 지역민들이 절친자촌(折箭之村)의 마음가짐으로 협심해 이뤄낸 성과를 무시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충청권 지역민들의 염원인 에어로케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운항증명 발급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충청타임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에어로케이항공 항공운항증명 발급 촉구

충북도의회 건의안 채택

충북도의회는 2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항공의 항공운항증명(AOC)을 조속히 발급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의결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안은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자동 폐기돼 다시 21대 국회에 제출됐고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개항 이후 발전하던 청주공항은 2008년 한성항공 운항 중단, 2017년 사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성항공 철수 이후 11년 만인 2019년 3월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 유치가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청권 지역민들의 염원인 에어로케이에 대한 항공운항증명 조속히 발급해 달라"고 건의했다. /석재천기자 jrth10@cctimes.kr

충청매일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조속히 발급하라”

충북도의회 정부에 촉구...“기약없이 지연돼 사업 차질”

충북도의회는 2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항공운항증명(AOC)을 조속히 발급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에 대한 항공운항증명(AOC)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제안 설명을 통해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는 2023년까지 모두 6대의 항공기를 도입하고 450여명을 신규 채용해 5개국, 11개 노선에 취항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9월 국토부에 신청한 운항증명 발급이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적지 않은 사업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의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뒤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안은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자동 폐기돼 다시 21대 국회에 제출됐고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충청권 지역민들이 절친자촌(折箭之村)의 마음가짐으로 협심해 이뤄낸 성과가 무시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충청권 지역민들의 염원인 에어로케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운항증명 발급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청주공항도 행정수도 완성명과 함께 신수도권시대 중심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거점항공사라는 신규 성장 동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5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회의(2020. 11. 25)

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 재정 지원 공감

충북도의회 공항활성화 특위 "에어캐이 조기 안착 지원"

충북도의회가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인 유에어캐이항공의 조기 안착을 위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에어캐이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운항증명(AOC) 발급 심사가 역대 항공사 중 가장 긴 444일에 달해 자본 잠식이 상당히 이뤄졌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수익을 낼 수 있는 국제선 운항도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도의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위원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13일 오후 도의회 신관 5층 회의실에서 에어캐이 AOC 발급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및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호 에어캐이 대표가 참석해 국내선(청주-제주) 운항 계획과 2-3호기 도입 일정 등을 설명했다. 지역경제 재흥 촉진을 비롯해 국제선 취항을 위한 준비와 절차, 항공사 조기 안착을 위한 자본확충 계획 등도 밝혔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에어캐이가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도 논의했다.

항공사업법 시행령에서는 국제여객항공 운송사업자가 법안인 경우 150억 원의 납입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 신청 당시 운항개시에정밀부터 3년간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른 항공 운송사업을 운영했을 때 예상되는 운영비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 증명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에어캐이는 2019년 3월 5일 48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AOC



청주국제공항활성화위원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3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에어캐이 AOC 발급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대응전략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발급이 늦어지면서 인건비(150명), 항공기 리스비 등 고정비 지출로 인한 자본금 잠식이 있었다.

국토부가 발한 에어캐이의 운항증명심사기간은 2019년 10월 7일~2020년 12월 23일로 444일에 이른다. AOC 발급일(2020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하면 449일에 달한다.

에어캐이의 AOC 심사는 스제주항공(150명) △진에어(92명) △에어부산(85명) △에어인천(236명) △에어서울(156명) △아시아항공(국내 150명, 국제 48명) △티웨이항공(국내 125명, 국제 90명) 등 기존 LCC와 비교해 아래쪽으로 밀렸다.

이상식 특위위원장은 "에어캐이는 청주를 모기지로 설립된 항공사로 기존

항공사와 행·재정적 지원이 동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은 특위 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 활성화뿐 아니라 지역경제 재흥 확대 등을 위해서 별도의 지원은 필요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해 조래 재·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호와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 '김병호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를 개정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본 모기지 항공사의 긴급경영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김병호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를 개정해 '김병호 항

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구성, 회의 운영 등에 대한 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김병호가 플라자강원 설립 당시 운항 초기 3년간 120억 원의 운항장려금 지원을 약속하면서 비롯됐다.

충북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가 2007년 제정됐으나 예산 지원은 노선 다변화를 위한 국제항공 노선 신규 개설에 한해 소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청주공항 모기지항공사가 안정적으로 취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존 항공사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에어캐이를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혜주기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6차 간담회(2021. 1. 13.)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특별위원회가 17일 7차 회의를 열어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 공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제노선 다각화 추진 등 준비 필요"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의 공항 활성화 방안 모색

충북도의회가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 공항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7일 7차 회의에서 집행부에게 청주공항을 경우하는 △중주도선 통과 중점권역어필도(신만안-조지

원-오송-청주 시내-오근장) 왕역필도 건설 △수도권내핵심(당반-안성-진천-충북예산-도사-영주공항) 건설 △충주내핵심 지선 연결(강국-충북혁신도시-영주공항) 사업을 보고 받았다.

또한 청주공항 발전전략에 대해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들은 뒤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노선 다각화 추진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국가 철도망 계획이 반드시 반영 될 수 있게 특위 차원에서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이상식 특위 위원장은 "국가철도망 구축 관련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청주공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특위에는 이상식 위원장, 송미애 부위원장, 윤희선·이상욱·이유규·임동환·허정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혜주기자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17일 회의를 열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충북도의회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회의 개최

집행부 업무보고 등 진행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식)가 17일 제380회 임시회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청주국제공항 발전전략에 대해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노선 다각화 추진 등 준비가 필요하다"며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국가 철도망 계획이 반드시 반영 될 수 있게 특위차원에서도 모든 의견과 방안을 집중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식 위원장은 "국가철도망 구축관련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준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상식 위원장, 송미애 부위원장은 비롯해 윤희선·이상욱·이유규·임동환·허정민 의원 등 총 7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최영희기자

제7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회의(2021. 3. 17.)

청주공항·충북선·균형발전특위 활동기간 연장

충북도의회 3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의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충북선 철도 고속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활동해온 충북도의회 3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됐다.

도의회는 23일 3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식),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지원 및 KTX고속열차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연합),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숙애) 등 3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공항활성화특위의 활동기간은 내년 6

월 30일까지 연장했다.

공항활성화특위는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로케이의 항공운송면허 취득을 계기로 청주공항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에어로케이의 경우 국내선은 취항했으나 국토부의 운송면허(AOC) 발급 지연(448일 소요)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공항활성화특위는 앞으로 코로나19 극복 이후 관광·항공 활성화 방안 강구는 물론 회선의 중심의 항공경비 단지로 조성 중인 에어로폴리스사업의 본격 시작에 따른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의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한 공항복합신도시 조성, 도심형 항공교통(UAM) 산업 지원 등을 위한 활동도 펼칠 전망이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특위는 충주 삼탄-제천 연박 구간 등 충북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KTX세종역 저지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해 내년 5월 31일까지 활동한다.

균형발전 특위도 내년 5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된다. 균형발전 특위는 수도권 집중화의 지방소멸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도내 균형발전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충청권 광역생활권 추진에 따른 충북의 발전방향틀 모색이 필요하는 의견에 따라 연장이 결정됐다.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관리실태, 저감대책 추진상황 점검, 미세먼지 줄이기 활동홍보컨퍼런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지난 2년간 활동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충청북도 저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18건, 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도 원안의결했다.

한편 392회 임시회는 오는 7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 연혜주기자



충북도의회가 23일 3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제공=충북도의회

제8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회의(2021. 6. 22.)

허창원 청주공항활성화특위 위원장 선임

"중부권 거점공항 도약 도움"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8일 9차 회의를 열어 허창원 위원장에 허창원(청주4·사진) 의원을 선임했다.

허창원 선임 위원장은 "지금까지 북부



위원들은 청주공항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 취항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국면

을 맞아 청주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지난 2019년 4월 17일 구성됐으며 지난달 391회 정례회에서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 연혜주기자

충청매일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위원장에 허창원 의원

충북도의회가 8일 특위회의실에서 제 392회 임시회 제9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5일 이상식 위원장이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공석이 된 위원장에 허창원(청주4) 의원을 선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허창원 선임 위원장은 "지금까지 북부위원들께서 에어로케이 취항 등을 위



허창원 의원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택기자

제9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회의(2021. 7. 8.)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가 9일 393회 임시회 10차 위원회를 열어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충북도의회

공항특위,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 점검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허창원)는 9일 393회 임시회 10차 위원회를 개최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해 참석위원들은 "기반시설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더라도 적극

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에어로폴리스 2지구(지구외) 이주주택지 조성사업 토지수용이 주민들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조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에어로폴리스 3지구, 청주국제공항주변 북한산도시 조성사업 토지수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

비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허창원 위원장은 "에어로폴리스 조성사업에 항공관련사업 수요가 없을 것을 대비해 다른 사업 대안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청주국제공항이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임영은기자

제10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회의(2021. 9. 9.)



공항특위, 에어로폴리스 추진상황 점검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허창원)가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0차 위원회(사진)를 열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사업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위원들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에어로폴리스 2지구(지구외) 이주주택지 조성사업 토지수용

이 주민들과 빠른 시일 내 협의해 조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해 줄 것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청주국제공항 주변 북한산도시 조성사업 토지수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허창원 위원장은 "에어로폴리스 조성사업에 항공관련사업 수요가 없을 것을 대비해 다른 사업 대안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청주국제공항이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병덕기자

제10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회의(2021. 9. 9.)

“이용객 느는데 편의시설 제자리”

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회의 활주로 연장·주차장 개선·상품 개발 등 제안 “좋은 인프라 활용해 좋은 정책 제시해 갈 것”

코로나19 위기 속 국내선 운송 최대 실적을 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24일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허창원)는 박순영 도 문화체육관광국과 맹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차 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청주 7) 의원은 이 자리에서 “편의시설이 부족해 청주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자가이용객들이 많지만 이들을 위한 주차요금 할인 혜택도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청주공항역 이용객과 노상주차장 이용객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인데 노선을 보면 2주차장에 탑승한 고객은 청주공항역을 거쳐 여객정사로 오도록 돼 있다”며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이상덕(청주11) 의원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청주공항 활주로를 연장하면 북미행 경유 공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공약 반경과 부처(국토교통부) 설득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 에어로폴리스 2지구 이주민 택지 조성과 관련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충분히 설득할 것”도 요구했다.

민주당 임동현(청주10) 의원은 “청주공항 이용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광지나 관광상품을 개발해 달라”며 “주차장 확충 시 부지를 공항과 떨어진 곳에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옥미선(청주5) 의원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며 “국제선 취항 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옥규(비례) 의원은 “청주공항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만큼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허창원(청주4) 위원장은 “청주공항이라는 좋은 인프라를 활용에 관광·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위에서도 좋은 정책을 계속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공항 국내선 이용객은 지난해 260만2천592명(유임여객)을 기록, 1997년 4월 개항 이래 최다치를 기록했다. /안해주기자

제11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회의(2022. 1. 24.)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회의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허창원)가 24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2022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과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사진)

위원들은 “국내선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수준으로 이용객이 회복됐지만 충북에서 머물기보다는 제주도 관광객만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충북의 유명 관광지과 공항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고 뜻을 모았다.

또 공항 활주로 연장과 관련해 국토부 임장인 “수요가 부족해 활주로 연장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 “활주로는 연장돼야 수요가 증대한다”는 등의 논리 개발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에어로폴리스 사업을 조속히 계획대로 추진해 공항주변 인프라 개발에 적극 협력을 것과 이주자 택지 문제도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영덕기자

제11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회의(2022. 1. 24.)

4.2. 특별위원회 회의록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17일(수) 15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 | |
|-------------------------|----|
| 1.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1면 |
| 2.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면 |

(15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의사진행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욱 의사일정 제1항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이상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식 위원님께서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식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식 위원님께 의사진행을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상식 고맙습니다.

사실 처음에 우리 LCC 유치가 되고 나서 의장님께 특위를 제안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LCC 자체가 청주공항을 활성화시켜 주지 못하는 거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저희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를 좀 견인해 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됐는데요. 위원장까지 이렇게 맡겨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구가 우리 이상욱 위원님 지역구이신데 사실 또 이상욱 위원님께서 아마 위원장직을 수행하시면 지역 내에서의 민원의 창구로 이렇게 오히려 좀 협소화되지 않을까 해서 이상욱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다른 분들과 함께 이렇게, 저에게 양보를 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뜻 받들어서 더 열심히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08분)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2항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율위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율위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송미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미애 위원님께서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율위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애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님께 짧은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니다.

○송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LCC 유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율위원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책 제언과 함께 앞으로의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위원님들과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송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송미애 부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저희 활동이 특별위원회가 다소 좀 소극적인 면도 그전에는 없잖아 있었는데요. 이번에 좀 활기차게 진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청주국제공항활성화특별위원회로 이렇게 함께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율위원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8인)

| | | | |
|-----|-----|-----|-----|
| 이상식 | 송미애 | 육미선 | 이상욱 |
| 허창원 | 이옥규 | 임영은 | 연종석 |

○출석전문위원

| | |
|-----------------|-------|
| 수 석 전 문 위 원 | 정 일 하 |
| 운 영 특 위 전 문 위 원 | 이 강 운 |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0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 추진상황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1.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 추진상황 업무보고 1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 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항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각종 대책 마련 등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관련 추진상황 보고는 문화체육관광국, 균형건설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조직 직제순으로 진행하고 모든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관련 관광항공 분야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분야 중 항공관광 분야에 대한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거점항공사 유치 등 항공 분야 활성화 방안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의 여건 및 전망은 충청권 항공 수요는 많지만 장거리 노선이 부족해 인천·김포공항으로 수요가 흡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국제선 신규 유치 노력 등으로 금년 말 청주공항 이용객 300만 명을 달성하여 사드효과는 어느 정도 탈피될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 거점항공사 출범 시 국제 정기노선은 현재 12개 노선에서 23개 노선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간의 추진성과로는 국제노선의 경우 중국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일본 오사카·삿포로, 미국 광, 대만 타이베이 등으로 국제노선 다변화를 이루어서 현재 12개 정기 국제노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항시설 확충을 위해 최근 5년 동안 7개 사업 1,805억 원을 집중 투자했습니다.

현재 국제여객청사 증축과 주차빌딩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국내여객청사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활주로 개선을 위한 갓길포장, 평행유도로 신설 등의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군용활주로 재포장, 주기장 확장 등의 사업은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부 활성화 방안입니다.

첫째,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유치입니다.

전 도민이 합심하여 에어로케이 항공이 금년 3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았으며 오는 8월 운전면허 실기시험격인 운항증명을 신청하여 내년 3월 정식 취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마카오 등 5개국 11개 노선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화물운송을 위해 가디언즈 항공이 작년 9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지난 3월 사업계획 구체성 결여 등으로 면허발급이 반려되어 현재 국토교통부와 면허신청시기 및 사업계획 보완을 협의 중으로 금년 하반기 면허를 재신청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둘째, 노선 다변화입니다.

행정수도 관문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을 북한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남북 직항로 개설을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반영을 추진하고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흑산도, 울릉도를 갈 수 있는 소형공항 연결노선 개설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추가로 국제 정기노선 신설을 유도하기 위해 항공사에 운항 장려금을 지원하고 수도권 케이블 방송, 지하철, 해외매체 등을 활용하여 항공노선 홍보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항시설 확충입니다.

'97년 개항 이후 노후화된 활주로 재포장,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 조정, 장거리 노선 유치를 위한 활주로 확

장 등 민군복합 활주로 성능 개선을 추진하고 흑산도·울릉도 공항 개항 대비 소형항공기 전용 계류장 신설, 민간항공기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항행 안전시설 개선 등 활주로 주변 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거점항공사 등 신규 항공사 운항에 따라 늘어나는 이용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제여객 청사와 국제화물 청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획 반영 조치계획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의 북한 관문공항 지정·육성, 공항 시설 확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가 상위 계획인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인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서 8쪽까지는 관련 참고자료입니다.

다음 9쪽, 관광인프라 조성 등 관광 분야 활성화 방안입니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가 공동 용역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주호 일원의 우수한 수변자원과 역사문화 자원 등을 연계해 국내외 관광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변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충주-제천-단양을 연결하는 호수관광벨트 조성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찾길, 발길, 자전거길, 물길, 하늘길 루트 조성 및 유휴시설 재생, 거점관광지 연결 교통시스템 구축 등으로 총사업비는 1,79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이 가지고 있는 산악산림자원과 주변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지역연계협력을 통한 광역 관광거점 조성을 목적으로 괴산-보은-옥천-영동을 연결하는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친환경 숙박단지, 산림치유센터, 생태습지체험단지, 산림레포츠단지 등 휴양-치유-생태-체험 관광벨트 구축으로 총사업비는 478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두 사업 모두 사업비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국토부와 함께 용역결과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둘째, 주요 관광인프라 조성 현황입니다.

먼저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입니다.

청풍호반 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수요의 창출을 위하여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에서 비봉산 일원에 금년에 청풍호 그린케이블카를 조성하여 지난 3월 29일 개장한 바 있습니다.

총사업비 410억 원 전액 민자로 조성되었으며 총길이 2.3km에 주요시설로는 케이블카 외에 전망대, 360도 체험관 등이 있고, 개장 후 5월 말까지 18만여 명 하루 3,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제천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중부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교통의 요지인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일원에 에듀팜특구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6월 14일 개장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594억 원 전액 민자로 조성되며 주요 시설로는 골프장, 루지, 수상레저시설, 양떼목장 등이 있고 공정 진행상황에 따라 워터파크, 콘도, 농촌테마파크 등의 시설도 추가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초정 체류형 관광 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세계 3대 광천수인 초정약수를 활용한 치유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청주시 내수읍 초정리 일원에 오송 바이오밸리-청주국제공항-증평좌구산휴양림으로 이어지는 충북 대표 치유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9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초정 치유마을 조성, 발상머리 교육체험, 세종행궁 연계사업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청주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청주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관련 광역 교통망 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창희 균형건설국장 이창희입니다.

공항접근성 개선 교통인프라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시외버스입니다.

2018년에는 서울 등 주요도시에서 청주공항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1일 총 7개 노선 46회가 운행되었으며 금년에는 유성~청주공항~혁신도시 간 신규노선을 개설하여 7회 운행하고 천안노선을 2회 증회하여 총 8개 노선 55회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천안노선을 각 1일 15회로 확대 운행하고 대전~세종 경유노선, 전주지역 노선과 경기 남부권인 용인·평택 신규노선을 개설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시내버스입니다.

2018년에는 청주공항 출발을 기준으로 1일 4개 노선 106회 운행을 했으며 금년에는 청주공항~신탄진 노선을 6회 증회하여 현재 4개 노선 112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청주공항~세종시 노선을 50회로 증회 운행하여 세종시 및 오송역 이용객 수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택시입니다.

청주시 택시는 금년 4월 말 현재 4,142대로 적정대수 3,684대보다 11% 정도 많아 택시

부족으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공항 내의 승차거부, 호객행위, 장거리 승객 끌라 태우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차선변경 차단 구조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CCTV 설치사항 홍보를 강화하고 친절서비스 확보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철도입니다.

먼저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북청주역을 신설하고 청주공항역 이전과 천안~서창 간 2복선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 중으로 금년 8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종~오송역~청주공항 중전철 건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세종청사에서 조치원~오송~청주시내~청주공항 간 광역철도망을 구축하여 청주공항의 행정도시 관문공항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대전, 충북, 세종 등 3개 시도가 당초의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즉, 신탄진~조치원 간과 우리 도 중전철안, 세종시의 세종청사~내관~조치원 간 철도 연결 등 3개 시도가 제시한 안에 대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6월부터 행복청 주관으로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마무리해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로망 확충입니다.

청주공항으로 접근하기 위한 도로 여건은 고속도로의 경우 중평IC를 이용하여 접근하기가 어렵고 국도와 연결되는 지방도는 국도와 의 차로 수가 불균형하고 지하차도와 교차로가 적어 접근이 매우 불편합니다.

또한 세종시에서 공항 간 지방도는 평면교차로가 많고 선형이 불량하여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권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청주공항 북측 연결도로를 신설하겠습니다.

대울~중평IC 도로와 에어로폴리스 2단지 진입도로를 신설하고 국도 36호선 신기교차로에서 공항진입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또한 주 간선도로의 접근도로 개선 및 교차로 등 시설개량을 위해 지방도 511호선과 540호선의 국지도 승격을 추진하고 국도 17호선 교차로를 개선하겠습니다.

행정도시 관문공항 기능 확보를 위해 세종~청주공항 고속화도로를 건설하고 오송~청주공항 도로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 외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주공항이 명실상부한 행정도시 관문공항,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항 접근 교통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공항 접근성 개선 교통인프라 확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충북경자청 본부장님 나오셔서 MRO 산업 및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임성빈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임성빈입니다.

청주공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일원에 15만 3,000㎡를 도비와 시비 50%씩 452억 원을 들여 추진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13년 2월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가 되었고 이듬해인 '14년 10월에 충북도와 청주시가 재원 50%씩으로 공동개발 협약을 하였

습니다.

이후 '15년 4월에 1지구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이듬해 '16년 8월 아시안아가 청주공항 MRO사업을 포기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16년 12월에 충북도에서는 MRO사업 추진 포기 선언을 하였고 이후 '17년 9월에 1지구 조성공사는 공정을 51%로 부분 준공한 상태입니다.

2쪽, 아시안항공 이탈 이후에 주요 추진 상황입니다.

도의회 특위 권고와 언론 등의 우려를 감안하여 국토부 등에 동 부지 일괄 조기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국토부에서는 활용도가 없어 매입에 난색을 표명하였습니다.

이후에 1지구 회소성과 청주공항 발전전망 개선에 따라 부지매입 희망업체가 등장하였으나 부지조성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각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최근 청주공항을 모기지료 에어로케이가 국제항공편허를 받으면서 1지구 활용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지구 활용은 에어로케이의 활용계획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면서 다른 업체와 공동입지도 병행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개발입니다.

활용계획이 확정이 되면 개발계획 변경 등 상황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청원군 내수읍 입동리·신안리 일원 32만 1,000㎡에 도비와 시비 50%씩 710억 원을 투자하여 항공기 관련 부품제조 및 물류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항공 관련 10개 기업, 물류 관련 5개 기업 철도 관련 1개 기업 등 16개 기업과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금년 2월 11일에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보상과 이주자 택지 조성 추진 중입니다.

단지조성 공사는 '21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투자협약 체결기업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지구의 성공 조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충북경자청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관련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임영은 위원님.

○임영은 위원 임영은 위원입니다.

이창희 균형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외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보겠는데 우리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많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봄에 우리 안성시장하고 진천군수, 청주시장께서 동탄~안성에서 진천~청주공항을 잇는 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MOU 체결한 거 알고 계시죠?

○균형건설국장 이창희 알고 있습니다.

○임영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창희 저희 충북도에서도 그 구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북의 철도망에 대한 구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온다면 그 결과를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 물론 저희들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세종, 대전 또 남부권

도 좋겠지만 일단 수도권에서 많은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임영은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네, 우리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이창희 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철 연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 철도공사라는 것이 한번 시작해서 결말을 지으면 변경하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혹시 고속철이나 일반 철도시설을, 공항진입선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건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은 갖고 있으신지요?

○균형건설국장 이창희 저희들이 5쪽의 세종~오송역~청주공항 중전철 건설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대전과 세종에서 청주공항을 이용하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청주공항까지 광역철도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과정에서 오송에서 청주 방향 해서 청주시내를 관통해서 청주공항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청주시민들이 오송역을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과 세종과 청주가 관련 연계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청주공항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세종시, 충북 그다음에 대전 간에 삼차간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 하반기에,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마무리해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예, 제가 드린 질의요지는 그런 내용보다는 공항 안으로 화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공항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철도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창희 지금 현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국장님, 지금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첨언을 하자면 지금 충북선 선형개량에 대해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형개량 자체가 지금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나요?

○균형건설국장 이창희 충북선 선형개량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공항청사를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역이나 선로 부지를 옮기는 데 주안점이 있지 거기에 화물역이나 화물기지를 만들거나 보다 용이하게 화물수요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이동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니까 그 화물기지를 증축하거나 화물기지를 활용하기 위한 이전은 아니어도 이제 두 가지였죠? 아까 여객하고 화물이었는데 여객의 부분은 충분히 이렇게 감안하고 있는 거로.

또 다른 위원님...

네, 우리 허창원 위원님.

○허창원 위원 이게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 사업이면 경자청 본부장님께 질의하는 건가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공정을 51% 돼 있습니다.

이게 1지구 공사 나갈 때 100% 조건으로 나간 겁니까, 아니면 51% 조건으로 나갔던 겁니까?

○본부장 임성빈 당초에는 100%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시아나가 포기를 하면서 계획도 완전히 차질이 생겨서 일단 그걸 진행하

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공정된 대로만 지금이 된 상태입니다.

○허창원 위원 그렇군요. 저도 1지구가 전체 공사가 발주가 나간 상태에서 그때 당시 아시 아나가 포기해서 51%로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은 지금 사업비가 452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51%입니까, 아니면 51%만 집행하고 남아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까?

○본부장 임성빈 그 부분은 부지매입비하고 총 합쳐서 그런 거고요. 실제 공사비는, 이미 이견 계획상 금액이고 공사분은 84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허창원 위원 이게 지금 에어로케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라고 제가 아까 들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조성원가로다가 분양을 하시는 건가요?

○본부장 임성빈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임성빈입니다.

지금 현재는 당초에는 조성원가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절반 정도 조성이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을 추후까지 다 마무리를 해서 줘야 될지 그건 아직 활용계획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아직까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허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허창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입니다.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항공수요는 충분하나 노선이 부족하여 인천·김포공항으로의 빨대효과가 여전”하다라는데 노선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이유는 될 수 있지만 혹시 다른 이유는 검토해 보신 게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사실은 저희가 인천이나 김포공항에 비해서 노선이 가장 부족

한 거고요.

일단은 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내 관광지가 사실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최근에 일어난 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이베이를 가는데 우리는 오후 2시 비행기가 있더만요, 청주공항에서.

그거는 타고 가면 하룻저녁을 그냥 허비해야지 되는 그런 경제적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청주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간대 어느 타임에 이 노선을 유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짚고 검토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네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구요.

저희가 황금시간대에 아니면 고객들이 꼭 필요한 시간대에 이렇게 집어넣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항공사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항공사하고 잘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또 하나 그 노선이 여러 가지 지금 이스타항공 들어오고 또 대만, 오사카 이렇게 노선 확보되면서 나름대로는 좀 갖춰가는데 혹시 지금 확보된 노선 외에도 이런 이런 곳은 노선 확보가 필요하겠더라고 검토하는 지역은 혹시 검토되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지금 제가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에어가 정부로부터 조금 저기를 받고 있습니다. 제재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게 좀 완화가 된다면 아마 좀 노선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국토부에 진에어나 그런 쪽의 제재나 그런 거를 좀 빨리 완화해 달라, 그런 거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하루에 필리핀 클락 같은 경우에 한국인이 2,000명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물론 한국 관광객이 필리핀으로 가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만 하루에 여섯 편이 지금 한국에서 필리핀 클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열 편까지도 확장이 되리라는 것을 제가 클락 당국으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갖고 이것도 좀 로열타임을 놓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위원님, 좋은 정보고요 저희가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다음에 활주로 확장 부분을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보고내용 중에 보편은 4쪽에, 활주로 확장이 456m를 확장하는 거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 내용이 언제쯤 되리라고 혹시 계획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이거는 저희가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나 그런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게 더 우선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중단거리인 거점항공사를 유치해 봐서 그 거점항공사가 정착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거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정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주공항의 정책이나 그런 게 혼선이 올라가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게 B/C가 아직은 잘 안 나옵니다. B/C가 잘 안 나와서 국가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거점항공사를 유치를 하고 그래서 이용객이 500만 시대로 돌파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지금 당장은 국가계획에 먼저 넣게 되면 차차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시점 같은 거는 확인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나름대로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표시만 해 놓는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예, 그거는 저희가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부적으로 저희 최대 현안으로 지금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모 청주의 대기업이 부품을 중국으로 보내서 반제품 만들어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주의 업체가.

그게 톤당 운반비 비용이 4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물을 청주공항으로 받을 수 있으면 엄청난 경제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활주로는 짧아서 인천공항으로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경제 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예, 저희 최대 현안으로 저희가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게 좀 의아해했습니다.

지금 활주로 확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이게 아마 계획이 안 잡힌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돼 있는 건가, 이렇게 저도 여쭙려고 그랬었는데 활주로 확장에 대해서도 그 목적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획까지 좀 철저히 수립을 해서 다음에 한번 저희하고 간담회 등을 할 때 다시 말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하여간 저희 의견은 확고하고요.

일단 국가를 설득해야 되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수준에 넘어와야지 이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게 가장 급하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게 청주공항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 오래전부터 '청주공항 활성화' 이렇게 딱 구호처럼 외치고 그랬죠.

그리고 이 활주로 확장도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뭐 진척되는 건 없고.

그래서 그러면 진척된 게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좀 한발짝이라도 더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대안을 찾아보는 해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오늘 아까 간담회 하면서 좀 깊이 있게 토론하기가 시간이 적절치 않겠다라고 해서 추후에 간담회를 또 잡고 저희가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주공항 활성화가 이제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주공항 활성화에만 저희가 그치고 있었어요.

사실 청주공항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어야지만 저희한테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보고하신 것도 보면 대체적으로 이 교통망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인바운드 관광보다 아웃바운드 관광에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접근성이라는 게.

지금 공항을 이용해서 인바운드 관광객이 실제적으로 어디로 갈 때 교통의 편리성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청주공항에 어떻게 빨리 와서 청주공항에서 비행기를 이용하고 밖으로 나가느냐, 이게 이제 아웃바운드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우리 지역경제에,

청주공항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는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뭇 의아심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 항공 노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허가 조건이 굉장히 좀 쉽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LCC가 보면 일본 노선에 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어로케이도 처음에 일본 취항을 지금 목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에어로케이가 과연 일본 노선에서 경쟁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확장되면서 기존에 있는 동남아 노선에 과연 경쟁력을 가지고 에어로케이가 안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또 의아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어로케이 안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함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고근석 국장님 우리 관광개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관광개발 내용 또한 대체적으로 국내 여행객에 맞춰져 있는 이런 관광의 패턴이죠.

그렇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공항을 이용해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광과는 약간의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초경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웰니스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가능한데 지금 에듀팜이나 충주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외국 관광객의 니드(need)에 맞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좀 계획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청주공항을, 아까 우리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청주공항을 이용할 때 청주에 그러면 하루를 머물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은 또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꼭 공항을 통해서 나가고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 관문만 할 것이 아니라 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저희가 국내관광은 제주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공항을 이용한 거

(제373회-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위 제2차)

는.

그런데 그거에 한계가 있으니까 외국을 나가면서 여기서 하룻밤이든, 들어올 때 하룻밤이든 국내 관광을 통하고 여기에서 하룻밤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관광개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도, 사실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이나 문화체육관광국은 어떤 여러 가지 개발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민원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자는 거니까.

그런데 경자청은 아마 민원하고도 많이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 적절히 좀 잘 대응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과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더 우리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저희가 깊이 있게 토론하고 좀 무언가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이상식 송미애 육미선 이상욱
허창원 이옥규 임영은 연중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 이강운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장 고근석
·균형건설국 장 이창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임성빈

○출석위원(8인)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9일(화) 9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포스트코로나19 대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등 업무보고
2.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 안건

- | | |
|---|----|
| 1. 포스트코로나19 대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등 업무보고 | 1면 |
| 2.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 9면 |

(09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포스트코로나 대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포스트코로나19 대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등 업무보고

(09시06분)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항 포스트코로나19 대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등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포스트코로나 대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 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트코로나 대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과 에어로케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포스트코로나 대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입니다.

항공시장 동향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금년 2월부터 국제선은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전 공항의 운항이 중단되어 청주공항의 경우 전년 대비 95.2%가 감소됐으며 국내선은 여행심리 회복으로 4월 말부터 회복세에 있습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국내의 일부 항공업계에서는 국제선 운항을 단계적으로 재개 준비 중에 있어 향후 여행 수요에 대비한 항공시장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 한국공항공사 측의 2020년 청주국제공

항 여객수요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국내선을 당초 284만 명에서 210만 명으로 하향조정하고, 국제선은 70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대폭 축소해 2020년 총여객 수요를 당초 354만 명에서 223만 명으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다음 2쪽,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입니다.

첫째, 코로나 대응 방역체계 강화 및 항공업계 지원입니다.

공항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여객터미널 방역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도, 청주시, 공항공사 등과 협조해 국내선 출·도착장에 열화상카메라를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검역법」 개정 에 따라 인천검역소 분소로 운영 중이던 청주공항 검역소가 내년에 별도 조직으로 신설 예정으로 공항방역체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항공업계 주요 지원대책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가 큰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운수권 및 슬롯을 전면 유예하여 항공사 영업권을 보장하고 정류료, 착륙료, 임대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통해 피해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노선 다변화입니다.

우선 거점항공사 출범을 통해 노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는 금년 8월경 국내선 취항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5개국 11개 국제노선을 운항할 계획입니다.

국제항공 운수권 확대를 위해 동남아 등 운수권을 지속 유치하고 올해 청주공항에 배분된 중국 운수권 3개 노선은 항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금년 취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국제 정기노선 개설을 위한 항공사 재정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바운드 노선개설 촉진을 위한 항공사 노선 인센티브 지원, 수도권 케이블 방송, 해외매체 활용 마케팅 등 노선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항공사 성장 기반 마련입니

다.

항공기 정치장 유치입니다.

청주공항은 '16년 F급 항공기 교체공항 지정 노력으로 최근 신규 대형항공기 14대의 정치장 등록을 추가 유치했으며 확보한 재정은 항공사 항공정비 지원뿐만 아니라 거점 항공사 운항장려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점항공사 출범 대비 에어로폴리스 1 지구 개발계획에 항공정비 등을 위한 유보지가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항시설 확충입니다.

민군복합 활주로 성능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활주로 재포장, 비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 조정, 장거리 노선 유치를 위한 활주로 확장 등을 지속 추진하고 활주 주변 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 흑산·울릉공항 개항 대비 소형항공기 전용계류장을 신설하고 군용활주로 민항기 이착륙을 위한 항행 안전시설을 조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한 국제여객 및 화물청사 확충과 항공기 사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공항 소방대를 2021년까지 신설하여 항공기 수요증가 및 대형화에 따른 운항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획 반영입니다.

최근 고시된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말 고시예정인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항공정책, 활주로 확충 등 청주공항 활성화 개별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관광-공항 연계 선제전략 마련입니다.

인바운드 유치 확대를 위한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 방안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교통연계 부족과 언어소통 불편 해소를 위해 청주공항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투어버스 운영, 대중교통 다국어 교통안내시스템 등 관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주요관광지 내 다국어 안내표지판 설치·확대, 충북관광 외국어 홈페이지 전면 개편, 외국어 가능 문화관광해설사 육성·배치 등 관광안내 서비스를 개선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숙박·식당 등 외국인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친화 숙박업소를 지정해 체류관광 확대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친화 식당 인증제를 추진하는 등 외국인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략적 해외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청주공항 국제정기노선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외 마케팅을 추진해 충북관광 인지도를 제고하고 충북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판촉을 위해 충청북도 전담여행사를 운영하였으며, 기존 체류관광 숙박비 지원 외 충북 당일 관광상품을 운영·지원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북특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성지순례, K-뷰티 등 충북도만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지속 개발하고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의와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시너지 효과 창출을 꾀하겠습니다.

다음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입니다.

국토부와 문체부에서 지난 1월 추진 중에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된 인바운드 시범공항 MOU 체결을 재추진하고 외국인 방문 편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공-관광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코로나 이후의 관광 변화 및 항공-관광 육성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공항 연계 교통망 확충입니다.

국가계획에 반영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기본설계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으로 금년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실시설계 예정이고,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국토부에서 기본계

획 수립 용역 추진 중이며 행복도시~청주공항 연결 고속화도로는 지난 5월에 제3차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외 충청신수도권 광역도시철도, 수도권내륙선, 중부선철도 건설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경기 남부권인 용인·평택 시외버스 신규노선도 개설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여덟 번째 포스트코로나 도내관광 활성화 대책입니다.

해외 관광수요의 국내관광 전환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관광 분위기 북업 조성을 위해 도내 관광지 구석구석 다니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특별 여행주간 운영 및 세미나 등 각종행사의 도내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북 스타일만의 특화 관광상품 확대를 위해 호수여행, 성지순례코스 등 충북대표명품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이색 맛집 등 충북 일상체험 관광콘텐츠를 발굴 웰니스관광 등 고부가 특화관광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충북관광 SNS 채널 활성화, 청정 충북관광 클린존 캠페인, 방방곡곡 충북관광 로드마케팅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관광분야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지원금 5억 원, 예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기 확보했으며, 차후 공모 예정인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등에 대해서도 적기 대응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령산 모노레일 설치, 단양 에코 순환루트 인프라 구축,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에어로케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에어로케이는 작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발급 받아 같은 해 10월 국토교통부에 운항증명을 신청했으며 금년 2월에는 1호기 도입과 4월에는 본사를 청주 오송으로 이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운항증명 관련 서류 검토가 통과돼 청주공항에서 시범비행, 비상착륙 훈련 등 현장검사가 한 달여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검사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7월에 운항증명을 발급 받아 금년 8월에는 첫 국내선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안정되면 타이베이 국제선 운항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3월 취항예정이 여러 가지 변수로 늦어지고 있지만 어렵게 유치한 도민의 열원인 거점항공사가 우리 지역에 잘 안착하여 성장하고 이로 인해 청주국제공항이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34쪽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차로서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 위한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포스트코로나 대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등과 관련하여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임영은 위원 고근석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라기보다도 한 가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역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충북에서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4개 광역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내륙선 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4개 단체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이번 계획에 반영이 돼서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국제선은 물론이고 국내선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부분 속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마 동탄에서 청주공항과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 철도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철도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관련부서에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토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성 분석이나 그런 게 선행이 돼서 그런 사전조사가 지금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도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임영은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아마도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배후 인구가 충청권 인구만 한 580만이라는 인구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청주국제공항 거점을 하고 있는 에어로케이라든가 저가항공사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협조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활주로 연장 계획 건이 나와 있는데요. 맨 아랫부분에 혹시 어떤 계획이나 추진 그런 사업계획이 서 있는 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이게 청주공항이 장거리노선을 이제 확충을 하려고 그러면 활주로 연장이 필요한 건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활주로 연장은 우리 10여 년 전부터 우리 지역민의 큰 숙원사업인데요. 이게 아마 2013년도에 기재부에서 사전에 예타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항공수요가 부족해서 B/C가 한 0.32 정도로 나와서 이게 다시 저희가 건의를 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도에는 국토부에서 다시 또 재계획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부족으로 그때 당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선을 더 확충하고 항공수요가 더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다시 또 건의를 드려서 B/C를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국토부 공항개발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국가계획에 일단 이런 걸 반영을 해 놓고 그다음에 B/C를 확충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급한 거는 국가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수요를 늘리는 그런 작업이 좀 선행이 되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제 수요가 있으면 그 활주로를 확장한다는 개념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활주로를 확장해 놔야 수요가 생기는 것이지 그 비행기가 이런 일반교통과는 틀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그 의견을 취합해 갖고 꼭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그 관광활성화 차원에서의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는 사실 관광인프라는 엄청 열악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관광인프라가 뛰어난 전남이나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한국여행자가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단체가 거기를 1박2일 내지는 2박3일 초빙을 해서 그 뛰어난 관광인프라를 홍보를 하는데 우리는 언제 그런 계획을 한번 실행한 적이 있거나 계획은 있습니까, 충청북도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위원님 저희가 이제 여행사 대표나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관광코스를 사전에 안내하고 그런 사업들을 해 봤는데 지금 여행자가협회는 제가 들은 바는 없어서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여행자가협회나 그런 분들을 사전에 모셔서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 여행자가협회가 전국에 관광인프라를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면서 홍보를 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군단위로 해남이면 해남 이런 쪽에서 군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군단위로 하기에는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라도 2박3일 아니면 1박2일이라도 여행자가협회를 한번 초빙을 해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행자가협회 그 임원 중에 한 분이 피산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명 얘기하기는 그렇고 내가 끝난 다음에 이름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봐 갖고 한번 하면은 아마 좋은 협조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위원님 좋으신 아이디어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상욱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여행자가협회 저도 활동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 웹투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은 여기서 저희가 관광인프라 관광 매력물들을 만들어 놓고 이분들이 그것을 전파를 스토리텔링을 엮어서 이렇게 전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여행작가협회에 있는 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모셔본 적이 있어요, 몇 분들을.

그런데 모신다고는 했는데 그다음 일정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디어디를 어떻게 해서 우리 충북을 소개를 할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치밀하게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관광 매력물을 묶어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공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B/C에 기대기는 사실상 상당히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국토부에서도 노선배정을 좀 제한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정도의 수요 이상은 저희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어도 일정수준 이상의 관광객은, 아니 이용객은 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체가 B/C를 제한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을 해 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연중석 위원님.

○연중석 위원 연중석 위원입니다.

우리 고근석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청주공항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우리 청주공항에서 운항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밖에 없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지금 국내선은 거의 제주도 노선 하나입니다.

○연중석 위원 지금 국제선은 운항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국제선은 운항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연중석 위원 지금 사실상 이 관광업계가 최악으로 치달고 있지마는 그래도 앞으로 지금

미래를 본다면 청주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저희 행문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제안을 해 주셔서 우리가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을 사실 상당히 저희가 좀 약했습니다. 인바운드 관광에서 약해서 금년에 저희가 연초에 전략적으로 우리 관광항공과하고 머리를 맞대서 인바운드 관광활성화에 대한 어떤 다양한 시책이 한 20개 이상 이렇게 마련해 갖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실천도 못해 보고 지금 코로나가 와서 저희가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쉽고 그래서 하여간 언젠가는 아마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계획 세웠던 거 저희가 지금 좀 연기할 때라고 저희 과에서는 연기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기회에 이 계획 같은 거를 하다못해 종교나 어떤 그런 어떤 관광코스개발 호수여행 뭐 그런 이럴 때 코스개발 같은 거를 세밀하게 이럴 때 해 보자 그런 것을 아침에 얘기 좀 하고 그랬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서류상으로 준비는 지금 하고 있지만 실천을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코로나가 종식돼서 저희가 이제 충북이 인바운드 관광도 좀 저변을 넓혀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연중석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지마는 지역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 또 우리 공항활성화가 꼭 운항에 대해서 활성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바운드 유치방안을 최대한 노력하시고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왔던 우리 총리 주재 관광대수 활성화 그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

면 내용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저희 관광항공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저희 자체적으로 전문가들 모시고 이번 달 말에 저희가 별도로 중평에듀팜특구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여기 6쪽에 보면은 외국인 다국어 표지판 설치 확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다 결제가 되고 스마트폰으로 다 되는 세상이 왔는데 우리 청주공항도 우리 지금 다국어 표지판도 좋지만 핸드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모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청주공항에 인바운드 중심공항 육성하기 위해서 청주공항에 이런 외국인 안내시스템이든지 아니면 교통노선 청주공항에 외국인이 딱 내렸을 때 충북에서 자기가 노선을 선택한다든가 뭐 그런 모든 시스템을 안내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국가에서도 지원이 돼서 그런 사업을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조기에 그런 걸 빨리 구축을 하시고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되고요, 조속히 청주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다각적인 그 정책이나 여러 가지들 모색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가요?

이상욱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에어로케이 1호기가 청주공항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시간이 지나

면서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나치게 노후기가 들어온 게 아니냐라는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그렇게 노후기는 아니고요, 그게 새로 구입한 건 아니고 임대입니다, 임대.

그런데 아마 기형은 한 10년 정도는 된 거 같습니다, 그렇게 노후기는 10년 정도면 노후기는 아닙니다.

○이상욱 위원 어쨌든 그 주변에서 업계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지나친 노후기가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에어로케이 측이나 우리 도에서 같이 이렇게 홍보라면 홍보랄까 어떤 해명이라면 해명 이런 걸 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터 하기는 그렇지만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그런 어떤 설명을 좀 같이 해서 우려하는 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행기를 신형 비행기를 구입하고 그런 거보다는 지금 에어로케이가 얼른 정상화돼서 이렇게 빨리 운항을 정상적으로 하는 게 더 급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운항을 하게 되면 재정여건이나 그런 게 좋아져서 비행기도 좋은 비행기를 더 들여올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운항증명을 받아서 빨리 에어로케이가 정상화되는 게 더 급하다고 봅니다, 비행기의 그 노후나 그런 거는 그다음 문제고요, 더군다나 또 지금 현장검사나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게 안정성이나 그런 걸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충북톡톡인가요. 관광안내앱 그 사용량이 체크가 되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충북톡톡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SNS.

○위원장 이상식 예예, 그 앱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제가 정확하게 통계치를...

○위원장 이상식 아니, 알겠습니다.

그 사용량도 체크를 해 가면서 그것이 좀 더 활성화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도 좀 충북관광을 위해서 좋겠다라는 제안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안 드릴게 사실 얼마 전에 설문조사가 있었죠.

전 세계 경제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약 50%가 넘는 분들이 10월경에 2차 팬데믹이 올 것이라라고 예측을 해요.

그리고 코로나 이슈가 사라지는 것은 내년 4월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는 것은 내후년쯤에나 가능하다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인들이 보건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분들은 경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상 한 전문가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맞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사이에 그럼 우리는 손을 놓고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고요.

2차 팬데믹과 지금 약간 소강기 이 사이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이슈가 사라졌을 때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 그러면 우리 관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가령 이런 겁니다. 아웃바운드는 저희 관광객이 그러니까 청주공항 활성화는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가 있는데 아웃바운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의 상황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들은 이게 이슈가 사라져도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당분간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라면 K-방역이 세계적인 모범이 됐기 때문에 인바운드가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인바운드를 끌고 오는데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물은 뭐냐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죠, 성지순례, K-뷰티 같은 것.

이제 힐링입니다, 힐링.

그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시간 피로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관광객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그런 관광지보다는 코로나에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한 힐링 관광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관광객을 대비해서 이러한 것들 저희 사찰도 유명사찰도 꽤 많이 있고요 자연자원도 좋은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인바운드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를 하시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업내용들 특위 위원님들한테 꼭 위원회가 열리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포스트코로나 대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국 장
관 광 항 공 과 장

교 근 석
이 승 기

2.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위원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09시38분)

○위원장 이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관련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특위활동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위원을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상식 송미애 육미선 이상욱
허창원 이옥규 임영은 연종석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권 영 주
운 영 특 위 전 문 위 원 이 강 운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관광국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16일(수) 13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에어로폴리스 1~3지구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에어로폴리스 1~3지구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업무보고의 건 1면

(13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 특별위원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에어로폴리스 1·2·3지구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청주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 용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입니다.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현안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핵심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에도 애정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청주공항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이강명 본부장입니다.

박노학 기획행정부장입니다.

이석식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윤치호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전형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에어로폴리스 1~3지구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업무보고의 건

(13시34분)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항 에어로폴리스 1~3지구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명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님 나오셔서 에어로폴리스 1·2·3지구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청주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 용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강명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이강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협조

와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별 추진현황과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2013년도에 지정고시되어 사업을 추진하던 중 아시아나의 MRO사업 포기와 MRO특위의 매각권고 등 난항을 겪어오다가 지난해 9월 재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1지구는 그동안 대형여객기 MRO단지에서 전문가와 도의회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회전익과 유보지를 포함한 혼합형 정비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정하고 지난해 10월에는 회전익 정비업체 3개사와 MOU를 체결하는 등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천안에서 청주공항 복선전철 노선 저축구역 제척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MOU를 체결한 업체와 입주를 논의하고 있으며 분양가, 분양면적 등을 조속히 확정하고 예정대로 11월에는 착공하여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도 1지구와 마찬가지로 아시아나의 MRO사업 포기, MRO특위의 경자구역 지정 해제 권고 등의 위기를 겪었으나 2017년에 사업 재추진을 결정하고 기업입주수요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였고, 2019년 12월에는 부지확장과 이주자택지가 포함된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20년 5월에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승인 신청하였고 금년 말까지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이주자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이주자택지 조성사업은 지구 내와 지구 외로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 이주자택지 사업은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반영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어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고 지구 외 이주자택지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 외 이주 희망가구는 16가구로 2019년 2월 이주자택지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지를 구성리로 정하고 지난달에 이주자택지 보상 공고를 하였습니다.

당초 9월 중에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토지 소유자가 부지 매각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토지주와 협의 매매를 우선 추진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소유권이 확보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사전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여 이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입니다.

3지구 조성사업은 에어로 1·2지구의 항공정비 부품소재, 항공 및 연관 산업 집적화를 통해 항공 R&D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몇 가지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 선정되지 않아서 먼저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후 나중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4월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제출하였으나 항공 관련 산업, 반도체, IT·BT 수요 추가확보와 물류시설 조정 의견으로 지정이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도 산업단지 지정을 받고 이후 개발계획과 실시

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22년도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 용역 추진상황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은 국토부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토대로 지역 특화산업 및 에어로폴리스,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관광, 문화, 상업, 주거 그리고 교육 및 체험기능을 포괄하는 인구 5만의 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는 내용은 에어로폴리스 1·2·3지구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사업구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해외 공항복합도시개발 사례를 분석하여 발전방향, 도입시설 검토, 주변 지역과 연계성 등 다양한 방향에서 신도시 조성의 최적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보고나 최종 보고회 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한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용역내용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경자구역 추가지정과 함께 국토부와 협의하여 정부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복합신도시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강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에어로폴리스 1·2·3지구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과 청주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 용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과 관련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계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은 위원님.

○임영은 위원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전형식 청장님 그리고 이강명 본부장님 함께하신 것도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아마도 이주자택지 조성 문제인데, 이게 결국은 단지 내하고 단지 외하고 확실하게 이분들이 그 선을 그은 거죠?

전에 같은 경우 이게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잘 해결됐다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이주자 지구의 지정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속히 그 땅 주인이죠, 땅주인, 토지 소유자 이분들하고 원활하게 일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원활하게 우리 지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심도 있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임영은 위원님, 답변 필요 없으신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지금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적인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 외 이주 희망가구가 16가구고 그 16가구가 지금 이전할 데가 구성3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선 그 16가구와 쟁점사항 있지 않습니까, 면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예.

○이상욱 위원 80㎡로 할 거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80평이나 100평이나...

○이상욱 위원 아, 80평이나 100평이나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지금 구성리 땅 소유주하고 협의 매수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데 이분이 명확하게 판다, 안 판다 의견 표시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또 그와 병행해 가지고 중토위에 어떤 수용을 할 수 있게 그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 토지주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그러니까 복수인데요, 그 일가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한 소유주나 마찬가지로 지인 거죠.

○이상욱 위원 그 구성리에 사시는 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예.

○이상욱 위원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땅을 일단은 확보해서 용도 변경해야 되고 지구 지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행정적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주대상자 16가구와 어쨌든 80평이든 100평이든 우선 빨리 결론을 내는 걸 여기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이주자 택지가 구성이 마무리가 되면 주민들하고 어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 뭐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민원 들어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시간을 두고 해결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 보면 낫지 않을까...

○이상욱 위원 말씀 중에 최송한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지를 확보하는 게 1순위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예.

○이상욱 위원 두 번째로 이주자 16가구랑 그걸 확보해 놓은 다음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구 내하고 지구 외로 가시는 분들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상욱 위원 아, 글썄 그러니까 형평성 때문에 그 면적에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또 닭이 먼저냐 계란

이 먼저냐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80평... 우리 경자청에서는 80평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주자들은 100평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예.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합의가 안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주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100평을 주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토지주들이랑 협의한 그 면적이라든가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아, 그런 것까지 다...

○이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는 이게 우선순위를 두는 건 물론 순서가 있으니까 좋지만 그래도 나름 병행을 해서 같이 정리를 해줘야지 이 80평이라는 걸 일단 정해 놔잖아요, 내부적으로는.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예.

○이상욱 위원 내부적으로는 거의 변동여지가 없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본인들은 최대한 요구를 하겠다라는 개념인데 그러면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동네에 공유지로 해서 이주자들이 요구하는 그 면적을 커버해 주는 그런 형식인 거 그렇게 방식을 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벌써 그게 1년 전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업무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내가 보기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밝아야 될 절차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협의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그게 나는 또 지금도 내가 조금 당황...

내가 어제 알았어요. 토지구상 지금 거래 성사가 안 돼서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경자청에서 보고된 내용은 아니고 다른 데서 알았는데.

거기 그 장소를 선택했을 때 나는 토지구상 전혀 얘기가 되지 않고, 나는 그게 사유지로 알고 있었거든요.

사유지라서 시에서 용도 변경해 주고 요구하는 면적을 분할해 주고 이런 절차가 시에서 협조만 되면 되는 걸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별도의 토지구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토지구상 전혀 얘기도 없고 남의 땅 갖고서 지금 분양을 하니 마니 지금 우리가 업무를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는 절차적으로 큰 오류가 있었던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주자택지를...

구성리 전에 거기가 사유지였었던 거예요. 사유지는 이주자택지를 조성하기가 지금 현행 법률상 조금 어렵습니다.

사유지를 사 가지고 하는 방법이 가장 수익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고요.

이 토지 소유주항도 사실은 예전부터 계속 접촉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안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조건도 없고 그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 금액을 제시를 하니깐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거에 반절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상욱 위원 그러면 만약 여기가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아니, 그래서 중토위에 수용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수용절차를 밟아 가지고 강제수용되

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요.

○이상욱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사실은 지금 이 이주자 문제는 MRO단지에서 아주 극히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주난민에 가까운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상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80평, 100평 이걸 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어떤 점점에 대해서 다른 논의가 진행되는 거 있나요, 다른 대안이?

아까 우리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유면적을 조금 더 제공하는 거라든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그러니까 저희는 마지막에 모든 가능성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어떤 땅 면적을 그 땅을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 가능한 공유지가 됐든 개인한테 분할을 하든...

그리고 사실은 실제 어떤 이주자택지를 조성하는 단계가 되면 개인마다 또 어떤 원하는 면적이 또 틀릴 거라고요. 그 사항도 또 감안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식 네,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예.

○위원장 이상식 그러니까 문제의 가능성도 있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좀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불편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조속한 시간 내에 어쨌든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여쭙보겠습니다.

일단 1단지요, 1단지가 지금 2020년 11월
올해 두 달 뒤면 착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
금 여기 회전익을 MOU를 체결하고 사실상
저희가 오늘 공항특위에서 경자청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 사실 공항 활성화가 그
러니까 항공사로 인해서 일정정도 시너지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항공사는 이미 어려워졌어
요, 그리고 앞으로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어떤 것
들이 있느냐, 그때도 내부적인 게 있고 외부
적인 게 있습니다.

외부적인 건 우리 경자청에서 추진하는 여
러 가지 사업들이 공항을 비롯해서 공항 인근
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 회
전익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영향
을 상대적으로 좀 적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예.

○위원장 이상식 회전익은 대체적으로 국내용
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앞당길 수 있으면 최
대한 앞당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단지 조성이 2022년이거든요.
2022년이면 사실상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극복
을 위한 시기적으로는 좀 많이 늦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당겼으면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나
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그래서 우리
가 단지를 준공을 하고 업체들을 입주시키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는 우리가 51% 공정까지
는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어
떤 여기 입주하는 기업이랑 같이 착공을 하려
고 우리는 재착공이고 그다음에 입주 기업들
은 11월 달부터 격납고를 짓기 시작하는 방식
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 여기 '22년 6월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이 11월경에는 격납고
공사를 들어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보다는 훨씬 당겨질 수 있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네, 좀 우려했던 부분인데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
응하시는 것 같아서 좀 좋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쭙면, 3지구 입주
수요가 105%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그전에
수요 파악한 거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도 105%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지금 현재 3
지구 같은 경우 원래 2지구에 어떤 경자구역
지정 승인은 받았지만 국토부의 산업단지 승
인을 받는 과정에서 원래 2지구에 물류기업들
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산업단지인데 무슨 물
류기업이나 해 가지고 3지구에 있는 기업들을
2지구에 입주시키는 식으로 해서 2지구 물량
을 채워서 지금 국토부의 심의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산업단지에.

3지구 같은 경우는 3지구에 입주하려고 하
는 기업들을 2지구로 조금 끌어들었으니까 다
시 조금 입주 수요를 더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위원장 이상식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전에 사
실상 경제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올 때 그때
수요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단 코로나가
대표적으로 거론되지만 그것 때문에도 기업들
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그때 수요율이 그
때와 아니면 수요율은 아까 그것 때문에 틀려
졌다고 하더라도 수요기업 수가 현행과 같이
유지가 되는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그게 아마 지
금 제가 이렇게 봐도 오송 쪽은 바이오기업
쪽이라서 어떤 투자계획이나 이런 게 변동이
없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어떤 항공정비나 부
품 이런 쪽 사업이 주로 있다 보니까 수요변

동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있을 것이라고 예상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체크를 그때그때 해주셔야만 그다음에 사업 차질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 다음에 한번 만나 뵈 때 정확하게 한번 다시 체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 용역이거 맨 하단에 보면 용역결과를 국토부에 선반영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청주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으신 것 같고요.

차질 없이 그리고 관철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에어로폴리스 1·2·3지구 사업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율위헌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출석위원(8인)

| | | | |
|-----|-----|-----|-----|
| 이상식 | 송미애 | 육미선 | 이상욱 |
| 허창원 | 이옥규 | 임영은 | 연종석 |

○출석전문위원

| | |
|-----------------|-------|
| 수 석 전 문 위 원 | 권 영 주 |
| 운 영 특 위 전 문 위 원 | 정 훈 |

○출석공무원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 | | |
|---|-----------|-------|
| 청 | 장 | 전 형 식 |
| 본 | 부 장 | 이 강 명 |
| 기 | 획 행 정 부 장 | 박 노 학 |
| 개 | 발 사 업 부 장 | 이 석 식 |
| 투 | 자 유 치 부 장 | 윤 치 호 |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9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면

(09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를 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09시33분)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항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좀 충분히 상의드리지 못한 점을 사죄드리고요.

다만 건의문에 대해서 같이 회람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의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 | | | |
|-----|-----|-----|-----|
| 이상식 | 송미애 | 육미선 | 이상욱 |
| 허창원 | 이옥규 | 연종석 | |

○출석전문위원

| | |
|----------|-----|
| 수석전문위원 | 권영주 |
| 운영특위전문위원 | 정훈 |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월 28일(목) 9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 1.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동의의 건(청주국제공항활성화
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면

(09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회기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한 것은 연중석 위원님과 임영은 위원님 두 분께서 사임서를 제출하셨기에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사임 처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동의의 건(청주국제공항활성화 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09시10분)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항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임 처리에 앞서 연중석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순으로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연중석 위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중석 위원 시원섭섭합니다.

그동안 우리 공항특위 위원님들과 정말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옆에서 저도 많이 도와드리고 또 같이 활동하는 식으로 있을 테니까 오늘 사임하는 게 멀어지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감사합니다.

우리 임영은 위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영은 위원 임영은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서둘러서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그동안에 공항특위를 하면서 우리 충청북도의 가장 큰 획기적인 일들을 여가서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우리 청주국제공항 모기지에 에어로케이 거점항공사를 유치하면서 가까스로 지난 연말에 항공 운항증서가 발급이 되는 시기까지 정말 고생하셨고 또한 올해도 우리 에어로케이 항공이 무난히 이륙할 수 있도록

록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특히 이상식
위원장님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충북 발전과 청
주국제공항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신 위원님들
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인사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해서 결과 때까지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올해 청주공항장도 바
뀌고 에어로케이도 취항을 하고 그리고 국가
철도망도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것이 올해
발표될 예정인데, 에어로폴리스지구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청주공항 활성화에 막대한 발
전의 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이때 함께하셨으
면 좋았을 걸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안건의 당사자인 연중석·임영은 위원님
두 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연중석 위원·임영은 위원 퇴장)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제5항
규정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그 위원회의 동
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사임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 간담
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셨으
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사
임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국제
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6
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상식 송미애 육미선 이상욱
이옥규 임영은 연중석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권 영 주
운 영 특 위 전 문 위 원 정 훈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3월 17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 1. 업무보고의 건 1면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청주공항 중심)
 - 국가철도망 구축 관련 청주국제공항 발전전략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7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회기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2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청주공항 중심)
- 국가철도망 구축 관련 청주국제공항 발전 전략

○위원장 이상식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국가철도망 구축 관련 청주국제공항 발전전략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균형건설국,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진행하고, 모든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전에 좀 말씀드리면 우리 균형건설국의 충청권 광역철도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현안보고를 청했는데요.

이제 일각에서 업무량도 많으신데 우리 의회에서 자꾸 소집하고 업무시간을 좀 뺐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말씀도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청주공항 특위를 처음에 구성할 때 광역교통망 거기에 대한 목적도 분명히 명시돼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중부내륙선 동단발, 수서발 그 철도의 종점이 청주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광역철도의 종점도 청주공항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철도의 종점이 청주공항이었다는 것은 청주공항 활성화나 청주공항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거기를 종점으로 잡았는데 이제는 사실상 그 두 선이 연결돼서 종점이 아니라 이제 경유지로 됐죠.

그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청주공항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찰을 해 보자 이런 뜻이었구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교통과에서 주도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데 매번 사안이 조금씩 변해 가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도가 사실상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하게 이해도를 제고해서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일조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균형건설국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런 점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인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균형건설국장 김인입니다.

존경하는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충북 100년 발전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는 충북도 철도사업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도의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관련한 충북도 철도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철도사업 추진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개요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 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과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05년 「철도건설법」 제정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수립되었으며, 국토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공청회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에 수립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

업 반영을 위해 '19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최적의 노선과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19년 10월 충청권광역철도 등 13건의 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건의 후에는 논리 등을 보완하여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 기관과 국회 등에 반영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철도사업 추진 개요입니다.

철도사업은 구상단계부터 완공까지 15년 내외가 소요되며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공사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건설하게 됩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은 철도사업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철도사업의 근거가 되는 중장기 법정 계획입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의 반영은 사업의 추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추진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대상사업 선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반영 시에는 예비타당성 검토 등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함으로 계획에 우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영 후에는 계획기간 내에 미추진되더라도 차기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에 유리합니다.

3쪽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관련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권광역철도입니다.

전체 161.5km 구간으로 사업비는 5조 6,340억 원이며, 청주공항에서 청주도심 그리고 오송을 잇는 구간은 22.2km로 사업비는 1조 3,882억 원입니다.

충청권광역철도 사업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는 국가 균형발전 논리로 급부상한 충청권 메가시티와 행정수도 완성은 근간사업으로서 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하나의 생활권 형성의 최고의 효율적 수단입니다.

'19년 10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20년 9월 대전·세종·충북이 공동으로 수행한 사전타당

성조사 용역결과를 제출한 이후 12월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공동으로 국토부에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4쪽, 충청권광역철도 사업의 기대효과입니다.

첫 번째, 85만의 청주시민과 대전·세종시민 간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1일 16만 5,000여 명 규모의 인적교류가 광역철도 구축 시에는 22만 명으로 33%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두 번째, 통행시간 및 교통비 획기적 절감입니다.

청주에서 대전 간 통행시간은 70분, 교통비는 3,900원을 절감하게 되며, 세종 간은 통행시간 52분, 교통비는 1,450원이 절감됩니다.

세 번째, 청주공항과 오송역 활성화입니다.

청주공항 이용객은 '19년 기준 300만 명 수준에서 4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며, 오송역 이용객은 '19년 기준 860만 명 수준에서 1,000만 명 이상으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네 번째, 경제활성화와 도시 상권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충청권의 생산유발효과는 2조 7,497억 원으로 예상되며 특히 청주는 구도심권 상가 활성화와 도시재생 극대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5쪽, 충청권광역철도 노선도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입니다.

경기도 동탄~안성~충북 선수촌~혁신도시~청주공항을 잇는 78.8km 구간의 광역철도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2조 3,157억 원입니다.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는 청주공항 활성화, 중부권 철도교통 서비스 제고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과 중부권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준고속차량인 EMU-250의 운영을 통해 중부권 철도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19년 11월 경기도·충북도·화성시·안성·진천군·청주시가 공동협약 이후 민관합동 결의대회, 국회 토론회, 건의문 및 서명지 전달 등을 통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20년 12월에는 일반철도에서 광역철도로 변경추진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7쪽, 기대효과입니다.

첫 번째, 교통 측면에서 수도권 지역과 청주공항 등 중북내륙지역과의 교통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과 교통비용 감소가 예상됩니다.

승용차 대비 시간은 40분이 절감되며, 비용은 6,723원이 절감됩니다.

또한 경부선의 부족한 선로용량 문제의 완화효과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 측면에서는 전체 5조 2,346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사업노선 건설에 따라 2만 2,580명의 고용유발효과도 예상됩니다.

세 번째, 역사적 가치 측면에서는 서울~안성~진천~청주를 거쳐 충북으로 가는 노선이 100년 전에도 이미 검토된바 있으며 수도권내륙선이 예전의 계획을 실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8쪽,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노선도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중부내륙선 지선입니다.

감곡(음성)~혁신도시~청주공항을 잇는 54.9km 노선으로 사업비는 1조 6,499억 원입니다.

중부내륙선 지선은 전국 혁신도시 중 교통환경 만족도가 최하위이며 광역교통체계가 미비한 충북혁신도시를 경유하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중부내륙선 개통과 대규모 산업단지 입지에 따른 여객 및 화물 등 수요증대에 대응하고 경부선 이용 수요를 분담하는 중부내륙선 기능강화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9년 10월 제4차 계획 반영 건의 이후 음성군 철도대책위 결성과 결의대회, 건의문,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하였고, 지역구 국회의원 공동 건의문 채택 등을 통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10쪽, 기대효과입니다.

첫 번째, 수도권 및 강원권과 충청권 간의 접근성 대폭 개선 및 국가 균형발전입니다.

2016년 개통한 강경선 북선전철과 '21년 개통예정인 중부내륙선철도 그리고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사업 등과 연계가 가능하며 강호축과 연계된 철도 연결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음성, 금왕, 충북혁신도시 등 지역 거점의 발전과 주변지역으로 경제활성화입니다.

1만 9,193명의 고용유발효과와 1일 1만 4,220명의 통행이 예상되며 특히 혁신도시 활성화 및 조기정착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경기동남권, 강원권 및 중부내륙권의 공항 이용 수요 확대에 청주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철도 이용 수요가 집중된 경부선 수요분담으로 국가철도망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1쪽, 중부내륙선 지선 노선도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기타 청주공항 관련 건의사업입니다.

첫 번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입니다.

중부권의 서해안 산업클러스터와 동해안 관광벨트를 상호 연결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45km이며 총사업비는 4조 7,824억 원입니다.

두 번째, 오송~청주공항~영덕 간 철도입니다.

중부내륙권을 동서로 연결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20km이며 총사업비는 4조 8,000억 원입니다.

세 번째, 청주공항~보은~영동 간 철도입니다.

보은·영동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제활성화와 청주시의 광역도시화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75km이며 총사업비는 2조 1,446억 원입니다.

13쪽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충북도 건의 전체 13개 사업내역과 14쪽의 건의노선 현황은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진행 중인 철도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입니다.

천안~오송~청주공항을 잇는 56.1km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8,216억 원이며, 경부선 천안~서창 구간 2복선화와 북청주역·청주공항역 신설 등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은 경부선 철도 포화상태 해소와 북청주역과 청주공항역 신설을 통한 철도이용 편의 향상 그리고 경기남부·세종·충남지역의 청주공항 이용수요 확대를 통한 청주공항 활성화 및 행정수도의 관문공항 완성 등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202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20년 3월 기본설계 용역결과 천안~서창 2복선화 관련하여 총사업비가 기본계획 대비 4,209억 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2020년 4월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구간 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타재 신속통과와 충북구간 우선발주 추진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16쪽,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노선도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마지막으로 충북선 고속화 사업입니다.

청주공항에서 제천 봉양읍에 이르는 전체 87.8km 구간을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2,807억 원입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강원권과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선 고속철도망 완성과 강호축 개발을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다만, 강호축 구축을 위해서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 이외에 추가로 호남고속선과 충북선을 연결한 오송 연결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19년 1월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오송 연결선 구축방안은 먼

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평택~오송 2복선 사업에 분기기를 사전설치하고 연결선은 추후 사업추진을 하는 등 단계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타면제사업 선정 시 미반영된 삼탄~연박 선형개량 사업의 추가반영 등에 따라 사업비가 대폭 증가됐으며,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기재부에 지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18쪽, 충북 고속화사업 노선도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충북 100년 발전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충북도 사업의 최대 반영과 진행 중인 철도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인 균형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국가철도망 구축 관련 청주국제공항 발전 전략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율위한특별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국가철도망 구축과 연계된 청주국제공항 발전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국가철도망 구축과 연계된 청주국제공항 발전전략입니다.

청주공항 여건 및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요 회복까지는 2년에서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우리 청주국제공항은 2019년 이용객 300만 명 돌파 등 국제선 수요 시장 잠재력을 이미 확인했으며, 국토교통부에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과 거점항공사 출범 등으로 노선 다변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간의 추진성과입니다.

2014년 제주방문 중국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공항으로 지정받았고, 제5차 공항개발 중합계획을 통해 청주공항에 인프라 확충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김포·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F급(대형) 항공기 교체공항으로 지정받아 수도권 대체공항으로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이용객 첫 300만 명 달성과 함께 국토교통부로부터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출범되었으며 아울러 항공수요 증가 대비 청주공항 이용객 5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향후 발전방향입니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국책사업과 연계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또한 청주공항 활성화가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관광, 항공·물류산업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선 다변화와 시설 확충, 접근성 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주공항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관문공항, 수도권 대체공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 청주공항 활성화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행정수도의 관문공항, 수도권 대체공항입니다.

추진전략은 첫째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공항 재도약의 준비와 둘째 공항 경쟁력 강화 추진, 마지막 미래 성장기반 확보입니다.

세부사업은 전략별 추진내용에서 자세히 설

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전략별 추진내용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공항 재도약 준비입니다.

첫째, 코로나19-FREE 공항 구현입니다.

청주공항은 UN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규정하는 공항 이용객의 방역기준을 충실히 이행해 지난 3월 11일 국제공항협회가 인증하는 공항 보건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앞으로 트래블 패스 도입을 위해 청주공항을 청정공항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내선·국제선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비용항공사의 신규 취항, 국내선 제주노선 증편을 통해 이용객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바운드 노선 유치를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운수권을 청주공항에 배분 받아 항공사들이 조기 취항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공항기반 마련입니다.

청주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1년까지 공항 소방대를 신설하여 민항기 수요 증가 및 대형화에 따른 운항여건을 조성하고 군용활주로, 민항기 이착륙을 위한 계기착륙시설, 기상감시레이더 등 항행 안전시설을 조기에 마무리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고시 예정인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철도망 등 공항 접근성 제고 추진입니다.

올해 상반기 고시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충청권광역철도, 수도권 내륙선 사업 등이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성장기반 확보입니다.

첫째, 노선 다변화입니다.

단계별 목표로 2025년까지 현 14개 국제 정기노선을 25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제선 운항재개 등 노선 유치를 위해 대응하겠으며 항공사 재정지원 확대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주공항에서 국제선 취항을 검토 중인 항공사별 노선 추진전략에 따른 맞춤형 노선 마케팅을 추진하고 2025년 울릉공항 대비 소형항공기 특화공항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둘째, 이용자 증대입니다.

2025년까지 연간 이용객 5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추진계획으로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수도권, 경기 남부권에 노선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개통 대비 수도권 이용자 흡수전략을 체계화하였으며 세종시 성장과 더불어 비즈니스 수요를 창출하고 울릉공항 개항 등 특수관광 대비 고품격 관광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항 핵심 인프라 확충입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공항운영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신활주로 재포장 등 항행 안전시설을 구축하고 민간 소방대 신축 조기 준공을 통해 청주공항의 항공기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22년부터 '24년까지는 미래 항공수요 적기 대응과 행정수도 관문공항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국방부, 공항공사 간 인프라 확충 협력유도를 통해 신활주로 재포장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을 구체화해서 조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항 활용능력 확대입니다.

청주공항 연간 이용객 500만 명 목표달성을 위해 동남아 노선확대 기반으로 싱가포르 등 아세안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으며 향후 전국 4대 공항으로의 진입을 위해 공항 혁신 인프라

사업이 차기 국가계획에 적극 반영되도록 대응하겠습니다.

넷째, 공항 연계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경기남부, 충청권 등 주요 도시 간 직통 시외버스 노선을 증편·신설 추진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광역교통망 구축 시 공항 연계 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에어로폴리스 지구 및 신도시 개발 추진입니다.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조성되고 있는 에어로폴리스 1·2·3지구 사업이 본격화되고 용역 중인 복합 신도시 조성을 통해 공항중심 경제권이 구축될 경우 청주공항은 여객수송뿐만 아니라 항공산업·물류를 창출함으로써 명실공히 여객물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입니다.

수도권 이용객 수요 창출을 위해 청주공항역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조기 착수와 장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연계한 청주공항역 역세권 등을 위한 유보지 확보 등에 우리 특위 차원에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청주국제공항 연차별 기반시설 개선 계획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지혜를 같이 모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해운 국장님, 지금 충남에서 주장하는… 오래전부터 나왔었죠? 서산공항에 대한 현재 상황 좀 어떤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지금 현재 서산공항은 실제로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것으로 추진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이상식 지난번에도 세종시에서 열린 회의에서 양승조 지사께서 그 말씀을 또 하시던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부터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메가시티 얘기하면서 메가시티에 대해 실제로 공항이 2개가 존립하는 경우에는 상호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서산공항을 자꾸 주장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철도의 문제들 이런 공조의 문제가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실체가 없어서 얘기가 좀 안 되고 있다면 다행인데 이 얘기가 조금 더 불거질 것을 미리 대비적인 논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것 하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예, 알겠습니다.

서산공항에 대해 만약에 진척사항이라든가 구체화된 게 있다면 다시 저희들이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네, 충청권광역철도 때문에 사실 저희는 충남이나 대전에 많이 협조를 구하고 연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보면 지역마다 약간의 동상 이용적인 게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사실 오늘 중간에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거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도의 차이들을 메꿔서 이해도의 수준들을 맞추고 그럼으로써 의회의 결집 그리고 의회를 통한 도민들의 역량결집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 참고삼아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지금 청주공항 1일 취항편수가 코로나19 이전에는 몇 편 정도가 됐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지금 몇 편이 취항이 되고 있는지 그거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실무자께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정확한 편수는 아니더라도요, 대략적인 감소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참고하시기 위하신 것 같으니까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대비 지금 올까지는 통계가 나온 게 없고 2019년 대비 '20년 그걸 비교한 평가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운항편수가 국내선, 국제선 합해서 1만 8,648편이 2019년에는 운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1월 달 발발하면서 1만 3,625편으로 줄어서 편수로는 5,023개가 줄고 비율은 -26.9%가 감소가 됐는데 통계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월 통계를 한번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청주공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만 8,000편 이상이었던가, 지금 1만 5,000편... 1만 3,000편 정도로 크게 얘기해서 줄어들어서 한 5,000편 정도 감소가 됐는데 그러면 코로나19 이전에 1만 8,000편 정도에서 국내선과 국제선의 비율은 대충 얼마 정도 됐습니까, 비율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2019년도에 국내선이 1만 4,700편이었고요, 국제선이 한 4,000편 됐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4,000!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그리고 특히 2020년에는 1월 이후에는 국제선이 거의 뜨지 못해서 4,000편에서 420편 정도 됐으니까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전에도 한 4,000편 정도가 국제선이었던, 연간.

연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숫자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일반적인 지금 명실상부한 국제공항 역할을 하려면 국제선이 하루에 20편 이상은 떠야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청주공항이 하루에 12편 이상 뜨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비행단과 협의도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예.

○이상욱 위원 그런 부분을 코로나19가 문제가 해결되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비도 집행부에서, 우리 박해운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닥쳐서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준비를 좀 해서 갖고 하루에 뜰 수 있는 비행 편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비행단과 공군부대, 국방부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하고 국방부, 우리 공항공사, 저희들 충청북도 협의를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 국장님!

지금 저희가 13개 반영 건의 건 중에서 사실상 크게 보면 지금 청주도심 통과 이 철도하고 사실상 우리 중부내륙선 그리고 지선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사업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3건에 대해서 우리 국토교통부의 지금 반응은 어떤가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에 관련해 가지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170여 개 사업에 한 255조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그래서 국토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토부는 기획재정부하고 4차에 답을 재정규모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3차 때에는 신규가 40조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50조 해서 한 90조 규모를 담았는데 국토부는 4차 때는 여러 가지 수유나 이번에 예타면제사업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한 100조 이상을 가져가려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와야만 그런 사업을 예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충북도에서는 13개 사업을 했지만 13개 사업을 당장 우리가 실행하기는 참 어렵고 충북도의 중장기계획 방향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충청권광역철도하고 그다음에 경기 남부하고 우리 충북을 연결하는 수도권내륙광역철도가 있고요.

그것이 일반철도로 했다가 광역철도로 변경건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부내륙선하고 연결하는 감곡으로 해서 혁신도시로 거쳐 들어오는 내륙지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충북고속화, 현재 추진 중인 충북고속화를 연결하는 강호축 연결하기 위해서 호남권하고 우리 충북을 거쳐 강원권을 연결하기 위해서 고속선 연결은 오송 연결선이 있습니다.

그 4개 사업이 가장 충북도에서는 혁신적으로 역량을 모아 가지고 가야될 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 어렵지만 특히 광역철도는 현재의 충북선 고속화하고 있는 데 인근에 건설하기는 상당히 다른 시도와 형평성 차원 이런 측면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충북선은 산업철도로서 우리 청주시가 10km 이상 떨어졌다. 그리

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버스나 다른 노선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까지 충북선을 타야 된다,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시민들은 지금 대다수가 승용차나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광역철도망을 하나의 도시철도 개념으로서 저희들이 시민들 수요자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국토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거하고 당이나 정치권에도 같이 좀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접하면 수도권내륙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측면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국토부에서, 중부내륙선 지선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거기 보다는...

제가 지금 사업의 어떤 타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부내륙선 지선은 수도권내륙선보다는 약간 국토부에서 중요도를 본다라고 하면 좀 다소 낮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대응을 적절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지금 가장 큰 게 청주도심 통과인데 너무 여기에만 있으니까 사실은 그쪽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불만 섞인 게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주공항이 처음에 그쪽에서 중점으로 생각하고 했던 것들은 청주공항이 그만큼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청주공항에 대한 논리적인 것들을 같이 결합시켜서 설득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철도가 두 가지 목적이 아닐까요? 물류수송 그리고 인적교류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주도심 통과가 실질적으로 물류보다는 인적교류의 차원에서 그리고 처음에 충청권광역철도가 청주공항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만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느낌을 다소 적게, 그래서 이것이 충

청원광역철도가 결국은 수도권과 연결돼서 수도권 어떤 여객수요까지 그리고 교통량 분산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들을 조금 더 어필을 강하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논리를 펴고 계속 설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내륙이 더 들어간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3개가 동일합니다, 다 동일한 상태고.

수도권내륙선은 뭐냐 하면 경기도하고 충북을 연결하는 측면이거든요.

다만, 청주공항까지 오는 측면이고 그래서 청주시라는 대도시가 수요가 크기 때문에 그걸 서로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그 측면을 보는 거고.

또 감곡에서 오는 것은 우리 충청도만의 문제가 이래 돼 있거든요. 그것은 물론 혁신도시에서 같이 만나 가지고 중간에 같은 공용되는 노선이 있고 그 측면이고.

그런데 가장 좀 저거한 것이 국토부는 우리 청주도심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사업 필요성은 100% 인정한다.

다만, 이것은 도시철도로서 봐야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철도로 하기에 는 지자체가 재정부담이 워낙 크다, 광역철도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연계해 가지고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부선을 이용하는 대전에서, 신탄진에서 오는 조치원까지는 3단계에다가, 2단계 추진 중에 있는 계룡부터 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요, 옥천에 오는 것이 있고.

지금 대전도시철도 끝나는 반석에서 대전시하고 세종 연결하고 세종에서 우리 오송을 거쳐 가지고 청주도심 가는 게 이렇게 이 노선이 가장 맞는 이상적인 노선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청주도심을 도시철도로 분다는 거, 국

가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하나의 광역철도로 봐 달라, 하나의 한 부분만은 아니다.

옆에 그래서 대전이나 세종시가 안 하고 청주시만 되면 도시철도는 맞다, 맞는데.

이것을 대전하고 세종하고 같이 가니까 같이 광역으로 보고 또 수도권내륙선도 처음에 일반철도로 요구를 했다가 일반철도 한 것은 사실 보면 1~2시간 1대씩 갔을 때는 수요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이걸 광역으로 해 가지고 짧게 자주 가게 되면 사람들이 더 있을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래 한다면 청주 오는 것만 바로 보지 말고 청주도심 왔으면 공항도 우리가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이고, 도심 통과해서.

그래서 같이 연계해 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지금 계속 국토부나 정치권에다가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네, 맞습니다.

청주만 보면 도시철도인데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광역철도의 기능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요즈음 그 이슈가 제일 핫하지 않습니까, 충북에서?

그래서 고생도 많으시다는 것들 누구든지 다 이해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조금 더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위원님들도 힘을 보탬 일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도 늘 같이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식 네,

○균형건설국장 김인 오늘 이 자리가 저희들한테는 가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불편한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이 자리를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역량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그 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항상 있으면 같이 해 가지고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임동현 위원님.

○임동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보다가 궁금해서 좀 여쭙보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철도망 구축하고 공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여쭙볼게요.

청주공항 활성화 비전 및 추진전략에 보면 준비에 대한 것은 많은데 공항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 충북 자체에서의 어떤 관광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은 계획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생산유발 효과라든지 경제 효과, 일거리 창출 이런 거가 예타에서 판단이 많이 되어지죠, 심사에서.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 철도망 구축이나 이런 것은 건설하게 잘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충북에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라든지 또 공항에서 지금 실질적인 생산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리고 일거리 창출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으로는 어떤 여행객 수요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 또 지원, 예를 들어서 수송교통 이런 어떤 쪽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떤

인프라라든가 이런 쪽의 공항 자체 활주로 재포장이라든가 또 공항의 어떤 위계 설정 이런 쪽에 치중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저희들이 그 부분에 좀 취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취업 유발효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접근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 한번 더 점검을 하고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균형건설국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런 13개 광역교통망들이 접근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국제공항 활성화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시니까 어차피 그런 부분이 같이 검토해야 지역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다가 균형발전국장님께 여쭙볼게요.

충북선 고속화사업에 보니까 익산에서 오송까지가 완행열차로 돼 있어요.

이유가 뭐가 있나요? 다른 데는 목포에서 익산까지는 고속철도, 오송에서 강릉까지 고속화인데 익산에서 오송까지가 완행열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익산에서 중점이 돼서 다시 돌아가는 건지, 이게 왜 완행열차가 여기 있는 건지 혹시...

그냥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지금 고속열차는, 고속화 열차는 지금 목포에서 거쳐 가지고 지금 호남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익산 거쳐 가지고 오송까지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철도가 익산에서 지금 계룡으로 해 가지고 고속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200km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오송... 충북고속화도 200km의 고속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강호축 구축을 해 가

지고 호남선 고속선하고 저희들 전북선 고속 화하고 그다음에 또 강릉에서... 원주에서 강 룡 가는 거 경강선을 해 가지고 그걸 연결해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반철도로 보시면 됩니다.

○임동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 니다.

○위원장 이상식 사실 청주공항이 중부권 거 점공항 그리고 행정수도의 관문공항으로서의 성장을 하려다가 사실 코로나라는 악재 때문 에 그 기능이 다소 약해졌는데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비즈니스 수요는 상당히 폭 발적으로, 그동안 묵혔던 것들이 한번 폭발적 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준비를 미 연에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자료준비에 에 써주신 집행부 관계관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7 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상식 송미애 이상욱 육미선
이옥규 임동현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권 영 주
운 영 특 위 전 문 위 원 정 훈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관광국
국 장 박 해 운
관 광 항 공 과 장 임 보 열

· 균형 건설 국
국 장 김 인
교 통 정 책 과 장 이 혜 옥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22일(화) 13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 안건

- 1.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면

(13시42분 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1.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항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특위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출석위원(5인)

이상식 송미애 이상욱 허창원
임동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 정훈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7월 8일(목) 9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면

(09시15분 개의)

○위원장대리 송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9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식 위원님이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 특별위원회의 새로운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에서 사임하신 이상식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식입니다.

우리 공항특위가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 왔는데 사실상 에어로케이에 많이 매몰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위원장을 맡고 있던 입장에서 조금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에어로폴리스지구 개발과 회전의 MRO 이런 것들에 대한 정상적인 추진을 통해서 청주공항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구요.

그런 가운데 우리 의회 특위가 큰 역할을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미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17분)

○위원장대리 송미애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허창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창원 위원님이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창원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

하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창원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이상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덕분에 에어로케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주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주공항이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수도권 내륙선에 청주공항이 경유하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광역철도망에서 대안 반영으로 청주공항이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청주공항의 활성화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청주공항이 중부권의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미애** 이상으로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9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율위안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 | | | |
|-----|-----|-----|-----|
| 허창원 | 송미애 | 이상욱 | 육미선 |
| 이옥규 | 이상식 | 임동현 | |

○**출석전문위원**

| | |
|-----------------|-------|
| 수 석 전 문 위 원 | 김 광 래 |
| 운 영 특 위 전 문 위 원 | 정 훈 |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9월 9일(목) 11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 1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허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0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허창원 의사일정 제1항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입니다.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허창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현안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기획행정부장입니다.

류재부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강성규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별 추진현황과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용역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및 2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3개의 헬기 정비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헬기 업체 2개 업체와 올해 6월에 부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개 업체는 올해 8월에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고 내년 1월에 부지 계약을 체결하면 분양은 완료될 예정입니다.

2지구는 청주공항 활성화와 연계된 입주 예정기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도로망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산자부 경자위원회 심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22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이주자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이주자택지 조성사업은 지구 내와 지구 외로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 이주자택지 사업은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별도 보고드리지 않고, 지구 외 이주자택지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 외 이주 희망가구는 16가구로 '19년 2월 이주자택지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지를 구성리로 정하고 이주자택지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가 재감평 후 협의 양도를 약속한 만큼 11월 내에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유권이 확보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이주자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입니다.

3지구 조성사업은 에어로 1·2지구의 항공정비 부품·소재 항공 및 연관 산업 집적화를 통해 항공 R&D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에 따라 산업단지 계획, 지구단위 계획, 경관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3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도심형 항공교통산업 선점을 위해 3지구를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UAM특화단지 조성될 수 있도록 대선 과제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 용역 추진상황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은 에어로 1·2·3지구,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인구 5만의 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도출한 사업 대상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22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20억 원의 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행정절차로 인해 착공은 빨라야 '25년 말에나 가능한 상황이나 복합신도시 조기 조성을 위해 대선 과제에 반영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창원 전형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계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 송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2019년에 청주공항 이용객이 300만을 돌파한 적이 있었죠?

근데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현재 이용객 수는,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공항 관련 사항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지만 지금 국내선 부분은 많이 회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건은 빨리 국제선 부분이 노선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아마 에어로케이에서도 그 부분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송미애 위원 예, 다른 질의드리면 3지구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예.

○송미애 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아직, 지정이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준비 단계에 있는 건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준비 단계입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단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돼야 지정을 승인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먼저 산업단지로 출발을 해서 경자유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고 복합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미애 위원 어쨌든 산단 지정이 된 이후에 또 준비 과정이나 이렇게 제반시설을 갖춰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도 잘 진행하셔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원 송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제가 2018년도 등원하면서부터 계속 어떤 해결책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주자 문제 16가구인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예.

○이상욱 위원 16가구에 대한 이주자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해결돼 있고 앞으로 해결될 과제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지금 보고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핵심은 구성리로 이주자택지를 조성하기로 어떤 이주자들과 합의는 봐 있는 상태고 그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감평을 했는데 감평 금액이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금액하고 조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감평을 한 번 하면 1년 지나야 재감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에 돼 있어 가지고 사실상은 9월 달부터 재감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토지 소유자도 뭐를 했느냐 하면 감평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기반공사를 했고 또 나중에 협의 매수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세금이 나오니까 그것을

대출을 실행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대출 실행되는 10월 달에 이 재감평을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한 상태이고 저희는 그렇게 되면 감평하는데 한 달 정도 다시 걸릴 거고요.

그래서 한 11월, 1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같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금년 말 정도에는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절차는 끝내더라도 또 이주자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협의가 조금 지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근데 물론 충분히 경자청에서 그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거는 알지만 그래도 너무 시간이 딜레이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볼 적에는 아마 기존에 협조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상받은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혹시 대책 같은 거는 있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이 이주자택지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토지 수용을 할 때 사실은 지금 2지구 같은 경우에도 추가 부지를 매수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고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반적으로는 이게 모든 어떤 산업단지든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이든 어떤 보상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 매수를 하신 분들이 진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저희 시골에 땅을 산 데가...

○이상욱 위원 아니아니, 지금 내가 그런 말씀을 듣자고 질의를 드린 거는 아니고 지난번에 구성리 쪽으로 이주지를 지정하려고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없었던 걸로 된 거예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구성리요? 구성리는 지금 하고...

○이상욱 위원 아니, 그쪽으로 16가구 80평을

달라, 100평을 달라 이래 갖고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로 이전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구성리 땅 소유주랑 이 협의 매수를 해야 되는데 협의 매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근데 그거 협의 매수가 내가 들은 바로는 강제수용을 하면 그냥 따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토지주들이,

거기가 종종 땅이잖아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종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가구 소유고 말씀은 그렇게 강제수용 쪽으로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중도 위나 이런 데 가 가지고 이 강제수용...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토지 소유주가 실질적으로 한 분이기 때문에...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아니 너무 길게 설명을 하시니까, 지금은 중단된 거예요, 진행 중인 거예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토지 수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한 시간이 지금 벌써 한 2년 가까이 흘러가는 거예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감평하는 데 1년이... 감평하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 감평하고 금액이 안 맞으면 다시 감평을 해야 되는데 그게 1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 시기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욱 위원 내가 보기에 너무 이게 시간이 딜레이가 되니까 기존에 협의,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보상받고 절차를 다 마친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내가 너무 일찍 해준 거 아닌가, 해 줘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피해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좀 장식시키

려면 빨리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일하시는 경자청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런 부분이 더 다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항문제가 아니라고, 공항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직접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답변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부분 같은데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청주공항이 포함됐지 않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거기에는 지금 충청북도가 추진 중에 있는 게 청주공항에 활주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대로 포장된 상태이고 하나는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포장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여객터미널 확충, 이 부분이 국제선이 활성화되면 분명히 터미널이 조금 부족한 상태가 될 거고, 근데 청주공항 같은 경우는 확충하는 것도 여유지가 별로 없어 가지고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전부 여객기가 뜨려고 그러면 활주로를 확충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경자청하고 직접적인 문제로다 좋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건 이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관계가 없나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저희도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안들은 문화국에서 담당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검토를 안 해 보신 거죠, 그러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아니요, 그 의견은 내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2페이지에 보면...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자꾸 너무 길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대해서 우리 경자청에서도 검토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자청에 유리한 게 뭔지 불리한 게 뭔지 여기에 좀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걸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상욱 위원 내용은 아니, 있다 없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냥.

어떻게 경자청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다른 분들은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쨌든 경자청에서 하는 에어로 이쪽 공항 관련 사업이 분명히 관련이 있을 텐데 이게 벌써 9월 3일 날 내가 보도를 보고 안 내용인데 아직도 그 거에 대한 정확한 숙지들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니까 다음에 혹시 이런 보고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원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현 위원 간단하게 여쭙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토지보상 문제가 이게 시작할 시점이 언제죠? 얼마나 걸린 거예요, 지금

까지 기간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토지보상 문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토지보상 문제는...

○임동현 위원 아니, 여기 2지구 관련해서 토지보상, 토지감정서부터 지금 벌써 보상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은 분들이 있는 거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아니요, 지금 2지구에 구성리로 가실 분들은 보상을 거의 다 받았고요.

작년도에 우리가 경자구역을 조금 확장을 하면서 다시 토지보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하게 아직...

○임동현 위원 그 시점이 언제예요? 시작, 대략 시작 시점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지금 손실보상 협의를 한 게 '21년 1월 달이었고요.

그다음에 수용재결 신청한 게 9월 달, 지금 그래서 중토위에서 수용재결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동현 위원 아니, 그건 저희들 계획인 거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임동현 위원 그 토지 소유자분들과의 접촉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냐는 얘기죠? 확대되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접촉은 '20년 3월 달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임동현 위원 아, '20년 3월이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임동현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그렇죠.

○임동현 위원 그래서 제가 잘 하시겠지만 3지구 조성도 그렇고 복합신도시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지금 3지구는 토지보상 협의회가 '23년 1월부터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조성공사 추진을 '23년 1월부터 '25년 12월 그 사이로 잡고 있고.

또 복합신도시 같은 경우도 개발계획고시 토지보상을 '24년 12월부터 이거를 들어가려

고 하고 공사는 '25년 12월 이렇게 잡았어요, 기간을.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 시기에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의 문제점들이 그 지역에 이미 주민들한테 불거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토지보상에 대한 논의가 들어간다면 주민들은 벌써 '아, 좀 기다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23년, '24년 이렇게 가면 이분들이 쉽게 이거 결정을 내려 줄까요?

그거에 대한 혹시 불안이나 대안이 있으세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3지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가 경자구역으로 추진을 하다가 어느 정도 조성된 뒤에 다시...

○임동현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예.

○임동현 위원 그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최대한 주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지구는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복합신도시 부분은 조금...

○임동현 위원 예,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굉장히 험난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복합신도시가 우리가 이쪽에 어떤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정주여건이 만들어지는 동네란 말이에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그렇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게 늦어지면 또 거기 오시는 분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복합신도시 토지보상이나 계획을 너무 늦게 들어가는 게 아닌 가라는 저는... 왜냐하면 이거라도 안정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쪽 공사가 들어가고 뭐하고 그럴 때 동시에 같이 들어가면 정주여건이 빨리 만들어질 텐데, 괜히 와서 사람들이 사는 거를 힘들게 만들어 놓고 불러 모으면 오히려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계획을 잡으시는 게 어떻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그래서 최대한 절차 같은 것은 단축을 시키고 어차피 보상은 충분한 기간을 줘야 될 걸로 생각하고 행정절차 부분은 최대한 단축시켜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2지구에 '23년도 되면 근로자한 3,000명 정도가 그 에어로지구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임동현 위원 예, 맞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그다음에 3지구 하면 최소 1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유입되거나 창출이 될 텐데 이분들이 살 공간이 사실은 동부... 북부권에는 살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서두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미리 서둘러서 절차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범을 여기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셔서 하는 게 여기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들도 안정적인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알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원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식입니다.

상임위에서 볼 때하고 또 우리 경자청을 여기서 만나니까 새롭기는 한데요.

사실 상임위에서는 우리가 경자청 고유의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 이렇게 특위에서는 실제적으로 경자청이 과연 공항발전과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연계성을 최대한 특화해서 같이 지혜를 모아보자 이런 자리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로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좋은데 사실 우리 3지구, 2지구는 어쨌든 그래도 체도에 갔다고 하니까 3지구의 문제가 지금 2025년, '복합단지 2025년에 착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1·2지구 이렇게 오면서 다소 딜레이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3지구나 복합신도시도 과연 우리 계획대로 갈 것이냐 하는 약간 우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청주공항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한다면 3지구와 복합신도시의 사업기간을 당길 수 없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UAM특화단지 3지구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UAM이 2025년이면 상용화될 거라고 해요.

그런데 상용화, 전체적으로 상용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부 상용화가 시작됐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간다면 다소 늦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적으로 보면 당길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까, 그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기간단축이 가능할지 한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사실은 UAM 특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고, 사실은 UAM 특화단지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UAM 공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군데도 정부

에서 한 데가 없고 청주에 먼저 시범적으로 해 달라, 그러면 공항하고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면 관련된 기업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어떤 것을 해야 국토부, 주무부처가 국토부니까 주무부처를 코를 꿰어 가지고 끌어들이는 거 하면서 생각한 게 대선과제에 넣어 가지고 충북의 핵심 현안 사업이다라는 것을 조금 강조를 해 가지고, 그러면 행정절차도 조금 빨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충북의 현안이다 여기를 넘어서서요, 사실은 우리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UAM이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면 그 사업이 정부 계획대로 기간을 맞춰서 가려면 우리 충북에서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기간별 타임스케줄을 조금 더 정부하고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런 생각이 들고.

복합신도시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정부에서요, 지금 굉장히 다변화시대에 굉장히 많은 구상들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부에서 또 발표한 게 있어요.

5G를 이용한 스마트시티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올해 그런 계획이 발표가 됐지만 앞으로 쭉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 복합신도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것들도 조금 기간을 당길 수만 있다면 정부의 그런 사업들과 맞물려갈 수 있겠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청주에 있던 일반 주거단지나 이런 단지와 분명하게 차별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공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복합단지도 보니까 실제적으로 2025

년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걸 우리 3단지, 3지구와 케를 같이 갈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건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3지구보다는 조금 늦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조금 연관된 게 동탄에서 청주공항 오는 도로, 그다음에 지금 도에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미호천 유역정비 이런 문제랑 조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수변도시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콘셉트가 조금 가미가 될 텐데 이 부분도 저는 그러면서 어떤 미호천 북쪽으로는 수변도시를 만들고 미호천 남쪽 그러니까 북향이 되겠죠. 그쪽으로는 국제 비즈니스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청주공항의 어떤... 사실은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당겨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도가 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 사실은 민간한테 맡겨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민간 사업자들을 조금... 인구 5만의 어떤 도시를 만드는 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이상식 위원 굉장히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경자청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정말 또 잘하면 충북이나 청주에 최대의 성과를 낸다 이런 기대감까지도 있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러한 자족도시가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탄에서 청주공항에 중부내륙선 이게 4차 국토개발계획에 반영은 됐지만 사실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빨리 촉진시킬 수도 있다,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도 있다라고 보여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가지고 있는, 3지구나 복합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그 자체 개발에 묶여 있지 않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시너지가 상당히 때문에 미호강 개발도 더 앞당길 수 있겠죠, 철도도 그렇고.

자, 공항역?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옆에서 항공산업 관련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하면 청주공항은 자연스럽게 발전하죠.

아마 우리가 여객에 대한 이런 걱정들을 안 해도 경자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청주공항에 직접 하는 사업으로 공항을 활성화시키는 것보다 지금 경자청에서 하는 사업이 공항 활성화에 정말 적합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만 그 기간들을 피곤하고 힘드시더라도 좀 당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까 3지구 같은 경우에 용역이 내년 3월, 4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이상식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우리 예산이 서고 예산이 집행되고 그러려고 하는 건가요?

왜 이런 것들조차도 조금씩만 당겨 시작하면 가능하지 싶은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골격만 나오면 다음 절차를 진행하고 계속 보완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이전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잡아본 것이고, 시행 단계에서는.

아까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경자청이 우리 속된 말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중국 표현으로 '만만디'가 아니라 정말 '허리 업(hurry up)' 좀 더 서두르고 지역의 현안들을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위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특위잖아요. 그런 만큼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에어로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적이었고요.

유치 업종이 항공 정비라든가 항공 운송이잖아요.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주여건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2지구 이주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언론에 비쳐지는 시각이 좋게 보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자청 내에서 분양이라든가 아니면 입주 대책에 대한 실무자분들의 잦은 이동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한번 해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 안정대책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그런 게 유치가 돼서 정주여건도 갖춰지고 하면 도내 관광 활성화와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큰데도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고맙습니다.

○이옥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원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청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니 신도시 그리고 에어로폴리스 1·2·3지구 하면서 공항의 소음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 조성되는 데 혹시 향후에 문제될 부분들은 없을까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지금 그 소음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1지구 같은 경우는 고도도 제한되고 소음도 크고 2지구도 조금 소음이 있고 3지구부터는 소음에서 조금 프리한 영역으로 가는데 1·2지구는 어차피 들어오더라도 헬기 정비 그다음에 물류 이런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들어오고 있고요.

3지구까지는 저희가 어떤 주거시설을 안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미니 복합신도시 쪽으로 다 주거시설을 밀집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 문제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미니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 지역…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지금 완전히 문제없지는 않겠지만 지금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위원장 허창원 규정상으로는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위원장 허창원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F-35 들어오면서 소음이 굉장히 심해서 정주여건으로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청장님 말씀대로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아래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위원장 허창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특위를 하다 보면 청장님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에서 질의가 될 수도 있지만 이 공항 활성화 주변에 에어로폴리스가 이제 산업단지보다가 1·2·3지구가 다 조성되지 않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위원장 허창원 그 배후의 시장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지만 산업단

지로 해서 그 항공산업을 활성화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시장의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되 있나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회전익 부분은 민영시장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국방부에서도 군수 헬기 정비를 민영 쪽으로 돌리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들어오는 업체 쪽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무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그런 부분들이 청장님 말씀대로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예전에 우리가 카이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사실은 아시아나하고 카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MRO 맨 처음에 추진할 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진주로 내려갔나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카이는 사천으로 갔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카이는 사천으로 갔고 아시아는 그 사업에 대해서 철회를 했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위원장 허창원 결국은 우리가 에어로폴리스를 준비하면서 지금 믿고 있는 거는 또 그때 당시에 똑같은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에서 마침 이러한 사업들을 한다고는 하지만 또 정치 논리에 의해서 이곳으로 온다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물론 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충분히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에어로폴리스가 과연 그 믿는 거 하나 이외에 다른 방향으로도 용도를 좀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저 개인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그러니까 제가 UAM 부분을 강조하는 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산업이기도 하고 사실은 헬기랑 드

론 UAM은 같은 원리거든요. 회전익이라는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특화시켜서 가면 충분히... 사실은 전국 어느 모든 지자체가 이 UAM 부분은 관심이 있지만 우리처럼 조금 구체적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지자체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먼저 선점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향후에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됐을 때 에어로폴리스 3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단지가 지정은 안 된 거죠, 아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산업단지는 지정이 됐고요.

(「용역」 하는 이 있음)

○위원장 허창원 아니...

(「3지구는 지금 용역, 8월 달에 착공했잖아요.」 하는 이 있음)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아, 예예.

○위원장 허창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원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쨌든 청주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대체산업도 우리 경자청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제가 청주공항이 사실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헬기 업체들은 다 청주공항 쪽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국토의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다른 밑에 있는 지자체에서 아무리 유치를 하려고 해도 헬기가 북쪽까지 한꺼번에 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주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청주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조금 줄 서 있는 분야가 물류 분야입니다.

사실은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라는 데서 4,000억 이상을 투자를 하고 2,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중부권 물류기지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MOU는 체결을 했는데 사실은 MOU

를 체결한 이유가 뭐였냐 하면 쿠팡이 동남아 시아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를 청주공항 화물기지 이런 쪽을 쓰려고 하고 있고 마침 저도 청주는 화물 전용 어떤 비행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청주의 산업이 비행기로 실어나를 수 있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다. 지금은 다 인천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서 청주를 기반으로 하는 화물 항공사가 반드시 생겨야 되는데 그런 거랑 조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선뜻 MOU를 체결하고 조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사실은 에어로폴리스 2지구도 이 항공산업에 관련된 산업단지로 조성을 시작했다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데랑 MOU를 체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위원장 허창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항공산업이라는 게 시장이 그렇게 우리가 산업단지를 채우지 못할 정도가 됐을 때의 대비를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요.

결국은 청주공항 활성화가 우리가 바라는 지역 주민들, 충북 도민들이 바라는 거고, 아까 이상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제6차 청주공항 개발계획이라는 부분들이 수도권 거점공항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 계획 가운데 일환으로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주공항의 역할이 관문공항으로서 더군다나 신수도권 관문공항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단지로서의 항공 전반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만약에 없다면 지금 2지구에 쿠팡하고 MOU를 체결한 것처럼 저는 3지구에 대한 대안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지금 쿠팡처럼 우리가 물류기지 이야기했듯이 청주공항 주변에 왜 꼭 활영장

이라든가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느냐는 거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좀 생뚱맞기는 하지만 향후 추진하는 단계에서 다양하게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대안은 조금 마련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제가 보기에는 대안도 같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8페이지,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인구 5만 자족도시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충북연구원에서 용역결과 발표된 내용입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2·3지구에 산업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쿠팡만 하더라도 2,000명 이상을 고용하겠다고 하고요.

1지구까지 하면 이미 3,000명이 넘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209만 평이라는 땅이 나는 도대체 공항 주변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내 상식에는 오창 들쭉박에는 없는데 어떻게 그쪽 여기 지도상 표시된 거 보면 조그맣게 표시돼 있습니다마는 어찌 그 주변인 것 같기는 한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미호천 북쪽입니다.

○이상욱 위원 아, 북쪽!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예.

○이상욱 위원 5만이면 대략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5만 신도시 정도면 지금 거의 오창 과학산업단지 신도시 그 정도 수준 아닌가요?

내가 알기로는 오창이 지금 7만이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7만, 오창하고 오송하고 그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이상욱 위원 7만이니까 자연부락이 한 2만 이라고 치면 거의 과학산업단지 수준이 될 것 같은데 꽤 큰 규모거든요.

기획행정부장
개발사업부장
투자유치부장

박홍근
류재부
강성규

이 부분이 조금 어디인지 내가 북쪽이라고 그러니까 대충 감은 잡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쉬울까, 그렇게 쉽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마무리 발언으로 이주자들 대책 그 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좀 정리해서 갖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최소한 언제까지는 끝내겠다라는 뭔가 좀 계획을 세워 갖고 계획대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계서는 사업 추진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0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허창원 송미애 이상욱 이옥규
이상식 임동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광래
운영특위전문위원 정훈

○출석공무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 장 전 형 식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월 24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청주국제공항 관련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국제공항 관련 주요업무 보고의 건 1면
- 2022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허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1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및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전 의회사무처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승진하신 맹경재 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박순영 국장님도 축하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청주국제공항 관련 주요업무 보고의 건

- 2022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

(10시06분)

○위원장 허창원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문화체육관광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 모든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입니다.

2022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청주공항 여건 및 전망과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청주공항 여건 및 전망입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등 여파로 2019년 수준 항공수요의 단기간 회복은 어

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으나 청주공항은 2019년 이용객 3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제선 수요시장 잠재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선 이용객은 1997년 개항 이래 263만 명이 이용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 회복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과 거점항공사 출범 등으로 노선 다변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가 출범되어 지역거점공항사로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습니다.

청주공항은 국제선 복원 인증획득 등 코로나19로부터 안심공항을 구현하였습니다.

2021년 국내선 여객 이용객은 1997년 개항 이래 최다인 263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경기도 용인시 등 8개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항의 배후수요 창출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항 내 홍보관 및 체험관 등을 설치하여 지역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등 지역관광 명소화를 위한 1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시설확충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20대 대선공약에 활주로 연장 및 재포장, 국제선 여객청사 확충을 건의하는 등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3쪽, 2022년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입니다.

첫 번째, 국제선 개항에 대비하여 방역체계 강화 및 운항재개 추진입니다.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20년 2월부터 열감지카메라 및 소독을 철저히 시행 중이며 국제선 운항재개에 대비하여 검역시설 확충, 상업시설 운영준비, 시설점검 등을 시행하였고, 기관별 역할을 협의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항 방역과 관련하여 기관 간 업무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개항 세부계획에 따라 입국자 대응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제선 재개에 대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제선 재개를 통한 항공수요 회복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19년도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되어 청주공항에서 협약체결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던 인바운드 시범공항 협약을 재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국제노선 운수권 확보, 국제선 신규취항 인센티브 지원 등 항공수요 변화에 맞춰 노선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공항 이용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버스운영 체계도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매체를 통한 노선홍보 등 공항이용권역 홍보를 확대하여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5페이지에 공항기반시설 확충입니다.

'21년도 완료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근거로 하여 활주로 재포장 및 연장, 국제선 여객청사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활주로 보강에 대비하여 항행 안전시설 사전구축, 제3·4주차장 확충 및 제2주차비딩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공항의 교통노선 추가 및 신설, 광역버스 노선연장, 현재 진행 중인 도로 및 철도와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 등으로 공항연계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접근성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16쪽까지는 '22년도 청주공항 활성화 주요사업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맹경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 맹경제입니다.

존경하는 허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별 추진현황과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용역 추진상황, 도심형 항공교통특화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현재 공정률은 53%이며 3개의 헬기 정비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헬기정비 2개 업체는 지난해에 부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개 업체도 올해 하반기에 부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단지 조성공사도 올해 안에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지구는 공정률은 48%로써 이주자택지 내 일자형 도로를 주민 편의를 위해 순환형으로 변경하고 청주공항 활성화와 연계된 입주 예정기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도로망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에어로폴리스 2지구 이주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이주자택지 조성사업은 지구 내 17가구, 지구 외 요구 16가구에 대한 이주대책 사업입니다.

지구 외 요구 16가구의 지구 내 이전을 위해 주민설명회, 이주대책 변경안내 공문 발송, 주민 의견수렴, 인센티브 검토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구 내 이주자택지 확대 조성을 하고 이주정착금 선택 시 최대 2,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직 일부 주민들이 지구 내 이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지구 내 이전 불가피성을 주민들에게 설득해 2지구 조성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입니다.

3지구 조성사업은 에어로 1·2지구의 항공정비, 부품·소재, 항공 및 연관산업 집적화를 통해 항공 R&D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 승인 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은 국토부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토대로 지역 전략산업 및 에어로폴리스,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관광·문화·상업·주거·교육 및 체험기능을 포괄하는 인구 5만 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자금조달을 위해 LH 등 공영개발로 진행하여야 하기에 사전에 사업시행자 협의를 통해 긴밀히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사업대상지에 측사가 밀집되어 있고 농업진흥구역이 전체 면적의 80% 정도 편입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대상지 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심사완료 후 개발행위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부동산개발 투기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심형 항공교통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심형 항공교통특화단지는 에어로폴리스 3지구에 39만 평 규모의 UAM 이착륙장, 정비센터 및 인증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경자청에서는 UAM산업 선정을 위해 국내

최초로 충북드론UAM연구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형 스마트드론 콜드체인 실증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민간 참여율을 높여 UAM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인 만큼 선제적으로 도심형 항공교통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장원 맹경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 추진상황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서류에서도 대외비로 나와 있듯이 공개된 장소에서 질의하기보다는 이따 끝나고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청장님에게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계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식 위원 이상식입니다.

청주공항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청주공항 활성화 얘기가 우리 청주공항 개항되고 나서부터 이제까지 끊이지가 않아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발전된 모습들은 솔직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이게 청주공항의 어떤 발전을 얘기하려면 우리 경자청에서 추진하는 어떤 외적인 인프라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내적으로의 어떤 주민 이용객의 편의 그리고 이용객의 편의를 통해서 이용객의 다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오늘 보고하신 것을 봐도 크게 예산이 안 보여요, 사실은,

예산이 정책을 수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발전전략에 있어서 무엇일... 이게 다분히 추상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주차비 감면 고객들한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예,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쪽에서 오시는 분들게 저희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얼마나 할인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경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일단...

○이상식 위원 8개 기초단체하고 에어로케이의 운임 10%를 할인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예예, 맞습니다.

○이상식 위원 에어로케이 항공료의 10%입니다. 주차비 감면은 없어요.

이게 오래전부터 주차비, 그러니까 항공을 이용한 고객에 한해서, 이용객에 한해서 주차비 할인이 있었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경차 아니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대한 할인은 있는데 이용객에 대한 할인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지금 타워형 하나하고요 나머지는 다 노지형입니다.

그래서 끝에다 주차해 놓고요. 지금 우리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하지만 끝에다 해 놓고 지금 캐리어를 끌고 거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더군다나 이런 날씨에 더욱더 그렇겠죠.

그런데 주차비에 대한 어떠한 할인조차도 없다는 거죠. 한번 왔던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요.

그러면 경기 8개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내선만 운행한다고 하면 김포를

가는 게 오히려 편할지 여기로 오는 게 편할지 이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용객 불편이요 그것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지금 국내선 이용고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게이트 안쪽으로 뭐죠? 우리 출입구 그 안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거기로 들어가서 대기하실 때 보면 굉장히 혼잡스러워요.

혼잡스러운데, 그러면 국제선 운항이 지금 노선이 21개 노선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운항이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탄력적으로 국제선 게이트를 국내선 게이트하고 같이 좀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고객의 입장에서, 이용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우리 공항의 편의성 증진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이 정말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국내선 고객층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편의에 대한 생각들은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면세점이 워낙에 안 되어 가지고 면세점이 자진 퇴거하셨을 거 같은데 지금 국내선 같은 경우에 면세점 설치가 법적으로 안 되나요?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국내선은 면세점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래요? 그럼 제주는 왜 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그래서 제주가 제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 정확히는 아니고, 거기는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자, 그러면 면세점은 안 된다고 해도 그 안에 편의시설도 너무 없습니까, 사실은.

그래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서 입장을 한 다음에는 거기에 자판기 하나 하고요, 지금 음료 파는 데 딱 한 군데 있나요?

그 이외에는 편의점...

그 많은 이용객이 있음에도 편의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객에 대한 불편함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쨌든 청주공항에 대한 이미지로 고착화 되고 그러다 보면 청주공항에 대한 이용에 한계가 온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국제선도 운항이 안 되고 국내선도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막 정점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사실상은 우리가 시설적인 정비들을 할 것들이 있으면 이럴 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막 몰릴 때 그때 우리가 시설정비 한다고 하면 이미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위기의 시간에 기획의 시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청주공항 활성화를 구호로 외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예산들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수반한 실제적인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사실은 가장 수요가 많은 경기도 8개, 사실 그쪽이 수요가 많습니다.

그쪽하고 지금 버스노선을 저희가 조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버스 신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지금 수요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세종에서 온다든지 이렇게 도로 상황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많습니까만 위원님 금방 지적하신 대로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네, 어쨌든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지금 대중교통의 노선이 다소 불편

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가용 이용객이 많으면 주차장에 대한 편리성, 주차장에 대한 어떤 주차료에 대한 부담완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체감적으로 올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주차장을 아까 셔틀버스 했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 노선은 나와 있어요. 노선이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취지가 청주공항역이잖아요. 공항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소 불편하니 이분들에 대한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노선이 있다 보니까 3주차장 2주차장 이렇게 거쳐 가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 노선버스가 3주차장이냐 그리고 2주차장에 내리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들어오셔서 짐을 싣고 2주차장으로 가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2주차장에서 다시 공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럼 이게 청주공항역을 거쳐 오잖아요. 청주공항역이 종점일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럼 거기서 또 대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불편함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거다.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많은 분들에 동일하게 편리를 드려야지 이게 어떤 경차구역에 따라서 불편한 사람들이 또 다시 생긴다면 이것은 또 일부는 편의를 주지만 일부는 불편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많이 대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경자청이요. 저번 때 우리 경자청 저기할 때도 그렇지만 오늘 보니까... 제가 저번 때도 말씀드렸죠. 에어로폴리스 1지구가 지금 2차분 준공이 '17년도 9월이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실시계획 변경이 한 번 있었지만 그다음부터 시작해서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지속적으로 사실 일단 노는

땅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년부터 1지구는 회전익 MRO를 하겠다 그리고 이미 계약들이 MOU가 체결돼서 조만간 다 착공할 것이다 했는데 사실 1개 업체는 지난해 말에 MOU를 했어요. 올해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계약 체결되는 것 맞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자청장 맹경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에 제가...

○이상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네요. 에어로폴리스 1지구의 계약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딜레이가 되어 왔습니다.

한 번도 경자청에서 얘기한 대로 계획대로 실행이 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는 여기가 모든 부지가 다 계약이 끝난 거로, 거의 끝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개 업체가 계약에 누락됐고 올해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올해 계약 가능한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지난번 그 업체를 직접 만나 보진 않았습시다만 그쪽에서 자금사정 때문에 금년 연말쯤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시다만 제가 직접 가서 찾아뵙고 어떤 사안이 있는지 한번 더 더디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리고 계약 체결도 올해 안이라는 게 올해 안에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한 것도 올해 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금년 하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그분들하고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식 위원 자, 이렇게 되면요. 에어로폴리스 1지구에 대한 계약 이행이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하면 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지금 120%분양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하게 실행을 해 주셨으

면 좋겠다.

그리고 청주공항의 발전을 위해서는요 아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해야 될 내적인 것들이 있는 반면에 외적 인프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적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안 맞아 들어가요. 톱니바퀴 물려서 잘 돌아가야 되는 데 이게 자꾸 빠거덕거립니다.

그래서 경자청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그동안의 성과도 투자유치에 대한 성과 경제통상국의 거기에서의 성과들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저기하면 드론·UAM연구센터가 전국 처음이라고 하지만 사실 드론이나 UAM에 대한 각 지자체 전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지금 연구센터 하나만 가지고 저희 충북이 드론이나 UAM에 대해서 우선 사업에 대한 아니면 앞으로 연구에 대한 선점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센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드론이나 UAM에 대한 신규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드론 콜드체인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자청장 맹경재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를 들면 병원에서 필요한 어떤 약품 이런 부분에 시간을 요하는 긴급한 사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드론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해당 지역으로 배송을 시키는 이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이 사업을 유심 있게 본

거는요, 스마트 콜드체인 있죠?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스마트 콜드체인은 지금 타 지역이나 타 연구기관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다가 드론을 넣었어오, 스마트 드론 콜드체인.

스마트 콜드체인은요 전반적인 콜드체인에 대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출까지도 가능하죠.

수출을 위해서 의약품이나 식품의 수출을 위해서 스마트 콜드체인이 필요한데 저희는 여기다 드론을 넣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식품이나 의약이나 근거리 할 때 드론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스마트 콜드체인과 다르게 드론을 활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보면서 너무나 그래도 선점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면 어떤 연구 검토 결과 중에 이 스마트 드론 콜드체인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가면서 오히려 키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네, 아무튼 마치면서요 내적 인프라, 외적 인프라에 대한 고른 투자 그리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청주공항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금 공항 업무를 보는 이유가 사실 관광 인프라 구축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 지금 여기 죽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중요내용은 다 건설부 관련된 업무 같아요, 그러니까 활주로를 연장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그래서 저는 오늘 기본적인 질의를 하나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공항에 관련된 업무가 관광을 빼고 나면 건설부 쪽하고 업무가 연관이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혹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종에서 공항까지 도로를 연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설국하고 많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사실 공항에서 사람들이 왔다가 타고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우리 충북도에서 사실 많이 연결해서 관광을 한다든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광하고 연결하는 것이 청주공항을 다른 공항들에 비해 더 훨씬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공항과 연계된 관광상품이라든지 아니면 공항 내에 다양한 충북의 관광지를 안내해서 그분들이 비행기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청주공항 활성화에 관련된 토론회를 내가 몇 번씩 좌장도 해 봤고 토론자로 참여도 해 봤고 해 봤는데 거기에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은 거의 100% 건설부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틀림없이 우리 충청북도 현실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업무가 맞

는데 실제적인 인프라 구축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활주로를 연장한다든가 이런 큰 부분은 건설부 업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인 모든 시설을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는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지금 청주공항은 한창 시설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키워가고 있는 과정에서는 건설부 쪽 업무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몇 번 말씀은 드린 적이 있는데, 차제에 업무분장을 할 때 관광업무하고 공항업무를 분리해서 조직을 개편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문화관광국장 입장에서...

저희가 하여튼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지사님이 보고 계신다면, 난 사실 그것도 의미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청주공항 민간소방구조대가 얼마 전에 발대를 했죠?

그 규모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항공과장 이철호 관광항공과장 이철호입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공항 민간항공대가 과거에는 군하고 청주소방서에서, 동부소방서에서 관할해서 안전업무를 이행했던 것을 지금은 민간항공대가 34명이 지금 돼 있고요. 차량이 한 3대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이 발대를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차량 몇 대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관광항공과장 이철호 3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34명?

○관광항공과장 이철호 예예.

○이상욱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활주로 연장 추진계획을 대선공약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지사님께서 작년도 업무보고 할 때 의회에서 활주로 연장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활주로 연장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것은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선거에 공약으로 넣겠다는 것은 너무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작년도 연초에 지사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의회에서 이거에 대한 논의를 잠깐 비치셨거든요.

지금까지는 계속 부정적이시다가 처음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관심을 갖고는 있었는데, 저도.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추진할 목적으로 세워놓은 계획은 있는지 그걸 내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하고 연장과 관련해서 협의는 계속 진행을 하고 어느 쪽으로 어떻게 연장하면 좋을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국토부 입장은 사실...

이게 아까 전에 위원님 질의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수요가 지금 현재 연장할 만큼, 저희가 사실 연장하려는 이유가 국제선이라든지 화물기 때문인데 그렇게 청주공항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내에서 더욱더 전국에서, 특히 경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많이 오시는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김포공항보다 저희가 주차요금이 훨씬 쌉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청주공항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 국토부의 입장은 수요를 더 확충하라는 그런 입장이 강해서 저희가 계속 수요를

확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지금 협의는 계속하고 국토부, 공항공사, 저희 셋이서 어떻게, 어떤 방향, 어느 위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계획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집행부의 그 논리가 좀 일률적이어야지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바뀌는 게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북선고속전철화 할 때는 수요가 없지만 만들어 놓고 나면 수요가 생길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이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타 면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공항은 수요가 없어서 활주로를 높이 지 못하겠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활주로 연장이 돼야만 수요가 생깁니다.

그런데 거꾸로 어떤 이 기준과 저 기준을 적용할 적에 상이한 기준을 갖다 대니까, 잣대를 들이대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위원님 저희 도의 입장이 수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국토부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이런 활주로는 생겨야 국제선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더불어서 동시에 계속 저희 항공수요, 국내선이든 항공수요를 확충해서 국토부가 수요가 적다는 말에 대응하려고 양쪽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가 얘기하는 수요가 없다, 적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어떤 설득을 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는 뛰어나다고 타 지자체에서도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국토부를 반드시 설득해서 갖고 어쨌든 대통령 선거공약에 집어 넣든 어떻게 하든 제가 보기에는 활주로 연장은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

제가 아는 청주공항의 역할은 지금 중국이나 이쪽 동남아 쪽에서 미국 본토나 북아메리카 쪽으로 가려면 알래스카의 앵커리지공항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청주공항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

청주공항에서 활주로 길이가 충분히 확장이 되면 충분히 앵커리지 거치지 않고 미국 본토로, 북아메리카로 날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문가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시설만, 인프라만 갖추면 수요는 따라온다라는 것이 김해공항하고 또 틀리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역점을 두고 국장님께서 추진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다음은 경자청 맹경제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저는 본부장이 더 익숙해져 있어 갖고.

이주자택지 16가구가 구성리 쪽으로 이주하게끔 추진을 했었지 않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제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 사업이 취소가 된 사유가 됩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제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자청장 맹경제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작년 12월 16일 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성리에 5,000여 평 정도 규모의 16가구가 들어가는 것을 택지개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2지구에 이주자택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공간도 이미 이것도 수용을 받아서 추진하는 산업단지라는 거죠.

그래서 17가구는 지구 내에 하고 16가구는 지구 밖에 그렇게 해 주면 그런 어떤 부분을 보고 공익성으로 보기는,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미 이주자택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2지구 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공익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17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

계획 변경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어떤 형평성 차원도 그렇고 택지개발을 하는 부분도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곤란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욱 위원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이주자택지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6년입니까, 8년입니까?

나는 지금 그 긴 시간 동안 국토부와 이런 협의가 안 나서 이제 와서 그것이 국토부의 의견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초에 이걸 검토할 때 국토부랑 의견을 나누어서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분들은 다 이사 가는 걸로 이주되는 걸로 알고 '100평을 달라, 80평을 달라' 이 평수를 갖고서 협의를 하고 있던 분들한테 근본적으로 어렵다라는 사유를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라면 과연 이해가 가능하겠느냐?

업무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느리게 가도 문제지만 그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이게 6월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갈을 당하고 있다, 협박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고.

여기 보면 내용에 공가 철거에 대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에 대한 반발도 있었고 주민들은 지금 많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맹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 그 부분을 좀 더 이해를 구하는 시간

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지금 이주자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우리 경자청이나 청주시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그런 어떤 지적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청주시나 우리 경자청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주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해 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지의 문제보다도 타기관의 그런 의지하고의 어떤 그런 괴리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완벽하게 시물레이션을 돌려서 이거 5,000평에 이주자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완벽하다는 부분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자청장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국토교통부를 우리가 의견을 꺾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런 측면을 지금 충분히 이주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안이 없다. 이주자택지 내에서 그분들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 이주자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전임자들이 너무 추진한 부분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어쨌든 이주문제를 정리할 때 아예 그때부터 국토부하고 업무협약이 됐었다면 그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공공기관이, 틀림없이.

그렇지만 그런 소홀함 때문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것도 우리 경자청이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 이해설득이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부분은 사업을 위해서 꼭 정리가 돼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자청이 우리가 일할 때 중앙부처 사업파트너가 주로 어느 부서가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건 국토부 얘기도 나왔고 또 주로...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지금 주로 사업파트너는 국토교통부하고 산업부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승인받고 나서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는 부분은 산업부하고 파트너가 됩니다.

그래서 양 국토교통부하고 산업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은 박순영 국장님하고 맹경재 청장님하고 나란히 앉아 계시잖아요. 왜?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관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예.

○이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파트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국토부와 산자부 관련된 업무가 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실에 맞게 혹시, 우리 문화관광부처가 부서 이름이 하도 길어 가지고 헛갈리는데 경자청하고의 업무현황을 나누고 업무를 협의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회의체가 구성된 건 있나요?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자청장 맹경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체를 이렇게 해서 매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안별로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협의하고 해서 제가 처음에 부담하고 나서도 우리 국장님께 제가 인사를 갔던 부분이고요, 담당 과장님하고도 수시로 정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체계가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의 상임위원회는 어디 소속이에요?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상임위는 경자청 같은 경우는 산업경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산경위고.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이상욱 위원 주로 업무를 보는 도청에는 문화체육관광국이고 또 건설국이지요, 균형건설국.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균형건설국이고 우리...

○이상욱 위원 종합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데 주 파트너가...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주 파트너가 경제통상국이 투자유치 관련해서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협업해야 되고요, 산업단지 관련한 부분도 지금 바이오국하고 경제통상국하고 협업을 해야 되고요.

또 바이오폴리스 1지구·2지구 거기에는 혁신성장 기업을...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신성장산업국하고...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처에 교류 관계가 있다 보니까 경자청을 따로 만들었겠죠.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의 어느 실·국에 한정된 일이 아니고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지 되니까 경자청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어쨌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경자청장님으로서 따로 별도로 지사님한테 보고체계도 되어 있을 테지만 다른 실·국과도 교류를 활발하게 해서 갖고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잘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저희들이 지금 경자청이라고 그래서 독립된 공간적인 부분만 그렇죠. 사실은 오늘도 아침에 전체 실·국장님들 회의 때도 같이 참여를 하고 똑같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회의를 우리 기관만 참여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9년 이용객 300만을 했는데 작년에 거의 회복을 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어쨌든 수고를 하신 거는 알겠는데 이게 이렇게 회복되면서 직접적으로 충청북도에 도움이 된 게 무엇이 있나요?

인구는 이렇게 늘었어요. 263만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했는데 이 회복된 관광객들로부터 우리 충청북도에 이익이 된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제적인 효과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입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여기 는 거는 국내선이 저희가 개항 이후 최초로 지금 26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오셔서 제주를 가시는 게 많아서 저희가 그래서 공항공사하고 협조해서

공항 내에 상품, 충북의 관광상품 곳곳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을 파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앞으로 코로나가 조금 더 진정이 되면 연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셔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청주라든지 인근 지역이나 나아가서는 한 군대를 더 가실 수 있도록 관광상품을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인구는 는 것 같은데 이걸 끌림현상이다. 국내여행이 좀 늘어나면서 제주로 가는, 국내에 그분들이 그냥 잠시 다녀가는,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인식만 안 좋게 충북이 뭔가라는 건 없고, 청주공항이 뭔가라는 건 없고 그냥 거쳐 가는 그런데 그것도 불편한 그런 어떻게 보면 끌림현상에 의한 그냥 이렇게 인구가 는 것이다, 관광인구가.

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제주공항에 제주를 가기 위한 방문객이 는 것도 사실이지만 충분히 사실은 저희 충북의... 그래서 저희가 공항을 중심으로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청남대라든지 도내의 유명한 관광지 그리고 사실 지금 트렌드는 치유라든지 이런 힐링, 유명한 데 막 다니는 것보다 치유나 힐링의 개념을 많은 국민들이 관광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연계해서 개발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작년에 이걸 봤는데 사실 어떤 향후 계획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참 답답했던 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공항의 활주로를 늘리고 이런 것 외에는 활성화를 위한 다른 건 아무 것도 없어요.

속된 말로 청주공항에 오면 1박 2일 어떤 코스로 미리 제공을 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여기에 와서 어떤 것들이 있다든지.

그렇게 하고 주차장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

요. 주차장 꼭 청사 안에 만들어야 돼요? 우리 충북 특성을 살려서 지역에 좀 멀리 두면 어때요?

두고 그쪽에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 주고 대신 그쪽에서 거쳐서 들어오면서 점심이라도 먹게 한다든지 저녁이라도 먹게 한다든지 나름대로의 우리 충북 특성을 가진 공항만의 어떤 관광상품을 만들어야지 이거 이렇게 거쳐가는 공항만 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산투자 해야 되고 나름대로 도민, 충북도에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는 없고 이런 식이 계속 된다면 사실은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네, 위원님 말씀을 하신 대로 계속 저희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쳐 간...

그런데 사실은 일단은 가장 공항 이용할 때 편의는 공항에 얼마나 빨리 오는 거냐도 중요해서 공항 이용객들은 사실은 공항을 가장 빨리 편하게 오는 거를 지금 원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이나, 계속 공항공사하고 저희가 주차장 확충을 노력하고 있는데 후자 말씀하신 거쳐 가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서 머무르고 숙박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매년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너무 우리 향후 계획에도 그렇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거에 대한 홍보가 없으면 당연히 이런 형태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힐링하는 곳 또 가족단위의 어디 가서 쉬는 이런 곳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우리 충북에도 많아요, 보면, 그런 데가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홍보에 대한 그런 것들은 참 아쉽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공항을 잘 꾸미고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항을 이용한 우리 충청북도의 실질적인 경제가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리고 여기 이걸 보면서 활성화 주요사업 추진에 보면 아까 우리 이상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소방대가 창설이 됐어요.

그런데 그 기대효과에 ‘군소방의 민항지원 한계 극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대 효과라는 거예요? 미흡하다고...

‘출동 미흡’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기대효과예요? 이게 뭘 얘기죠?

시간은 단축이 됐어요, 11분에서 1분.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 치는데 군소방의 민항지원 한계 극복, 군은 교대근무가 없어 야간·휴일 대응 곤란, 비상 시 신속한 출동이 미흡하다.

이게 어떤 기대효과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랬으면 기대효과인데 이게 미흡한데 뭐가 기대효과라는 거죠? 이해가 잘 안 가세요.

○관광항공과장 이철호 관광항공과장 이철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과거에 이전에는 군하고 우리 충청북도 소방서 그런 항공 위기대응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민간소방대가 출범함에 따라서 상시 거주를 하고 상시 근무체제를 하면서 더 긴급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주공항이 300만 육박하기 때문에 그러한 항공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을 민간항공대를 개편해서 그렇게 해서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개편했다는 말입니다.

○임동현 위원 맞습니다.

민간항공대가 만들어짐으로써 청사 내에서의 대응은 빨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항 사고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큰 사고들이 많아요, 항공 쪽 공항 쪽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교대근무라서 출동이 미흡하다 그래서 안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여기하고는 지속적인 관계를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인 체계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향후에도 꼭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들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소방과의 관계는 그쪽에 어떻게 보면 공군이 있기 때문에 공군에 대한 비상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항에서의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에서는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

물론 민도 잘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단절을 시킬 것이 아니라 더 체계적인 조식을 좀 같이 만들어가는 협업하는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광항공과장 이철호 관광항공과장 이철호입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지금 초기대응능력이나 이런 것을 하고요, 물론 인근에 항공소방대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 소방대원이라든지 긴급하게 협력하는데 이 민간항공대 단독, 독단적으로다 이걸 한다는 건 아니고요.

초기대응능력이나 긴급한 위기상황을 즉각 먼저 초동단계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지금 거기 민간항공대가 생겼다고 그래서, 소방대원이 생겼다고 그래서 단절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 협력 지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이게 그런 거네요. 민간소방대가 만들어져서 긴급대응은 빨라졌고, 단 군소방대하고는 단절이 아닌 지속적으로 가는데 민이 먼저 투입이 돼서 빨라지고 그 후 추후

에 여기랑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관광항공과장 이설호 네, 그렇습니다.

○임동현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관광은 참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지금 제주도나 여러 가지 관광지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참 많이 됐어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역 경제적인 효과를 보는 것이 많은데, 우리 충북도 보면 참 갈 데가 많고 볼 곳이 많은데, 또 공항이라는 장점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거를 너무 못 살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물론 계획을 잡고 여러 가지 고민은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더 적극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우리 청장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임동현 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도심형 항공교통 이거 드론 관련해서 지금 주요 내용이 이렇게 쪽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얘기가 크게 여기서 일거리 창출이라든지 기타 다른 제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드론과 관련된 어떤 우리가 부품을 만드는 어떤 중요한 그런 것들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계획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임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자청장 맹경재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부분은 지금 도심형 항공교통 특화단지 조성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특화단지라는 것은 공간적인 부분이구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수단의 어떤 비행기 이런 것,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택시가 다니고 있는데 이 택시에 회전익을 좀 해서 부양을 해서 다니는 이런 교통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

울에서 청주 오는 고속버스의 운항체계 또 거기에서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가는 교통시스템 이런 것 또 아니면 택시가 어느 구역만 어떻게 가겠다 이런 부분, 그래서 택시가 갈 때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을 가려면 30km로 속도를 낮춰라 이런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드론은 지금 막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모형을 돌려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으로 그렇게 하는 거구요...

○임동현 위원 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나 조금은 아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것 또한 자칫... 제가 보면 우리 특화단지 주변으로 산단이 엄청 많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 주변으로 지금 엄청난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지금 청주공항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냥 거쳐 가는.

그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투자 대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는 크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으로 산단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변에 우리가 특화단지를 이렇게 조성하면서 그 연계한 산단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이 드론과 관련된 제조라든지 같이 그런 것을 우리는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효과가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일거리 창출이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없고 또 공항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러면 과연 이게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스템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서 이착륙장이 필요합니다.

이착륙을 하다 보면 정비센터가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그 정비를 하는데 더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R&D센터가 필요하고요. 또 이런 것을 부품을 제조해 주는 생산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뒤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어떤 단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에어로폴리스 3지구에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R&D센터나 정비나 제조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결국은 인력이 양성돼야 되는데, 그래서 인력양성 모든 부분을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리가 특화단지 조성이 우선 잘 돼야 되겠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네.

○임동현 위원 잘 되고 이거와 더불어 우리 지역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 청장님께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원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저희 매년 공항특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공항공사 관계자분들이, 혹시 관계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없을까요?

청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가능하겠습니까, 공항공사 관계자분들이 참석하는 것은?

한두 분이라도 좀 오셔서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데 매년 저희 관계자분들만 참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공항 이용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

스 운영체계에서 셔틀버스 운영을 하잖아요.

지난번부터 계속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말씀들을 드렸어요.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에 캐리어를 들고...

700m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 구간을 사실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 번 정도 운행이 되는 거예요, 셔틀버스는? 3월부터 시범운영인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은 20분 간격으로 일한 40회 정도 운행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40회 정도면 하루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네, 맞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러면 승객 없이도 그냥 공차로 운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불편을 해소하는 셔틀버스는 진작에 운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료로 운영을 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네, 맞습니다. 무료입니다.

○이옥규 위원 20분에 한 번씩, 어쨌든 3월부터 운행이 된단니까 이용객들 불편은 한 가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제주를 저희가 공항특성화 차원에서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요.

입주자분들, 공항 주변분들의 소음피해보상 위원회인가요? 정확하게 뭐였었죠, 위원장님?

○위원장 허창원 소음피해지역보상대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옥규 위원 네네.

그래서 저희 1지구, 2지구가 생기게 되면 분명히 소음피해자분들 민원이 생길 거예요. 그 민원 해결은 어떻게 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에어컨을 계속 여름에 가동을 했을 때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를 제주도에서 지원을 해 줬던 거죠?

○위원장 허창원 지금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들이 제주도 사례라든가 다른 어떤 광역단체들 사례를 조사해 봤을 때 피해지역에 그런 부분에서 국비와 광역단체에서 지원하는 데 매칭이 돼서 지원했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옥규 위원 네네,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보조적으로.

그런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도 사전에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회 발족이 돼 있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3월 9일이 대선이지 않습니까? 대선공약 사항에 대해서도 알고는 계시죠?

청주도심 통과라든가 아니면 거점항공을 위해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을 하신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건의를 하고 하셔서 갖고 저희 도가 이렇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군다나 정주여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형소행물이 입주를 하게 되면 정주여건에 도움이 되고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또다시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분들한테는 상권이 붕괴될 염려가 있어서 양극화현상이 있기는 한데요.

이런 점을 잘 보완해서 갖고 매번 공항활성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도 있고는 한데 작은 것부터 실천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셔틀버스 운행은 꼭 사전에 미리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입니다.

청주공항 국제선 신규 취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작년 12월 말에 운항을 재개할 계획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원래 청주가 2단계에 포함이 돼서 국제선 운항재개에 포함될 예정이었는데 연말에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바람에 그게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함이 안 됐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지금 저희가, 대구 같은 경우는 출국만 가능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도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지금은 추진계획이 중단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원래 국토부에서 말했던 2단계 거기 자체를 국토부가 중지했습니다.

원래 그때 포함해서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중지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속 언제 할지 조속히 하자 이런 내용들로 국토부와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20대를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지금 3억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육미선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저희가 3개 노선 예산은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국제노선이 없기 때문에 티웨이항공이라든지 저희가 국제선을 할 수... 일단은 기본적으로 2단계에 저희가 해당이 돼야 되고 빨리 국제선을 취항할 수 있도록 여러 항공사와 얘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오미크론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1만 명 이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규 취항

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네, 위원님 코로나 환자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면밀히 관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원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만 청장님과 국장님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경재 청장님은 우리 도의회에서도 또 집행부에서도 업무능력이 탁월하신 걸로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경제자유구역 청장님으로 가셔서...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1지구, 2지구, 3지구 이렇게 죽 지연공사가 되고 있는데 사실 10년이 지나도록 공정을 53%, 48%, 그리고 3지구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 목적과 다르게 2지구 같은 경우는 또 쿠팡하고 MOU를 체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의 계획들과 다르게 추진되는 부분도 있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주자택지 문제도 그렇고 이제 청장님이 가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허창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제가 경자청장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항 주변에 에어포리스트 1지구, 2지구, 3지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척이 느리다 이런 부분의 지적으로 알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다각도로 빨라질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온 정성을 다해서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

탁 말씀드리고, 우리 박순영 국장님도 아마 위원님들이 아까 이상식 위원님, 임동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지금 인바운드 관광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결국 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항을 활성화를 시키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주차장 문제, 관광상품 연계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위기인 상황에서 기회로 보고 더 알뜰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는 것 같고요.

저 또한 그런 마음을 한번 다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입니다.

허창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 금방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귀담아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지금 마무리 시점에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질의드리는 시간에 국토교통부를 건설부라고 내가 호칭을 잘못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걸 속기록에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해 갖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원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수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제품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제품은 많이 있는데 상품으로 만드는 데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청장님, 국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충청북도가 더 나은 도민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계서는 사업추진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1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 | | | |
|-----|-----|-----|-----|
| 허창원 | 송미애 | 이상옥 | 육미선 |
| 이옥규 | 이상식 | 임동현 | |

○출석전문위원

| | |
|-----------------|-------|
| 수 석 전 문 위 원 | 김 광 래 |
| 운 영 특 위 전 문 위 원 | 정 훈 |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관광국

| | |
|-------------|-------|
| 국 장 | 박 순 영 |
| 관 광 향 공 과 장 | 이 설 호 |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 | |
|-------------|-------|
| 청 장 | 맹 경 재 |
| 개 발 사 업 부 장 | 류 재 부 |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24일(목) 16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2.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1면
 - 기간별(단기·중기·장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 기간별(단기·중기·장기)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계획
2.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면

(16시03분 개의)

○위원장 허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충청도의회 임시회 제12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마뻔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간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및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회의 진행은 업무보고,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기간별(단기·중기·장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 기간별(단기·중기·장기)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계획

(16시04분)

○위원장 허창원 의사일정 제1항 기간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기간별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문화체육관광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 모든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기간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입니다.

기간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청주공항 여건 및 전망과 그간 주요성과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여건 및 전망입니다.

청주공항의 국내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

로 완전 회복하였으며 올해 300만 명 이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제선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으나 최근 해외 입국자 격리요건 폐지 등으로 운항 재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 등 노선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간 주요성과입니다.

F급 대형 항공기 대체공항으로 지정되었고 '21년 국내선 이용객 263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해외 관광객 유치에 위한 국토부의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과 거점항공사 출범으로 국제노선 다변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핵심 공항시설인 평행유도로 설치, 계류장 확대, 여객청사 확충 등을 완료하였으며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발전방향입니다.

첫 번째, 우선 항공수요 500만 명 달성을 통해 항공 여객 수요를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공산업과 물류산업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내륙 항공화물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항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여 공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항 핵심시설 확충으로 시설기반을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관문공항,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행정수도 관문공항, 중부권 거점공항입니다.

추진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국제선 회복으로 공항을 재도약하고 중장기계획으로 항공화물 육성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공항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단계별·기간별 활성화 방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기간별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입니다.

단기계획입니다.

첫 번째, 국제선 운항 재개를 준비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에 따라서 국제선 재개가 있음에 따라 입국자의 방역 대응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선 수요회복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항공사 및 여행사에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국제노선 취항을 재개하는 항공사에는 재정 지원을 하겠으며 신규 국제노선 취항 항공사에는 재정 지원과 추가적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인바운드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이전 국토부로부터 지정받은 인바운드 시범공항 추진으로 국제노선을 다변화하고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항 연계 교통노선 개선으로 공항 접근성을 확충하겠습니다.

광역버스 B3 노선을 대전 반석역까지 연장하고 버스노선 간 환승이 가능하도록 환승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항 접근성 확충을 위해, 6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 신설노선과 경유노선을 논의하여 공항 접근성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항시설 확충을 통한 시설기반 구축입니다.

제3·4주차장 확충, 제2주차빌딩 신축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장기계획입니다.

거점항공사의 국제정기노선은 최대 55억 원까지 지원하여 거점항공사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태국, 싱가포르 등 인바운드 신규노선을 적극 유치하여 국제선 수요 확대에 노력하

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륙 항공화물 거점공항으로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산업 및 수출입 품목 중심으로 공항 주변 항공산업과 물류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도권 및 충청권 교통여건 개선입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충북선 철도 고속화, 행복도시~청주공항 연결도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동탄~청주공항 연결도로도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항 핵심시설 확충으로 항공수요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선인 공약에 들어가 있는 활주로 개포장,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 청사 확충 외에도 활주로 연장 등 저희가 다양한 시설기반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객청사·화물청사를 확장하여 국제선 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내륙 항공화물 거점공항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맹경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기간별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맹경제 청장입니다.

존경하는 허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별 추진현황과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 추진상황, 도심형 항공교통특화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현재 단지 조성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70%로 3개의 헬기 정비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헬기 정비 2개 업체는 지난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개 업체도 올해 하반기에 부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입주 희망기업의 입주 시기에 맞춰 단지 조성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올해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지구의 공정률은 58%로서 지난 2월 실시 계획 변경고시가 완료되어 이주자 택지 성토작업을 진행 중이고 이주자 택지 추가 반영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개발계획 변경 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6월 중 변경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작은 계획 변경으로 인해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 계획대로 2022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에어로폴리스 2지구 이주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이주자 택지 조성사업은 2지구 내 33가구에 대한 이주대책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구 외 요구 16가구의 지구 내 이전을 위해 주민설명회, 이주대책 변경 안내공문 발송, 주민의견 수렴, 인센티브 검토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주 대상자 선정 접수 결과 33가구 중 30가구는 이주 택지를 신청하였으며, 3가구는 이주 정착금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이주 택지를 신청한 30가구 중 10가구는 지구 외 이전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항공소음, 측사 악취 등으로 지구 내 이전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나 분양면적 확대, 공용주차장 마련, 공항과 연계한 특색 있는 마을 조성 등 지구 내 택지의 장점 홍보와 설득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이주민 대

책을 조기에 해결하여 에어로 2지구 조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입니다.

3지구 조성사업은 에어로 1·2지구와 연계하여 항공정비·부품·소재, 항공 및 연관 산업 집적화를 통해 항공 R&D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용역 등 6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먼저 추진하여 지정 목적, 토지 이용계획 등 산업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부합된 구체적인 계획 수립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도시 조성은 청주국제공항 중심으로 미호강 주변과 연계하여 관광·문화·상업·주거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21년 5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사업 예상지로 공항 북측 미호강 평야 오송·북이·내수에 209만평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적정성을 위해 분야별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한 결과 환경·소음·자연훼손·절대농지·축사·고도제한 등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체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공항 주변 동측은 전투비행단, 서측 네오 복합도시 중북, 남측 밀레니엄타운, 북측 소음 등 환경문제로 대체부지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중심 경제권 형성을 위해 현재 공항 인근에 신속 추진 중인 네오 복합도시와 미호강 프로젝트를 연계하여 그린시티로 조성하고, 공항 2~3km 내에 밀레니엄타운, 넥스트폴리스, 에어로 1·2·3지구를 클러스터화하는 네오 복합도시 추진을 청주시와 별개로 긴밀

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심형 항공교통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심형 항공교통 특화단지는 에어로폴리스 3지구에 39만 평 규모의 UAM 이륙·착륙장, 정비센터 및 인증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경자청에서는 UAM 산업 선점을 위해 국내 최초로 충북드론·UAM연구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충북형 스마트 드론 콜드체인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민간 참여를 높여 UAM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인 만큼 선제적으로 도심형 항공교통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창원 맹경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고자료 중 대외비로 표시된 내용은 공개된 회의 장소에서 질의하기보다는 별도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개략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셔도 괜찮을 걸로 보고요.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계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식 위원 예, 이상식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쨌든 그동안 같이 지혜를 모아보고자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성과에 어떠한 근거가 될지 사뭇 궁금하기도 하면서 어쨌든 그

런 과정 속에서 함께 또 열심히 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체육관광국하고 경자청 두 군데인데요, 사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청주공항 활성화' 이렇게 하면 사실 관광 연계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인바운드 시범공항도 지정했는데, 여기가 보면 대구·양양·청주 이렇게 3개가 됐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보다는 공항이 좀 활성화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양양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 세 군데를 같이 지정을 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인바운드 시범공항이 지정된 이후에 바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의 장점을 실현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바운드 시범공항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것은 관광 연계라고 본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연계할 수 있는 관광개발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공항을 이용해서 기존과 같이 또 타 시도보다 그냥 여기에서 교통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빠져나가는 그러한 과거의 지적사항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바운드 시범공항과 맞물려갈 수 있는 관광 개발 그리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관광지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워드 코로나와 함께 관광수요는 굉장히 폭증할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사실상은 세계적으로 코로나 관리가 잘됐다라는 평가 속에서 어떤 우리나라로의 관광을 희망하는 수요층들이 꽤 많아요,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한번 짜 주시면 좋겠다.

이제 이 코로나 시기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나머지 시간에라도 전략적인 그런 계획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중부권 관문공항, 세종 행복도시의 관문공항 이렇게 하는데 이 관문공항이 갖는 것도 사실상 현재는 이게 지리적 여건 속에서의 우리가 "관문공항"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을 극복한 사회·경제적인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치밀한 계획들을 좀 수립해 주시고 실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경자청, 제가 질의드리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끝나면서 당부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자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 가지 에어로폴리스 1·2·3지구, 1·2지구는... 1지구는 정말 오래 지난한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2지구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10가구는 밖으로 이주를 원하고 3가구는 신청도 안 했다고 하셨는데 좀 조속하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조속히 시행하시고, 아까 대책 보니까 대책들도 나름대로 의미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로 잘 협의하고 설득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우리 복합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미호강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미호강 프로젝트와 좀 충돌되지 않고 연계해서 오히려 보다 나은 안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또 UAM 같은 경우에 우리 특화단지 하는데 이 복합신도시 조성하고 하다 보면 이 UAM의 어떤 허가 이런 것 때문에 신도시 조성 아니면 UAM의 어떤 효율적인 사업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제도적인 검토를 사전에 철저히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아까 업무보고 이후에 저희들이,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 보고서 채택을 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우리 청주공항이 사실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국내항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용객들은 확보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좀 창궐하고 있지만 해외 관광객이 늘어날 시기가 온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국내 항공수요도 멕시코에 갔다고 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외관광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넘쳐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국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여행사들이라든지를 통해 가지고 해외 현재 지금 마케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적인 국내선이 아직 뜨기 이전이라도 전세기를 통해서 청주공항을 오고 갈 수 있도록 여행사들과 지금 해외 현지 홍보라든지 그런 마케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허창원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이상식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청주공항과 관련한 그런 어떤 연계한 프로젝트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주공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제도시 오송 또 청주공항 인근의 구역이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도시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국제컨벤션센터가 내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후년 1월부터 국제대회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는데 이런 해외에서의 그런 어떤 회의를 위해서 왔을 때 아웃바운드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그것의 시작이 국제도시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산업 관련한 관광 또 의료관광, 컨벤션에 온분들을 대상으로 청주공항하고 연계한 그런 부분에.

그래서 지금 오송과 오창에 있는 그런 어떤 자원들을 통해서 산업관광이나,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 화장품 기업들하고 지금 연계해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왔던 분들을 우리 충북경제에 그런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실히 준비할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회의에서 다시 이런 회의가 된다면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프로젝트가 '이러이러한 것을 할 겁니다'라는 것을 보고를 좀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에어로 2지구 이주자 택지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못해 드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는 33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산업단지 내에 들어왔을 때 분들이 세 번씩이나 공항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는 그런 어떤 단지를 만들어가면서 그냥 단지에 입주시켜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1단계로 입주시키는 거고 2단계로는 1층은

전부 상가지역으로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단지로서의, 그래서 청주공항 주변에 식당이 없어요. 기념품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주단지를 하면서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라별 식당 또 기념품 거리를 만들어서 제2단계로 활성화계획까지 같이 넣어서 그런 거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창원 예,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해외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을 설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청장님 업무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허창원 예,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 지금 그 말씀 중에 우리 청주전시관, 거기 말씀하셔서 가지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바운드에 관광도 있지만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요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가 가질 수 있는 여기 지리적 여건이 적지는 않다, 그리고 청주전시관이 나오면 이 마이스산업은 실제적으로 단시간 내에 유치되지 않아요. 그리고 1년, 길게는 2년, 더 길게는 3년·4년짜리도 있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청주전시관의 완공을 목적에 두고 지금부터 우리 그런 국제회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그 유치하는 작업, 쉽게 얘기하면 영업활동이죠.

그런데 그런 활동 속에서 충북의 위상 자체가 세계적으로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 한 하반기 코로나 상황 봐 가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점차적으로 줄었을 때, 그때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게 경자청 한 군데, 문화체육관광국 한 군데 이렇게 별도로 해서는 쉽지 않거든

요.

그래서 전 국이, 그러니까 우리 전 사업부서가 한번 TF를 구성해서 정말 마이스산업 유치, 그러니까 청주전시관이 처음에 정말 우리 중부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짜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청장님 말씀하시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지금 이상식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사실은 국제행사는 1년 전에 픽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청에서 업무 프로젝트의 하나로 해서 국제행사 유치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1명당 몇 개의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비는 내년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이것을 운영을 누가 할 거냐,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진척에 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들이 같이 연계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관련된 기관장님하고 이런 부분을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1년 전에 픽스를 시켜야 되는데 그럼 올 하반기에 어떤 행사들을 어떻게 해서 2024년에 이런 거를 세팅시킬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내 갖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잘 안정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그러면 당부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습니다.

맹 청장님이 경자청으로 가서서 활발하게 움직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저희들

이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복합신도시 관련해서 저와 부위원장님이 잠깐 보고도 받았지만 사실은 결과물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파서는 경제청에서 빨리 진행돼도 될 사람들이 너무 오래 걸렸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이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요, 전체적인 조직이 좀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제공항과는 관련이 없는 거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먼 것에도 향기연구소 관련해서 제가 35억 투자되는 부분에 추정에서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35억이 투자되면 거기에 대한 투자가 됐으면 거기가 어떤 효과가 나오는 부분에 대한 분석까지 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거는 적절치 않지만 이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사업은 사업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위원장님 그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복합신도시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공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공항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나, 그래서 국가계획에 이 부분이 담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러한 구역을 설정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경이 됐는데 이 부분을 그냥 끌고 갔을 때 나중에 그야말로 도상계획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방향을 선회하는데 '청주국제공항 주변에서 배후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시 수정해 보자' 이렇게 방향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쟁력 있는 배후도시로서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

는 건지 그런 부분을 그림을 새롭게 그려서 다시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별도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하겠고요.

향기연구소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말씀 지당 하십니다.

그래서 이 향기연구소가 우리 인간이 생활함에 있어서 향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시도도 이 향기에 관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5억을 투자했을 때 향후 미래에 그런 향기를 어떻게 해서 이 걸 제품 속에 집어넣고 이런 부분을 기업들한테 전수해 주고 그렇게 해서 35억이 아닌 몇 백 억, 몇 천 억의 효과가 있는 이런 부분으로 반드시 만들어 보겠다라는 방향성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화된 부분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기연구소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청장님 감사합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 있다니까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규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한 부분이긴 한데 어차피 청주국제공항하고 인근에 관광·쇼핑 또 숙박시설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 의미에서 한번 여쭙 보겠는데요,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 밀레니엄타운 있죠? 그 부분이 우리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오픈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혹시 코스트코 입점이 확정된 겁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자청장 맹경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지만
요, 제가 경제통상국장하고 이쪽 재난안전실
장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레니엄타운
에 된 그런 어떤 도시계획, 그쪽에 어떤 시설
을 어떻게 유치하겠다 이런 부분은 공개가 돼
있다는 부분 그거는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이옥규 위원 공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
다.

○이옥규 위원 당초 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이 자꾸 반복된다는 민원이 있는데요, 주중동
511-1번지에 코스트코 입점이라는 구체적인
것까지도 거론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숙박시설, 호텔이 입점한다는 얘기도 있
는 것 같은데, 도민들에게 처음에 비춰졌던
사업하고 변경이 있거나 사업 변경이 있을 때
는 반드시 공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물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상가분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
은, 알고 계시긴 한데 도에서 하는 추진사업
이 자꾸 반복된다, 당초 사업하고 틀려진다
자꾸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은 좀 공개가 된다 하면 명확하게 사실에 입
각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아까 말
씀드렸습시다만 제가 책임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전제하고 보고 말씀드리
면요, 우리가 당초에 밀레니엄타운 계획을 할
때 어떤 구역은 대형 유통시설로 하겠다라는
부분이 공개가 다 된 거고요, 그거에 의해서
분양계약을, 땅을 할 때 분양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입점을 할 때, 이걸 민
간영역입니다만 정책적으로 그게 대형 유통·
판매시설을 입점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이런 부분은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부
분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거에 대한 정보는 이미 지구단위 계
획할 때 도시계획할 때 이미 그것이 공개가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문제 이런 부분은 실질적
으로 기타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연
계성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아마 청주시하고
충북도의 책임 있는 그런 부서에서 진행할 거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국제공항 인근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도 클
거고 그리고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TF팀
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일
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좀 더 부연해
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경제통상국장 시절에
이 문제가 대형 쇼핑 판매점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래서 청주에 그런 어떤 자금
들이 세종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청주시민들
이 그쪽으로 많이 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갖고 제가 관련 기관에 의견
을 물어보니까 청주에 있는 상당수의 시민들
이 그쪽에 가서 그런 어떤 구매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의 스탠스를 할 거냐, 그래서 소상
공인들 입장, 소비자 입장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입장할 때 그런 부분에 대
해서 소비자 관련된 시스템상 그런 거를 심사
해 주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그런 의견 수렴을 받아서 적절하게 선정
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대외 행사가 있어서 좀
늦었는데요, 그래서 앞에 혹시 충북 질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양해를 미리 좀 드리겠습
니다.

혹시 지금 입동 이주자 택지가 당초 바깥으
로 이주된 게 16가구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10가구만 지구 외 이전 신청서를 제출한 걸로 돼 있네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자청장 맹경재입니다.

16가구 중에서 6가구는 산업단지 내로 오겠다라는 그런 의견의 신청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가구는 단지 외로다가 해 달라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나보면 실지로 단지 외를 하더라도 80평까지밖에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단지 내에 80평을 해 주나 단지 밖에 80평을 해 주나 결과론적으로는 그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혜택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쪽에 와서 분양권을 활용해서 재산권을 좀 그분들의 입지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고려해 달라 이런 부분으로 지금 그쪽 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어느 청장님보다도 참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고 알고 있고 우리 이기영 본부장님 참 고생 많은 거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한테.

그렇지만 어쨌든 대안이 없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대외, 바깥으로다 이주택지를 만들어 달라는 거는 지금 불가능한 거잖아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지구 외로다가 해 주려고 했던 부분이, 노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리로 마지막에 해 줄 때 그때

토지주가 세 분이 있었는데 두 분은 협의를 해 줬고요, 한 분이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협의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협의를 안 해 줘서 토지 수용을 하려고 국토부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하는 얘기가...

○이상욱 위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이상욱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제3의 장소를 했을 때 똑같은 답이 올 거다.

그러니까 이주자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해 준다 그러면 또 사기 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러지 말고 그리 나갔을 때, 밖으로 나갔을 때도 분양권 갖는 거다, 이리로 왔을 때도 분양권 갖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적인 부분을 봤을 때 비슷비슷하니 이쪽으로 오는 걸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이거는 1단계 얘기다. 그래서 사실은 삼척시에 가 보시면 이북에서 온 분들이 집단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순대촌을 해 줘서 그분들의 애환을 경제적으로 좀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33가구가 지금 세 번 강제이주를 당한 그런 아픔이 있는 단지에다가 상가를 해 주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상가를 갖고 거기 여러 나라별 식당 또 지금 보면 기념품을 살 만한 데가 없어요, 공항 주변에. 그래서 기념품 거리, 식당 거리 이런 거를, 예를 들면 호커센터라고 외국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그런 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가구도 지금 어느 정도 저희들하고 의견 일치를 봐서 최종 아마 금주나...

아니, 다음 주나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계약서 쓰고 진행하면 다 100%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맹경재 청장님하고 이기영 본부장님이 진짜 어느 저기보다도 열심히 뛰어다녀서 지역주민들한테 나름대로는, 앞에서는 뭐라고 하시더라도 뒤에서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잘 해결해서 갖고 우리 맹청장님 재직 중에 깨끗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간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과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45분)

○위원장 허창원 의사일정 제2항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미애 부위원장님께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 부위원장 송미애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안 제시 및 지원을 하고자 2019년 4월 17일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하였습니다.

그간 활동내용을 정리한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주요 활동 상황 및 결과, 부록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활동내역은 일자 순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동안에 특별위원회에서는 청주국제공항 인프라 확인,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 채택, 에어로폴리스 사업현황 점검, 공항과 연계한 관광·교통망 확충방안 논의 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 결과, 거점항공사 취항, 청주국제공항 이용자 300만 명 달성,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 공항보건인증 획득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한 단계 더 비상하는 청주국제공항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드립니다.

첫째, 국제노선 다변화와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주국제공항 연계 관광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에어로폴리스 등 청주국제공항 주변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연계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창원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송미애 부위원장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이견이 없으므로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국제

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청주공항 활성화, 에어로폴리스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이 노력하시는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맹경제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 한 말씀씩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하시죠, 뭐.

먼저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O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일단 첫 번째로는 청주공항이 국제적 공항으로 커가기 위해서 수요 측면에서 국제선이 많이 확대되도록 차근차근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전세기, 그다음에는 정기노선 확대를 저희가 국제공항으로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주공항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물류공항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물 거점공항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국토부와 저희가 철도라든지 교통 연계 인프라 확충을 하여서 청주공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실상부한 제2의 국내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O위원장 허창원 박순영 국장님 감사합니다.

맹경제 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O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제 허창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도시 오송 또 청주공항 주변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이유가 청주국제공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청주국제공항이 그런 어떤 관광공항

으로서의 활성화 또 물류공항으로서의 활성화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국제도시청이 책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청주국제공항의 기능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시책을 많이 해 달라 이런 부분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제도시청에서 앞으로 이런 국가계획하고 연동해서 충북의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허창원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송미애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육미선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욱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옥규 위원님, 늘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임동현 위원님, 특히 우리 지역구하고 공항하고 연계돼서 많은 지도 전달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O위원장 허창원 예, 감사합니다.

전임자들도 그랬지만 이렇게 상대를 맞닥뜨리면 신뢰가 가는 분들이 계시요. 우리 박 국장님, 맹 청장님 그리고 이기영 본부장님,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그런 신뢰가 가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랜 기간을 만나지 않았지만 우리 국장님, 청장님 수고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요.

위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의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비록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은 종료되지만

(제398회-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위 제12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는 최종 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 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 | | | |
|-----|-----|-----|-----|
| 허창원 | 송미애 | 이상옥 | 육미선 |
| 이옥규 | 이상식 | 임동현 | |

○출석전문위원

| | |
|-----------------|-------|
| 수 석 전 문 위 원 | 김 광 래 |
| 운 영 특 위 전 문 위 원 | 정 훈 |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관광국
국 장 박 순 영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 장 맹 경 재
분 부 장 이 기 영

4.3. 충청북도 업무보고

| | |
|-----------------------------------|--|
| I. 2차 회의 자료(2019. 6. 10.) | |
| II. 3차 회의 자료(2020. 6. 9.) | |
| III. 4차 회의 자료(2020. 9. 16.) | |
| IV. 7차 회의 자료(2021. 3. 17.) | |
| V. 10차 회의 자료(2021. 9. 9.) | |
| VI. 11차 회의 자료(2022. 1. 24.) | |

I . 2차 회의 업무보고 자료
(2019. 6. 10.)



'19. 6. 10.(수) 10:00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간담회 자료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

1. 항공 분야 활성화 방안(거점항공사 유치 등)
2. 관광 분야 활성화 방안(관광인프라 조성)

<참고1> 청주국제공항 연혁 및 기본현황

<참고2> 청주국제공항 정기노선 현황5

<참고3>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실적 현황

<참고4> 거점항공사 유치 기대효과



문화체육관광국

1. 항공 분야 활성화 방안(거점항공사 유치 등)

I 여건 및 전망

- 항공수요는 충분하나, 노선이 부족하여 인천·김포공항으로의 빨대효과 여전
 - 배후수요 충분 : 1시간내 600만명, 1시간 30분내 1,200만명
 - 인천·김포공항과 이용권역 중첩 : 인천공항 170km, 김포공항 120km
- 항공수요는 회복 단계로 진입
 - '16년까지 가파르게 성장 하였으나, '17년 사드여파로 감소 추세
 - '18년 제주노선 증편 및 국제노선 신규 유치로 점차 회복 중
 - ※ 이용객(만명) : 170('14) → 212('15) → 273('16) → 257('17) → 245('18) → **300('19년 추정)**
- 국제 정기노선 신규 취항이 대폭 늘어날 전망
 - 2020년 거점항공사 출범 시 국제 정기노선이 대폭 증가
 - 세종시에 인접한 행정수도 공항으로 향후 다양한 국제선 신설

II 그간 추진성과

- 노선 다변화
 - 중국 일변도 탈피 : 중국 8개('17) → 12개('19)
 - 노선 증가(5개) : 일본 오사카·삿포로, 미국 괌, 대만 타이베이, 중국 위해
 - 노선 감소(1개) : 이스타항공 중국 Ningbo 노선 운수권 회수('19.1월)
 - 다양한 마케팅으로 공항 인지도 제고 및 항공수요 창출
 - 항공사 방문 노선 유치, 여행사 초청 관광 설명회 및 관광객 유치

○ **공항시설 확충 : 7건 1,805억원** ※제5차 공항개발('16~'20) 내 투자

- 이용객 편의시설 개선

- 국제여객 청사 증축 91억('17년 / 126 → 152만명), 주차빌딩 262억('18년 / 2,760 → 3,848대), 국내여객 청사 증축 282억('19년 / 189 → 289만명)

- 활주로 개선

- 갓길포장 33억('16년), 평행유도로 327억('17년), 군용활주로 재포장 730억('19년 / 활주로 포장강도 강화 35 → 85cm), 주기장 확장 80억('19년 / 11 → 13대)

III 세부 활성화 방안

1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유치

에어로K 항공(여객)

- ◆ 자본금 : 480억원
- ◆ 기재확보 : A-320(180석) 6대 ※ 3대('20년) → 5대('21년) → 6대('22년)
- ◆ 운항노선 : 3년간 5개국 11개노선(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마카오)

○ 그간 추진상황

-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 '17. 6.
-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반려 ※ 과당경쟁 우려, 청주공항 용량 부족 '17. 12.
-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재신청 '18. 9.
-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19. 3.
- 여객 운항증명 신청 준비 '19. 4.

○ 향후계획

- 운항증명(AOC) 신청 '19. 8.
- 운항증명(AOC) 발급 및 취항 예정 '20. 3.

가디언즈 항공(화물)

- ◆ 자본금 : 58억원
- ◆ 기재확보 : B737-800SF(23.톤) 등 4대 ※ '18년 종전 계획
- ◆ 운항노선 : 3년간 5개국 10개노선(제주,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 그간 추진상황

-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 '18. 9.
-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반려 ※ 운수권 불투명, 화물사업 구체성 결여 '18. 3.
-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사업계획 보완 중 '19. 4~
※ 국토부와 면허 신청시기 및 사업계획 보완 사전협의 중

○ 향후계획

-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재신청 : '19년 하반기

2] 노선 다변화

○ 북한 관문공항 지정·육성

- 행정수도 공항인 청주공항을 북한 관문공항으로 육성
 - 행정수도 인접, 국토의 중심에 위치 ⇒ **남북 직항로 개설에 최적**
※ 청주 ↔ 백두산 삼지연, 금강산 원산, 평양 순안, 청진 어랑공항
-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4) 반영 추진

○ 소형공항(흑산·울릉, 50인승 이하) 연결노선 개설

- 국토의 중심에 위치,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 접근 가능한
지리적 강점 보유
 - 타 공항 대비 국민들의 항공교통 편의 효과(시간·비용 절감 가능)
- 전국 어디서나 반나절에 흑산·울릉 지역을 동시에 연결 할
수 있는 유일한 공항
 - 흑산('21년)·울릉도('25년) 공항 개항 대비 소형항공사 유치

○ 항공사 재정지원

- 국제 정기노선 신설 유도를 위한 운항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취항년도 기준 3년간 미운항 지역 ※ 노선당 2년간 최대 4억

○ 노선 홍보 강화

- 수도권 케이블 방송 및 지하철 홍보, 취항노선 충청권 홍보
- 해외매체 활용 마케팅, 충북 SNS 서포터즈(100명) 및 충북 나드리 홈페이지, 여행사 등을 통해 홍보

3] 공항시설 확충

○ 활주로(민군복합) 성능개선

- 활주로 재포장 * '97년 개항이후 22년 경과, 활주로 노후
- 950억원 / 2,744×60m 재포장
- 활주로 재포장공사에 대비한 대체 활주로 구축 예정('19년)
- ※ 민항기 운항이 가능토록 군용활주로 포장강도 상향 성능개선 중
-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 조정 * 비행안전성 확보, 결항지연 최소화
- 300억원 / CAT I → CAT II 상향
- 활주로 확장 * 장거리 노선 유치, 아시아 내륙항공물류 거점 지역화
- 933억원 / 2,744 → 3,200m(456m 증) 확장

○ 활주로 주변 시설 확충 및 개선

- 소형항공기 전용계류장 신설 * 흑산(21)·울릉도(25) 공항 개항 대비
- 90억원 / 계류장 1개소(주기장 5대)
- 항행안전시설 개선 * 민간항공기 안정성 확보
- 계기착륙시설 27억원('20~'21), 지상감시레이더 55억원('20~'22)

○ 터미널 용량 증대

- 국제여객 청사 확충 * 신규 항공사 운항 대비
 - 660억원 / 15,000m²(2층, 3백만명 수용)
- 국제화물 청사 확충 * 신규 항공사 운항 대비
 - 450억원 / 20,000m²(2층, 40만톤 처리)

4 국가계획 반영 조치계획

○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4)

- 공항의 위계 설정, 북한 관문공항 지정·육성, 공항 인프라 확충 등 반영

○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1~'25)

- 활주로 성능개선 및 확충사업 반영
 - 활주로 재포장 사업,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 조정
 - 신활주로 확장, 소형항공기 전용계류장 신설
- 터미널 용량 증대사업 반영
 - 국제여객 청사 확충, 국제화물 청사 확충

참고 1 청주국제공항 연혁 및 기본현황

연 혁

- 1997. 4.28 청주국제공항 개항
- 2008.10.26 24시간 운영 공항 지정(동계스케줄부터 적용)
- 2012. 2. 1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계약 체결
- 2013. 1.16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계약 해지
- 2014. 4. 6 제주방문 중국단체관광객 72시간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공항 지정 ※120시간으로 확대(9.15)
- 2016. 2. 4 F급 항공기 교체공항 지정
- 2017. 4.28 청주국제공항 개항 20주년

기본현황

- 개 항 일 : 1997. 4. 28.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 공항시설
 - 여객청사 : 24,282m², 연 341만명, 화물청사 : 2,257m², 연 3.75만톤
 - 활주로 2본 : 민군복합 2,744×60m, 군용 2,744×45m
 - 계류장 및 주차장(항공기 11대 주기 / 3,848대)
 - 면세점(2개소)
- '18년말 이용객 : 2,454만명(국내 2,136 / 국제 318)

※ 전국공항 현황

| 구 분 | 국제공항(8개) | 국내공항(7개) |
|--------------|--------------------|--------------------|
| 민간공항 (7개) | 인천, 김포, 제주, 무안, 양양 | 울산, 여수 |
| 군 공항 (8개) | 김해, 대구, 청주 | 광주, 포항, 사천, 군산, 원주 |

참고 2

청주공항 정기노선(12개) 현황

※ 하계 : 4월~10월 / 동계 : 11월~3월

| 노선수 | 노 선 | 항공사 | 취항일 | 운항횟수 | 비 고 |
|-----------|--------------|--------|-----------|--------------------|-------|
| 중국 (8) | 베이징 (북경) | 아시아나항공 | '07.11. 7 | ▶하계 주4회 ▶동계 운 휴 | |
| | 항저우 (항주) | 대한항공 | '11. 8.18 | ▶하계 주4회 ▶동계 주2회 | |
| | 옌 지 (연길) | 이스타항공 | '14.10.27 | ▶하계 주3회 ▶동계 주3회 | |
| | | 중국남방항공 | | ▶하계 주3회 ▶동계 주3회 | |
| | 선 양 (심양) | 이스타항공 | '13. 1.30 | ▶하계 주2회 ▶동계 주2회 | |
| | 상하이 (상해) | 이스타항공 | '14. 7. 1 | ▶하계 주2회 ▶동계 주2회 | |
| | 하얼빈 (합이빈) | 이스타항공 | '14.10.28 | ▶하계 주2회 ▶동계 운 휴 | |
| | 다 련 (대련) | 중국남방항공 | '14.10.30 | ▶하계 주2회 ▶동계 주2회 | |
| | 웨이하이 (위해) | 동방항공 | '19. 5. 2 | ▶하계 주3회 | 신규 취항 |
| 일본 (2) | 오사카 | 이스타항공 | '18. 3.27 | ▶하계 주4회 ▶동계 주5회 | 신규 취항 |
| | | 제주항공 | '18. 7.21 | ▶하계 주7회 ▶동계 주7회 | |
| | 삿포르 | 이스타항공 | '18.12.23 | ▶하계 주2회 ▶동계 주2회 | 신규 취항 |
| 미국 (1) | 괌 *오사카 경유 | 제주항공 | '18. 7.21 | ▶하계 주7회 ▶동계 주7회 | 신규 취항 |
| 대만 (1) | 타이베이 | 이스타항공 | '18. 9.20 | ▶하계 주4회 ▶동계 주3회 | 신규 취항 |
| | | 제주항공 | '18.12.22 | ▶하계 주4회 ▶동계 주4회 | |

참고 3 청주공항 이용객 실적 현황

□ 이용객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4. |
|--------------|--------------------|--------------------|--------------------|--------------------|--------------------|--------------------|-----------------|
| 총이용객(명) | 1,378,604 | 1,702,538 | 2,118,492 | 2,732,755 | 2,571,334 | 2,453,596 | 968,066 |
| 국내선 | 1,163,405 | 1,235,850 | 1,610,861 | 2,118,695 | 2,385,394 | 2,135,507 | 779,288 |
| 국제선 | 215,199 | 466,688 | 507,631 | 614,060 | 185,940 | 318,089 | 188,778 |
| 내국인 | 76,294 | 87,577 | 117,148 | 143,150 | 66,335 | 189,144 | 132,811 |
| 외국인 | 138,905 | 379,111 | 390,483 | 470,910 | 119,605 | 128,945 | 55,967 |
| 중 국 (접유율) | 131,997 (95.0%) | 374,502 (98.8%) | 385,012 (98.6%) | 467,913 (99.4%) | 112,223 (93.8%) | 115,539 (89.6%) | 43,088 (77%) |
| 홍 콩 | 60 | 172 | 132 | 138 | 11 | 10 | 19 |
| 대 만 | 5,424 | 2,991 | 3,632 | 547 | 5,600 | 6,805 | 10,524 |
| 일 본 | 305 | 71 | 83 | 172 | 33 | 1,433 | 1,378 |
| 미 국 | 152 | 422 | 429 | 728 | 159 | 469 | 227 |
| 기 타 | 967 | 953 | 1,195 | 1,412 | 1,579 | 4,689 | 731 |

□ 전년 4월 누적대비 대비표

| 구 분 | 2018. 5. | 2019. 4. | | 비고 |
|---------|----------|----------|-----------------|----|
| | | 실 적 | 전년 동월대비 증,감 | |
| 총이용객(명) | 768,251 | 968,066 | 199,815(26.0%) | |
| 국내선 | 697,027 | 779,288 | 82,261(11.8%) | |
| 국제선 | 71,224 | 188,778 | 117,554(165.0%) | |

참고 4 거점항공사 유치 기대효과

○ 3년간 운항시 경제효과 분석('18, 충북연구원)

(단위 : 억원, 명)

| 구 분 | 대상 금액 | 전국 | | | 충북 | | |
|-----|---------|---------|------------|---------|---------|------------|---------|
| | | 생산유발 | 부가가치 유발 | 취업유발 | 생산유발 | 부가가치 유발 | 취업유발 |
| 계 | 5,756.0 | 8,060.9 | 1,917.0 | 1,872.7 | 5,911.3 | 1,546.0 | 1,332.2 |
| 여객 | 4,053.2 | 5,702.8 | 1,373.6 | 1,405.8 | 4,171.8 | 1,103.5 | 1,005.3 |
| 화물 | 1,702.8 | 2,358.1 | 543.4 | 466.9 | 1,739.5 | 442.5 | 326.9 |

2. 관광 분야 활성화 방안(관광인프라 조성)

I 국토부 공동 용역 추진 현황

① [충주-제천-단양] 충주호 호수관광벨트 조성 : 용역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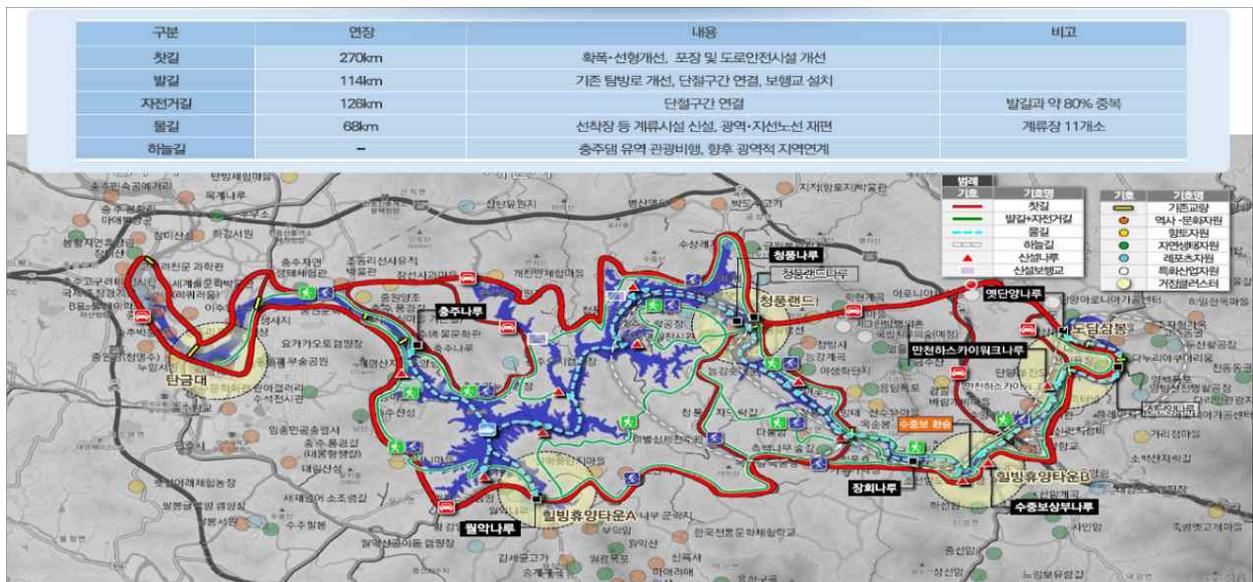
○ 주요내용

- 충주호 일원의 우수한 수변자원과 역사문화자원 등을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변관광지 조성

○ 중점사업

| 사업명 | 사업내용 | 총사업비 | 비고 |
|----------------------------|--|-----------------------------|----|
| 순환형 연계루트 조성사업 ('20~'22) | * 찾길, 발길, 자전거길, 물길, 하늘길 루트 조성 L=270km | 1,291억원 (국573,지598,민120) | |
| 친환경 연계교통 네트워크 구축 ('20~'22) | * 유희시설 재생사업 (거점형, 농촌체험형, 쌍방향조망형) * 거점관광지 연결 교통 시스템구축 | 505억원 (국238,지265,민2) | |

○ 사업구상(안)



② [괴산-보은-옥천-영동]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 : 용역중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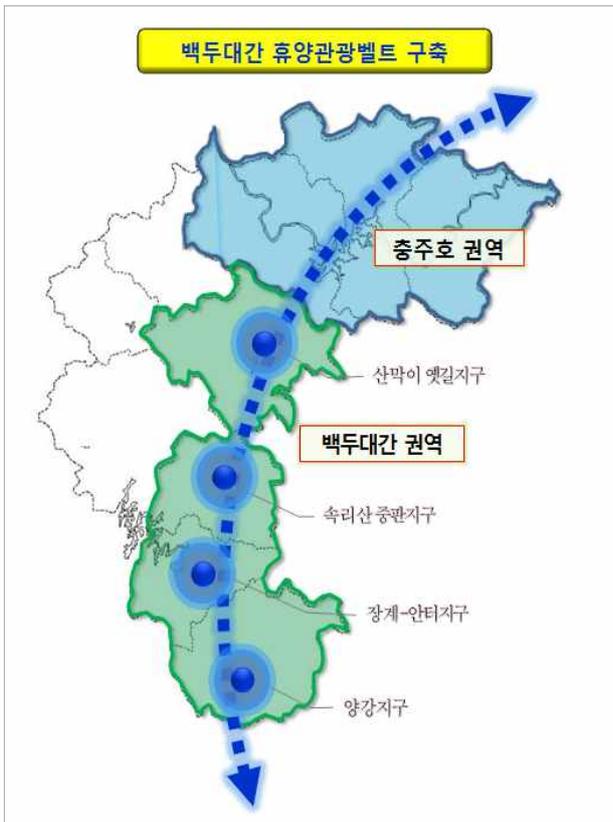
- 백두대간이 가지고 있는 산악산림자원과 주변 관광지 등을 연결한 지역연계협력을 통한 광역적 관광거점 조성

○ 중점사업

- 백두대간 중심의 휴양-치유-생태-체험 관광벨트 구축('20~'23)

| 구분 | 휴양관광거점 | 치유관광거점 | 생태관광거점 | 체험관광거점 | 비고 |
|------|-------------------------|--------------------|--------------------|--------------------|----|
| 위치 | 괴산 칠성 사은 | 보은 속리산 중판 | 옥천 안내 장계 | 영동 양강 산막 | |
| 규모 | 109,000㎡ | 230,000㎡ | 110,000㎡ | 75,000㎡ | |
| 사업비 | 138억원 (국69,지69) | 120억원 (국60,지60) | 110억원 (국55,지55) | 110억원 (국55,지55) | |
| 주요시설 | 친환경 풀빌라 숙박단지, 반려견테마파크 등 | 산림치유센터, 도예원 등 | 생태습지체험단지, 생태교육센터 등 | 산림레포츠단지, 귀촌지원센터 등 | |

○ 사업구상(안)



Ⅱ

주요 관광인프라 조성 현황

①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 : 완료('19.3.29. 개장)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 비봉산 일원
- 사업기간 : 2011년 ~ 2019년
- 총사업비 : 410억 원(전액 민자)
- 사업규모 : L=2.3km
- 사업내용 : 케이블카, 전망대, 360도 체험관 등

○ 기대효과

- 청풍호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제천 지역 관광수요 창출

※ 이용객 수('19. 5월 현재) : 180,815명



②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조성 : 1단계 완료('19.6.14. 개장)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산59-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7년 ~ 2022년
- 총사업비 : 1,594억 원(전액 민자)
- 사업규모 : 2,622,825㎡
- 사업내용 : 골프장(18홀), 루지(2개 코스, 총 2.85km), 수상레저 (대형 제트보트 2대, 요트 2대, 드래곤 보트 12대), 한식당 (400석), 양떼목장 등

※ 공정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시설 오픈 예정('19년 하반기 ~)
(콘도, 복합연수시설, 워터파크, 귀촌체험센터, 단독 숙박시설 등)

○ 기대효과

- 청주국제공항과 인접한 도내 최초 관광단지 조성, 중부권 최대 관광거점 역할



③ 초정 체류형 관광 클러스터 육성 : 계획 중(19. 4. 균형위 공모선정)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총사업비 : 249억 원(국 91, 도 27, 시 131)
- 사업규모 : 45,000㎡
- 사업내용 : 초정 치유마을, 밥상머리 교육체험, 세종행궁 연계사업 등

○ 기대효과

- 세계 3대 광천수인 초정약수를 활용한 치유관광 육성사업으로 오송바이오산업, 청주국제공항, 증평 좌구산휴양림으로 이어지는 충북 대표 치유관광 클러스터





'19. 6. 10.(월) 10:00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간담회 자료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

○ 공항 접근성 개선 교통인프라 확충

<참고> 공항 접근성 개선 도로내역 및 재원대책



균형건설국

공항 접근성 개선 교통인프라 확충

1

시외버스

□ 2018년 현황

- 서울(강남), 대전, 천안 등에서 청주공항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총 7개 노선 46회

| 노 선 | 출발지 | 주요 경유지 | 도착지 | 소요시간 | 횟수(1일) |
|-----|---------|---------|------|------|--------|
| 서울 | 강남(센트럴) | - | 청주공항 | 90분 | 12회 |
| | 남서울 | - | 청주공항 | 90분 | 3회 |
| | 도심공항터미널 | - | 청주공항 | 90분 | 4회 |
| 대전 | 대전터미널 | 오창3회 | 청주공항 | 50분 | 5회 |
| 천안 | 천안터미널 | 한국기술교육대 | 청주공항 | 50분 | 10회 |
| 충주 | 충주터미널 | 증평터미널 | 청주공항 | 70분 | 10회 |
| 인천 | 인천터미널 | - | 청주공항 | 110 | 2회 |

□ 2019년 추진상황 : 8개 노선, 55회 운행(1개노선 신설 / 9회 증차)

- 유성↔청주공항↔진천↔혁신도시 간 신규노선 개설 : 7회
- 천안↔한국기술교육대↔청주공항 간 운행 증회 : 10회→12회(증2회)

| 노 선 | 출발지 | 주요 경유지 | 도착지 | 소요시간 | 횟수(1일) |
|-----|-------|---------|------|------|----------|
| 대전 | 유성터미널 | 청주공항 | 혁신도시 | 50분 | 7회 |
| 천안 | 천안터미널 | 한국기술교육대 | 청주공항 | 50분 | 12회(증2회) |

□ 향후계획

- 충청권 수요 확대를 위해 대전, 천안노선 1일 15회로 확대('19 下)
 - ▶ 대전 : 12회→ 15회(3회 증) / 천안 12회 → 15회(3회 증)
- 대전(유성)~세종~청주공항 노선, 전주~청주~청주공항 노선 개설('19 下)
 - ※ 신규노선 개발 또는 기존노선 연장관련 검토(업체 협의 중)
- 경기 남부권(용인·평택) 노선도 신규개설 추진('19 下)
 - ※ 경기도 시외버스 업체(경기고속, 대원고속, 경일여객 등) 하반기내 노선협의 추진

□ 2018년 현황

- 청주공항(출발) 기준 4개노선(급행1, 좌석3), 106회 시내버스 운행
 - ▶ 청주공항 ~ 오송역 연결(52회) : 747번(급행), 750번, 751번
 - ※ 747번은 청주시내, 터미널 경유 / 751번은 오송역을 거쳐 세종시까지 운행
 - ▶ 청주공항 ~ 청주시내 ~ 신탄진 연결(54회) : 407번

< 청주국제공항 시내버스 운행현황 >

| 노선 번호 | 출발지 | 주요 경유지 | 도착지 | 배차간격 | 소요 시간 | 운행 횟수 |
|--------------|------|-----------------|------|---------|-------|-------|
| 407번 (좌석) | 청주공항 | 성모병원, 상당공원, 남이면 | 신탄진 | 16~20분 | 95분 | 54회 |
| | 신탄진 | | 청주공항 | 16~25분 | 95분 | 54회 |
| 747번 (급행) | 청주공항 | 터미널, 상당공원, 성모병원 | 오송역 | 20~50분 | 75분 | 34회 |
| | 오송역 | | 청주공항 | 20~50분 | 75분 | 37회 |
| 750번 (좌석) | 청주공항 | 오창, 옥산, 국책기관 | 오송역 | 25~210분 | 60분 | 11회 |
| | 오송역 | | 청주공항 | 20~210분 | 60분 | 10회 |
| 751번 (좌석) | 청주공항 | 오창, 국책기관, 오송역 | 세종시 | 50~200분 | 65분 | 7회 |
| | 세종시 | | 청주공항 | 50~240분 | 65분 | 8회 |

□ 2019년 추진상황 : 4개 노선, 112회 운행(공항출발기준)

- 청주공항 ~ 오송역 노선(747번) 전기시내버스 6대 도입·운행
- 청주공항 ~ 신탄진 노선(407번) 6회 증회(54회→60회)

| 노선 번호 | 출발지 | 주요 경유지 | 도착지 | 배차간격 | 소요 시간 | 운행 횟수 |
|--------------|------|-----------------|------|--------|-------|-------|
| 407번 (좌석) | 청주공항 | 성모병원, 상당공원, 남이면 | 신탄진 | 16~17분 | 95분 | 60회 |
| | 신탄진 | | 청주공항 | 16~20분 | 95분 | 60회 |

□ 향후계획

- 청주공항(오송역 경유) ~ 세종시(청사) 노선(751번) 50회로 확대('19 下)
 - ▶ 1일 7~8회 → 50회 증회 / 50분~240분 배차 → 15~20분 배차
 - ▶ 세종시 및 오송역을 통한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수요에 대응

□ 택시현황

○ 면허 현황

(' 19. 4. 30. 기준, 단위 : 개, 대)

| 구 분 | 면허 대수 | 법인택시 | | 개인택시 | 비고 |
|-----|-------|------|-------|-------|----|
| | | 업체 수 | 대수 | | |
| 청주시 | 4,142 | 25 | 1,606 | 2,536 | |

○ 적정대수 및 과잉규모

(' 15. 7. 17. 총량조사*, 단위 : 개, %)

| 구 분 | 면허 대수 (A) | 적정 대수 (B) | 과잉 규모 | | 비고 |
|-----|--------------|--------------|-------|------|----|
| | | | 과잉 대수 | 과잉률 | |
| 청주시 | 4,142 | 3,684 | 458 | 11.1 |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의 사업구역별 택시총량(적정대수)을 조사하여 고시

⇒ 적정 대수(3,684대) 대비 458대(11.1%)가 과잉인 상태로 택시 부족으로 인한 이용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추진현황(이용편의 제공)

- 청주공항 택시·버스 승강장 CCTV 설치 운영 : '18. 5. 14.
 - ▶ 3개소 (회전형 3대 및 고정형 5대)
- 청주공항 택시승차대 도로 차선변경 차단 구조물 설치 : '18. 8. 17.
 - ▶ 차선변경 차단봉 23개 (24미터)

⇒ 승차거부, 호객행위, 장거리 승객 골라태우기, 대기순서 변경 등을 원천 차단하여 이용자 불편 해소

※ 승차거부호객행위 등 단속결과 : 월평균 5.2건('18년) → 월평균 2.8건('19년 5월까지)으로 감소

□ 향후계획

- 지도단속용 CCTV설치 사항 알림 현수막 게시 등 홍보 강화
- 택시업계 협조체제 유지를 통한 친절서비스 확보 지속 노력

1 천안 ~ 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사업

- ◆ 사업구간 : 천안~서창~오송~청주~청주국제공항(L=56.1km)
- ◆ 사업기간 : 2014 ~ 2022년
- ◆ 사업비 : 8,216억원(전액 국비)
- ◆ 사업내용 : 북청주역 신설, 청주공항역 이전, 천안~서창 2복선 등

□ 추진배경

- 수도권·경기남부 지역의 청주공항 이용편의 증진
- 경부선 철도(일반) 포화상태 해소 및 충청~수도권 철도접근성 향상
- 청주공항·북청주역 신설을 통한 청주권 100만 인구의 철도 이용 편의 향상

□ 추진상황

- '11.04.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1~'20) 전반기 사업 반영(국토부)
 - '12.06. :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 '17.08. : 기본계획 고시(국토부)
 - '18.01. : 기본설계 용역 착수(철도시설공단)
- ※ 기본설계中(~ '19. 8.) → 실시설계('19) → 착공('20) 및 완공('22)

□ 향후계획

- 목표기한 내 준공되도록 조속한 사업추진 지속 건의(국토부)

② 세종~오송역~청주공항(청주경유) 중전철

- ◆ 구 간 : 세종청사~조치원~오송~청주~청주공항
- ◆ 규 모 : L=39.9km (신설 32.8km, 기존선 활용 7.1km) * 충북 21.0km, 세종 11.8km
- ◆ 총사업비 : 2조 1,138억원(국 14,797 도 4,060 세종 2,281)



□ 추진배경

- 청주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 → 관문공항 역할 강화
- 대전도시철도~세종~충북선을 연결하는 교통인프라 확충 및 광역생활권 조성
- 대량수송시스템(중전철) 도입으로 미래 교통수요 및 광역 BRT 용량 부족 등 사전 대비

□ 추진상황

- '19.03. :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추진 실무협약(대전·충북·세종)
※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2단계(신탄진~조치원)
- '19.04. : BH 자치발전비서관 지역공약 점검회의
-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및 우리도 중전철안을 포함한 시·도 제시안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공동추진 합의
※ 충북(안) : 세종~오송~청주공항, 세종(안) : 세종~내판~조치원, 대전(안) : 신탄진~조치원
- '19.05.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주관청(행복청) 협의
※ (과업범위) 대전시청 반경 40km내 노선대안(원안 포함)
(용역비) 2억원(3개 시도 균등분담)

□ 향후계획

- '19.06. : 공동용역 추진 세부계획 수립 및 협약
- '19.07. : 사전타당성조사 공동용역 착수
※ 우리도 중전철 구상안 최우선 순위 도출위해 노력
- '21.下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년) 반영

□ 도로여건 및 현황

- (고속도로) 수도권 이용객은 비용과 시간 절감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증평IC 이용을 선호하고 있으나 접근도로가 열악
- (국도) 국도와 지방도를 연결하는 차로수가 불균형하고(국도 4차선, 지방도 2차선), 지하차도와 회전교차로가 적어 접근이 매우 불편
- (지방도 등) 세종시에서 세종시 관문공항인 청주공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평면교차로가 많고 선형이 불량하여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

□ 개선방안(계획)

- 수도권과 강원권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청주국제공항 북측 연결도로 신설

- ▶ 대울~증평IC(지방도 511호선) 도로 신설 : L=4.14km(4차로) / 726억원 / 기본 및 실시설계중
- ▶ 에어로폴리스2단지 진입도로 신설 : 내수 입동리~북이 내둔리 / L=1.29km(2차로) / 설계용역중
- ▶ 국도 36호선 신기교차로~공항 북측진입로 연결 : 북이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20~23)

- 주 간선도로의 접근도로 개선 및 교차로 등 시설 개량

- ▶ 지방도 511호, 540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추진
 - 오창IC~미원 구간 :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 반영 건의중
- ▶ 국도 17호선 교차로 개선
 - 창리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 L=3.9km(6차로)/831억원/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21~'25) 반영 추진

- 행정도시 관문공항 기능 확보를 위한 세종시 연결 고속교통망 확충

- ▶ 세종~세종관문공항(청주공항) 고속화도로 건설
 - 신촌교차로~청주공항 / 도로 신설 및 확장 8km, 교차로개선 6개소 / 3,350억원 / 행복청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추진 중 *세종~청주공항 통행시간 단축(50분→28분)
- ▶ 오송~청주공항 도로건설 : 오송리~신촌리/L=4.72km(4차로)/1,420억원 *'19.12월 개통예정

- 기 타

- ▶ 대전, 청주 서부권 접근성 개선 : 중부고속도로 확장(서청주IC~증평IC / 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중)
- ▶ 충북 중부권 접근성 개선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공구(청주~음성) 건설중(공정률 22%)

참 고

공항 접근성 개선 도로내역 및 재원대책

□ 사업내역

(단위:km, 억 원)

| 도로등급 | 사 업 명 | 사업량 | 차로 | 사업비 | 사업기간 | 비 고 |
|------|------------|------|----|--------|---------|-----------|
| 계 | 13개 사업 | 85.4 | | 19,520 | | |
| 고속국도 | 오창~증평고속도로 | 8.5 | 4 | 3,934 | 미 정 | 국가계획 반영건의 |
| 국 도 | 충청내륙고속화도로1 | 23.1 | 4 | 3,536 | '17~'24 | |
| | 창리사거리지하차도 | 3.9 | 6 | 831 | 미 정 | 국가계획 반영건의 |
| 국대도 | 북일~남일 1:2 | 11.7 | 4 | 3,049 | '15~'23 | |
| 국지도 | 무심동로~오창IC | 5.0 | 4 | 970 | '20~'24 | |
| | 초정~미원 | 10.5 | 4 | 2,044 | 미 정 | 국가계획 반영건의 |
| 지방도 | 대율~증평IC | 4.2 | 4 | 726 | '20~'24 | |
| | 석성~대율 | 2.1 | 4 | 210 | '21~'24 | |
| | 세종~세종관문공항 | 8.0 | 4 | 3,350 | '20~'24 | |
| 산단도로 | 에어로폴리스2지구 | 1.3 | 2 | 134 | '17~'21 | |
| | 북이산단진입도로 | 3.0 | 4 | 382 | '20~'22 | |
| 시설개량 | 오동교차로시설개량 | 1.8 | 1 | 267 | 미 정 | 청주시 시행 |
| | 공항진입도로 | 2.3 | 4 | 87 | 미 정 | |

※ 공항진입도로는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과 연계 청주시 추진

□ 재원대책

(단위:억 원)

| 도로등급 | 건수 | 총사업비 | | | | 미 확보액 | 비 고 |
|-------|----|--------|--------|-------|-----|-------|---------------|
| | | 계 | 국 비 | 도 비 | 시군비 | | |
| 계 | 13 | 19,520 | 16,904 | 2,260 | 354 | 9,615 | |
| 고속국도 | 1 | 3,934 | 3,934 | - | - | 3,934 | 오창~증평 |
| 국 도 | 2 | 4,367 | 4,367 | - | - | 831 | 창리사거리 |
| 국 대 도 | 1 | 3,049 | 3,049 | - | - | - | |
| 국 지 도 | 2 | 3,014 | 1,688 | 1,326 | - | 1,145 | 초정~미원 |
| 지 방 도 | 3 | 4,286 | 3,350 | 936 | - | 3,350 | 세종~세종관문공항 |
| 산단도로 | 2 | 516 | 516 | - | - | - | |
| 시설개량 | 2 | 354 | - | - | 354 | 354 | 오동교차로, 공항진입도로 |

※ 미확보액은 국가계획수립 용역중이거나 청주시 부담사업으로 국가계획수립 진행사항 파악 및 청주시와 협의



'19. 6. 10.(월) 10:00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간담회 자료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

1.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2.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3. 투자협약 체결기업 현황

1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일원
- 부지면적 : 153천㎡(46천평)
- 사업기간 : 2013년 ~ 2020년
- 시 행 자 : 충청북도지사
- 사 업 비 : 452억원(도비 287, 시비 165)

□ 추진상황

- '13. 2.14 :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 '14.10.10 : 실시계획 승인
- '14.10.24 : 공동개발 협약(충북도↔청주시) ※ 재원(도 50%, 시 50%)
- '15. 4.13 : 1지구 조성공사 착공
- '16. 8.26 : 아시아나(주) 청주공항 MRO사업 포기
- '16.12.15 : 1지구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1차분), 공사중단
- 조성공사 50.9%의 공정진행(성토공사), 조기 활용 가능
- '16. 12.26 : 충북도, MRO사업 추진 포기 선언
- '17. 2.21 : 의회 MRO 특위 매각 권고
- '17. 9. 1 : 1지구 조성공사 부분준공(공정률 51%)

※ 성토 93만㎡ 중 67만㎡ 배수로 L=477m

□ 아시아나항공 이탈이후 주요 추진상황

- 도의회 권고*, 언론 등의 우려**를 감안, 국토부(공항공사), 공군 및 기업체 대상 동 부지 일괄 조기 매각추진
 - 국토부(공항공사), 활용용도가 없어 매입에 난색표명
 - * MRO특위, 공항공사, 공군 등과 협의, 매각추진 권고 ** 부지조성예산 낭비 등
- 이후, 1지구 희소성, 청주공항 발전전망 개선에 따라, 부지매입 희망업체 등장 ⇒ 부지조성 목적과 부합여부 판단, 매각보류
 - (철도차량·화장품업체)타 부지 입지유도, (중국MRO)논의중단
- 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에어로-K), 항공 정비 관련 업체에서 1지구 활용 희망
 - (에어로-K) 계류장, 정비고, 부품창고, 터미널 등의 시설
 - (외국업체) 기상항공기 정비, 정비, 운용기지로 활용

□ 향후 추진계획

- (1지구 활용) 에어로-K의 활용계획을 우선적으로 검토
 - (전체활용) 에어로-K 의견 존중하되, 타 업체와 공동입지 검토
 - (일부활용) 정비시설 등을 검토하는 타 업체와 동반입지 추진
 - (공 군) 군 고유목적의 작전용 부지를 물색, 1지구 활용곤란 통보

※ 에어로-K, 여객터미널 설치/운영방안 검토후 활용계획 제출예정

⇒ 동사의 활용구상·계획 검토 후 1지구 추진방향, 방침 결정

- (부지개발) 개발계획 변경, 부지완공까지 소요시간*과 연관시설의 입지가능성 감안, 조속 개발 필요

* 개발계획변경, 부지공사 등에 1년 이상 소요

2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신안리 일원
- 부지면적 : 321천㎡(97천평)
- 사업기간 : 2015년 ~ 2021년
- 시 행 자 : 충청북도지사
- 사 업 비 : 710억원(도비 355, 시비 355)
- 유치업종 : 항공기관관련 부품제조 및 물류업

□ 추진상황

- '13. 2.14. :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 '14.10.24. : 공동개발 협약(충북도·청주시·충북경자청)
- '15. 9. 9. : 조성사업 위탁 협약(도↔충북개발공사, 697억원)
- '15.12.1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충북개발공사)
- '16. 5.18. : 2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 '16. 8.26. : 아시아나(주) 청주공항 MRO사업 포기
- '17. 1.24. : 도의회 항공 MRO특위 권고
- '17. 7. 3. : 2지구 재추진 결정
- '17. 8. 4. : 입주수요 100% 확보(14기업 MOU체결)
- '18. 9.28. : 개발계획 변경용역 착수(현재 16개업 MOU체결)
※ 부지확장 및 이주자택지 반영
- '19. 2.11. : 단지조성공사 착공((주)원종합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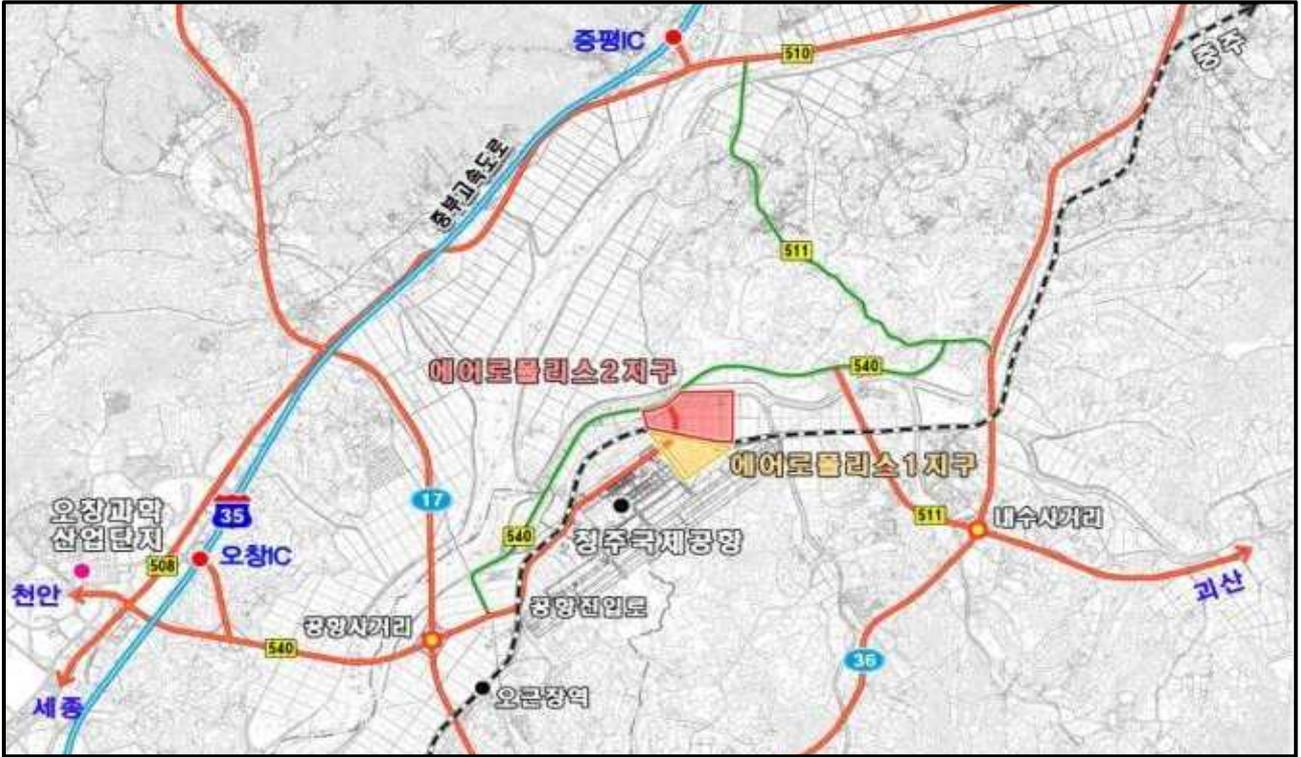
□ 향후계획

- 단지조성 공사 준공 : '21. 12.

참고1

에어로폴리스 2지구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도



3

청주 에어로폴리스 투자협약 체결기업 현황

| 협약 연도 | 업 체 명 | 현 위 치 | 면적 (천㎡/평) | 투자액 (억원) | 고 용 (명) | 사업분야 |
|-------|-------------------------|-----------------|---------------|-------------|------------|--------------------------------|
| 합계 | 16개사 | 276.5천㎡/83,656평 | | 4,046.5 | 1,839 | 항공10, 물류5, 철도 1 |
| 2015 | (재)스타항공우주 | 경북 예천군 | 6.6 / 2,000 | 115 | 170 | 항공운송, 정비 |
| 2016 | (주)스페이스솔루션 | 대전 유성구 | 16.5 / 5,000 | 230 | 110 | 특수밸브류, 부품 및 시스템 |
| | (주)한얼시스템 | 대전 유성구 | 16.5 / 5,000 | 200 | 100 | 항공기부품, 연구개발생산 |
| | (주)세진항공 | 충남 태안군 | 16.5 / 5,000 | 120 | 85 | 항공기정비, 교육, 산불감시 |
| | A사 | 서 울 | 30 / 9,090 | 300 | 25 | 물류 유통 |
| 2017 | (주)디지털론(4.21) | 경기 성남시 | 16.5 / 5,000 | 300 | 120 | 무선통신장비제조 (항공) |
| | (주)이니텍(4.25) | 청주 청원구 | 9.9 / 3,000 | 80 | 120 | 무선통신장비제조 (항공) |
| | (주)호성산업(4.28) | 경기 파주시 | 16.5 / 5,000 | 120 | 50 | 물류, 2차포장 제조 |
| | (주)우리항공(6.20) | 경기 김포시 | 9.9 / 3,000 | 210 | 50 | 항공기운송, 산불감시 |
| | 한국소프트스 페이스(주) (6.26) | 서 울 | 16.5 / 5,000 | 90 | 70 | 항공, 차량 시뮬레이터 제작 |
| | (주)바로택시너지 (6.30) | 전북 전주시 | 16.5 / 5,000 | 200 | 100 | 항공기 부품(시뮬레이터, 우주제어장치) 제조 |
| | 웰마크(주) (6.30) | 청주 홍덕구 | 16.5 / 5,000 | 80 | 25 | 창고시설 운영 및 물류 |
| | 충북화물차운송 사업협회(7.27) | 청주 상당구 | 33 / 10,000 | 150 | 10 | 물류 및 화물운송업 |
| | (주)이엔씨테크(8.2) | 청주 홍덕구 | 9.9 / 3,000 | 180 | 100 | 항공전자, 정비, 제조 |
| 2018 | (주)G항공(2.26) | 강원도 양양군 | 6.6/2,000 | 271.5 | 344 | 국제항공화물 운송 항공물류센터 건립 |
| | (주)우진산전(5.11) | 괴산 사리 | 38.651/11,691 | 1,400 | 360 | 철도차량 및 부품 제작 |

II. 3차 회의 업무보고 자료
[2020. 6. 9.]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오창 확정
대한민국 미래 100년, 충북이 선도합니다!

'20. 6. 9.(화) 09:00

특별위원회 회의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1. 포스트코로나 대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2. 에어로케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기타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국

1. 포스트 코로나 대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I 항공시장 동향

-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20. 2월부터 항공수요 급감
 - (국제선) 2월부터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전 국제공항 운항중단
 - ※ (소공항) 총 4,927,755명(전년대비 83.6%↓) / (청주공항) 총 8,117명(전년대비 95.2%↓)
 - (국내선) 여행심리 회복, 4월말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
 - ※ (청주공항) 2~4월 총 259,581명(전년대비 55.0%↓) / 5월 총 150,889명(전년대비 30.7%↓)
-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국내·외 일부 항공업계 국제선 단계적 재개 준비
 - 코로나19 확산을 경계하는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나 7월중 국제선 운항이 점차 재개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음
 - ※ 6.1일 기준 한국 발 여행객 입국제한 국가 : 183개국
 - 향후, 여행수요·패턴 및 항공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 필요

II 2020년 청주국제공항 여객수요 전망 [한국공항공사]

- (국내선) 당초 284만 → 210만명(26%↓)으로 하향 조정
 - 대구 거점항공사의 티웨이항공이 청주공항에서 신규취항(4.24~)
 - 7월부터 이스타항공 운항재개 준비 中(8편/일)
 - 에어로케이 제주노선 신규 취항 예정(8편/일)
 - ※ 하반기에는 現 40편/일 → 56편/일(16편↑)
 - (국제선) 당초 70만 → 13만명(81.4%↓)으로 대폭 축소
 -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방공항 국제선 섰다운 3분기까지 지속 예측
 - 거점항공사 출범(8월경), 노선 취항 등 이용객 감소 최소화 노력
- ⇒ '20년 이용객 실적을 **당초 354만 → 223만명으로 하향조정(37%↓)**

Ⅲ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1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 강화 및 항공업계 지원

○ 공항 방역체계 강화

- 방역소독 : 여객터미널 내 방역중 ※ 2.7~6.17 / 매일 1회
- 검역소 운영 : 국내선 도착장(1층)·출발장(2층) ※ 열감지카메라 2대 설치
※ 2.25부터 5명 교대근무(검역소1, 공항공사1, 청주시 2, 도청1)
- 청주공항 검역소 신설(예정)
 - 인천검역소의 분소로 운영하여 검역인력 등 열악 ※ 현재 2명 근무중('20.3~)
 - 「검역법」 개정('20.3.4)으로 청주공항 검역소 승격 추진 ※ 시행 '21.3.5.

○ 항공업계 지원대책 (국토부 대책 발표 : 2.17, 3.18, 4.1, 4.23)

① 운수권·슬롯 유예

○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 전면유예 → 항공사 영업권 보장

* (現) 年 20주 이상 미사용시 회수 → (개선) '20년 미사용분은 '21년 미회수

** (現) 시즌별(동/하계) 80%미만 운항시 회수 → (개선) '19년 동계시즌 슬롯 조건없이 유예

②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 공항사용료 감면폭 및 조업사·상업시설 등 대상 확대

- (항공사) 정류료 전액면제(3~8월), 공항시설사용료 납부유예(4~8월), 착륙료 감면 10%(3~8월)
- (조업사) 계류장 사용료 전액감면 및 임대료 등 납부유예(3~8월)
- (상업시설) 매출연동임대료 6개월 무이자 납부유예(3~8월), 여객급감율 40% 터미널 입점업체 중소·소상공인 고정임대료 50% 감면(3~8월), 운항중단 공항*의 중소·소상공인 임대료 전액면제

* 국제선(6개) : 청주, 김포, 제주, 김해, 대구, 무안공항

② 노선 다변화

○ 거점항공사(에어로케이) 출범을 통한 노선 경쟁력 강화

- 청주공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노선다변화를 통한 항공수요 확보가 최우선
- 국내선 : 청주~제주노선 취항 예정(8월경)
- 국제선 : 3년간 5개국 11개노선 운항계획(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마카오)
※ 청주국제공항 정기 국제노선 확대 : '19년 14개 → '23년 25개노선

○ 국제항공 운수권 확대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규 정기 국제노선 지속 유치(동남아 등)
- 청주공항 3개노선(신규2, 증대1) 주 5회 배정 ※ '20.5.15 항공교통심의위원회 개최
- 신규(2) : 정저우 주 3회(진에어), 상하이 주 1회(이스타)
- 증대(1) : 장가계 주 1회(이스타, 現 주 3회 → 주 4회)

○ 항공사 재정지원

- 국제 정기노선 신설 유도를 위한 운항장려금 지원
- 재정지원 기준
- 지원대상 : 취항년도 기준 3년간 미운항 지역
※ 노선당 2년간 최대 4억
- 지원조건 : 주 2회 이상, 연간 40주 왕복 운행 등
- 선정방법 : 협약에 의한 선정

○ 노선 홍보 강화

- 인바운드 노선개설 촉진을 위한 항공사 노선 인센티브 지원(1억원)
- 수도권 케이블 방송 및 지하철 홍보, 취항노선 충청권 홍보(1.5억원)
- 해외매체 활용 마케팅, 충북 SNS 서포터즈 및 충북 나드리 홈페이지, 여행사 등을 통한 홍보(1억원)

3 항공사 성장 기반 마련

○ 항공기 정치장 유치

- 정치장 등록 재산세 부과액의 20% 항공사 재정지원(청주시)
 - '17년 8대(0.4억) → '18년 18대(1.2억) → '19년 25대(3.7억) → '20년 41대(20억) ↑4,900%
- ※ F급 항공기 교체공항 지정('16.2) 노력으로 '20. 5월 대한항공 대형 항공기 14대 유치(A380, 407석) * (당초) 인천 → (변경) 청주공항(국토부 승인)

⇒ 특히, 지방세외수입금을 항공정비 뿐만 아니라 **거점항공사 운항장려금으로 지원계획**

○ 거점항공사 출범 대비 항공정비 등 지원

- 에어로폴리스 1지구* 내 거점항공사 항공정비 등 개발을 위한 유보지를 개발계획에 반영 * 에어로케이 부지 확보
- * '13~'21 / 411억원 / 유치업종 : 항공(회전익) 정비 및 운송사업
- ※ 現 추진상황 : 산업통산자원부 개발계획 변경 협의 中 '20. 4.~

4 공항시설 확충

○ 활주로(민군복합) 성능개선 추진

- 활주로 재포장 * '92년 신활주로 설치 후 29년 경과, 활주로 노후
 - 950억원 / 2,744×60m 재포장
 - 활주로 재포장공사에 대비한 대체 활주로 구축('17~'19년)
 - ※ 민항기 운항이 가능토록 군용활주로 포장강도 상향 성능개선 완료
-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 조정 * 비행안전성 확보, 결항지연 최소화
 - 300억원 / CAT I → CAT II 상향
- 활주로 확장 * 장거리 노선 유치, 아시아 내륙항공물류 거점 육성
 - 933억원 / 2,744 → 3,200m(456m 증) 확장

○ 활주로 주변 시설 확충 및 개선 추진

- 소형항공기 전용계류장 신설 * 흑산(미정)·울릉도('25) 공항 개항 대비
 - 90억원 / 계류장 1개소(주기장 5대)
- 항행안전시설 개선
 - 계기착륙시설 52억원('20~'22), 지상감시레이더 90억원('20~'23)

○ 터미널 용량 증대 추진

- 국제여객 청사 확충 : 660억원 / 15,000m²(2층, 3백만명 수용)
- 국제화물 청사 확충 : 450억원 / 20,000m²(2층, 40만톤 처리)

○ 항공기 사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 → 현재 공군에서 민항기 소방업무 처리 중

- 공항 소방대 신설('20~'21) * 민항기 수요증가, 대형화에 따른 안전운항 여건 조성
 - 85억원 / 1,957m²(3층, 총 32명 교대근무/일근 2, 교대 30)
- ※ 국제공항 8개(민용 5+군용 3) : 現 청주대구공항만 공군에서 소방대 운영(김해공항 기설치)

5 청주공항 활성화 국가계획 반영

○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1~'25)

- 항공정책 사업 반영
 - 청주공항을 행정수도공항으로 위계 설정, 북한 관문공항 지정·육성
- 활주로 성능개선 및 확충사업 반영
 - 활주로 재포장,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 조정
 - 신활주로 확장, 소형항공기 전용계류장 신설
- 터미널 용량 증대사업 반영
 - 국제여객 청사 확충, 국제화물 청사 확충

※ 국토부 12월 고시예정(한국교통연구원 용역 수행 중 '19.5월 착수)

⑥ 관광-공항 연계 선제전략 마련

○ 인바운드 유치 확대 방안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① 관광교통 서비스 개선

○ 청주공항↔인근 관광지간 투어버스 운영*

- 청주공항과 관광지간 교통연계 부족 및 언어소통 불편 등 해소
* 향후 청주공항 국제노선 재개 및 노선 시간대를 반영한 투어버스 운영(신규)

○ 대중교통 다국어 교통안내시스템 구축

- '20 지역관광교통 개선사업 공모 참여 및 자체 예산 투입 등으로 교통체계, 다국어 안내, 개별관광객 지원 편의서비스 확충
※ 청주시('19 관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 선정) : 청주공항-오송역 노선 추진 중

②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

○ 관광지 다국어 안내표지판 설치 확대

- 개별여행객 증가로 체계적인 관광안내체계 개선
- 주요 관광지 내 표준화된 다국어(한·영·중·일 병기) 안내표지판 신설·개보수사업 추진으로 이용자 편의 제공

○ 충북관광 홈페이지(충북나드리) 외국어페이지 전면 개편

- 現 관광지 소개 위주의 홈페이지를 이용자 필요정보(교통, 숙박 등)등 맞춤형 콘텐츠 업데이트
- 온라인상 충북관광 정보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외국어 가능 문화관광해설사 육성·배치

- 문화관광해설사(175명) 중 외국어 가능자는 27명으로 전체 15%에 불과
- '21년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심사 시 외국어 가능자 우선 선발로 고품격 해설서비스 제공 및 만족도 제고

③ 숙박·식당 등 외국인 친화 환경 조성

- 외국인 친화 숙박업소 지정
 - 도내 관광호텔* 대상 외국인 친화 숙박업소 선정·육성으로 체류관광 확대 및 도내 경제 활성화 * 관광호텔 수('19.12.31기준) : 22개소
- 외국인 친화 식당 인증제 실시
 - 외국인이 선호하는 메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을 외국인 특화식당으로 인증,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전략적 해외 홍보마케팅 추진

① 청주공항 국제정기노선 중심 홍보 마케팅 추진

- 외국인 관광객 지방 유치시 국제노선 운항편수*가 가장 중요
 - * 지역관광항공 협력 생태계 구축방안(한양대 정란수) 지방공항 현황 분석 中 권역별 외래관광객 수는 1)국제선 운항편수 2)음식점수 3)쇼핑매장수에 영향
- 청주국제공항 정기노선 취항지역*을 중심으로 해외마케팅 추진
 - * '20년 1월 기준 국제노선 현황(14개 노선) : 중국 10(연길, 위해, 장가계, 연태, 해구, 북경, 항주, 대련, 하얼빈, 심양), 일본2(오사카, 삿포로), 대만1(타이베이), 미국1(괌)

② 충청북도 전담여행사 운영('20년 신규)

- 다양한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고 충북도만의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판촉 필요
- 현재 도내 인바운드 여행사 부재로, 전국 공모를 통해 모객력 강한 전담여행사를 선정*·육성하여 충북관광 경쟁력 제고 도모
 - * 4개소 선정 : (주)모두투어인터내셔널, (주)유에스여행, 낸시투어(주), (주)이후엘티에스
 -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선제적 마케팅 추진을 위한 전담여행사 추가 선정('20.6월)

③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확대

-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충북 관광상품의 개발 동기 부여 및 판촉 활동 확대 유인 필요
- 기존 체류관광 숙박비 지원 외 충북당일관광상품('19년 신설) 운영·지원으로 시간·경제적 부담없는 충북관광 유도, 도내관광 활성화 도모

④ 충북특화 관광상품 개발

○ 지역특화자원 활용 관광상품 개발

- 충북도만의 차별화된 상품* 개발로 여행사 등 관광상품화 유도

* 예) 성지순례, K-뷰티(화장품) 연계, 지역문화유산(영동 국악&와인, 제천 국궁&한방, 충주 택견&중앙탑 인근관광지 등) 등

○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연계 관광상품 개발·운영

- 청주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해 충청권 연계 관광상품* 발굴·운영 ⇒ 재방문 및 관광시너지효과 창출

* 성지순례코스,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코스 등

○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

- 국토부·문체부는 청주공항에서 '인바운드 시범공항* MOU'를 체결해 (20.1) 인바운드 유치를 집중지원 하려 했으나 코로나19 로 잠정 연기

* 3개 공항 : 청주, 무안, 양양공항

-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을 통한 외국인 유치 기대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 재추진(20 下)

○ 외국인 방한 편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방관광 및 공항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 건의

·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 급감에 따른 관광업 등 피해 완화를 위해 동남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환승 시범도입 추진

· 외국인 유치 확대를 위해 제주도 방문 조건없이 동남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내륙관광 허용

※ 현재 제주도 방문 조건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에 적용(무비자 5일)

○ 「항공-관광 활성화 정책 토론회」 개최

- 6. 30(화) / 50명(항공·관광육성산업 범도민 추진위원 등)
- (주최/주관) 충청북도, 충청북도 관광협회

⇒ 코로나 이후의 관광변화 및 항공-관광 육성 대응전략 모색

7] 공항 연계 교통망 확충

○ 국가계획 반영 완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 청주공항역 신설, 공항역~청사 간 무빙워크 구축
 - 8,216억원 / L=56.1km(現 2회/일 → 18회/회)
-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청주공항~제천 봉양) * '19년 예타 면제사업
 - 12,807억원 / L=87.8km(국토부 기본계획 수립용역 中 '19.11~)
- 행복도시~청주공항 연결 고속화도로 * 중부권 주요도시와 공항 접근성 개선
 - 2,120억원 / L=3.9km(행복청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20.5) ※ 기 개설 20.5km

○ 국가계획(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건의 중

- 충청신수도권 광역도시철도(세종~오송~청주공항)
 - 2조 1,138억원 / L=39.9km(행복청 등 3개시도 사전타당성조사 공동용역 中)
-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공항)
 - 3조 8,444억원 / L=78.8km(충북도 철도종합계획 용역 中)
- 중부선 철도(감곡~혁신도시~청주공항)
 - 1조 6,500억원 / L=47km(충북도 철도종합계획 용역 中)

○ 대중교통망 확충

- 시외버스 노선 운행 확대
 - 경기 남부권(용인, 평택) 노선 신규개설 추진('20.下)
 - ※ 現, 서울 21회, 대전 13회, 천안 15회, 충주 15회, 인천 5회 운행 중
- 시내버스 노선 운행 확대
 - '19.10부터 757번(세종~오송역~공항) 증편 운행 : 8회→54회

⑧ 포스트 코로나 도내관광 활성화 대책

○ 해외 관광수요를 패러다임 전환해 내수시장 활성화 추진

충북관광 분위기 불업 조성

- ① 충북관광지 구석구석 다니기 캠페인 추진
 - 시군 합동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모션 전개
- ② 특별 여행주간 운영으로 내수회복 유도
 - 6.20~7.19, 안전하게 즐기는 일상여행 주제, 여행 테마관광지 소개 등
- ③ 각종 행사(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 유치
 - 도·시군 주관 행사의 도내 개최 등

충북 스타일 특화관광상품 확대 운영

- ① 충북대표 명품 관광코스 개발
 - 호수여행, 열차여행, 성지순례, 추억의 수학여행 등
- ② 충북 일상체험 관광콘텐츠 발굴
 - 이색 맛집, 감성 카페, 시장, 거리 등
- ③ 웰니스관광 등 고부가 특화관광 집중 육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 ① 충북관광 SNS 채널 활성화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홍보
- ② 청정 충북관광 클린존 캠페인 실시
 - (충북관광협회) 클린존 안내판 제작지원, 관광업체와 자율적 캠페인 실시
 - (도, 시·군) 방역·소독 지침 안내, 필요시 물품 지원

- ③ 방방곡곡 충북관광 로드마케팅(전국 광역시 소재 시내 변화가, 광장 등)
 - 도·시군, 충북관광협회 협업 SNS 이벤트 등 관광설명회 추진
- ④ 축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 유명 방송프로그램 유치 및 전국단위 방송광고, 온라인 채널별 차별화 콘텐츠 제작·홍보

관광분야 공모사업 적극 대응(문체부)

- ①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육성 지원 (20. 4월 공모선정)
 - 2.5억원 / '20 / 지역관광을 주도하는 법인체 선정 / 제천, 단양
- ② 예비 열린관광지 조성 (20. 5월 공모선정)
 - 10억원 / '20 /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 단양군
- ③ 스마트 관광도시 시범조성 (20. 6월 단양군에서 공모신청 예정)
 - 70억원 / '20 / 민관협력 ICT 기반의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육성
- ④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 (21년 공모신청 예정)
 - 20억원 / '21 ~ / 관광스타트업 창업 및 기업육성 지원 등
- ⑤ 관광두레 지역협력 사업 (21년 공모신청 예정)
 - 8억원 / '21 ~ / 지역관광 인력 양성 및 주민사업체 발굴·육성

수요자 맞춤형 관광인프라 확충

- ① 조령산 모노레일 설치 ※ 사업비 14.5억원 확보, '20.5월 용역 착수
 - 100억원 / '19 ~ '22 / 모노레일(6.8km) / 괴산군 연풍면 일원
- ② 단양 에코 순환루트 인프라 구축 ※ '21년 정부예산 건의 중
 - 180억원 / '21 ~ '24 /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 단양 도담삼봉~단양읍
- ③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 ※ '21년 정부예산 건의 중
 - 478억원 / '20 ~ '24 / 산악관광 거점 조성 / 괴산, 보은, 옥천, 영동

2. 에어로케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사업개요

- ◆ 자본금 : 480억원
- ◆ 기재확보 : A320(180석) 6대 ※ 3대('20년) → 2대('21년) → 1대('22년)
- ◆ 운항노선 : 제주도, 5개국 11개 국제노선(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마카오)

□ 추진상황

-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 : '18. 11. 7.
-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 '19. 3. 6.
- 에어로케이 강병호 대표 재선임('19.9.~'22.9.) : '19. 9. 11.
- 운항증명(AOC) 신청 → 국토부 : '19. 10. 7.
- 항공기 1호기(A-320, 180석) 도입 : '20. 2. 16.
- 본사 이전(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3로 154, 7층 임대) : '20. 4. 7.
- 운항증명 서류검사 국토부 통과 : '20. 6. 5.

□ 향후계획

- 운항증명 현장검사 ※ 1개월 이상 소요 : '20. 6. 8.
- 운항증명 발급 : '20. 7월경
- 정기노선 첫 취항(제주) : '20. 8월경
- 항공기 2, 3호기 도입 : '20. 8.
- 국제 정기노선 첫 취항(타이베이 예정) : '20. 9.

※ 코로나19에 따른 입국제한 장기화시 2,3호기 도입 및 국제선 취항은 연기될 수 있음

- 1년차(3대) : 제주 / 일본(나리타, 나고야, 기타큐슈), 대만(타이베이), 중국(칭다오), 베트남(하이퐁)
- 2년차(2대) : 일본(하코다테), 마카오, 베트남(하노이)
- 3년차(1대) : 중국(하이커우), 대만(가오슝)

※ 면허발급시 사업계획 노선, 대내외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1 청주국제공항 연혁 및 기본현황

연 혁

- 1997. 4.28 청주국제공항 개항
- 2008.10.26 24시간 운영 공항 지정(동계스케줄부터 적용)
- 2012. 2. 1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계약 체결
- 2013. 1.16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계약 해지
- 2014. 4. 6 제주방문 중국단체관광객 72시간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공항 지정 ※120시간으로 확대(9.15)
- 2016. 2. 4 F급 항공기 교체공항 지정
- 2017. 4.28 청주국제공항 개항 20주년

기본현황

- 개 항 일 : 1997. 4. 28.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 공항시설
 - 여객청사 : 29,926㎡, 연 441만명, 화물청사 : 2,257㎡, 연 3.75만톤
 - 활주로 2본 : 민군복합 2,744×60m, 군용 2,744×45m
 - 계류장 및 주차장(항공기 13대 주기 / 주차 3,869대)
 - 면세점(1개소)
- '19년말 이용객 : 3,009천명(국내 2,513 / 국제 496)

※ 전국공항 현황

| 구 분 | 국제공항(8개) | 국내공항(7개) |
|--------------|--------------------|--------------------|
| 민간공항 (7개) | 인천, 김포, 제주, 무안, 양양 | 울산, 여수 |
| 군 공항 (8개) | 김해, 대구, 청주 | 광주, 포항, 사천, 군산, 원주 |

참고 2

청주국제공항 정기노선(14개) 현황

※ 하계 : 4월~10월 / 동계 : 11월~3월

| 노선수 | 노 선 | 항공사 | 취항일 | 운항횟수 | 비 고 |
|-----|--------------|--------|------------|--------------------|-----|
| 1 | 베이징 (북경) | 아시아나항공 | '07.11. 7 | ▶하계 주4회 ▶동계 운 휴 | |
| 2 | 항저우 (항주) | 대한항공 | '11. 8.18 | ▶하계 주4회 ▶동계 주2회 | |
| 3 | 옌 지 (연길) | 이스타항공 | '14.10.27 | ▶하계 주3회 ▶동계 주3회 | |
| | | 중국남방항공 | | ▶하계 주3회 ▶동계 주3회 | |
| 4 | 선 양 (심양) | 이스타항공 | '13. 1.30 | ▶하계 주2회 ▶동계 주2회 | |
| 5 | 하얼빈 (합이빈) | 이스타항공 | '14.10.28 | ▶하계 주2회 ▶동계 운 휴 | |
| 6 | 다 련 (대련) | 중국남방항공 | '14.10.30 | ▶하계 주2회 ▶동계 주2회 | |
| 7 | 오사카 | 이스타항공 | '18. 3.27 | ▶하계 주4회 ▶동계 주5회 | |
| | | 제주항공 | '18. 7.21 | ▶하계 주7회 ▶동계 주7회 | |
| 8 | 괌 *오사카 경유 | 제주항공 | '18. 7.21 | ▶하계 주7회 ▶동계 주7회 | |
| 9 | 타이베이 | 이스타항공 | '18. 9.20 | ▶하계 주4회 ▶동계 주3회 | |
| | | 제주항공 | '18.12.22 | ▶하계 주4회 ▶동계 주4회 | |
| 10 | 삿포르 | 이스타항공 | '18.12.23 | ▶하계 주2회 ▶동계 주2회 | |
| 11 | 웨이하이 (위해) | 중국동방항공 | '19.05.02 | ▶하계 주3회 ▶동계 주3회 | |
| 12 | 하이커우 (해구) | 이스타항공 | '19.10.19. | ▶하계 주2회 ▶동계 주2회 | |
| 13 | 장자제 (장가계) | 사천항공 | '19.10.30. | ▶하계 주2회 ▶동계 주2회 | |
| 14 | 옌타이 (연태) | 사천항공 | '19.12.23. | ▶하계 주7회 ▶동계 주7회 | |

참고 3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실적 현황

□ 이용객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5 |
|-----|--------------------|--------------------|--------------------|--------------------|--------------------|------------------|
| 총 계 | 2,118,492 | 2,732,755 | 2,571,334 | 2,453,596 | 3,009,051 | 676,742 |
| 국내선 | 1,610,861 | 2,118,695 | 2,385,394 | 2,135,507 | 2,513,438 | 628,631 |
| 국제선 | 507,631 | 614,060 | 185,940 | 318,089 | 495,613 | 48,111 |
| 내국인 | 117,148 | 143,150 | 66,335 | 189,144 | 321,539 | 46,073 |
| 외국인 | 390,483 | 470,910 | 119,605 | 128,945 | 174,074 | 11,387 |
| 중국 | 385,012 (98.6%) | 467,913 (99.4%) | 112,223 (93.8%) | 115,539 (89.6%) | 137,498 (79.0%) | 9,197 (80.8%) |
| 대만 | 3,632 | 547 | 5,600 | 6,805 | 26,007 | 1,860 |
| 홍콩 | 132 | 138 | 11 | 10 | 67 | 4 |
| 일본 | 83 | 172 | 33 | 1,433 | 4,182 | 16 |
| 미국 | 429 | 728 | 159 | 469 | 943 | 44 |
| 기타 | 1,195 | 1,412 | 1,579 | 4,689 | 5,377 | 266 |

□ 전년 동기대비표

| 구 분 | '19.1~5월 | '20.1~5월 |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감 | |
|---------|-----------|----------|--------------|-------|
| | | | 이용객(명) | 비율(%) |
| 총이용객(명) | 1,226,358 | 676,742 | -549,616 | -44.8 |
| 국내선 | 996,886 | 628,631 | -368,255 | -36.9 |
| 국제선 | 229,472 | 48,111 | -181,361 | -79.0 |
| 중국 | 75,791 | 13,802 | -61,989 | -81.8 |
| 대만 | 40,948 | 12,967 | -27,981 | -68.3 |
| 베트남 | 19,617 | 16,508 | -3,109 | -15.8 |
| 기타 | 93,116 | 4,834 | -88,282 | -94.8 |

참고 4

2020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기준

| 구 분 | 일반 항공사 | 거점 항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노선 : 태국(방콕), 싱가포르,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필리핀(마닐라),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인도(뉴델리), 일본(나리타), 중국(시안) • 일반노선 : 정책노선 외 전 지역 ※ 취항년도 기준 과거 3년간 정기 노선 미운항 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항개시일로부터 3년간 개설하는 모든 국제정기노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항 시기 | '20년 12월 31일까지 인정 | '20년 12월 31일까지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 조건 | ① 좌석 100석 이상 항공기로 운항 | ① 좌석 100석 이상 항공기로 운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주2회 이상(정책노선) 또는 주3회 이상(일반노선), 연간 40주 이상 운항(왕복) 시 2년간 지원 | ② 주2회 이상, 연간 40주 이상 운항(왕복) 시 2년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전체 좌석의 10% 이상 항공사가 직접 판매 | ③ 전체 좌석의 10% 이상 항공사가 직접 판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 금액 (노선당)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00석 이상 ~140석 미만</th> <th>140석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정 책</td> <td>주5회 이상</td> <td>2억원</td> <td>4억원</td> </tr> <tr> <td>주3~4회</td> <td>1.5억원</td> <td>3억원</td> </tr> <tr> <td>주2회</td> <td>1억원</td> <td>2억원</td> </tr> <tr> <td rowspan="2">일 반</td> <td>주5회 이상</td> <td>0.8억원</td> <td>1.5억원</td> </tr> <tr> <td>주3~4회</td> <td>0.5억원</td> <td>1억원</td> </tr> </tbody> </table> <p>※ 연내에 동일노선을 다수의 항공사가 취항할 경우, 후발 취항 항공사의 노선은 재정지원 지급기준의 50% 적용</p> | 구분 | 100석 이상 ~140석 미만 | 140석 이상 | 정 책 | 주5회 이상 | 2억원 | 4억원 | 주3~4회 | 1.5억원 | 3억원 | 주2회 | 1억원 | 2억원 | 일 반 | 주5회 이상 | 0.8억원 | 1.5억원 | 주3~4회 | 0.5억원 | 1억원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00석 이상 ~140석 미만</th> <th>140석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정 책</td> <td>주5회 이상</td> <td>2억원</td> <td>4억원</td> </tr> <tr> <td>주3~4회</td> <td>1.5억원</td> <td>3억원</td> </tr> <tr> <td>주2회</td> <td>1억원</td> <td>2억원</td> </tr> </tbody> </table> | 구분 | 100석 이상 ~140석 미만 | 140석 이상 | 정 책 | 주5회 이상 | 2억원 | 4억원 | 주3~4회 | 1.5억원 | 3억원 | 주2회 | 1억원 | 2억원 |
| | 구분 | 100석 이상 ~140석 미만 | 140석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 책 | 주5회 이상 | 2억원 | 4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3~4회 | 1.5억원 | 3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2회 | 1억원 | 2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반 | 주5회 이상 | 0.8억원 | 1.5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3~4회 | 0.5억원 | 1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100석 이상 ~140석 미만 | 140석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 책 | 주5회 이상 | 2억원 | 4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3~4회 | 1.5억원 | 3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2회 | 1억원 | 2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 방법 | 2개년에 걸쳐 운항실적 확인 후 1차년도 50%, 2차년도 50%씩 분할 지급 | 2개년에 걸쳐 운항실적 확인 후 1차년도 50%, 2차년도 50%씩 분할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5

공항공사 사용료 감면 등 지원사항 (4.23기준 / 국토부 대책 발표)

| 지원대상 | 세 부 내 용 | | 구 분 |
|------------|---------------------|--|---|
| 항공사 | 사용료 납부유예 | 착륙료, 정류료 등 주요 공항시설사용료 납부유예 (3월~5월, COFIX 기준금리 적용) → 3~8월 연장 (착륙료, 정류료, 계류장사용료, 조명료, 수하물처리사용료, 탑승교사용료) | 2.17 4.23대책 |
| | 정류료 | 3월부터 3달간 → 6달간 100% 면제 (기존: 3~5월 → 변경: 3~8월) | 3.18 4.23대책 |
| | 착륙료 | 6월 예정이던 착륙료 감면 3월부터 조기시행 및 감면수준 확대(10% 감면) (기존: 3~4월 → 변경: 3~8월) | |
| 지 상 조업사 | 계류장 사용료 | 3월부터 3달간 20%감면 및 납부유예 → 3달간 100%감면(납부유예 삭제) → 6달간 100% 감면 (기존: 3~5월 → 변경: 3~8월) | 3.18 4.1 4.23 대책 |
| | 구내영업료 | 3월부터 3달간 납부유예(2분기 4~6월, 무이자) → 6달간 납부유예 (2~3분기 4~9월, 무이자) *항공업관련업종 포함 | 3.18 4.23대책 |
| 상 업 시 설 |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 공항 내 편의매점 운영 중소·소상공인 고정임대료 6개월 25%감면(3~8월) 매출연동임대료 6개월 무이자 납부유예(3~8월) | 2.28 대책 |
| | 전 상업시설 | 모든 상업시설 업체 중 희망업체 유예기간 : 3개월(4~6월분) | 3.18 대책 |
| | 운항중단 공항 | 운항중단공항* 의 중소·소상공인 업체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항공편 운항이 없는 공항 운항중단기간 임대료 100%면제 | |
| | 운항급감 공항 | 여객급감을 40%이상 터미널 입점 업체 중소·소상공인 고정임대료 50% 감면(3~8월) 대기업 등 고정임대료 20% 감면(3~8월) | 4.1 대책 |

참고 6 국내 상장 항공사 1분기 실적

| 항공사 | 2019년 | | 2020년 | 증감율 |
|--------------|-------|-----------|-----------|---------|
| 합 계 (6개사) | 매출 | 5조 5,764억 | 4조 959억 | △ 26.5% |
| | 영업이익 | 3,777억 | △ 4,202억 | 적자전환 |
| 대한항공 | 매출 | 3조 415억 | 2조 3,523억 | △ 22.6% |
| | 영업이익 | 2,384억 | △ 566 | 적자전환 |
| 아시아나항공 | 매출 | 1조 4,385억 | 1조 1,294억 | △ 21.5% |
| | 영업이익 | △ 118억 | △ 2,081억 | 적자지속 |
| 제주항공 | 매출 | 3,913억 | 2,281억 | △ 41.7% |
| | 영업이익 | 578억 | △ 638억 | 적자전환 |
| 진에어 | 매출 | 2,900억 | 1,439억 | △ 50.3% |
| | 영업이익 | 509억 | △ 313억 | 적자전환 |
| 티웨이항공 | 매출 | 2,411억 | 1,491억 | △ 38.1% |
| | 영업이익 | 370억 | △ 219억 | 적자전환 |
| 에어부산 | 매출 | 1,740억 | 931억 | △ 46.5% |
| | 영업이익 | 54억 | △ 385억 | 적자전환 |

※ 비상장 항공사인 이스타, 에어서울, 플라이강원은 실적 제외

참고 7 지역관광 활성화 대책

| 추진 과제 | 사업예산(백만원) | 담당팀 |
|----------------------------------|----------------|------|
| 1. 충북관광 붐업 분위기 조성 | 40 | |
| 1. '충북관광지 구석구석 다니기' 캠페인 | - | 정책팀 |
| 2. '가을 여행주간' 확대 운영 | 40 | 산업팀 |
| 3. 전국단위 각종 행사 유치(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 | - | 정책팀 |
| 2. 충북 스타일 특화관광상품 확대 운영 | 828 | |
| 1. 충북대표 명품 관광코스 개발 | 28 | 마케팅팀 |
| 2. 충북 일상체험 관광콘텐츠 발굴 | - | 마케팅팀 |
| 3. 웰니스관광 등 고부가 특화관광 집중 육성 | 800 | 산업팀 |
| 3. 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 200 | |
| 1. 충북관광 SNS채널 활성화 | - | 마케팅팀 |
| 2. 「청정 충북관광」 클린존 캠페인 실시 | - | 산업팀 |
| 3. 방방곡곡 충북관광 로드마케팅 | - | 정책팀 |
| 4. 축제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 200 | 정책팀 |
| 4. 관광분야 공모사업 적극 대응 | 11,050 | |
| 1. 스마트 관광도시 시범조성 | 7,000 | 산업팀 |
| 2.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육성 지원 | 250 | 정책팀 |
| 3.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 | 2,000 | 산업팀 |
| 4.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 800 | 정책팀 |
| 5. 예비 열린관광지 조성 | 1,000 | 정책팀 |
| 5. 수요자 맞춤형 관광인프라 확충 | 115,800 | |
| 1. 조령산 모노레일 설치 | 10,000 | 개발팀 |
| 2. 청남대 케이블카 설치 | 40,000 | 개발팀 |
| 3. 단양 에코 순환루트 인프라 구축 | 18,000 | 개발팀 |
| 4.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 | 47,800 | 개발팀 |
| 6. 한류 특수관광 활성화 | - | |
| 1. 의료관광(보건정책과 협업) | - | - |
| 2. 뷰티관광(화장품천연물과 협업) | - | - |

참고 8 청주국제공항 연계 교통망 확충

1

국가계획 반영사업

1] 천안 ~ 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사업

- ◆ 사업구간 : 천안~서창~오송~청주~청주국제공항(L=56.1km)
- ◆ 사업기간 : 2014 ~ 2024년
- ◆ 사업비 : 8,216억원(국비)
- ◆ 사업내용 : 북청주역 신설, 청주공항역 이전, 천안~서창 2복선 등
 - 급행 : 서울~수원~천안~오송~청주공항(운행횟수 **8회/일**, 운행시간 79분)
 - 완행 : 서울~영등포~안양~수원~평택~천안~전의~서창~오송~북청주~청주공항
(現 운행횟수 **2회/일** → **10회/일**, 운행시간 90분)

□ 추진배경

- 수도권·경기남부 지역의 청주공항 이용편의 증진
- 경부선 철도(일반) 포화상태 해소 및 충청~수도권 철도접근성 향상
- 청주공항·북청주역 신설을 통한 청주권 100만 인구의 철도 이용 편의 향상

□ 추진상황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1~'20) 전반기 사업 반영 : '11. 04.
- 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KDI) : '11. 12. ~ '12. 06.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국토부) : '14. 06. ~ '15. 12.
-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 승인 (7,787 → 8,216억원) : '16. 12.
- 기본설계 및 총사업비 협의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 '18. 01. ~ '20. 03.
- 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기재부) : '20. 04.
- 타당성 재조사('20.) → 실시설계('21.上) → 착공('21.말) → 완공('24.)

□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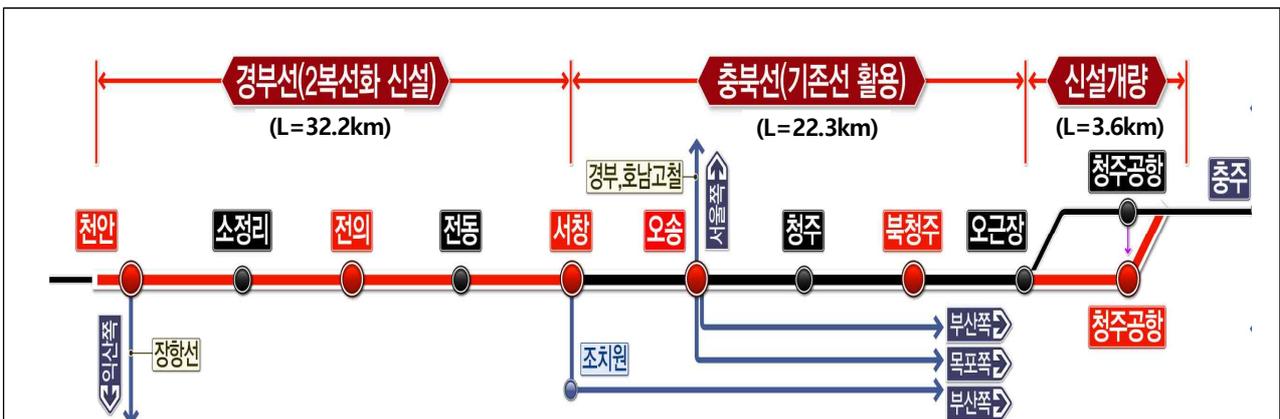
- 목표기한 내 준공되도록 조속한 사업추진 지속 건의(국토부·기재부)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 노선도



□ 구간별 내역



* 역 신설(3) : 서창, 북청주, 청주공항

②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19년 예타 면제사업)

- ◆ 사업구간 : 청주국제공항 ~ 제천 봉양읍(L=87.8km)
- ◆ 사업기간 : 2019 ~ 2026년
- ◆ 사업비 : 12,807억원 (대안 17,055억원) * 삼탄~연박 선형개량, 원주연결선 대안검토
- ◆ 사업내용 : 청주국제공항~제천 봉양 고속화 * 現 120km/h → 230km/h
오송·원주연결선, 봉양역 경유선 신설

□ 사업내용 및 정부 검토경과

| 사업내용 | 충북도 요 구 | 국토부 의 견 | 기재부 검토 ('19. 8. 21. 재정사업 심의) | | 국토부 기본계획 |
|--------------|------------|------------|------------------------------|-----------|--------------|
| | | | 검토안 (1안) | 검토대안 (2안) | |
| 오송 연결선 | ○ | 기술적 어려움 | 미검토 | 미검토 | 미반영 |
| 청주공항~삼탄 개량 | ○ | 필요 | 반영 | 반영 | 반영 |
| 삼탄~연박 개량 | ○ | 필요 | 미반영 | 반영 | (대안검토) |
| 봉양역 경유노선(복선) | ○ | 필요 | 일부반영(단선) | 일부반영(단선) | 일부반영(단선) |
| 원주 연결선(복선) | ○ | 필요 | 미반영 | 일부반영(단선) | (단선 대안검토) |
| 총사업비 | 1.96조원 | 2조원 | 1.28조원 | 약 1.7조원 | 1.28 ~ 1.7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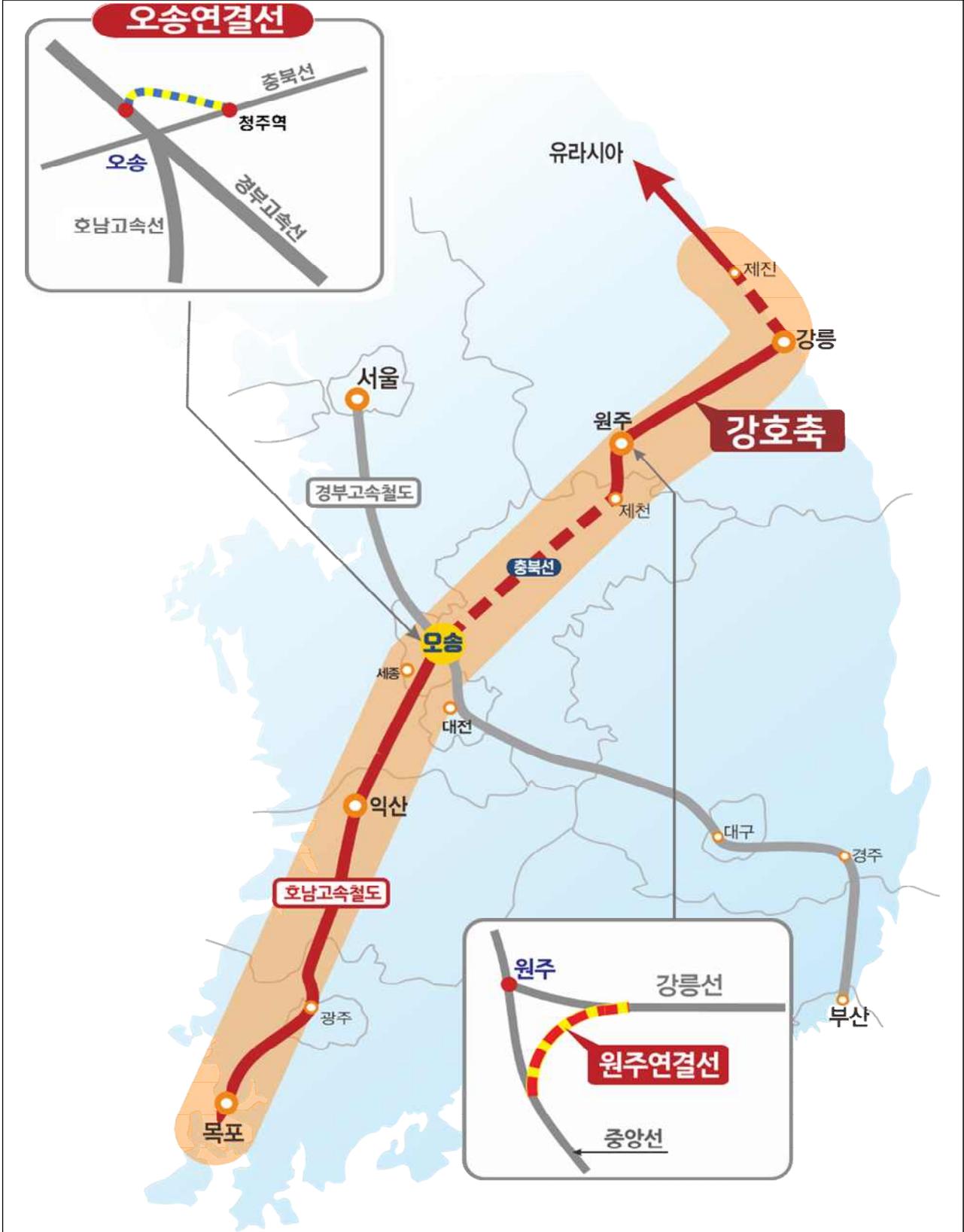
⇒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용역 中 ('19. 11. ~)

- (착 수) 검토안(1.28조원)으로 시작
- (현 재) 삼탄~연박개량, 원주연결선 추가한 대안(1.7조원) 검토 중
※ 오송연결선은 검토안·대안에서 제외된 상황

□ 향후계획

- 호남(경부)고속선 - 충북선을 잇는 오송연결선 설치 (평택~오송 신설노선 내)
-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기본계획 반영
- 국토부 기본계획에서 대안검토 중인 원주연결선, 삼탄~연박 선형개량을 포함한 대안사업비(17,055억원) 최종반영 추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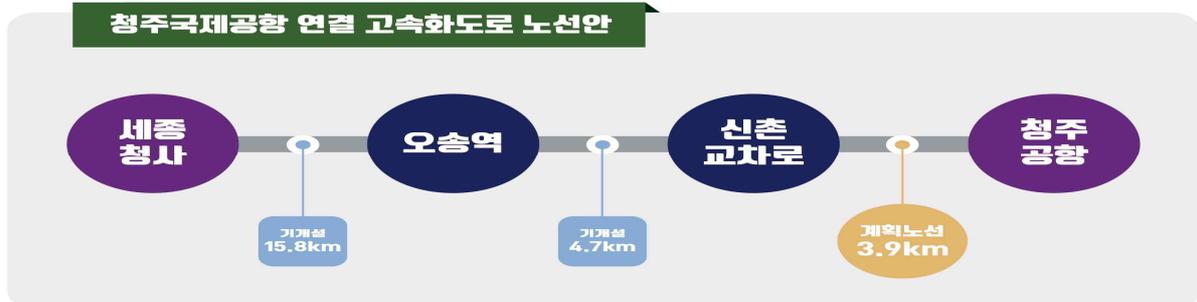


③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 고속화도로 건설

- ◆ 위 치 : 청주시 옥산면 신촌리 ~ 내수읍 입상리(청주공항)
- ◆ 사업기간 : 2021. ~ 2030.
- ◆ 사업규모 : L=3.9km(도로 확장 및 신설), 교차로 개선 5개소
- ◆ 총사업비 : 2,120억원(국비 1,590 지방비 530)

□ 필요성

- 세계의 행정도시 중에 관문공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없는 곳은 세종시가 유일
 - 잦은 평면교차로와 신호등으로 인해 도로 이용객의 불만 가중
-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 위해 중부권 주요도시와의 접근성 개선
 - ⇒ 논스톱 가능(30km), 통행시간 단축 : (현) 29분* → (개선) 17분 (12분 단축)
 - * 평면교차로 14개소



□ 추진상황

- 세종시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건의 : '18. 11. 2.
- 3차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변경) 용역 착수 : '18. 5.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요청(행복청→대광위) : '19. 8.
 - ※ 대광위 심의과정에서 한국교통연구원으로 사업성 분석 의뢰
-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대광위에서 심의 확정 : '20. 3.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변경안 확정 : '20. 5. 28.

□ 향후계획

- 제3차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고시예정 : '20. 6.
- 예비타당성조사 추진(행복청→기재부) : '20. 6

행복도시~청주공항 연결 고속화도로



1] 충청신수도권 광역도시철도(세종~오송~청주공항)

- ◆ 구 간 : 세종청사~조치원~오송~청주~청주공항
- ◆ 규 모 : L=39.9km (신설 32.8km, 기존선 활용 7.1km) * 충북 21.0km, 세종 11.8km
- ◆ 총사업비 : 2조 1,138억원(국비 14,797 도비 4,060 세종 2,281)



□ 필요성

-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한 철도연계성 및 네트워크 강화
- 대전1호선, 세종시 연결 → 충청권(충북선)까지 연장
 -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세종시 접근성 향상(대전-세종-충청권 연계)
- 대량수송시스템(중전철) 도입으로 부족한 교통인프라 확충
 - 충청권 인구, 이용객 증가에 따른 광역 BRT 용량부족 사전 대비

□ 추진상황

- BH 자치발전비서관 점검회의('19.2. '19.4.) : '19. 4.
 - 원안(광역철도 2단계) 및 충북이 제안한 중전철 등 지자체 대안 포함 사전 타당성 조사 추진 제안
- 3개 시도 사전타당성조사 공동용역 착수('19. 8. ~'20. 6.) : '19. 8.
 - * 용역주관 : 행복청, 3개 시도 : 충북대전.세종 ※ 최적안 4차 철도망 공동건의 합의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제출 : '19. 10.31

□ 향후계획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예정 : '21. 上
- 예비타당성조사('21)→기본계획/설계('22~'24)→착공('25)→준공('30)

충청신수도권 광역도시철도



②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공항) 철도

- ◆ 구 간 : 동탄~안성~선수촌~혁신도시~청주공항
- ◆ 사업규모 : L=78.8km (2복선 광역전철 신설)
- ◆ 사업기간 : 2021년 ~ 2030년
- ◆ 총사업비 : 3조 8,444억원(국비)

□ 필요성

- 청주공항 활성화 및 중부권의 철도교통 서비스 제고,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과 중부권(청주공항)을 연계하는 신규 철도노선 건설
- 청주공항 및 충북혁신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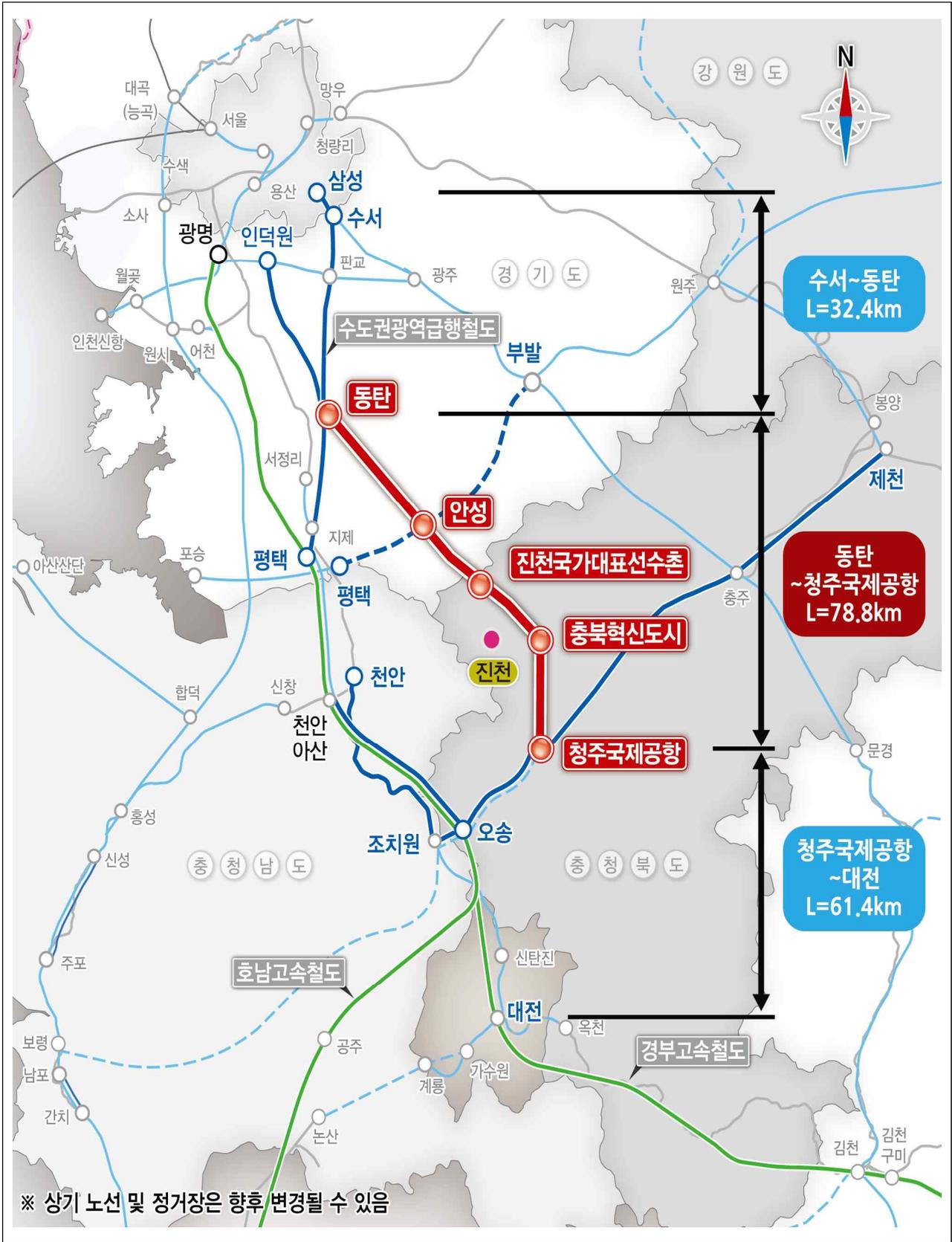
□ 추진상황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신청 : '14. 6.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미반영(경제성 부족) : '16. 6.
- 충청북도 철도종합계획 용역 착수('19. 4.~'20. 4.) : '19. 4.
※ 진천군·청주시·안성시 공동 연구용역 추진 中('19. 5. ~)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제출 : '19. 10. 31

□ 향후계획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시예정 : '21. 上
- 예비타당성조사('21)→기본계획/설계('22~'24)→착공('25)→준공('30)

수도권내륙선 철도 건설



③ 중부선(중부내륙선 지선) 철도

- ◆ 구 간 : 감곡역~혁신도시~청주공항
- ◆ 사업규모 : L=47.0km (단선철도, 금왕역, 혁신도시역 신설)
- ◆ 사업기간 : 2021년 ~ 2030년(10년)
- ◆ 총사업비 : 1조 6,500억원(국비)

□ 필요성

- 중부내륙선(이천~충주) 개통(2021년) 및 대규모 산업단지 입지에 따른 수요 대응, 경부선 이용수요를 분담하는 중부내륙선 기능 강화
- 전국 혁신도시 중 철도 접근성이 가장 낮고, 광역교통 체계가 미비한 충북혁신도시의 철도망 도입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균형발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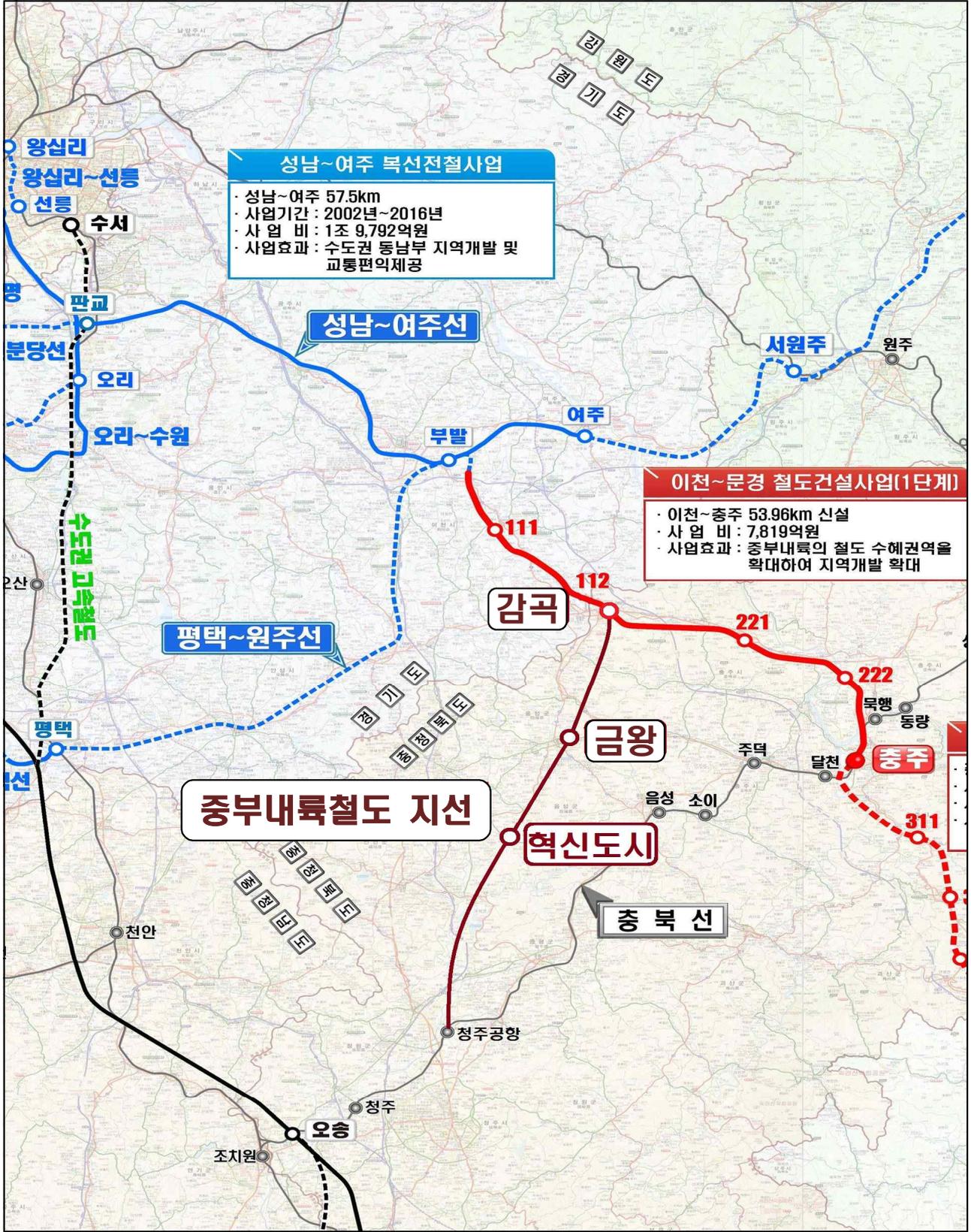
□ 추진상황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신청 : '14. 6.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미반영(경제성 부족) : '16. 6.
- 충청북도 철도종합계획 용역 착수('19. 4.~'20. 4.) : '19. 4.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제출 : '19. 10.31

□ 향후계획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시예정 : '21. 上
- 예비타당성조사('21)→기본계획/설계('22~'24)→착공('25)→준공('30)

중부선(중부내륙선 지선) 철도



□ 시외버스

| 구분 | 노선 | 소요시간 | 횟수(1일) | 비고 |
|----------|-----------------|------|------------|----|
| 계 | 7개 | | 69회 | |
| 서울 | 강남(센트럴)~청주공항 | 90분 | 18회 | |
| | 남서울~청주공항 | 90분 | 3회 | |
| 대전 | 대전~오창~청주공항 | 50분 | 6회 | |
| | 유성~청주공항~진천~혁신도시 | 50분 | 7회 | |
| 천안 | 천안~한국기술교육대~청주공항 | 50분 | 15회 | |
| 충주 | 충주~증평~청주공항 | 70분 | 15회 | |
| 인천 | 인천터미널~청주공항 | 110분 | 5회 | |

○ 추진상황

- 충청권 수요 확대를 위해 대전, 천안노선 확대운행('19)
 - 대전 : 11회→13회(2회 증), 천안 12회→15회(3회 증)
- 경기 남부권(용인·평택) 노선 신규개설 추진('20)
 - 경기도 시외버스 업체(경기고속, 대원고속, 경일여객 등) 노선개설 협의

□ 시내버스

| 노선번호 | 노선 | 배차간격 | 소요시간 | 운행횟수 |
|--------------|---------------------|--------|------|-------------|
| 계 | 3개 | | | 148회 |
| 407번 (좌석) | 남이면~상당공원~성모병원~공항 | 16~20분 | 95분 | 61회 |
| | | 16~25분 | 95분 | 60회 |
| 747번 (급행) | 오송역~시외버스터미널~상당공원~공항 | 20~50분 | 75분 | 33회 |
| | | 20~50분 | 75분 | 33회 |
| 757번 (급행) | 세종시~오송역~오창~공항 | 15분 | 65분 | 54회 |
| | | 15분 | 65분 | 53회 |

○ 추진상황

- 757번(세종~오송역~공항) 8회→54회(46회 증), '19. 10. 12.부터 확대

□ 청주공항 연계 항공산업 육성

○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개발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청주공항 구역 내
- 사업규모 : 부지 134천㎡(40천평)
- 총사업비 : 411억원(조성비 300, 보상비 111)
- 사업기간 : 2013 ~ 2021
- 유치업종 : 항공(회전익) 정비 및 운송 관련 사업 ※ 에어로케이 부지 확보
- ※ 現 추진상황 : 산자부 개발계획 변경 협의 중('20.4)

○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청주공항 일원
- 사업규모 : 부지 411천㎡(124천평)
- 총사업비 : 1,025억원(조성비 676, 보상비 349)
- 사업기간 : 2015 ~ 2022
- 유치업종 : 항공기 부품 제조·헬기 정비 중심 관련 사업
- ※ 現 추진상황 : 2지구 단지개발 착공('19.2) 및 진입도로 착공('20.4)

【에어로폴리스 2지구 내 주요사업 계획안】

① 첨단항공산업비즈니스센터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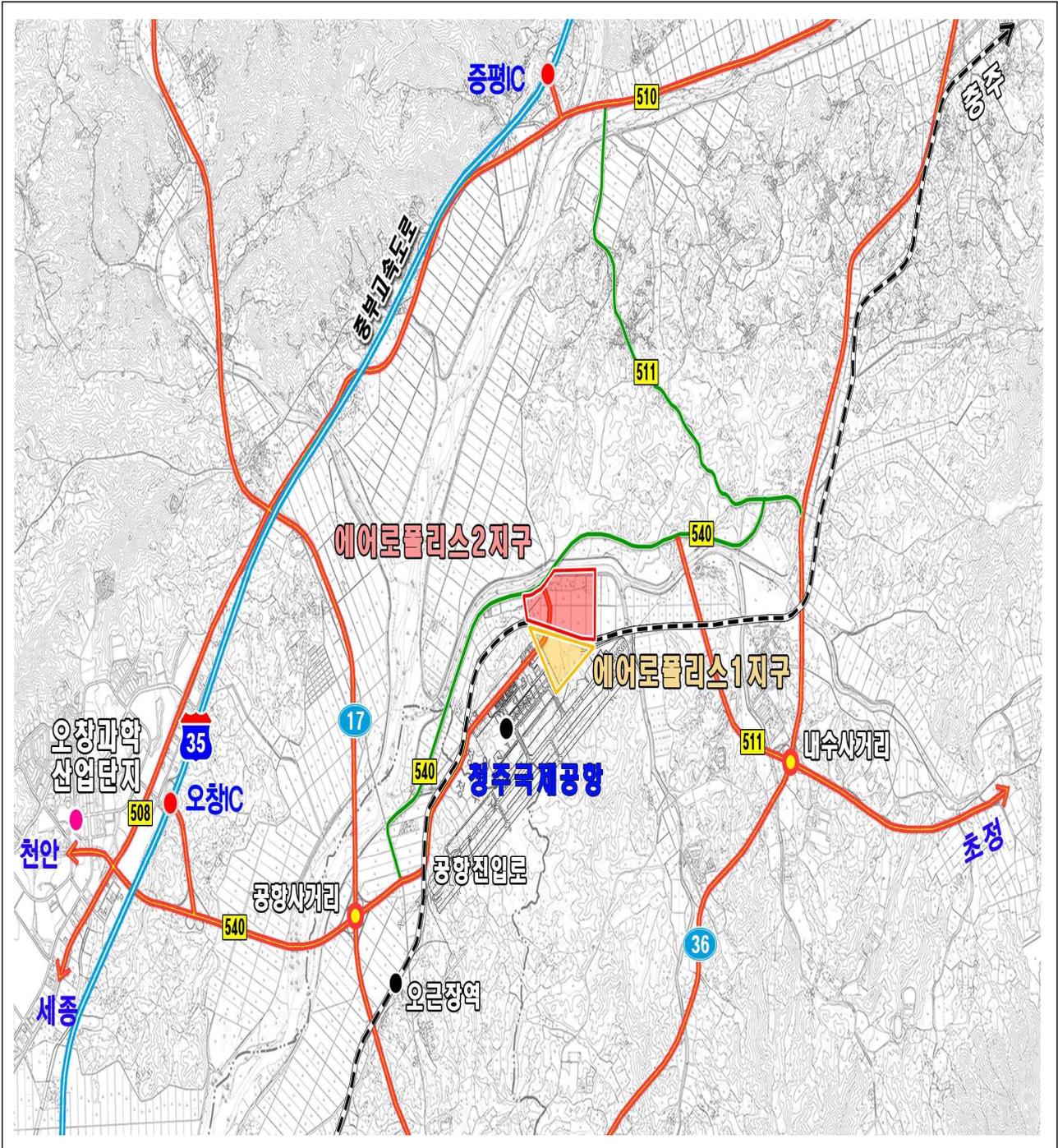
- 사업규모 : 부지 16,500㎡(5,000평)
- 총사업비 : 288억원(국비 246억 / 지방비 42억*) *부지매입비
- 사업기간 : 2021 ~ 2024
- 주요시설 : 사무공간, 회의실, 제조공간, 공동장비실 등

② 현장투입형 회전익 정비인력 양성센터 구축

- 사업규모 : 부지 5,000㎡(1,500평)
- 총사업비 : 125억원 정도 (국비 112억 / 지방비 13억)
- 사업기간 : 2021 ~ 2023
- 주요기능 : 헬기정비인력 교육, 항공정비 전문교육, 정비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청주 에어로폴리스 1,2지구

□ 위치도



Ⅲ. 4차 회의 업무보고 자료
(2020. 9. 16.)



'20. 9. 16.(수) 13:30
특별위원회회의실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1.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2.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3.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지구외) 이주자대책
4.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5. 청주국제공항주변 복합신도시 용역 추진

1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일원
- 사업면적 : 133천㎡(4.0만평)
- 사업기간 : 2013년 ~ 2022년
- 사업비 : 411억원(도비 261, 시비 150)
- 유치업종 : 항공정비 및 항공운송

□ 추진상황

- '13. 2.14. :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36호)
- '14.10.10. : 실시계획 승인
- '14.10.24. : 공동개발 협약(충북도↔청주시) ※ 재원(도 50%, 시 50%)
- '15. 4.13. : 1지구 조성공사 착공
- '16. 8.26. : 아시아나(주) 청주공항 MRO사업 포기
- '17. 2.21. : 도의회 MRO 특위 매각 권고
- '17. 9. 1. : 1지구 조성공사 부분준공(성토 및 배수로/공정률 51%)
- '19. 9.10. : 1지구 재추진 결정
- '19.10.30. : 입주 희망업체 MOU체결(회전익 정비업체 3개사)
- '19.12.24. : 개발계획 변경 용역 착수
- '20. 1.~3. : MRO 3개사와 입주관련 협의(부차분할 관제경로, 시설물배치계획등)
- '20. 4.16. : 경자구역 개발계획(변경) 승인 신청(경자청⇒산업부)
- '20. 7.21. : 경자구역 개발계획 변경고시(산업부 고시 제2020-113호)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노선 저축구역 제척 및 산업시설용지 면적 축소 등
- '20. 7.21.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 8.11.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협의 중(37개 기관·부서)
※ 국립재난연구원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 및 금강유역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별도 협의(45일)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20. 10.
- 설계 경제성(VE) 검토 및 건설기술심의 : '20. 10.
- 일상감사, 계약심사 및 계약(착공) : '20. 11.
- 단지조성공사 추진 : '20. 11. ~ '2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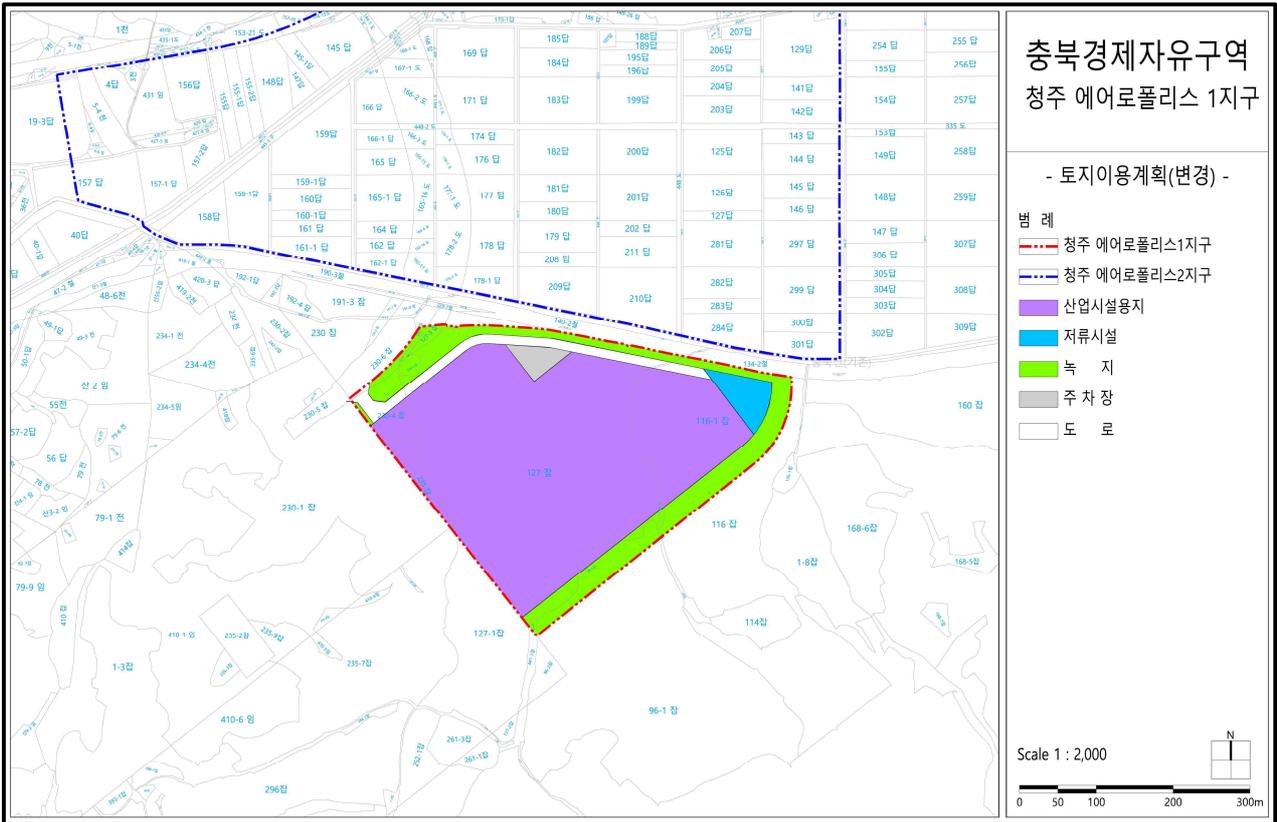
참고

에어로폴리스 1지구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도



2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신안리 일원
- 사업면적 : 411천㎡(12.5만평)
- 사업기간 : 2015년 ~ 2022년
- 사업비 : 1,025억원(국비 199, 도비 424, 시비 402)
- 유치업종 : 항공기관관련 부품제조 및 물류업

□ 추진상황

- '13. 2.14. :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36호)
- '14.10.24. : 공동개발 협약(충북도·청주시·충북경제자유청)
- '15. 9. 9. : 조성사업 위탁 협약(도↔충북개발공사, 697억원)
- '15.12.1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충북개발공사)
- '16. 8.26. : 아시아나(주) 청주공항 MRO사업 포기
- '17. 2.21. : 도의회 MRO특위 경자구역 지정해제 권고
- '17. 7. 3. : 2지구 재추진 결정
- '17. 8. 4. : 입주수요 100% 확보(14기업 MOU체결)
- '18. 9.28. : 개발계획 변경용역 착수(현재 16개업 MOU체결)
※ 부지확장 및 이주자택지 반영
- '18.11.29. :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단지조성공사 발주
- '19. 2.11. : 단지조성공사 착공((주)원종합건설)
- '19.12.20. : 경자구역 개발계획(변경) 승인 신청(경자청⇒산업부)
- '20. 4.27.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원안의결)
- '20. 5.21. : 경자구역 개발계획 변경고시(산업부 고시 제2020-75호)
※현재 공정률 17%

□ 향후계획

-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조정 심의 : '20. 10.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 : '20. 11.
- 경자구역(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0. 12.
- 단지조성 공사 준공 : '22. 12.

참고

에어로폴리스 2지구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도



3

에어로폴리스 2지구(지구외) 이주자택지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사 업 비 : 51억원(도비 25.5, 시비 25.5)
- 내 용 : 지구외 이주 희망 16가구 택지 조성

※ 지구내 이주자택지 사업계획은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변경에 반영 추진

□ 추진상황

- '19.01.24. 이주자택지(원통리) 조성 불가 통보
- '19.02.19. 신규 이주자택지(구성리) 조성 추진계획 방침결정
- '19.05.24. 이주자택지 분양계획 방침결정
- '19.06.04. 이주자택지 이주 희망자 신청서 접수(16가구)
- '19.08.12. 이주자택지 조성사업 추진 의뢰(충북개발공사)
- '19.08.12. 이주자택지 예정지 소유자 사업동의 면담
- '19.10.21. 이주자택지 조성사업 조사설계 용역 착수
- '20.07.09. 이주자택지 조성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심의
- '20.07.29. 이주자택지 예정지 소유자 사업동의 면담
- '20.08.04. 이주자택지 보상계획 공고('20.8.4.~8.18.)
- '20.09.01. 이주자택지 예정지 소유자 사업동의 면담

※ 토지소유자의 부지 매각 난색 표명, 지속협의 중

□ 향후 추진계획

- 감정평가 및 토지소유자 설득·보상 협의 : '20. 9. ~ 10.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 '20. 10.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 '20. 10. ~ '21. 2.
- 이주자택지 조성 사업 추진 : '21. 2. ~ '21. 12.

참고

이주자 택지 조성 위치도



4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화상·화하리 일원
- 사업면적 : 1,290천㎡(39만평)
- 사업기간 : 2015년 ~ 2025년
- 사 업 비 : 2,600억원
- 유치업종 : 항공부품제조, 복합물류산업, 항공R&D산업

□ 추진상황

- '17.10.12. : 청주공항중심경제권 육성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 '17.12.21. : 연구용역 착수('18.12.14. : 준공)
- '18.11.15. : 경제자유구역 제2차 기본계획 수립(산업부)
※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반영
- '19. 3.15.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지정(도 공고 제2019-319호)
- '19. 3.15.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도 고시 제2019-100호)
- '19. 4. 1. : 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
- '19. 9.30. : 개발계획 확정 및 지정 신청(경자청→산업부)
- '19.12.27. : 산업부 경자위원회 심의·의결(충북 미선정)
- '19.12.30. : 에어로폴리스 3지구 추진방안 수립(산업단지개발)
- '20. 4.29. : 국토부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제출
※ 입주수요 확보율 105.2%, 토지사용 동의율 56.0%
- '20. 7. 6. :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조정회의(미반영)
※ 항공관련 연관산업 및 반도체&IT, BT 수요확보 및 물류시설 조정
- '20. 8.13. :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의뢰(행정안전부)

□ 향후계획

-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제출(국토부) : '21. 1.
-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승인 : '22. 6.
※ 이후 경제자유구역 중복 지정 추진
- 토지보상 협의 및 단지조성공사 추진 : '22. 6. ~ '25. 12.

참고

에어로폴리스 3지구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도



5

청주국제공항주변 복합신도시 조성 용역 추진

< 청주국제공항주변 복합신도시 조성 개요 >

- 위치면적 : 청주에어로폴리스 및 미호천 인근 / 6km²(181.5만평 정도)
 - 내 용 : 항공·물류 등 지역전략 산업 및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관광·문화·상업·주거, 교육 및 체험기능을 포괄하는 인구 5만 자족도시
 - 기간·사업비 : 2021~2040년 / 8조원 정도 추정
- ※ 국토부 항공산업경쟁력 강화방안('19.12.)「공항과 주변 연계 복합도시 조성」

□ 용역개요

- 사 업 비 : 108백만원(도비)
- 사업기간 : 2020. 6. ~ 2021. 3.(10개월)
- 과업내용
 - 청주국제공항주변 복합신도시 개발전략 및 개발구상
 - 복합신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사업추진 계획 수립
 - 에어로폴리스지구, UAM 등 핵심전략산업 연계한 추진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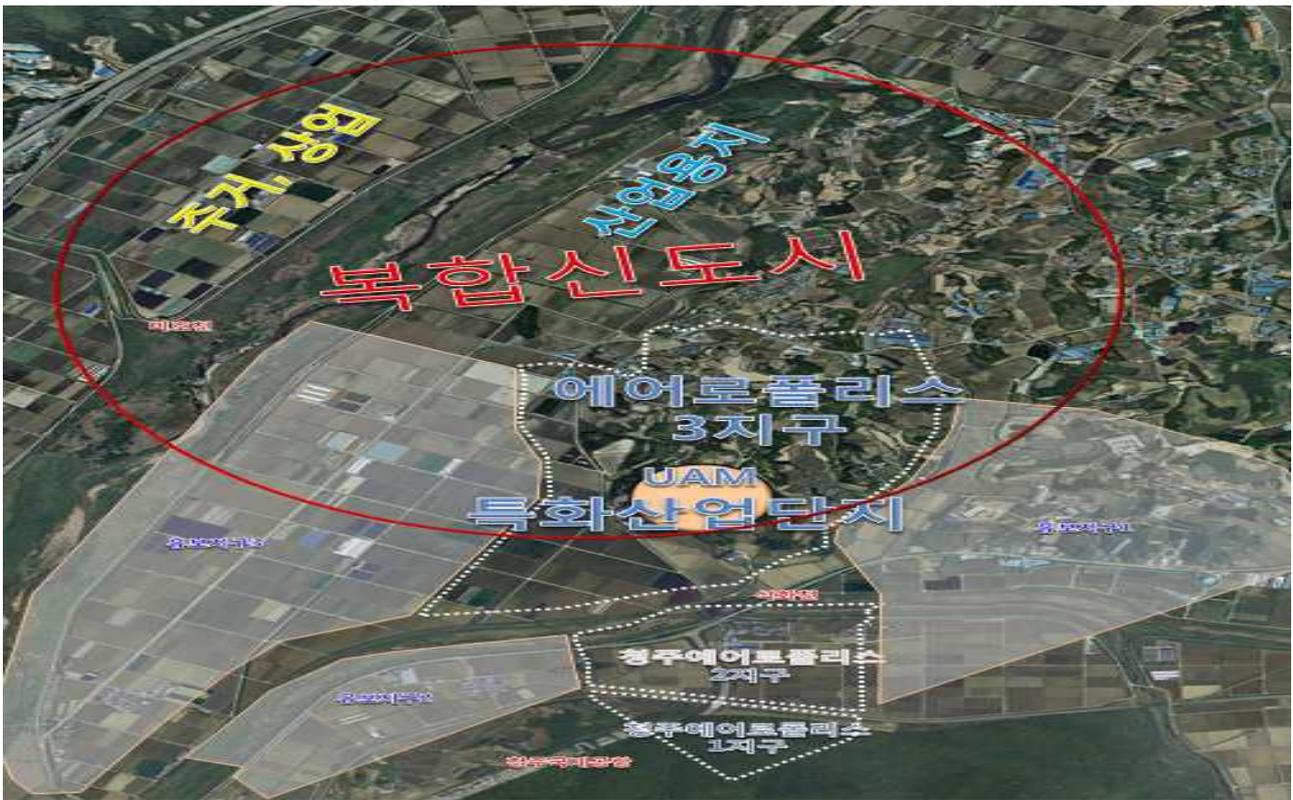
□ 추진상황

- 복합신도시 기본 구상안 마련 : '20. 1. 22.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계획안 심의 : '20. 2. 20.
- 정책연구용역 계약(충북연구원) : '20. 5. 25.
- 용역 착수보고회 : '20. 6. 23.
- 자료 수집 및 동향 파악, 현장실사, 기관협의, 타당성 분석 추진 중

□ 향후계획

- 용역 수행 완료 : '21. 3. 31.
 - ※ 자문회의(수시) / 중간보고회('20. 10월중) / 최종보고회('21. 3월중)
 - 경자구역 추가 지정(산업부) 추진 : '21. 이후
- ⇒ 용역 결과를 국토부에 先반영(퍼스트무버 전략)토록 하여 정부 지원 유도

청주국제공항주변 복합신도시 위치도



IV. 7차 회의 업무보고 자료
(2021. 3. 17.)

“코로나19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큰 희망을 향해”

극난대망(克難大望)

'21. 3. 17.(수) 10:00

특별위원회 회의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2. 국가철도망 구축 관련 청주국제공항 발전전략

※ 기타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국

2. 국가철도망 구축 관련 청주국제공항 발전 전략

청주국제공항 발전 로드맵 설정으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I 청주공항 여건 및 전망

- 항공업계 ICAO(국제민항기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등은 세계 코로나19 여파로 **수요 회복**까지는 2~4년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19 수준의 항공수요 회복까지는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나,
- '19년 이용객 300만명 돌파, **국제선 수요 시장잠재력** 확인
 - 청주공항 이용권역(반경 100km) 내 전체 1,050만 배후수요를 통한 국제선 활성화 가능성 확인
- 인바운드 시범공항지정(국토부, '19.12)과 거점항공사 출범('21.2년) 등으로 **노선 다변화 기반 마련**
 - 現 국제 정기노선 '21년(14개) → '25(25개) ※ 現 시점 대비 약 2배

II 그간 추진성과

- 청주공항 민영화 중단이후('13.1) 제주방문 중국단체관광객 120시간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공항 지정('14.4)
- 제5차 종합계획('16~'20)을 통해 **청주공항 인프라 확충 기반 마련**
 - ※ 여객 터미널 확장, 평행유도로, 계류장 확장, 군용활주로 재포장 등
- '15년 이용객 200만명 시대 개막, **전국 5위 공항으로 안착**
- 김포·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F급(대형) 항공기 교체공항(인천공항 비상시 대신 착륙가능) 지정('16.2), **수도권 대체공항으로 위상 제고**

- '97년 청주공항 개항이래 이용객 첫 300만명 달성('19년)
- 청주공항 인바운드(외국인 관광객) 시범공항 지정('19.12)
- 청주공항 거점 신규 항공사(에어로케이 항공) 출범
 - 신청('17.6) → 면허취득('19.3) → 운항증명 발급('20.12) ※ 첫 취항 : '21.2.25.
- 공항 이용객 500만명 대비 시설인프라 확충 추진 중
 - (완료) 국제선(126→152만명)·국내선 청사확충(189→289만명), 평행유도로, 주차빌딩(1,088대), 군용활주로 재포장(민항기 운항가능), 주기장 확장(11→13대)
 - (추진중) 공항소방대 신축, 계기착륙시설(민항기 이착륙), 지상감시레이더 등 제6차 종합계획에('21~25) 청주공항 활성화 반영 추진 중(8건 3,383억원)

III

향후 발전방향

-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국책 사업과 연계 발전 마련을 위한 전략수립 방안 모색
 - (도로·철도) 충청권 광역철도, 수도권 내륙선, 중부내륙선 지선, 천안~청주공항, 세종시~청주공항 연결 고속화도로 등
 - (대규모 개발) 오송 3 국가산단, 에로폴리스 지구(1,2,3), 복합신도시 개발 등
 - 청주공항 활성화가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 공항이용권역 주민들의 항공편익 증대를 위한 노선 다변화
 - 공항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 지역경제 활성화(관광, 항공·물류산업 등 발전)로 연계
 - ※ 미호강 주변 관광개발, 경자청 에어로폴리스 1,2,3지구 및 복합 신도시 개발
- ⇒ **교통호재**부터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더해져 **청주공항**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관문공항**, **수도권 대체공항**으로 육성

비전

행정수도 관문공항, 수도권 대체공항

추진 전략

회복준비 ('21까지)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공항 재도약 준비

- 코로나 19 - FREE 구현
 - 방역 강화, 국제 보건인증 획득('21.3), 트래블 패스(APP 기반) 도입
- 국내선·국제선 활성화 추진
 - 인바운드 유치에 위한 홍보동영상 공동제작
 - E급 대형기 취항유도, 제주슬롯·운수권 확보
-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공항기반 마련(제6차 종합계획)
- 국가철도망 연계 접근성 제고 추진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실시설계 착수 등

수요창출 ('22~'24)

공항 경쟁력 강화 추진

- LCC 노선 다변화 및 이용객 증대 추진
 - 동남아 등 중·단거리 신규노선 유치
- 공항핵심 인프라 확충
 - 신활주로 재포장(2,744m), 소방대 신설 등
- 소형항공기 특화공항 추진전략 구체화
- 수도권 및 충청권 이용객 체계적 흡수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 → 공항 접근성 개선
 - 이용권역 내 주요도시 간 직통 시외버스 강화
- 경자청, 에어로폴리스지구(1,2,3)·신도시 개발과 항공산업·물류 연계 방안 모색

기회창출 ('25년 이후)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미래 성장기반 확보

- 인프라 확충노선 다변화 연 500만명 시대 개막
 - 국제 정기노선 개설 : 아세안 지역 진출
 - 공항 활용능력 확대 : 활주로 연장 등 추진
- ICT 국내 기반을 통해 산·학·연 협업강화로 스마트 공항 구현
- 수도권 이용객 흡수 전략 체계화
-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 국가계획 반영 대응
 - ※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25~'29), 제7차 종합계획('26~'30)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공항 재도약 준비 ('21)

1] 코로나19 - FREE 공항 구현

□ 철저한 방역체제로 청정공항 구축

- 방역 강화 : 주 2회 소독, 열감지카메라 운영·지원근무 협력
- 청주공항 국제 보건인증 도입(획득) : '21. 3. 11.
 - 공항 운영 등 10개분야 122개 항목의 공항 방역 평가*
 - * 평가 기관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공항협회의(ACI)
- 트래블 버블과 연계, 향후 국가별 방역조치(특히, 입국전 음성 확인서 의무화)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한 **트래블 패스(APP 기반) 도입** 추진

2] 국내선·국제선 활성화 추진

□ LCC 신규 취항 및 국내선 증편을 통한 이용객 증대

- 저점 항공사(에어로케이) 출범 : 4월 제주 정기노선 취항예정
 - 3월 부정기(14회/16편) 운항 시작으로 4월부터 정기편(일 3회) 취항예정
- 대형기 취항 유도 및 제주노선 증편 추진
 - 제주공항 슬롯제한으로 공급력 확대를 위한 대형기 운항 필요
 - ※ 진에어 대형기(E급) B777(393석) 투입계획 : 7~11월, C급 대비 31천명 ↑

→ 공항공사에서 1, 2번 주기장을 E급 기재 정차를 가능토록 기반 마련 추진 중

□ 공항 연계 인바운드(외국인 관광객) 노선 유치 추진

- 인바운드 시범공항 MOU 체결 재추진 : 21.上
- 국토부, 청주공항 신규 운수권 확보 지속 추진
 - '19 ~ '20년 청주공항 운수권 확보 : 6개노선 주 14회 배분

- 청주공항 지역관광 명소화 홍보영상 제작(도·청주시·공항공사)
 - ※ 총 사업비 : 139백만원(국비 50, 도 20, 청주시 20, 공항공사 49)
- 노선 다변화를 위한 전략노선 홍보 마케팅 추진
 - 해외 관광·항공 설명회(관광공사·공항공사 공조), 현지 여행사 방문 등

3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공항기반 마련

□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공항 소방대 신축(연면적 1,957㎡, 지상 3층) : 66억원
- 신활주로 진입등 시스템 구축(現 진입등 교체) : 19억원
- 계기착륙시설 신설(軍 활주로 내 민항기 항행시설 구축) : 27억원
- 지상감시레이더(現 레이더시설 보강) : 55억원

【기완료 : 16건 2,289.9억원】 : 활주로 갓길포장(33억원), 평행유도로(327억원), 비상용 접근관제센터(160억원), 군용활주로 재포장(730억원), 국제선·국내선 여객청사 확충(373억원), 주기장 확장(80억원), 주차빌딩(262억원) 등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 고시 (국토부 '21.上)

-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 반영 추진 : 8건 3,383억원

- 정책사업(2건) : 청주공항 위계 재설정, 북한 관문공항 육성
- 인프라(6건) : 활주로 연장, 국제여객 터미널 확충, 재포장 등

4 철도망 등 공항 접근성 제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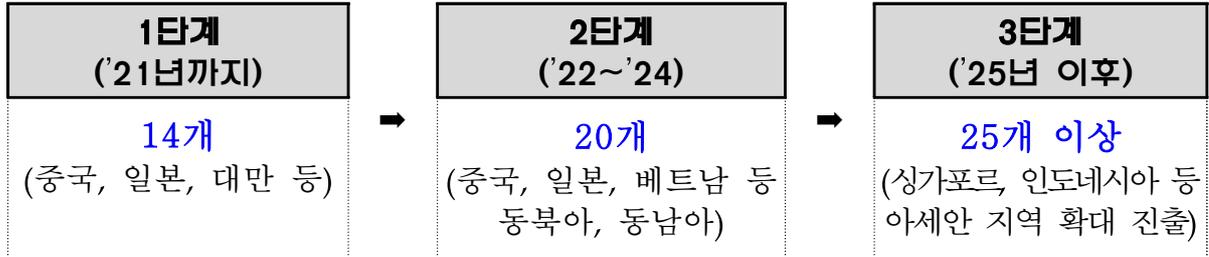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예비타당성 재조사 중(20 기본설계 完)
 - 청주공항역 신설(공항으로 이설) 및 통로박스·무빙워크 설치
- 충청권 광역철도, 수도권 내륙선, 중부내륙선 지선 등 국가 계획 반영 추진 중
 -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 '21. 上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성장기반 확보 ('22~'25)

1] 노선 다변화

○ 단계별 목표

(단위 : 정기노선수 / 대상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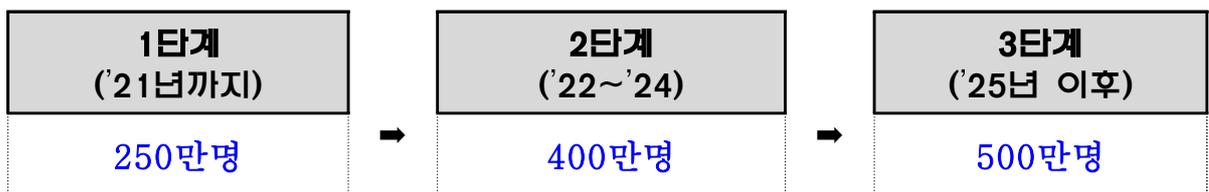


○ 추진계획

- 항공사 재정지원 확대 개선 추진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선 운항재개 등 노선유치 대응
- 거점 항공사 조기 안정화 지원방안 모색
 - 에어로케이 정상화 대비 국제노선 취항기반 등 마련 추진
- 항공사별 노선 추진전략에 따른 맞춤형 노선 마케팅 추진
 - 청주공항 국제선 취항 검토중인 진에어 등 LCC 집중 공략
 - ※ 청주공항 입점한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서울 등 5개사 방문 건의 : '21.上
- 울릉공항('25) 개항 대비 소형항공기 특화공항 추진전략 구체화
-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서 국가 정책적 배려 도출(운수권 배분시 고려)
 - 現 단거리 노선 → 중거리 취항 가능한 LCC 항공기(現 C급기재→E급) 유치

2] 이용객 증대

○ 단계별 목표



○ 추진계획

- 수도권·경기 남부권 노선 홍보 강화, 인바운드(외국인 관광객) 노선 유치를 위한 항공수요 창출 및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추진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개통 대비 수도권 이용객 흡수전략 체계화
- 비즈니스 수요창출(세종시 성장 등) 및 고품격 관광수요에 적기 대응 (공공기관 등 입주) 세종시 63개, 충북 혁신도시 11개, 대덕연구단지 등 (특수관광 대비) 울릉공항('25년) 개항

3] 공항 핵심인프라 확충

○ 단계별 목표



○ 추진계획

(’21) 공항운영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 신활주로 재포장 등 대비 항행안전시설 사전 구축

※ ’22 신규예산(신활주로 재포장) 확보 병행 추진

◆ ’23년부터는 공항중단 없이 신활주로 공사 가능 (’22년 대체활주로 확보)

- 군용활주로 포장강도(민용활용) 성능개선 완료(’19년)
- 군용활주로 내 민항기 이착륙 항행안전시설 추진 중(’22년 완료예정)

◆ 공항공사, 신활주로 포장성평가 조기시행 검토 중

- (당초) ’22년 → (변경) ’21년 상반기 추진 ※ 포장평가 주기 : 5년

- 現 소방체계(공군 운영중)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항안전 강화를 위한 민간 소방대 신설 등 진행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지원

'22~'24) 미래 항공수요 적기대응, 행정수도 관문공항 기틀 마련

- 국토부, 국방부(17전투비), 공항공사 간 **인프라 확충 협력 유도**
 - 신활주로 재포장(2,744m × 60m) 사업 추진 본격화
- 제6차 종합계획('21~'25) 반영 **사업 추진 구체화**
 - 국제선 독립청사 신축 및 소형계류장 신설 등 추진

'25) 공항 활용능력 확대

- 청주공항 연간 이용객 5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국제선 개설과 항공·관광융복합** 사업을 집중지원, **인바운드 수요 유치**
 - 동남아노선 확대 기반으로 **아세안**(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11개국) 시장 개척
 - 첨단 ICT 국내기반을 통해 산·학·연 협업 강화로 **스마트공항 구현**
- 전국 4대 공항으로 진입을 위한 국가계획 반영 적기 대응

- ◆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4~'29) : 정책사업
- ◆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6~'30) : 시설 인프라 확충
 - ※ 신활주로 활주로 연장(現 2,744m → 3,200m), 여객청사 확장 등 추진

④ 공항 연계 교통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이용권역 내 지역거점 도시(경기남부, 대전·세종시, 천안시 등) 간 직통 시외버스 대중교통 연계성 강화
(증편) 대전(現 2회), 천안(現 9회) / (신설) 세종, 용인, 분당, 평택 등
- 현재 진행중에 있는 도로(세종~오송~공항 간 고속화도로) 및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 시 **청주공항과 연계 교통체계 구축 방안** 모색
 - 충북 경자청 사업과 연계 가능한 청주공항 역세권 개발 등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조기 완공을 통해 청주공항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대도약의 계기로 적극 활용 (수도권 이용객 체계적 흡수)

5] 경자청, 에어로폴리스 지구 및 신도시 개발 추진

○ 추진계획

- 청주공항 주변에 에어로폴리스 1, 2, 3지구를 조성 중
- 회전익항공기 정비, 항공부품제조와 항공물류 전용단지, 첨단 항공 및 연관기업 집적 단지로 조성할 예정

- ▶ 1지구 투자협약 체결 현황 : 3개사, 71천㎡, 2,000억원
 - 포커스글로벌(34천㎡, 430억원), 선진(18천㎡, 1,000억원), UI헬리콥터(19천㎡, 570억원)
- ▶ 2지구 투자협약 체결 현황 : 16개사, 337천㎡, 4,046.5억원
 - 스타항공우주, 세진항공, 디지털론, 이니텍, 우리항공, 웰마크 등
- ▶ 3지구(산업단지 지정 신청중, 2018~2025년) : 1,290천㎡, 2,600억원

- 경자청에서는 용역 중인 복합 신도시 조성을 통해 공항중심경 제권을 구축할 계획

⇒ 국토의 지리적 장점을 살려 청주공항을 여객수송 뿐만아니라 항공산업·물류를 창출함으로써 명실공히 여객·물류의 중심지로 육성

VI

청주공항 활성화 협조사항 (균형건설국,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 수도권 이용객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청주공항역의 역할 중요

○ 향후, 국가철도망(충청권 광역철도, 수도권 내륙선 등) 구축 계획과 연계한 청주공항 역세권 유보지 확보 필요

- 천안~청주공항 기본계획에 반영된 청주공항역과 국가철도망을 연계하는 교통체계 구축 방안 검토 (철도 홈선로, 역세권 등)

참고

청주국제공항 연차별 기반시설 개선 계획

(단위:억원)

| 구분 | 사업내용 | 사업비 | 시행시기 | 시행주체 | |
|--------------------------|-----------------------|--|----------------|---------|------|
| 1~3단계 | 총계 | 30건(완료 16, 추진중 7, 계획 7) | 6,152.9 | | |
| 1단계 (‘14~‘21) | 소계 | 21건 | 2,377.9 | | |
| | 활주로 | 갓길포장(2,744m) | 33 | ‘15~‘16 | 국토부 |
| | | 軍 구활주로 재포장(2,744m) | 730 | ‘16~‘19 | 국방부 |
| | 유도로 | 평행유도로(2,980m) | 327 | ‘16~‘17 | 국토부 |
| | | 직각 유도로 장애물 이설 등 | 4.4 | ‘15 | 공항공사 |
| | 계류장 | F급 항공기 마킹 등 | 0.1 | ‘15 | “ |
| | | 주기장 확장(現 11대→13대) | 80 | ‘18~‘20 | 국토부 |
| | 여객터미널 | 국제선 증축(1,937㎡) | 91 | ‘16~‘17 | 공항공사 |
| | | 국내선 증축(5,896㎡) | 282 | ‘17~‘20 | “ |
| | 화물터미널 | 청사 시설 유지보수 | 1.4 | ‘17~‘18 | “ |
| | 기타시설 | 북측 진입도로(1.6km) | 150 | ‘11~‘14 | 국토부 |
| | | 비상용 통합접근관제 센터 | 160 | ‘14~‘18 | “ |
| | | 주차빌딩 신축(1,088면, 3층) | 262 | ‘17~‘18 | 공항공사 |
| | | 평면 주차장 증설(516면) | 15 | ‘17 | “ |
| | | 노외 제2 주차장 증설(1,732면) | 60 | ‘19~‘20 | “ |
| | | 항공유 급유저장소 신설(1기 25천배럴) | 92 | ‘19~‘20 | “ |
| | | 청주공항 지역관광 명소화 용역(2식) | 2 | ‘20 | “ |
| | | 공항 소방대 신축(연면적 1,899㎡) | 66 | ‘20~‘21 | 공항공사 |
| | | 소방설비 교체공사(1식) | 7 | ‘21 | “ |
| | | 생활밀착형 실내정원 조성사업 | 10 | ‘20~‘21 | “ |
| 풋살구장 조성공사 | | 3 | ‘21 | “ | |
| 청주공항 지역관광 명소화 사업(2건) | | 2 | ‘21 | “ | |
| 2단계 (‘22~‘24) | 소계 | 6건 | 1,732 | | |
| | 활주로 | 계기착륙시설 신설(2식) | 52 | ‘20~‘22 | 국토부 |
| | | 지상감시레이더 구축(1식) | 90 | ‘20~‘23 | “ |
| | | 신활주로 재포장(2,744m × 60m) ※ 운영등급 상향 : CAT I → CAT II | 1,100 | ‘22~ | 국토부 |
| | 계류장 | 소형계류장 신설(1개소) | 90 | ‘24~ | “ |
| | 여객터미널 | 청사시설 등 유지보수 | 100 | ‘22~‘24 | 공항공사 |
| 주차장 | 제2 주차빌딩 건립 | 300 | ‘24~ | “ | |
| 3단계 (‘25년이후) | 소계 | 3건 | 2,043 | | |
| | 활주로 | 신활주로 연장(2744m → 3200m) | 933 | ‘26~ | 국토부 |
| | 여객터미널 | 국제선 청사 신축(15,000㎡) | 660 | ‘25~ | 공항공사 |
| 화물터미널 | 터미널 증축(2,257㎡ → 20천㎡) | 450 | ‘25~ | “ | |

※ 기반시설 투자계획은 향후 국가계획 등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V. 10차 회의 업무보고 자료
[2021. 9. 9.]



'21. 9. 9.(목) 11:00
특별위원회회의실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1.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2.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3.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지구외) 이주자대책
4.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5. 청주국제공항주변 복합신도시 조성사업

1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일원
- 사업면적 : 133천㎡(4.0만평)
- 사업기간 : 2013년 ~ 2022년 ※ 유치업종 : 항공정비 및 항공운송
- 사 업 비 : 409억원(도비 260, 시비 149)

□ 문제점 또는 특이사항

- 2개 업체는 계약 완료, 1개업체는 MOU체결('21.8)

□ 향후 추진계획

- 1개업체 부지계약 체결('22.1) 및 2개 입주계약 업체 착공('22.3)
- 단지조성공사 준공 : '22. 12.

2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신안리 일원
- 사업면적 : 411천㎡(12.5만평)
- 사업기간 : 2013년 ~ 2022년
- 사 업 비 : 1,025억원(국비 199, 도비 424, 시비 402)
- 유치업종 : 항공기관관련 부품제조 및 물류업

□ 문제점 또는 특이사항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건('21.8.4./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산업부 개발계획 변경 심의 절차 필요
 - 이주자택지 내 일자형도로를 주민편의를 위해 순환형으로 변경하고, 업체와의 MOU('21.05) 체결로 단지 내 수요면적 확보를 위한 도로망 변경 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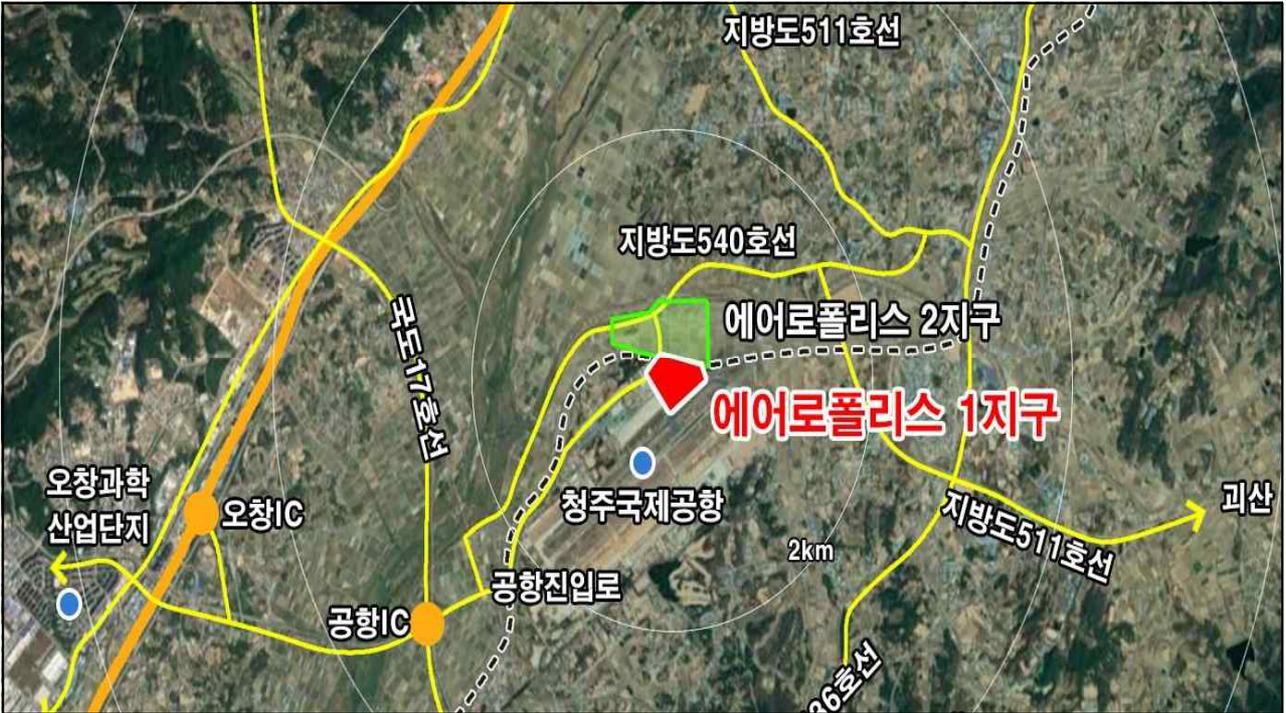
□ 향후계획

- 청주공항 활성화와 연계된 1개업체 착공 : '22. 7
- 단지조성 공사 준공 : '22. 12.

참고 1

에어로폴리스 1지구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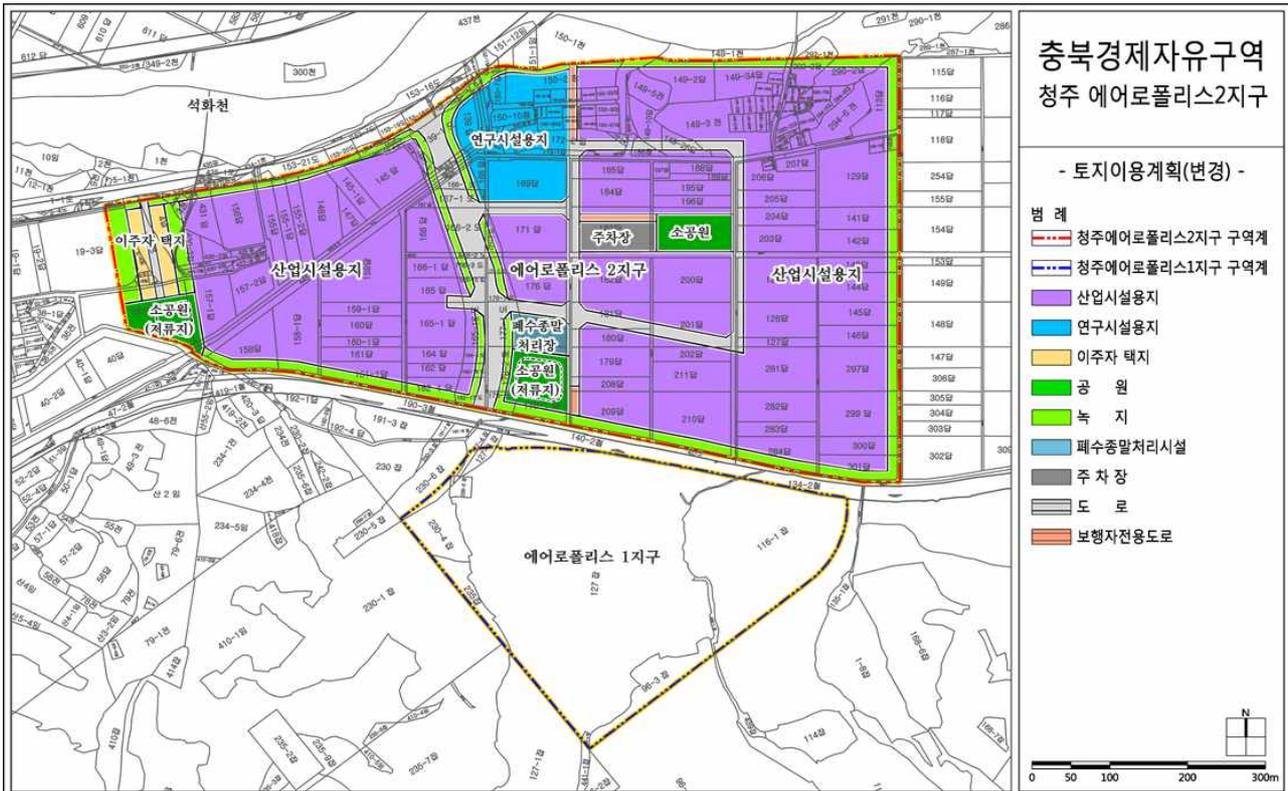
참고 2

에어로폴리스 2지구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도



3

에어로폴리스 2지구(지구외) 이주자택지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 업 비 : 51억원(도비 25.5, 시비 25.5)
- 내 용 : 지구외 이주 희망 16가구 택지 조성

※ 지구내 이주자택지 사업계획은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에 반영 추진

□ 문제점 또는 특이사항

○ 토지 소유자와 협의 매수 건

- 감정평가액과 소유자의 요구액이 약 15억원의 차이
 - * 감정평가액 : 약28억원(평당 65만원) / 요구액 : 약43억원(평당 100만원)
- 감정평가(21.9.)를 실시한 후 1년이 경과되어 재감평을 바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가 10월 중순 이후 감정평가 요구중
- 토지 소유자 추후 재감평 후 협의 양도 약속 ⇨ 지속 협의 중

○ 이주대상자 요구사항

- 이주자 택지 분양 면적 80 → 100평 상향 요구
 - * 이주자택지 분양가능 면적 등을 감안 신중 검토
- 분양가격 평당 30만원 요구(100평기준 3,000만원)
 - * 60평까지 30만원, 60~80평은 감정평가액-생활기본설치비(기반공사비)
- 건폐율 상향 요구(20% → 60%)
 - * 청주시 입장 : 실시계획 승인·고시 후 60%로 확정(자연녹지지역 20% → 주거지역 60%)

☞ 토지 매수 후 협의 추진

□ 향후계획

- 재감평 및 보상협의 추진 : '21. 10. ~ '21. 11.
-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 '21. 11. ~ '21. 12.
- 이주자택지 조성 사업 추진 : '22. 상반기중

참고

이주자택지 조성 위치도



4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화상·화하리 일원
- 사업면적 : 1,290천 m²(39만평)
- 사업기간 : 2018년 ~ 2025년
- 사 업 비 : 2,600억원 ※ 유치업종 : 항공부품제조, 반도체, BT 등

□ 문제점 또는 특이사항

- 국토부 산단 지정계획 반영(21.3)에 따른 조사설계용역 추진중('21.8 ~ '23.8)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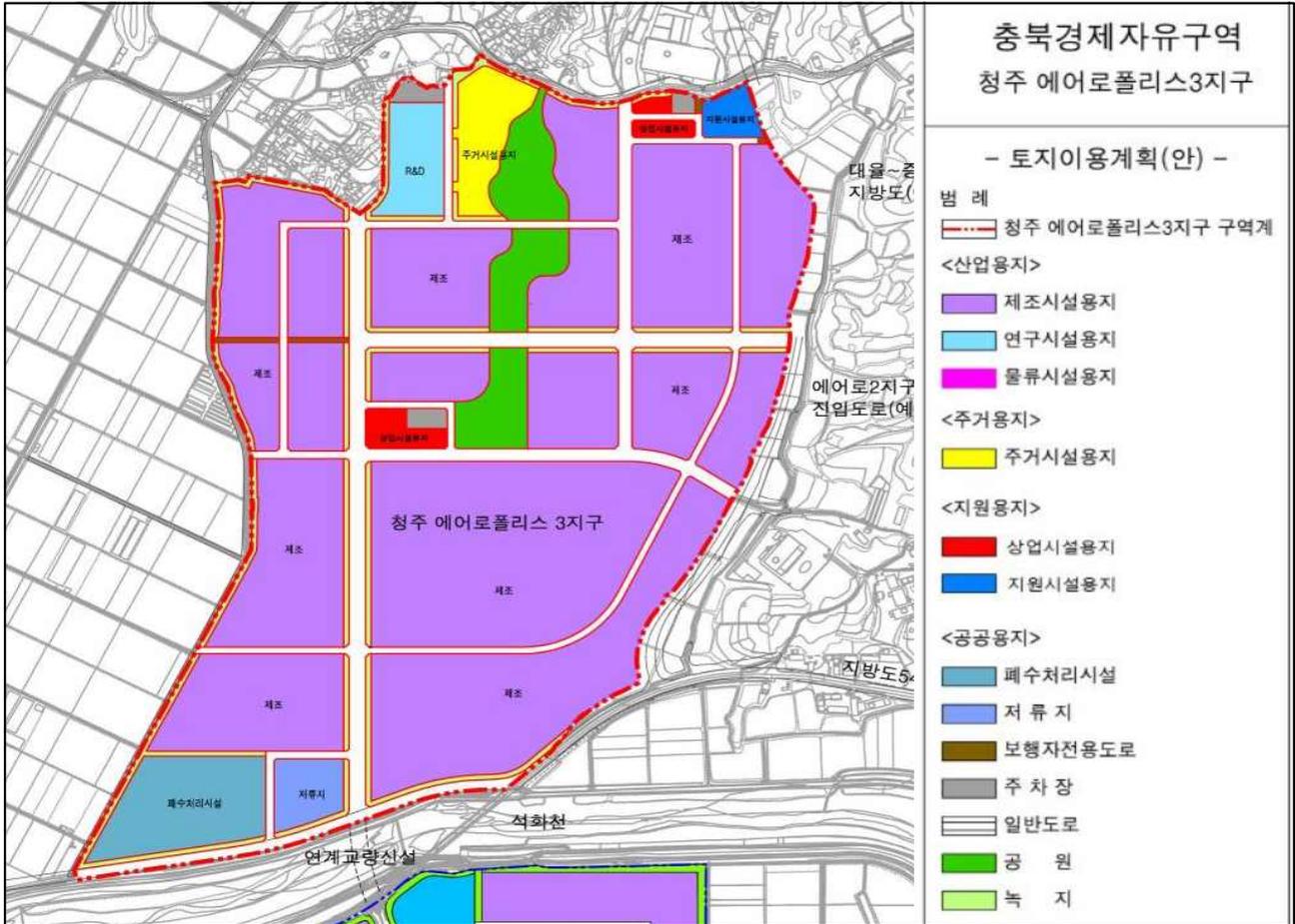
- 용역기간 : '21. 8. 9. ~ '26. 2. 8.(본용역 '21. 8. 9. ~ '23. 8. 8.)
- 과업내용 : 조사설계 A=1,289,718m²(본용역, 관리용역)
 - (본 용 역) 산업단지계획,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에너지사용계획, 지형도면고시
 - (관리용역) 본용역 완료 후 공사, 관계기관 협의 등 변경사항 과업 수행
- 용 역 비 : 3,869백만원
- 용 역 사 : (주)도화엔지니어링(40%), (주)케이지(30%), (주)홍익기술단(30%)

□ 향후계획

- 개발계획 등 기본구상 : '21. 12.
- 부문별 계획수립(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 '22. 5.
-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 '22. 7.
- 산업단지 개발계획 등 통합심의 : '22. 11.
-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승인 : '22. 12.
 - ※ 이후 경제자유구역 중복 지정 추진
- 토지보상 협의 : '23. 1. ~
- 단지조성공사 추진 : '23. 1. ~ '25. 12.
 - ※ 3지구는 국비가 지원되는 UAM특화단지 조성하는 것을 대선공약으로 추진 중

참고

에어로폴리스 3지구 토지이용계획도



5 청주국제공항주변 복합신도시 조성 사업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청주에어로폴리스 및 미호천 인근 / 6.9km²(209만평)
- 내 용 : 항공·물류 등 지역전략 산업 및 청주공항과 연계한 관광·문화·상업·주거, 교육 등을 포괄하는 인구 5만 자족도시
- 기간/사업비 : 2021 ~ 2040년 / 4조 6,905억원

※ 국토부 항공산업경쟁력 강화방안('19.12.) 「공항과 주변 연계 복합도시 조성」

□ 문제점 또는 특이사항

-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사업대상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예산(20억원)을 '22년 당초예산에 반영 필요

□ 향후계획

- 공항 주변개발 연계 시범사업 계획서 제출 : '21. 9월말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 '22. 4 ~ '23. 9.
- 복합신도시 조성 촉진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공모 신청 : '22. 6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토지보상 : '24. 12.
- 실시계획 수립 용역(인허가) 및 착공 : '25. 12.

※ 에어로 1, 2, 3지구와 연계된 복합신도시 조기 조성을 위해 대선공약으로 추진 중

< 청주국제공항 복합신도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개요 >

- ▶ 용역기간 : '20.6.5.~21.5.31.(12개월)
- ▶ 용역비 : 108백만원
- ▶ 수행기관 : (재)충북연구원
- ▶ 주요내용 :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지구, 도심형 항공교통(UAM) 특화단지과 연계한 복합신도시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 등

참고

복합신도시 조성 위치도



VI. 11차 회의 업무보고 자료
[2022. 1. 24.]

「생명과 태양의 땅」 완성으로 충북 미래 번영!

생양충완



生陽忠完

'22. 1. 24.(월) 10:00

특별위원회 회의실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1. 2022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 기타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국

1. 2022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청주국제공항의 행정수도 관문공항 실현 및 공항 경쟁력 향상을 위한 미래 성장기반 확보, 항공수요 창출, 접근교통 개선 등을 통해 공항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I 청주공항 여건 및 전망

- 항공업계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등은 세계 코로나19, 오미크론 등의 여파로 **수요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단기간에 '19년 수준의 항공수요 회복은 어려울 전망
- '19년 이용객 300만명 돌파, **국제선 수요 시장잠재력** 확인
 - 청주공항 이용권역(반경 100km) 내 전체 1,360만 배후수요를 통한 국제선 활성화 가능성 확인
- 국내선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 회복**
 - ※ 여객실적 : '19년(251만) → '20년(197만) → '21년(263만) / 전년대비 36.7% ↑
- 인바운드 시범공항지정(국토부, '19.12)과 거점항공사 출범('21.4) 등으로 **노선 다변화 기반 마련**
 - 現 국제 정기노선 '22년(14개) → '25(25개) ※ 現 시점 대비 약 2배

II 2021년 주요성과

-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 출범
 - 지역 거점공항사로 성공적 안착 ※ 탑승률 27%(5월) → 89%(12월)

- 청주공항 안심공항 구현 (코로나19 확진자 無)
 - 국제선 보건인증 획득(21.3.11)으로 검역·방역 강화
 - ※ 국제항공협회(ACI),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지자체 협업을 통한 청주공항 백신 우선접종 최초 시행

- '97년 개항 이래 국내선 이용객 최다 : 263만명 ※ 7,200명/일평균
 - 전국 15개 중 5위 공항으로 도약

- 청주공항 배후수요 창출 및 접근성 개선
 - 청주공항-경기남부 협의회(경기도 8개시*) 업무협약**(21.10.7)
 - * 화성, 성남, 수원, 안성, 오산, 용인, 이천, 평택 **교통접근, 항공편익, 화물운송 등 협업
 - 항공이용 편익제고 (에어로케이 : 경기도 8개 시민 항공요금 10% 할인)
 - 경기 남부권-청주공항 간 접근교통(신규 노선 : 용인, 평택) 확충 논의

- 공항 연계 지역관광 명소화 단계적 추진
 - 관광 명소화 1차 사업 완료(홍보동영상, 문화관광체험관, K뷰티홍보관 운영 등)
 - ※ '21년 문체부 관광기금 2억원 신규 확보
 - 자연친화 특화공간 조성 (실내정원 조성, 정이품송 자목 4그루 식재)

- 항공수요 대비 공항 핵심 인프라 확충
 - 활주로 연장, 국제 여객청사 확충 등 지원근거 마련
 -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 고시(국토부 →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 지원)
 - 20대 대선공약 발굴(활주로 연장, 재포장, 국제선 여객청사 확충)
 - 청주공항 민간 소방구조대 출범 (軍 → 공항공사로 이관)
 - ※ '21. 6. 25일 준공, '22. 1. 1일부터 소방구조대 운영 중
 - 활주로 보강 등 대비 항행시설 구축 추진 중 (계기착륙시설, 지상감시레이더)

1] 국제선 개항 대비 방역체계 강화 및 운항재개 추진

□ 공항 방역·검역지원 강화

- 방역시행 : 여객터미널 내 방역 중 ※ 매주 2회 소독
- 검역지원 : '20. 2. 25부터 상시·운영
 - 검역방법 : 열 감지 카메라(1대) 국내선 출발장 설치운영
 - 운 영 : 3명 교대 근무(청주시, 공항공사)

□ 국제선 운항재개 추진

○ 국제선 준비상황 (공항공사)

- (검역시설) 유증상자 대기시설 및 검체 채취소 설치('21.12)
 - ※ 유증상자 대기시설(입국장, 5개실 설치), 검체 채취소(계류장 내 텐트 1동 설치)
- (상업시설) 국제선 격리대합실 내 면세점 등 운영준비 요청('21.11)
- (시설점검) 여객편의·통신, 항행 등 시설점검 결과 “이상없음”

○ 기관별 역할

- (세관·출입국심사·검역, CIQ) 현재 청주공항 국제선 미운영으로 최소 인력만 상주함에 따라 운항재개 규모에 맞게 추가 인력확보 등 강구
- (검역소) 유증상자 격리, PCR검사, 확진자 이송 요청
- (공항공사) 공항 출입국 방역절차 및 검역지원 등
- (도, 청주시) 확진자 격리병상(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 배정 및 이송 등

○ 향후계획

- 청주공항 방역관련 기관 업무체계 구축, 입국자 방역절차 협의 (검역소, 청주시, 공항공사)
- 향후, 국토부 국제선 개항 세부계획에 의거 청주공항 입국자 대응 운영방안 마련
 - 해외 입국검역 및 방역절차 등 수립 추진

② 국제선 재개를 통한 항공수요 회복

○ 인바운드 시범공항 협약 재추진('22. 上)

※ '20. 1월 국토부 주관으로 청주공항에서 협약체결을 추진 중 코로나19로 연기

- 대상공항 : 대구.청주.양양공항 ※ 국토부 발표 : '19. 12. 19.
- 주요내용 :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집중지원 및 항공사 취항기반 확대
 - ▶ 인바운드 유치 항공사에 운수권 및 슬롯 우선배분

○ 다양한 항공수요 변화에 발맞춘 노선 다변화 총력

- 코로나19 이후 신규 국제노선 운수권 확보(동남아 등)
- 국제선 신규취항 인센티브 지원(300백만원) 신규
- 국제선 운항재개를 위한 항공사 재정지원(80백만원)
- 국제노선 개설 추진 국외 유치활동 전개(15백만원)
- 도서지역('25. 울릉공항 개항)과 연계한 항공기반 방안 마련

○ 공항 이용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버스 운영체계 개선

- 청주공항역-여객청사 간 셔틀버스 운영지원(30백만원) 신규
 - ※ 총사업비 120백만원(도 30, 청주시 30, 청주공항 60백만원)
- 버스 B3 내 캐리어 보관함 설치 → 기존버스 5대 교체(現 11대)

③ 공항 이용권역 홍보 확대로 항공수요 창출

○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 청주공항 노선 홍보(50백만원)

○ 수도권 케이블 방송 및 지하철 등 취항노선 홍보(90백만원)

○ 해외매체 활용 마케팅, 충북 SNS 서포터즈 및 충북 나드리 홈페이지, 여행사 등을 통한 홍보(77백만원)

④ 공항 기반시설 확충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기반시설 마련 지속 추진
 - 활주로 재포장 및 연장, 국제선 여객청사 확충 등
- 활주로 보강 등 대비 항행안전시설 사전 구축(15,300백만원)
 - 계기착륙시설(22. 520백만원), 활주로 진입등 교체(22. 110백만원), 지상 감시레이더(23. 900백만원)
- 공항 제 3, 4 주차장 확충(1,800백만원) : 주차대수 714면 **신규**
- 항공수요 증가 대비 제2 주차빌딩 신축 용역 추진(22. 150백만원) **신규**
→ 現 제 1주차빌딩 규모 : 1,088대 주차수용

⑤ 공항 연계 접근교통 개선

- 청주공항 - 경기남부협의회체 협약을 통한 시외버스 접근성 확충
 - 현재 추진 중인 공항경유 추가 노선(용인, 평택) 개설
 - 국제선 재개 시점에 신규 노선(화성) 신설
- 광역버스 B3 노선연장* 및 환승체계 구축 협의(세종시, 청주시)
* 現 세종~오송역~공항 → 대전 반석역~세종~오송역~공항 기점 변경
- 현재 진행중에 있는 도로(세종~오송~공항 간 고속화도로) 및 철도(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와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 방안 모색

2022년 청주공항 활성화 주요사업 추진

1

청주공항 민간소방대 창설·운영 (공항공사)

- ◆ 민간소방대 창설 원년으로 소방운영시스템 조기 정착 노력
- ◆ 반복적인 현장교육 및 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능력 확보

□ 소방구조대 현황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총 사업비 | · 97억원(신축 56억원, 차량·장비 등 41억원) |  (운영개시 '22.1.1일) |
| 소방등급 | · 구조소방등급 8등급 | |
| 건 물 | · 지상 3층, 1,900㎡ | |
| 차 량 | · 구조소방차 3대, 구급차 1대, 지휘차 1대 | |
| 인 원 | · 총 33명(대장 1명, 교관 1명, 조장 4명, 대원 27명) | |

□ 근무계획

- (근무장소) 상황실(3층), 대기실(1층) * A/S운영센터→소방대(2층) 이전
- (근무형태) 1일 총 12명(일근5, 교대7)

□ 운영 계획

- (교육훈련) 민·관·군 합동 항공기 사고수습 종합훈련, 화재대피 훈련, 교육 위탁(동부소방서 훈련장)등 화재진압·인명구조 훈련 지속 실시
- (안전관리) 소방교육훈련, 안전관리 활동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연1회 및 필요시)
- (화재예방) 찾아가는 화재예방 교육(상주기관·업체), 대국민 홍보 캠페인 실시(반기1회)
- (직원소통) 다양한 지역과 신입으로 이루어진 소방 구성원의 팀워크 향상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 멘토링제 등 시행

□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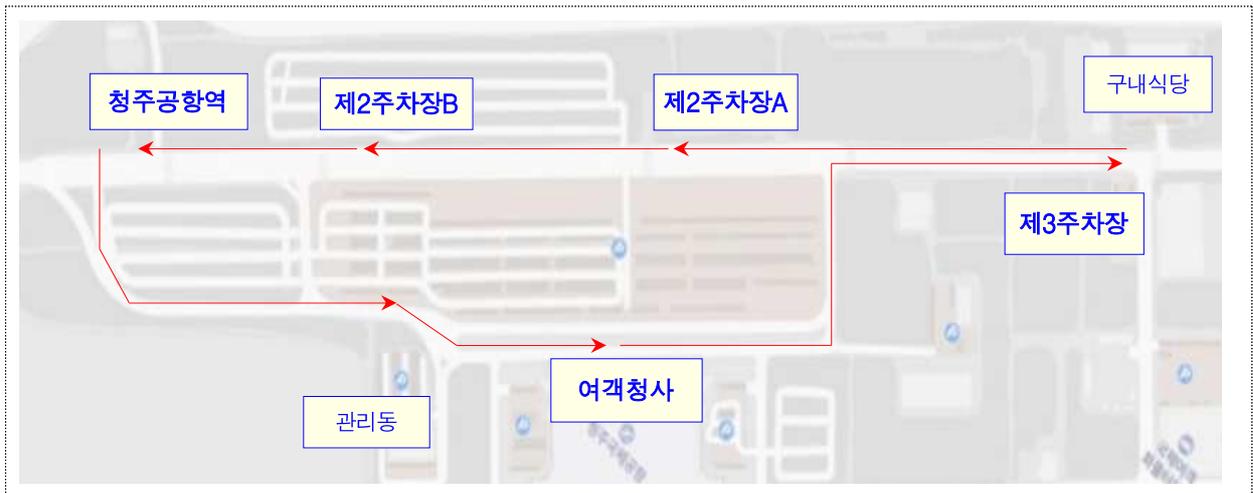
- 군소방의 민항지원 한계 극복
 - * 군은 교대근무가 없어 야간·휴일 대응 곤란, 비상시 신속한 출동 미흡
- 여객청사 및 기내 응급상황시 출동거리(6.7km→0.5km), 이동시간(11→1분) 단축

- ◆ (셔틀운영) 청주공항역, 주차장 이용객, 상주직원 등 도보 이동불편 해소
- ◆ (회차장설치) 시외버스 운행 확대 대비, 버스정차 플랫폼 협소문제 해결

□ 공항 내 셔틀버스 운영

- (추진배경) 여객청사에서 청주공항역, 주차장(3,4)을 도보 이용시 10분 이상 소요, 특히 악 기상시(강설, 강우, 폭염) 고객불편 증대
- (운행방법) 25인승 버스로 일40회(20분 간격) 운행(3조 2교대)
 - 소요예산 확보 : 1.2억원 (KAC 60, 충북도·청주시 각 30백만원)
- (추진계획) 시행계획 검토(KAC, 충북도, 청주시), 업무협약 체결, 입찰시행을 거쳐 운행개시('22.3월)

※ 운행노선 : 여객청사→3주차장→2주차장→청주공항역→여객청사



□ 시외버스 회차장 설치

- (추진배경) 국제선 재개 등 향후 예상되는 시내·외 버스 운행 확대 (신설, 증편)에 대비, 버스 정차장 플랫폼 혼잡문제(현재 7대 정차 가능)해소
- (추진계획) 공항내 유휴부지(경비동 옆, 3,190㎡ 버스 25대 수용)를 활용 바닥 골재포설, 기사쉼터 등 설치('22.下)

- ◆ 코로나19로 중단된 청주공항 국제선 재개를 위해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 참여와 노선운항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필요
- ◆ 특히, 청주공항 거점항공사(에어로케이), 기존 LCC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기반 마련 및 신규취항을 위한 노선 홍보지원 절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량 : 국제정기노선(신규취항) 3개 노선
 - ※ 지원기준 : 코로나19 이전 청주공항 국제선 정기편 운항 이력이 없는 노선
- 사업비 : 30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코로나19 이후 국제선 정기편을 신규취항하는 항공사에 홍보 마케팅 지원

□ 추진상황

- 국토부, 지방공항 단계적 국제선 운항재개 발표 : '21. 10. 22.
 - ▶ **1단계**(11월말) 김해 / **2단계**(12월말) **청주**,대구,무안 / **3단계**(22년 1월말) 김포,제주,양양
 - ▶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특위 간담회(청주공항) : '21. 11.
- 청주공항 입점 항공사 방문(국제선 운항재개 동향과약 등) : '21. 12.

□ 향후계획

- 항공사 국제선 신규취항 인센티브 지원계획 수립 : '22. 2.
- 청주공항 국제선 정상화 추진 관련 유관기관 회의 : '22. 2.
- 항공사 방문 국제선 취항건의(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로케이 등) : 지속

〈 항공사, 청주공항 신규취항 계획 〉

▶ 에어로케이(1개) : 나리타 / 제주항공(1개) : 방콕(김포·청주·무안·제주공항) / 진에어(1개) : 정저우

- ◆ 거점항공사 출범 등 항공수요 증가 대비 기존 항공 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
- ◆ 활주로 재포장 및 확장, 국제여객청사 확충 등

□ 사업개요

- 활주로 성능개선 및 확충사업 : 4건 2,273억원
 - 활주로 재포장(L=2,744m),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조정(CAT I → CAT II)
 - 활주로 확장(2,744m→3,200m, 456m 증), 소형계류장 신설(소형기 주기장 5대)
- 터미널 용량 증대사업 : 2건 1,110억원
 - 국제 여객청사(연면적 15천㎡, 연300만명 수용) 및 화물터미널 확충(연면적 20천㎡, 연40만톤 수용)

□ 추진상황

- '19. 9.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 수립용역 착수(KOTI 수행)
- '19.12.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지역편에 청주공항 역할 확대 반영
 - * 행정수도 관문, 공항 활주로 확장, LCC 전용 여객터미널 확장 등
- '20. 2.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청주공항 정책과제 의견제출(KOTI)
- '20. 5.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청주공항 활성화 반영건의(국토부)
- '21. 2. :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장 건의
- '21. 4. : 한국공항공사 건설사업실장 건의
- '21. 3. ~ 9. : 국토위 지역국회의원(이종배, 정정순) 건의(수시)
- '21. 9. 24.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 고시
 - 활주로 연장, 국제 여객청사 확충 등 지원근거 마련 : 6건 3,383억원

[청주공항]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항공수요 증가에 맞춰 활성화 지원

※ 거점 항공사 출범에 따라 향후 항공수요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여객터미널 계류장 수용능력 개선, 시설보수·보강 등 협의

□ 향후계획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후속조치 기반시설 확충 추진(여객청사 등)

- ◆ 거점항공사 출범 등 항공수요 증가 대비한 기존 주차장 확장
- ◆ 제 2 주차빌딩 신축 추진

□ 기존 3, 4주차장 확장

- (필요성) 주차장 이용수요 증가(43만대→47만대, 10% ↑) 및 주말 포화에 대비 기존 3,4임시주차장(골재포설) 확장 필요
 - * '21년 주차수익 : 70억원→103억원(47% ↑)
- (추진계획) 총 328면 추가 확보(4,620대→4,948대, 7.1% ↑)
 - 제3주차장 : 고가수조 방향으로 담장 이설 등 5,070 m^2 (184면) 확장
 - 제4주차장 : 주차장 후면 유희부지 활용 3,890 m^2 (144면) 확장

□ 제 2주차빌딩 신축 추진

- (추진배경) 증장기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 기존 주차빌딩 규모 (4층, 1,080면)로 제2주차빌딩 신축 필요
- (추진계획)
 - '22년 : 사전타당성 평가용역 (1.5억원)
 - '23년 : 교통영향평가 및 기본설계 (20억원)
 - '24년 : 공사시행 (280억원)

- ◆ 청주공항 명소화 전략 연차별 지속추진 및 관계기관 협업 강화
- ◆ 국제선 인바운드 유치에 중점을 둔 사업 프로그램 추진

○ (추진경과)

- ('20.2월) 충북도, 청주공항 합동 문체부 공모 참여 및 청주공항 선정
- ('20.8~12월) 1차년도 사업 : 관광 명소화 중장기 전략개발(1억원)
- ('21.5~12월) 2차년도 사업 : 관광 명소화 단기과제 실행(2억원)

| 사업명 | 내 용 | |
|--------------------|--|---|
| 청주공항 홍보영상 제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공항 및 지역 관광지 소개 홍보영상 제작(중일영어) * 영상제작(0.9억) : 지자체 4천만원, 공항공사 5천만원 |  |
| 관광·문화 체험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공항 내 충북지역 문화·관광 콘텐츠 소개 VR기기, 즉석사진 체험존 및 주말 이벤트 운영 |  |
| K뷰티 홍보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청사 내 충북 화장품 공동브랜드 "C#AVI"(샤비) 런칭 홍보관 운영 |  |
| 지역관광 스탬프 투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공항 및 인근 관광지 GPS 기반 스탬프 투어 * 9~12월, 참석자 466명 선정 항공권 및 문화 상품권 지급 |  |

○ ('22년 추진계획)

| 사업명 | 추진계획 |
|----------------------|--|
| 청주공항 연계 관광프로그램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공항발 투어버스 프로모션, 청주공항 연계 지역 관광 DIY 카드 등 관광프로그램 실시 • 시행시기 : 3~12월 |
| 홍보영상 마케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송출 : 중국, 일본, 대만 대상/ SNS, 텐센트(중국) 등 ※ 충북도, 청주시 해외광고 송출 별도 시행 • 시행시기 : 5월, 11월 (2개월) |
| 청주공항 상징물 설계 공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청주공항 상징물(공항입구) 설계 공모 실시 • 시행시기 : 5~6월 |
| 시그니처 메뉴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공항만의 시그니처 메뉴 개발 용역시행(관광상품화) • 시행시기 : 6~9월 |

* 실내정원 조성, 정이품송 식재 등 특색있는 볼거리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문체부, 충북도, 경기도, 관광공사 등)과 지속 협력



'22. 1. 24.(월) 10:00
특별위원회회의실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1.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2.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3.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지구외) 이주자대책
4.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5. 도심형항공교통 특화단지 조성사업

1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일원
- 사업면적 : 133천㎡(4.0만평)
- 사업기간 : 2013년 ~ 2022년 ※ 유치업종 : 항공정비 및 항공운송
- 사 업 비 : 409억원(도비 260, 시비 149)
- 공 정 률 : 53%

□ 추진상황

- '13.02.14. :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 '14.07.08. :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개발계획변경
 - 에어로폴리스1지구(항공정비)와 에어로폴리스2지구(항공산업)로 분할
- '15.04.13. : 단지조성공사 착공
- '16.11.30. : 단지조성공사 1차분 준공
- '17.09.01. : 단지조성공사 2차분 준공
- '20.11.26. : 에어로1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 면적 : 당초 153,086㎡(약 4.6만평) → 변경 133,642㎡(약 4.0만평)
- '21.04.14. : 에어로1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 총사업비 당초 441억원 → 변경 409억원
- '21.12.28. : 전기 설비공사 착공

□ 문제점 또는 특이사항

- 2개 업체는 계약 완료, 1개업체는 MOU체결('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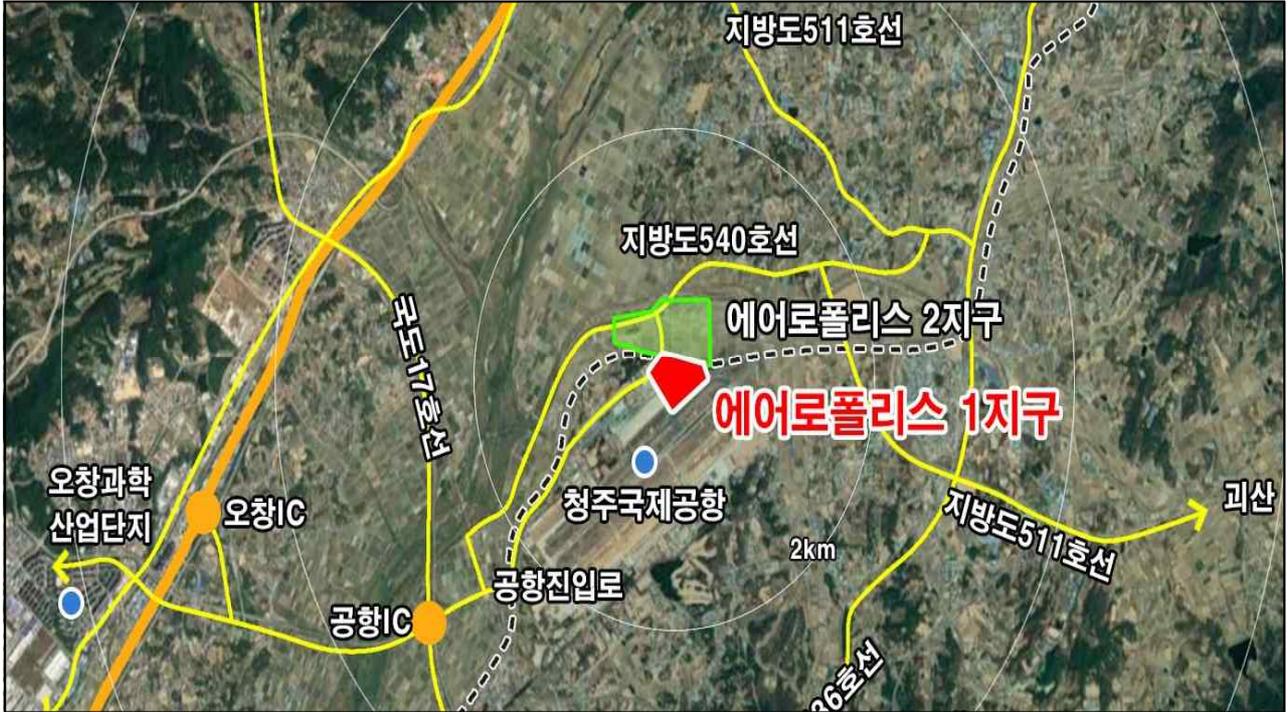
□ 향후 추진계획

- 2개 입주계약 업체 착공 및 1개 업체 부지계약 체결 : '22. 12.
- 단지조성공사 준공 : '22. 12.

참고 1

에어로폴리스 1지구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도



2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신안리 일원
- 사업면적 : 411천㎡(12.5만평)
- 사업기간 : 2013년 ~ 2022년
- 사 업 비 : 1,025억원(국비 199, 도비 424, 시비 402)
- 유치업종 : 항공기관관련 부품제조 및 물류업
- 공 정 률 : 48%

□ 추진상황

- '13.02.14. :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 '14.10.24. : 에어로2지구 공동개발협약(도·청주시·경자청)
- '16.08.26. : 아시아나(주) MRO사업 포기 ⇒ 추진 중지
- '17.07.03. : 에어로2지구 재추진 결정
- '19.02.11. : 조성공사 착공
- '21.11.25. : 에어로2지구 개발계획 변경
 - 면적 : 당초 411,152㎡(약 12.4만평) → 변경 411,520㎡(약 12.4만평)
 - ※ MOU 체결 130%(365천㎡)

□ 문제점 또는 특이사항

- 금회 개발계획변경 건은 산업부 심의 완료('21.11.25.)
- 실시계획변경은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22. 1월 중 승인고시 예정
 - (변경사항)이주자택지 내 일자형도로를 주민편의를 위해 순환형으로 변경하고, 업체와의 MOU('21.05) 체결로 단지 내 수요면적 확보를 위한 도로망 변경 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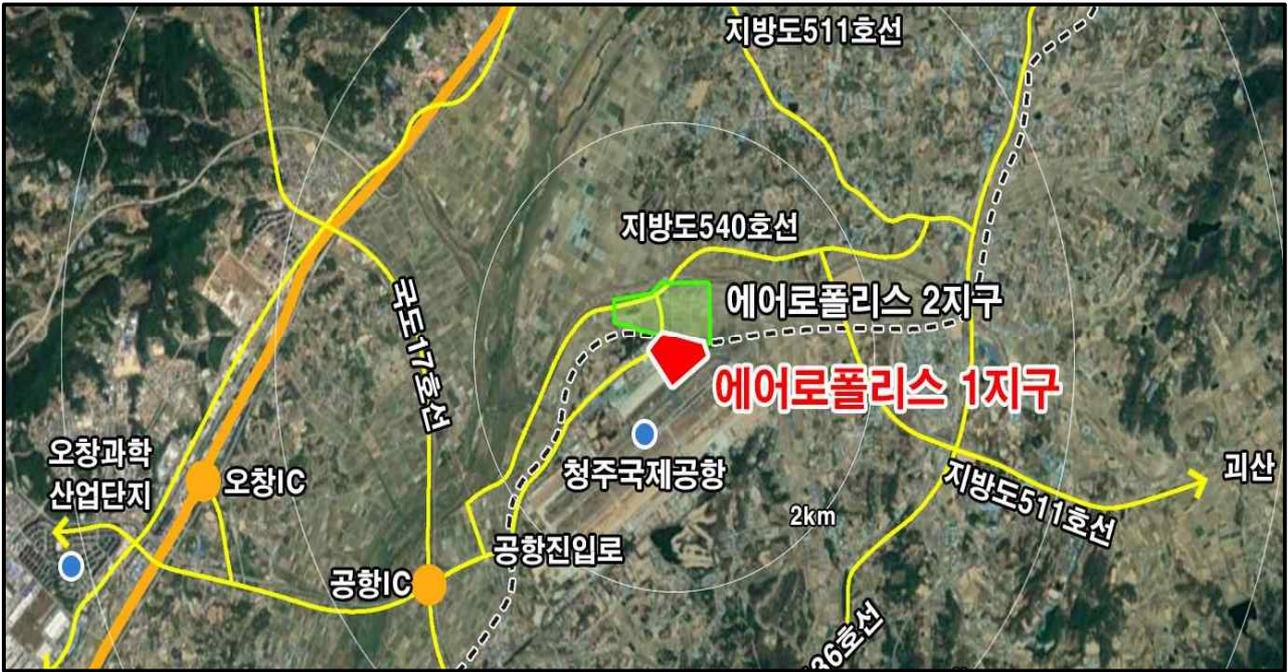
□ 향후계획

- 청주공항 활성화와 연계된 1개업체 착공 : '22. 7
- 단지조성 공사 준공 : '2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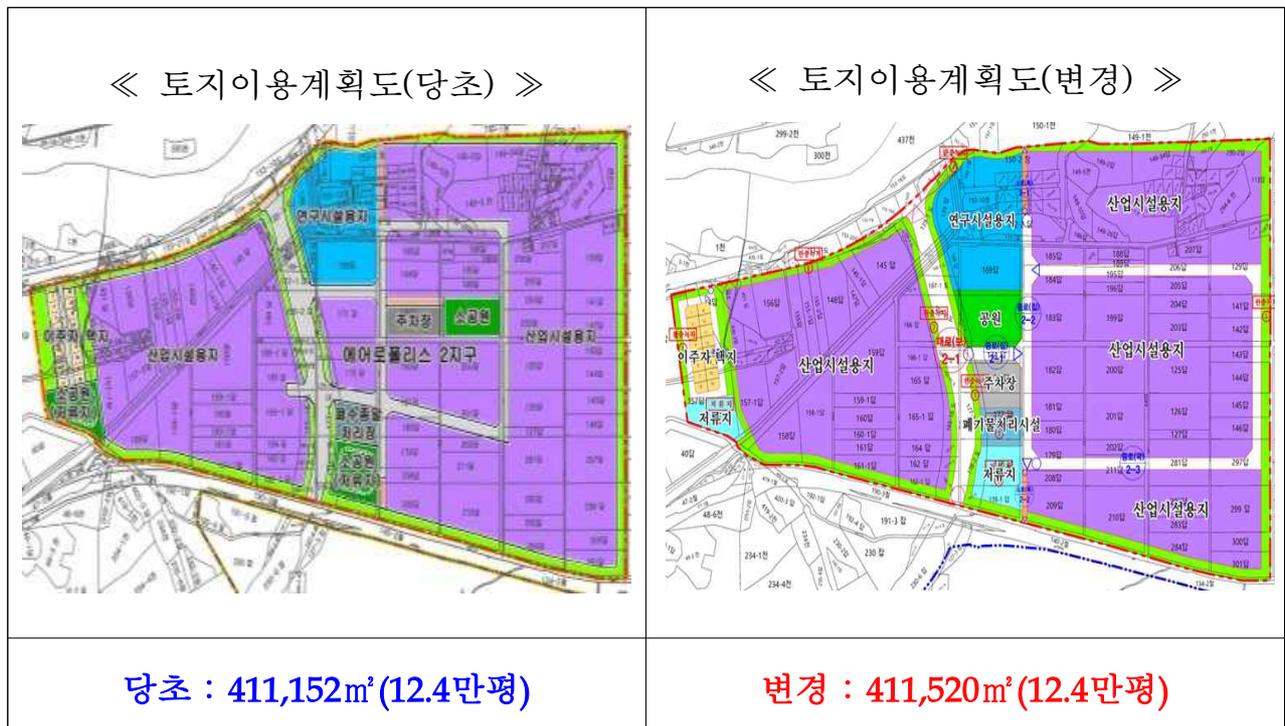
참고 2

에어로폴리스 2지구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도



3 에어로폴리스2지구 이주대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2. ~ 2022. 12.
- 위 치 :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내(내수읍 입동·신안리 일원)
- 이주대상 : 33가구 (지구내 요구 17, 지구외 요구 16)

□ 추진상황

- '21.11.10. : 이주택지 지구내 이전 주민설명회
- '21.11.18. : 에어로2지구 이주대책 변경(안) 안내공문 발송
- '21.12.16. : 이주대책 주민의견 제출
 - ※ 주민에게 지구내에 위치 선정 요청('22.0.한) → 거부(지구외 택지 지속요구)
- '21.12.27. : 에어로2지구 이주대책 변경계획 수립 통보
- '22.01.10. :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시행 공고(충개공)

【충북개발공사】

- 공가(9개소) 철거진행 : 12.23. 1차 시도(주민 저항으로 중단) → '22.1.5. 2개소 철거
- 이주대책 대상자 확정절차 진행 : 이주대상자 선정공고, 접수 및 심사, 확정통보 등

□ 추진방안

- 지구내 이주택지 확대 조성
 - 조속한 사업추진 가능, 주민 요구조건(건폐율 60%) 충족
 - ※ 지구외 대체부지 : 국·공유지(수의계약 제한), 사유지(공익성 불인정, 협상난항) 모두 불가
- 이주택지 입주 불희망 시 '이주정착금' 지급
 - ※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 지급(12백만원 ~ 24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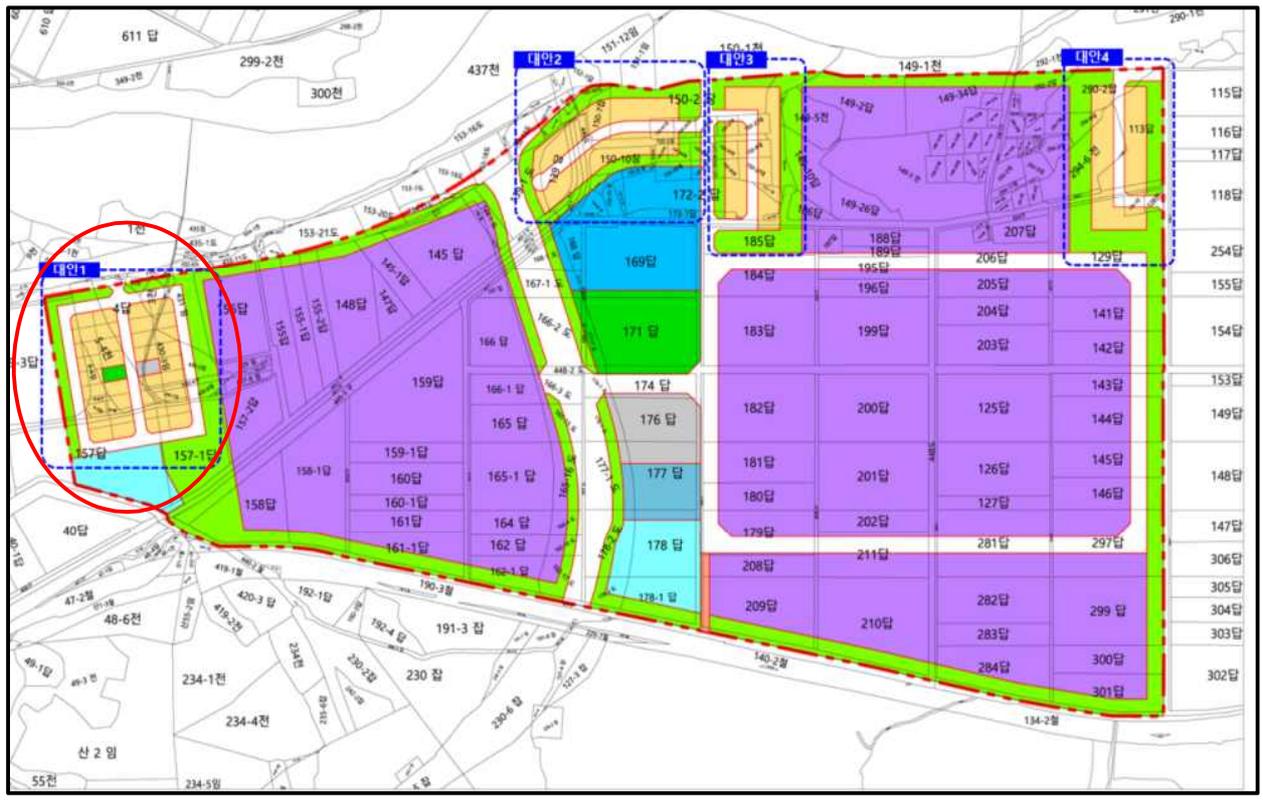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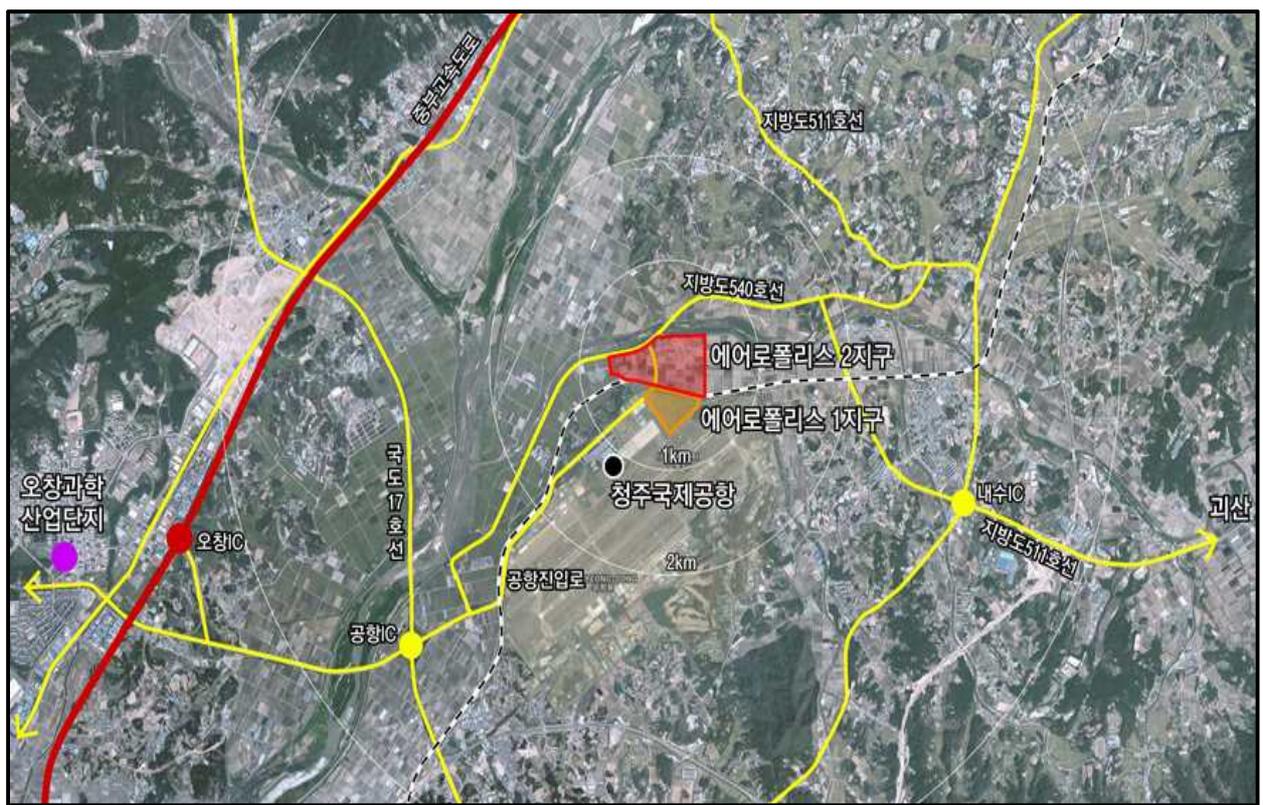
- 지구내 이전에 대해 주민 강력 반발
 - 이주약속 미이행, 항공소음·폐수처리장 악취 등 주거환경 열악
 - 정보공개 청구(12.16.), 공가철거 방해(12.23.), 주민청원 제출(12.29.)
- ⇒ 조속한 지구내 이주택지 조성, 지구내 이전 불가피성 주민설득 병행

□ 향후계획

-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 '22.02.~
- 기반시설 공사, 이주택지 분양공고(충개공) : '22.05.~

참고

에어로폴리스 2지구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4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화상·화하리 일원
- 사업면적 : 1,290천 m²(39만평)
- 사업기간 : 2018년 ~ 2025년
- 사 업 비 : 2,600억원 ※ 유치업종 : 항공부품제조, 반도체, BT 등

□ 문제점 또는 특이사항

- 국토부 산단 지정계획 반영(21.3)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용역 등 관련 용역 추진중('21.8 ~ '23.8)
 - 부대용역 :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토질조사, 지형현황측량 용역
-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지정)절차를 선 추진하여 구체적 계획 수립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 마련
 - 지정목적, 개발목표, 토지이용계획 등 산업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부합된 계획수립으로 지정 검토 병행 추진

□ 향후계획

- 부문별 계획수립(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 '22. 5.
-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 '22. 7.
- 산업단지 개발계획 등 통합심의 : '22. 9.
-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승인 : '22. 10.
※ 이후 경제자유구역 중복 지정 추진
- 토지보상 협의 : '22. 11. ~
- 단지조성공사 추진 : '23. 1. ~ '2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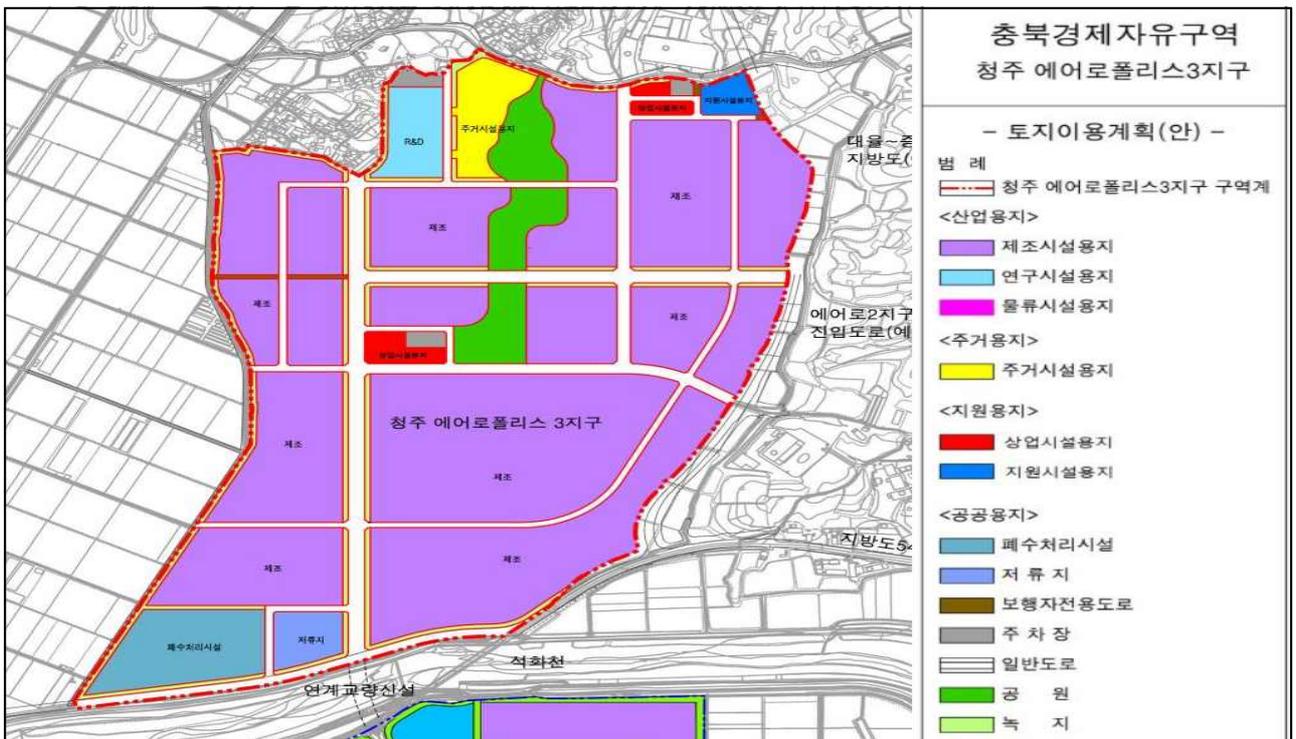
참고

에어로폴리스 3지구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도



5

도심형항공교통(UAM) 특화단지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 일원(에어로폴리스 3지구)
- 사업기간 : 2022년 ~ 2027년(6년)
- 규 모 : 1,290천㎡(39만평)
- 총사업비 : 8,335억원(국비 1,000억원, 지방비 500억원, 민자 6,835억원)
- 주요내용 : UAM 이착륙장, 교통관제시스템 설치, 정비센터·인증센터 등 구축

□ 추진상황

- UAM특화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한국교통대) : 2020. 3. ~ 5.
- 충북 드론·UAM연구센터 운영(청주대학교 내) : '20~'23
 - 연구센터 개소('21. 3.24) 및 드론·UAM 연구('20.11~)
 - ※ 충북형 스마트 드론 콜드체인 실증 추진 : '22. 3.

□ 문제점 또는 특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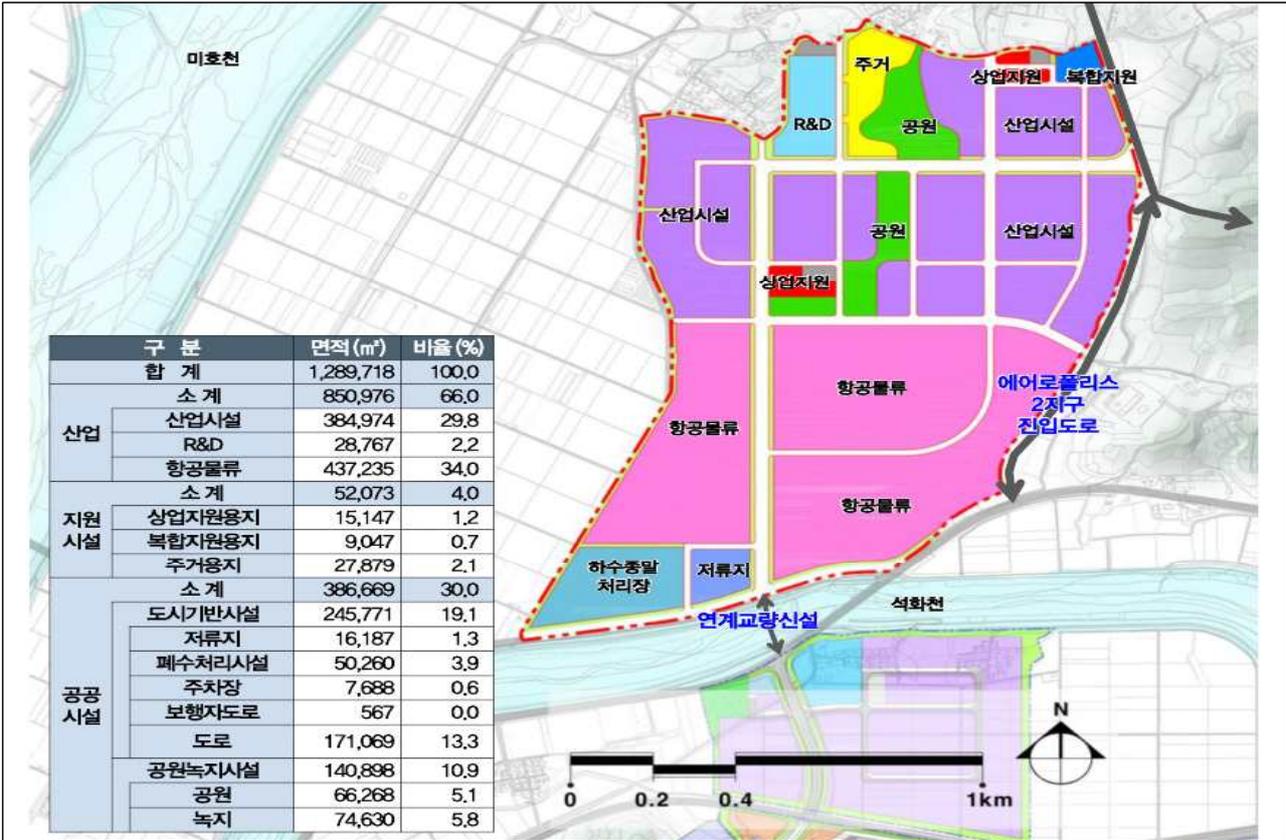
- 국토교통부(미래드론교통담당관)에서 민간참여를 높여 UAM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UAM 특별법 제정*을 목적으로 연구 용역 추진 중<한국교통연구원>

* K-UAM 정책사업 추진 방향이 법적으로 확립되고 사업의 범위와 UAM 운용에 필요한 항공회랑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반적인 내용들과 안전성 확보 등

□ 향후 추진계획

- 2022~2025년(준비기) 특화단지 지정 및 UAM시범운항 여건확보
- 2025~2030년(실증기) UAM 운항실증
- 2030~2035년(성장기) UAM 산업생태계 확산 및 완성

UAM 특화단지 위치도 및 주요시설 분포



VII. 12차 회의 업무보고 자료
[2022. 3. 24.]

「생명과 태양의 땅」 완성으로 충북 미래 번영!

생양충완



生陽忠完

'22. 3. 24.(목) 16:00

특별위원회 회의실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1. 기간별(단기·중기·장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 기타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국

1. 단계별(단기·중기·장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청주국제공항의 행정수도 관문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수도권 대체공항 육성을 위한 공항-관광 연계 인바운드 공항 실현, 공항 접근교통망 개선, 주요시설 확충에 대하여 기간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함

I 청주국제공항 여건 및 전망

- 해외 전문기관 대부분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등의 여파로 '19년 이전 수요 회복은 '24년 이후로 예측하여 장기화될 전망
- 국내선은 '19년 이전 수준으로 완전 회복*, '23년 300만명 예측**
 - 수도권, 경기남부권, 충청권, 전라·경상권 등 공항 이용권역(90분 이내) 내 1,360만명 보유
 - *여객 : '19년(251만) → '20년(197만) → '21년(263만) / 전년대비 36.7% 증, **한국항공공사
- 국제선은 '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이나, 최근 해외 입국자 격리요건 폐지 등 운항 재개 기대, '23년 30만명 예측
 - 국제노선 재개, 인바운드 시범공항 운영, 거점항공사 운항, 국외 홍보 등
- 청주국제공항의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국토부, '19.12)과 거점항공사 출범(21.4) 등으로 노선 다변화 기대
 - ※ 현 국제 정기노선 '22년(14개) → '25년(25개), 약 2배 증

II 그간 주요성과

- 김포·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F급 대형 항공기 교체공항(인천공항 비상시 대신 착륙가능) 지정('16.2), 수도권 대체공항으로 위상 제고
- '97년 개항 이래 이용객 300만명 초과 달성
 - '19년 이용객 : 301만명(국내 251만명, 국제 50만명) ※ 8,200명/일평균
 - '21년 이용객 : 263만명(국내) ※ 7,200명/일평균

- 청주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19.12)으로 항공사 취항기반 확대
-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출범 : 에어로케이
 - 신청('17.6) → 면허취득('19.3) → 운항증명 발급('20.12) ※ 첫 취항 : '21.4.15.
- 청주공항 핵심 공항시설 확충
 - 평행유도로 및 구활주로 재포장, 계류장 확대 등 시설확충 완료
 - ※ 평행유도로(2,980m, 327억원, '17.), 구활주로 재포장(2,744m, 730억원, '19.), 국제선 청사 확충(126→152만명, 91억원, '17.), 계류장 확장(11대→13대, 80억원, '20.), 국내선 청사 확충(189→289만명, 282억원, '20.) 등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에 따라 시설 확충 기반 마련
 - ※ 신활주로 연장, 활주로 재포장, 운영등급 상향(CAT I→II), 국제선 여객청사 확충, 국제선 화물청사 확충, 계류장 확충 등
 - 활주로 보강공사 대비 군용활주로 항행안전시설 사전구축 완료·추진 중
 - ※ 계기착륙시설('22. 52억원), 활주로 진입등 교체('22. 11억원), 지상감시레이더('23. 90억원)

III 향후 발전방향

- 항공수요 500만명 달성을 위한 항공 여객수요 확대
 - 국제노선 재개 및 신규노선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수요 회복
 - 거점항공사 지원 및 인바운드 노선 유치로 국제선 수요 확대
 - 공항과 지역관광 연계 및 홍보를 통한 공항 이미지 제고
 - 내륙 항공화물 거점공항으로 육성
 - 항공화물 운영 여건 조성 및 공항주변 항공산업·물류 연계방안 모색·추진
 - 지역 특화산업 및 수출입 품목 중심으로 항공화물 운영(년간 40만톤)
 - 공항연계 교통망 확충
 - 버스노선 개선, 철도 및 도로 확충으로 공항접근성 개선
 - 공항 핵심시설 확충
 - 신활주로 성능개선 및 계류장 확충, 공항 이용시설 확충 등
- ⇒ 청주공항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관문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수도권 대체공항으로 육성

비전

행정수도 관문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수도권 대체공항

추진 전략

국제선 회복으로
공항 재도약
[단 기]

['22. ~ '23.]

- 국제선 운항재개 준비
 - 방역 관련기관 업무체계 구축 및 입국자 대응방안 추진
- 국제선 수요 회복 추진
 - 국제노선 재개 및 신규노선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 청주공항 홍보 추진
- 공항연계 교통노선 개선으로 공항 접근성 확충
 - B3 노선 연장, 시외버스 접근성 확충 등
- 공항시설 확충으로 시설기반 구축
 - 구활주로 항행안전시설 구축, 주차장 확대, 휴게·상업·출국수속 시설 보완 등

국제선 수요확대로
공항경쟁력 강화
[중 장 기]

['24 ~]

- 거점항공사 지원 및 인바운드 노선 확대로 국제노선 다변화
 - 거점항공사 국제정기노선 지원 : 최대 55억원
 - 인바운드 신규노선 유치 : 9개국
 - ICT 기반 스마트 공항 구현
- 내륙항공화물 거점공항으로 육성
 - 화물거점공항 운영 여건 조성
 - 공항 주변 항공산업·물류 연계방안 모색·추진
- 수도권 및 충청권 공항 이용권역 교통체계 확충
 - 공항접근성 개선(철도, 도로)
- 공항 핵심시설 확충으로 항공수요 확대 기반 마련
 - 활주로 연장, 신활주로 재포장,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 계류장 확충, 국제여객청사, 국제화물청사 등 확충

단기 계획

① 국제선 운항재개 준비

- 방역 관련기관 업무체계 구축 및 입국자 대응방안 추진
 -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22.3.21.) 등 국토교통부 개항 세부계획에 따른 방역 대응방안 추진
 - ※ 청주공항 국제선 정상화 추진 관계기관 간담회 추진('22.3월말)
 - * 국토부, 검역소, 세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관광공사, 여행사, 청주시 등

② 국제선 수요 회복 추진

- ① 국제노선 재개 및 신규노선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 운항재개 국제노선 취항 항공사 재정 지원 : 7억원 / '23.
 -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국제정기노선 운항 재개 시 노선당 1억원 지원
 - * 대련, 북경, 항주, 심양, 하얼빈, 위해, 연길('20.2.25. 중단)
 - 신규 국제정기노선 취항 항공사 재정 지원 : 최대 5억원 / '23.~'24.
 - 좌석규모 및 운항횟수에 따라 노선별 차등 지원(1.5 ~ 5억원)
 - ※ '21년 지원기준 대비 노선별 0.5~1억원 증액
 - 국제선 신규 취항 항공사 인센티브 지원 : 3억원 / '22.
 - 정기적 운항 이력(과거3년)이 없는 노선 취항 시 노선당 1억원 지원(홍보비)
 -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 143백만원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 100백만원
 - ※ 숙박비, 문화체험비, 버스 임차료 등 지원
 - 청주공항 전세기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 25백만원
 - ※ 전세기 취항 시, 전세기 관광상품 모객홍보비 지원
 - 외국인 대상 충북전담여행사 선정·지원 : 18백만원
 - ※ 충북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모객력 강한 전담여행사 선정('22. 2개 업체 선정)

②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에 따른 국제노선 다변화 추진

- 국제노선 취항 항공사 집중지원(운수권, 슬롯 우선 배분)

※ '19.12월 국토부에서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 후 '20.1월 청주공항에서 협약체결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국제노선 재개 후 추진 예정)

- 대상공항 : 청주, 대구, 양양 공항 ※ 국토부 발표 : '19. 12. 19.
- 주요내용 :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집중지원 및 항공사 취항기반 확대
▶ **인바운드 유치 항공사에 운수권 및 슬롯 우선배분**

○ 지역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2차 년도) : 400백만원(문체부 기금)

- 한국공항공사(200백만원), 한국관광공사(200백만원)

※ 충북 관광명소 VR 콘텐츠 제작·홍보(4~12월), 충북관광 홍보영상 해외 광고, 충북관광 홍보관 및 청주 시티투어 운영(국제선 재개 시) 등

③ 청주공항 홍보 추진

○ 주요 이용권역 대상으로 케이블 방송 광고 추진 : 90백만원 /'22.

- 경기권(성남·수원·용인·평택·이천 등), 대전·세종·충남권

※ 경기남부 이용객 증가 추세('19년도 139천명 → '21년도 309천명)로 지속 홍보 강화

○ 다중이용시설 옥외광고 추진 : 50백만원 /'22.

- 충청권(대전 동부네거리, 천안 종합터미널), 경기남부(동탄역)

○ 해외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광고 홍보 : 40백만원 /'22.

※ 국제선 재개 시 취항지역 중심으로 현지 매체 및 유튜브 광고 추진

○ 청주공항 운항노선 및 거점항공사 홍보물 제작 지원 : 37백만원 /'22

※ 리플릿, 포스터,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건당 300만원 한도 지원

③ 공항연계 교통노선 개선으로 공항 접근성 확충

① 광역버스 B3 노선연장 및 환승체계 구축 협의

○ 기점 변경 : 대전 반석역 → 세종 → 오송역 → 청주공항 ※세종시·청주시 협의중

② 시외버스 접근성 확충 논의 ※ 버스업체 협의 중

- 신설 노선 : 용인·이천·평택·안성 → 청주공항
- 경유 추가 : 기존 노선에 청주공항 추가 및 이천·안성 추가

※ 청주공항 내 셔틀버스 운영 지원 : 30백만원 / '22. ~

- 청주공항역 → 청주공항 → 3,4주차장 → 청주공항역, 왕복 운행

4] 공항시설 확충으로 시설기반 구축

① 구활주로 항행안전시설 구축 : 3개 사업 / 153억원 / '20. ~ '23.

- 계기착륙시설('22. 52억원), 활주로 진입등 교체('22. 11억원), 지상감시레이더('23. 90억원)
- ※ 활주로 재포장, 연장, 안전등급 상향 등 활주로 운영중단 대비

② 청주공항 제3, 4 주차장 확충 : 328면 추가 확보 / 2억원 / '22.

- 총 4,620대 → 4,948대로 328면 추가 확보(골재포설)
- ※ 주차장 이용수요 증가('20. 43만대 → '21. 47만대)

③ 제2 주차빌딩 신축 : 4층(1,080면) / 300억원 / '22. ~ '24.

- 주차장 이용수요 증가 및 항공수요 증가 대비 추진
- ※ 사전타당성평가('22.), 교통영향평가 및 기본설계('23.), 공사시행('24.)

④ 기타 시설

- 휴게·상업시설 : 여객청사 내 휴게공간 조성, 약국 및 무인점포 유치, 지역축제와 연계한 팝업스토어 운영 등
- 수속 편의시설 보완 : 국제선 단체승객 안내용 카운터(2개) 설치, 바이오 셀프등록대 추가(증2개소, 1→3개소) 등

중장기 계획

① 거점항공사 지원 및 인바운드 노선 확대로 국제노선 다변화

- ① 거점항공사 국제 정기노선 지원 : 최대 55억원 / '22. ~ '26.
 - 국제노선 운항 개시일로부터 3년간* 취항하는 모든 국제노선
 - * 에어로케이 운항계획(3년간) : 5개국, 11개 노선(일본·중국·대만·베트남·마카오)
- ② 인바운드 신규 노선(9개국 등) 유치
 -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 협력을 통한 신규 유치 추진
 - ※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일본, 중국 등
- ③ ICT 기반 스마트 공항 조성
 - 빠르고 편리한 탑승수속(생체정보 활용), 빅데이터·AI기반 무결점 항공안전 및 보안 실현 등

② 내륙항공화물 거점공항으로 육성

- ① 화물거점공항 운영 여건 조성
 - 지역 특화산업·수출입 품목 중심으로 항공화물 운영 여건(기업체 → 국제물류주선업체 ↔ 항공사) 조성·운영 : 연간 40만톤*
 - * 항공화물 운항 목표 : 연간 40만톤(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등 화물량 흡수)
 - ※ 국제항공화물 수요분석 및 제2화물거점공항 육성방안 검토 용역 추진 중('22.)
- ② 공항 주변 항공산업 및 물류 연계 방안 모색·추진
 - 경자청에서 추진중인 에어로폴리스 지구(1, 2, 3), 공항 주변 복합 신도시와 연계 추진
 - ※ 회전익항공기 정비, 항공부품제조와 항공물류 전용단지, 첨단항공 및 연관기업 집적 단지로 조성 예정

③ 수도권 및 충청권 공항 이용권역 교통체계 확충

- 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 4,916억원 / '24. 完 예정
 - 북청주역 및 청주공항역 신설 등
 - ※ 타당성 재조사 완료 예정('22.4.), 실시설계 추진('22.5. ~)

②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 1조 2,807억원 / '26.完 예정**

- 청주공항 ~ 제천 선형개량 및 고속화, L=87.8km
- ※ 예타면제('19.1.),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22.11.), 기본계획 승인고시('22.12.)

③ **행복도시~청주공항 연결도로 : 1,800억원 / '28.完 예정**

- 청주 옥산~청주공항, 3.9km(2~4차로), 교차로 개선(5개소) 등 *기 개설 20.5km
-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21.12.), 실시설계('23.7.), 공사완료('28.12.) / 행복청 시행

④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 3조 4,904억원 / '31.完 예정**

- 대전(반석) → 세종청사 → 조치원 → 오송역 → 청주공항, L=51.6km
- ※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진행 중(~'22.11.),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22.12.~)

⑤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 2조 2,466억원 / '31.完 예정**

- 화성시 동탄~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 L=78.8km
- ※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추진 중(~ '22.上),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22.下)

4] 공항 핵심시설 확충으로 항공수요 확대 기반 마련

① **신활주로 성능개선 및 계류장 확충**

- **활주로 연장 : 2,744m → 3,200m(증 456m) / 1,000억원 / '23.~**
 - 내륙항공화물 거점공항 육성을 위한 화물전용기 및 장거리 대형여객기 운항을 위한 활주로 개량, 항공수요 확대를 통한 사업 추진
 - ※ 정책연구용역 추진('22.), 항공수요 확보 병행 추진(중장거리(300석 이상) 여객, 항공화물 물류체계 조성 등)
- **활주로(민군복합) 재포장 : 2,744m×60m / 950억원 / '23.~'25.**
 - 공항공사 포장평가 결과('21.8.) 및 노후시설(30년 경과) 로서 전면 재포장
 - ※ 재포장 시 활주로 운영중단에 대비, 군용활주로 내 항행안전시설 완료 예정('23.)
-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 : CAT I → II / 150억원 / '23.~'25.**
 -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 결항 및 지연* 최소화로 비행안전성 확보
 - * '20년도 결항률(청주 0.58%, 전국 0.58%), 지연율(청주 0.69%, 전국 0.31%)
 - ※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을 위한 항공등화시설(활주로중심선등, 정지선등, 접지구역등, ASLF-II 개량 / 150억원)은 활주로 재포장 시 병행

○ 계류장 확충 : 100억원 / '23. ~ '25.

- 흑산(미정)·울릉('25.) 공항 대비 소형항공기 주기장(5대)과 일반항공기 주기장(4대) 겸용 계류장 설치

② 공항 이용시설 확충

○ 국제여객청사 확충 : 연 300만명 수용(연면적 1.5만㎡) / 660억원 / '23. ~

- 現 여객청사는 국내선 전용 사용, 국제선 여객청사 별도 확충

※ '21년도 국내여객청사 활용율* 91%로 '22년 연간수용능력** 초과 예상,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련 용역 추진 중('22.) *청사활용(263만)/수용능력(289만), **국내(289만),국제(152만)

○ 국제화물청사 확충 : 연 40만톤 처리(연면적 2만㎡) / 450억원 / '24. ~

-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 수출입 품목에 대한 화물운송으로 내륙항공화물 거점공항 역할 수행

※ 정책연구용역 추진('22.), 항공수요 확보 병행 추진(화물항공 물류체계 조성, 벨리카고 등)

참고 1 청주국제공항 연혁 및 기본현황

연 혁

- 1997. 4.28 청주국제공항 개항
- 2008.10.26 24시간 운영 공항 지정(동계스케줄부터 적용)
- 2014. 4. 6 제주방문 중국단체관광객 72시간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공항 지정 ※120시간으로 확대(9.15)
- 2016. 2. 4 F급 항공기 교체공항 지정
- 2017. 4.28 청주국제공항 개항 20주년
- 2019.12.24 청주국제공항 3백만명 초과달성 기념행사 ('19. 3,009,051명)
- 2021. 4.15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 항공 출범
- 2021.12.31. 국내선 이용객 최다 달성 ('21. 2,628,257명)

기본현황

- 개 항 일 : 1997. 4. 28.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 공항시설
 - 활주로 2본 : 민군복합 2,744×60m, 군용 2,744×45m
 - 계류장 및 주차장(항공기 13대 주기 / 주차 4,620대)
 - 여객청사 : 29,926㎡, 연 441만명(국내 289만명 / 국제 152만명)
 - 화물청사 : 2,257㎡, 연 3.75만톤(국내 3.7만톤 / 국제 0.5만톤)
 - 면세점(1개소)
- '21년 공항 이용객 : 2,628천명(국내선)

※ 전국공항 현황

| 구 분 | 국제공항(8개) | 국내공항(7개) |
|----------|--------------------|--------------------|
| 민간공항(7개) | 인천, 김포, 제주, 무안, 양양 | 울산, 여수 |
| 군 공항(8개) | 김해, 대구, 청주 | 광주, 포항, 사천, 군산, 원주 |

참고 2 청주국제공항 정기노선(14개) 현황

□ 現 정기노선 14개(중국10, 일본2, 미국1, 대만1)

| 노선수 | 노 선 | 항공사 | 취항일 | 운항횟수 | 비 고 |
|-------------|--------------|------------|------------|------|-----|
| 중국 (10) | 베이징 (북경) | 아시아나항공 | '07.11. 7 | 주 4회 | |
| | 항저우 (항주) | 대한항공 | '11. 8.18 | 주 4회 | |
| | 옌 지 (연길) | 이스타항공 | '14.10.27 | 주 3회 | |
| | | 중국남방항공 | | 주 3회 | |
| | 선 양 (심양) | 이스타항공 | '13. 1.30 | 주 2회 | |
| | 하얼빈 (합이빈) | 이스타항공 | '14.10.28 | 주 2회 | |
| | 다 련 (대련) | 중국남방항공 | '14.10.30 | 주 2회 | |
| | 웨이하이 (위해) | 중국동방항공 | '19.05.02 | 주 3회 | |
| | 하이커우 (해구) | 이스타항공 | '19.10.19. | 주 2회 | |
| | 장자제 (장가계) | 사천항공 | '19.10.30. | 주 2회 | |
| 이스타항공 | | '19.12.29. | 주 2회 | | |
| 옌태 (옌타이) | 사천항공 | '19.12.23. | 주 7회 | | |
| 일본 (2) | 오사카 | 이스타항공 | '18. 3.27 | 주 5회 | |
| | | 제주항공 | '18. 7.21 | 주 7회 | |
| | 삿포로 | 이스타항공 | '18.12.23 | 주 2회 | |
| 미국 (1) | 괌 *오사카 경유 | 제주항공 | '18. 7.21 | 주 7회 | |
| 대만 (1) | 타이베이 | 이스타항공 | '18. 9.20 | 주 4회 | |
| | | 제주항공 | '18.12.22 | 주 4회 | |

※ 코로나19로 청주공항은 '20.2.25부터 국제선 운항 전면중단

□ 국내선(제주) : 일평균 48편 운항 ('22. 3월 기준)

• 대한항공(6), 아시아나(6), 제주항공(12), 진에어(8), 티웨이(10), 에어로케이(6)

참고 3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실적 현황

연도별 이용객

(단위 : 명, 편)

| 구 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2. 1~2월 |
|------------------|------------------|------------------|------------------|------------------|------------------|------------------|----------------|
| 이용객 총계(명) | 2,732,755 | 2,571,551 | 2,453,649 | 3,009,051 | 1,970,863 | 2,628,257 | 530,045 |
| 국내선 | 2,118,695 | 2,385,611 | 2,135,560 | 2,513,438 | 1,922,752 | 2,628,257 | 530,045 |
| 국제선 | 614,060 | 185,940 | 318,089 | 495,613 | 48,111 | - | - |
| 운항 총계(편) | 17,418 | 15,825 | 15,683 | 18,648 | 13,625 | 17,425 | 3,172 |
| 국내선 | 13,009 | 14,246 | 12,815 | 14,713 | 13,205 | 17,425 | 3,172 |
| 국제선 | 4,409 | 1,579 | 2,868 | 3,935 | 420 | - | - |

연도별 국제선 이용객 (국적별 구분) ※ '20.2.25부터 국제선 중단

(단위 : 명)

| 구 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2. 1~2월 |
|------------------------------------|--------------------|--------------------|--------------------|--------------------|------------------|------|-----------|
| 총 계 | 614,060 | 185,940 | 318,089 | 495,613 | 48,111 | - | - |
| 내국인 | 143,150 | 66,335 | 189,144 | 321,539 | 36,724 | - | - |
| 외국인 | 470,910 | 119,605 | 128,945 | 174,074 | 11,387 | - | - |
| 중국 <small>(외국인 중 중국 비율)</small> | 467,913 (99.4%) | 112,223 (93.8%) | 115,539 (89.6%) | 137,498 (79.0%) | 9,197 (80.8%) | - | - |
| 대만 | 547 | 5,600 | 6,805 | 26,007 | 1,860 | - | - |
| 홍콩 | 138 | 11 | 10 | 67 | 4 | - | - |
| 일본 | 172 | 33 | 1,433 | 4,182 | 16 | - | - |
| 미국 | 728 | 159 | 469 | 943 | 44 | - | - |
| 기타 | 1,412 | 1,579 | 4,689 | 5,377 | 266 | - | - |

운송실적 전년대비 통계

(단위 : 편, 명)

| 구 분 | 운항 (편) | | | 여객 (명) | | |
|-----|--------|--------|--------|-----------|-----------|--------|
| | '20년 | '21년 | 증감률(%) | '20년 | '21년 | 증감률(%) |
| 국내선 | 13,205 | 17,425 | 32 | 1,922,752 | 2,628,257 | 36.7 |
| 국제선 | 420 | 0 | △100 | 48,111 | 0 | △100 |
| 전체 | 13,625 | 17,425 | 27.9 | 1,970,863 | 2,628,257 | 33.4 |

참고 4

청주국제공항 영향권 인구수 (2022. 2. 기준)

| 지역 | 계 | 직접(반경 50km / 90분 이내) | | 간접 | |
|-------------|------------|----------------------|------------|-----|-----------|
| | | 지역 | 인구수 | 지역 | 인구수 |
| 계 | 13,680,307 | 33개 | 10,009,329 | 15개 | 3,670,978 |
| 충북 (11개) | 1,597,022 | 10개 | 1,568,867 | 1개 | 28,155 |
| | | 청주시 | 849,029 | 단양군 | 28,155 |
| | | 충주시 | 209,159 | | |
| | | 제천시 | 131,498 | | |
| | | 보은군 | 31,812 | | |
| | | 옥천군 | 49,959 | | |
| | | 영동군 | 45,548 | | |
| | | 증평군 | 36,729 | | |
| | | 진천군 | 85,557 | | |
| | | 괴산군 | 37,405 | | |
| | 음성군 | 92,171 | | | |
| 충남 (14개) | 2,057,512 | 8개 | 1,402,696 | 6개 | 654,816 |
| | | 공주시 | 102,960 | 당진시 | 166,894 |
| | | 아산시 | 327,717 | 보령시 | 97,967 |
| | | 천안시 | 656,925 | 서산시 | 176,559 |
| | | 계룡시 | 43,473 | 부여군 | 63,488 |
| | | 논산시 | 114,340 | 서천군 | 50,644 |
| | | 금산군 | 50,351 | 홍성군 | 99,264 |
| | | 예산군 | 76,540 | | |
| | | 청양군 | 30,390 | | |
| 세종 | 376,399 | | 376,399 | | |
| 대전 | 1,452,251 | | 1,452,251 | | |
| 서울 (3개) | 1,656,710 | 0개 | | 3개 | 1,656,710 |
| | | | | 송파구 | 661,452 |
| | | | | 강남구 | 533,286 |
| 경기 (11개) | 5,242,420 | 10개 | 4,951,089 | 1개 | 291,331 |
| | | 안성시* | 189,535 | 광명시 | 291,331 |
| | | 이천시* | 222,655 | | |
| | | 평택시* | 567,411 | | |
| | | 용인시* | 1,076,339 | | |
| | | 화성시* | 889,398 | | |
| | | 성남시* | 90,731 | | |
| | | 수원시* | 1,184,996 | | |
| | | 오산시* | 229,909 | | |
| | | 여주시 | 112,469 | | |
| | 광주시 | 387,646 | | | |
| 경북 (4개) | 273,146 | 2개 | 166,955 | 2개 | 106,191 |
| | | 문경시 | 71,106 | 의성군 | 50,487 |
| | | 상주시 | 95,849 | 예천군 | 55,704 |
| 전북 (3개) | 1,024,847 | 1개 | 91,072 | 2개 | 933,775 |
| | | 완주군 | 91,072 | 익산시 | 277,444 |
| | | | | 전주시 | 656,331 |

* 표시 : 경기남부협의회체(미래형스마트벨트) 8개 지자체

참고 5

청주국제공항 대중교통 운행현황 (2022. 3. 기준)

□ 시외버스 (4개 방면 12개 노선)

| 구 분 | | 배차/운행 횟수 | | 소요시간 | 비 고 |
|----------|-------------------|----------|---------|---------|-----------------------|
| | | 도착 | 출발 | | |
| 서울 방면 | 남부터미널 | 2 / 0 | 2 / 1 | 1시간 35분 | ※코로나에 의해 운행 감소 |
| | 강남센트럴시티 | 9 / 6 | 9 / 9 | 1시간 35분 | ※코로나에 의해 운행 감소 |
| 인천 방면 | 인천터미널 | 2 / 2 | 2 / 2 | 1시간 45분 | |
| 대전 방면 | 대전 복합터미널 | 4 / 2 | 5 / 5 | 55분 | |
| | 대전 유성터미널 | 8 / 8 | 8 / 8 | 40분 | |
| 충북·충남 방면 | 충주터미널 | 14 / 14 | 14 / 14 | 1시간 5분 | 충주-증평-청주공항-오창-코리아텍-천안 |
| | 증평터미널 | 14 / 14 | 14 / 14 | 15분 | |
| | 천안터미널 | 14 / 14 | 14 / 14 | 45분 | |
| | 한국교육기술대 (코리아텍)터미널 | 14 / 14 | 14 / 14 | 25분 | |
| | 진천터미널 | 8 / 8 | 8 / 8 | 20분 | 청주공항-진천-혁신도시 |
| | 충북혁신도시 터미널 | 8 / 8 | 8 / 8 | 40분 | |

□ 시내버스 (2개 방면 3개 노선)

| 구 분 | | 운행 횟수 | | 운행간격 | 주요 경유지 |
|---------|---|-------|-----|----------|---|
| | | 도착 | 출발 | | |
| 청주 시내방면 | 747번 05:50~23:20 (오송역 00:30도착) | 29회 | 29회 | 29분~140분 | 청주공항 ↔ 덕성초 ↔ 문화산업단지 ↔ 청주대 ↔ 상당공원 ↔ 사창사거리 ↔ 산업단지입구 ↔ 시외버스터미널 ↔ 충청대 ↔ 오송역 |
| | B3 06:00~21:30 (세종 23:00 도착) 21:50~22:30 (오송역 23:20도착) | 47회 | 44회 | 18~29분 | 세종터미널 ↔ 정부청사 ↔ 오송역 ↔ 오창 ↔ 청주공항 |
| 신탄진 방면 | 407번 06:00~22:07 (신탄진 23:40도착) | 54회 | 50회 | 5분~29분 | 청주공항 ↔ 오근장역 ↔ 성모병원 ↔ 청주대 ↔ 상당공원 ↔ 육거리시장 ↔ 청주교대 ↔ 청주교도소 ↔ 남이면 ↔ 신탄진역 |

□ 충북선 철도 (3개 방면 3개 노선)

| 구 분 | | 운행 횟수 | | 소요시간 | 주요 경유지 |
|------|----|-------|----|---------|--------------------------|
| | | 도착 | 출발 | | |
| 청주공항 | 서울 | 1 | 1 | 2시간4분 | 서울 ↔ 평택 ↔ 천안 ↔ 오송 ↔ 청주공항 |
| | 대전 | 10 | 10 | 1시간 | 대전 ↔ 오송 ↔ 청주공항 ↔ 충주 ↔ 제천 |
| | 대구 | 2 | 2 | 3시간 12분 | 대구 ↔ 대전 ↔ 오송 ↔ 청주공항 ↔ 영주 |

□ 개요

- 지원근거 :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제3조
- 지원대상
 - 신규 국제정기노선 취항 항공사
 - 코로나19 등 운항중단된 국제정기노선 운항재개 항공사
 -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취항 국제정기노선
- 지원조건 : 주2회 및 연간 28주 이상 총 2년 이상 운항
- 지원금액
 - 신규 국제정기노선 : 1.5 ~ 5억원/운항재개 노선 : 노선 당 1억원
 - 거점항공사 정기노선 : 최대 55억원(연차별 지급)

□ 지원목적

- 청주국제공항 신규 국제 정기노선 취항 유도 및 노선다변화
- 거점항공사 조기정착 지원

□ 그간 추진상황

- 청주공항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07)
- 중국 등 5개국 15개 취항노선 총 2,603백만원 재정지원('08~'19)
-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 유치('19.3) 및 출범('21.4)

□ 향후계획

-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 대상 재정지원 기준 홍보 : 3월~
- 항공사 운항제안서 접수 및 재정지원 대상 선정 : 연중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신규취항 인센티브

- ▶ 지원기준 : 코로나19 이전 정기편 운항 이력 없는 노선
- ▶ 지원금액 : 3억원(노선당 1억원/3개노선)
- ▶ 지원사유 :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취항 유도책 마련과 신규취항 노선 홍보 지원

참고 7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에어로케이항공)

□ 사업계획 (2021~2024)

※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 : '19.3.6. / **운항증명 발급** : '20.12.28. / **출범** : '21.4.15.

○ 항공기 도입

- 기 종 : A320, 180석(임차)
- 도입계획 : 총 6대 ※ (1년차) 3대* → (2년차) 2대 → (3년차) 1대

○ 항공기 운영 (1년차)

- (1호기) 2020. 2. 6. 도입完, 현재 청주~제주노선 운항 중
- (2호기) 도입('22. 4~5. 예정) 후 제주노선 투입 * 코로나 상황 고려 변동가능
- (3호기) 2022. 6월 도입예정, 국제선 운항 준비 진행 중

○ 취항노선

- 국내선 : 제주노선 ※ 1호기 청주~제주노선 일 3회(6편) 운항, 탑승률 95%
- 국제선 : 5개국 11개노선 예정

- 1년차(3대) : 제주 / 일본(나리타,나고야,기타큐슈), 대만(타이베이), 중국(칭다오), 베트남(하이퐁)
- 2년차(2대) : 일본(하코다테), 마카오, 베트남(하노이)
- 3년차(1대) : 중국(하이커우), 대만(가오슝)

※ 면허발급 시 사업계획 노선, 대내외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거점항공사 재정지원 계획

○ 3년, 5개국 11개노선 최대 55억원 연차별 지원계획

※ 청주시 재정지원 30%(16.5억원) 분담

< 사업면허 계획상 국제선 취항계획 >

(단위 : 백만원)

| 취항연도 | 운항노선 | | 운항횟수 | 총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 | 5개국 | 11개노선 | | | | | | |
| 계 | 5개국 | 11개노선 | | 5,500 | 1,500 | 2,250 | 1,250 | 500 |
| 1년차 | 일 본 | 나 리 타 | 주14회 | 500 | 250 | 250 | | |
| | 일 본 | 나 고 야 | 주14회 | 500 | 250 | 250 | | |
| | 일 본 | 기타큐슈 | 주14회 | 500 | 250 | 250 | | |
| | 대 만 | 타이베이 | 주14회 | 500 | 250 | 250 | | |
| | 중 국 | 칭 다 오 | 주7회 | 500 | 250 | 250 | | |
| | 베트남 | 하 이 퐁 | 주7회 | 500 | 250 | 250 | | |
| 2년차 | 일 본 | 하코다테 | 주7회 | 500 | | 250 | 250 | |
| | 마카오 | 마 카 오 | 주7회 | 500 | | 250 | 250 | |
| | 베트남 | 하 노 이 | 주7회 | 500 | | 250 | 250 | |
| 3년차 | 중 국 | 하이커우 | 주7회 | 500 | | | 250 | 250 |
| | 대 만 | 가 오 슝 | 주7회 | 500 | | | 250 | 2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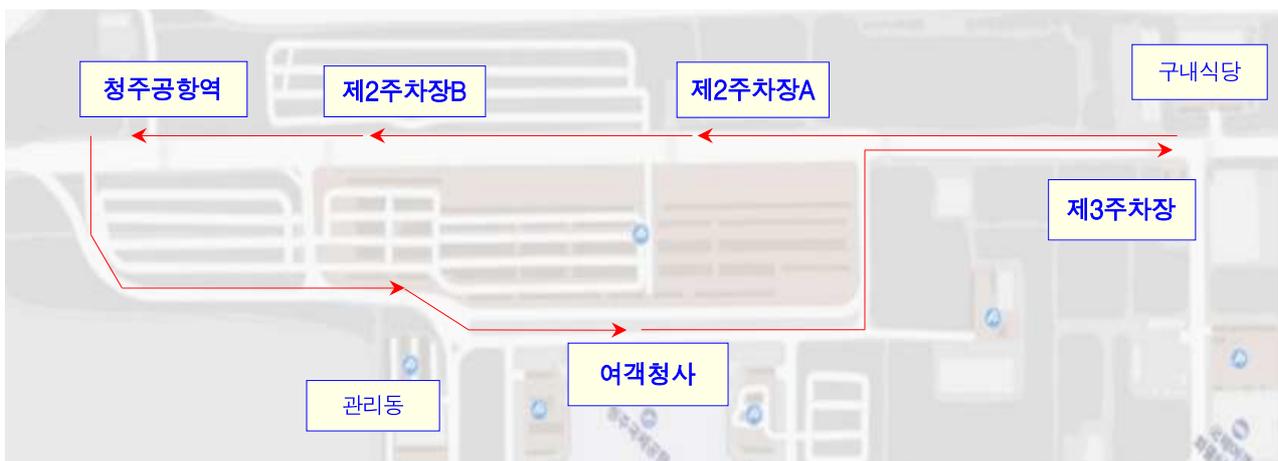
참고 8 청주공항 셔틀버스 운영지원

□ 사업목적

- 청주공항역과 여객청사와 700m, 3·4 주차장에서 최대 900m이상 떨어져 있어 이용객들의 공항이용 불편 해소
- 공항 이용 국내·외 관광객의 안전성 확보와 공항 이용객 편의 제공

□ 운영계획

- 운영방법 : 셔틀버스 임차(25인승 버스)
- 운영기간 : 2022. 04. ~ 2022. 12. 31.
- 사업비 : 120백만원(도 30, 청주시 30, 한국공항공사 60)
- 노선도 : 여객청사 → 제3주차장(2분) → 제2주차장(A, 3분) → 제2주차장(B, 2분) → 청주공항역(1분) → 여객청사(2분)



□ 추진현황

- 업체선정 및 용역계약 : '22. 3. 22.
- 버스개조 및 대기실 발주/설치 등 제반사항 준비 : '22. 3. 22.~
- 셔틀버스 운영 : '22. 4. ~

참고 9

청주국제공항 단계별 기반시설 계획

(단위:억원)

| 구 분 | | 사 업 내 용 | 사 업 비 | 시행시기 | 시행주체 |
|-------------------|-----------|-------------------------|---------|---------|------|
| 단 계 | 총 계 | 31건(완료 18, 추진중 7, 계획 6) | 6,190.3 | | |
| 단기 (~ '23) | 소 계 | 24건 | 2,580.3 | | |
| | 활주로 | 갓길포장(2,744m) | 33 | '15~'16 | 국토부 |
| | | 구활주로 재포장(2,744m) | 730 | '16~'19 | 국방부 |
| | | 신활주로 진입등 시스템 개량 | 11 | '22 | 국토부 |
| | | 구활주로 항행안전시설 | 153 | '20~'23 | 국토부 |
| | 유도로 | 평행유도로(2,980m) | 327 | '16~'17 | 국토부 |
| | | 직각 유도로 장애물 이설 등 | 4.4 | '15 | 공항공사 |
| | 계류장 | F급 항공기 마킹 등 | 0.1 | '15 | " |
| | | 주기장 확장(現 11대→13대) | 80 | '18~'20 | 국토부 |
| | 여객터미널 | 국제선 증축(1,937㎡) | 91 | '16~'17 | 공항공사 |
| | | 국내선 증축(5,896㎡) | 282 | '17~'20 | " |
| | 화물터미널 | 청사 시설 유지보수 | 1.4 | '17~'18 | " |
| | 기타시설 | 북측 진입도로(1.6km) | 150 | '11~'14 | 국토부 |
| | | 비상용 통합접근관제 센터 | 160 | '14~'18 | " |
| | | 주차빌딩 신축(1,088면, 3층) | 262 | '17~'18 | 공항공사 |
| | | 평면 주차장 증설(516면) | 15 | '17 | " |
| | | 노외 제2 주차장 증설(1,732면) | 60 | '19~'20 | " |
| | | 항공유 급유저장소 신설(1기 25천배럴) | 92 | '19~'20 | " |
| | | 청주공항 지역관광 명소화 용역(2식) | 2 | '20 | " |
| | | 공항 소방대 신축 및 장비구입 | 97 | '20~'21 | 공항공사 |
| | | 청주공항 지역관광 명소화 사업(1차) | 2 | '21 | " |
| | | 청주공항 지역관광 명소화 사업(2차) | 4 | '22 | " |
| | | 기존 3,4 주차장 확장(골재포설) | 2 | '22 | " |
| 주차빌딩 보수 | | 4 | '22 | " | |
| 여객터미널 및 소방시설 보수 등 | | 17.4 | '22 | " | |
| 중장기 ('23. ~) | | 소계 | 7건 | 3,610 | |
| | 활주로 | 신활주로 연장(2744m → 3200m) | 1,000 | '23. ~ | 국토부 |
| | | 신활주로 재포장(2,744m × 60m) | 950 | '23. ~ | " |
| | | 운영등급 상향(CAT I → CAT II) | 150 | '23. ~ | " |
| | 계류장 | 소형계류장 신설(1개소) | 100 | '23. ~ | " |
| | 터미널 | 국제선 여객청사 신축(1.5만㎡) | 660 | '23. ~ | 공항공사 |
| | | 국제선 화물청사 신축(2만㎡) | 450 | '24. ~ | " |
| 주차빌딩 | 제2주차빌딩 신축 | 300 | '22~'24 | " | |

참고 9

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 사업구간 : (천안)~전의~서창~(오송)~(청주)~북청주~청주공항 ※L=59km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2014 ~ 2024년 / 4,916억원
- 사업내용 : 북청주역·청주공항역 신설, 전의~서창 선형개량 등

○ 운행차량 : EMU-150

○ 완행(10회/일, 90분) : 서울~영등포~안양~수원~평택~천안~전의~서창~오송~북청주~청주공항

○ 급행(8회/일, 79분) : 서울~수원~천안~오송~청주공항

○ 기대효과

- 북청주역·청주공항역 신설을 통한 공항 접근성 향상, 수도권 항공수요 흡수
- 경기남부·세종·충남지역 청주공항 수요확대로 공항활성화 및 세종시 관문공항 완성

※ 노선도



☐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 사업구간 : 청주공항~제천봉양 ※L=87.8km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2019년 ~ 2026년 / 1조 2,087억원
- 사업내용 : 청주공항 ~ 제천 구간 선형 개량 등 고속화
- 기대효과 : 청주공항 ~ 제천 간 소요시간 단축으로 충북 북부권의 청주공항 접근성 향상 및 이용자 증대

* 기존 완행(무궁화)은 68분~80분 → 급행 40분(28분~ 40분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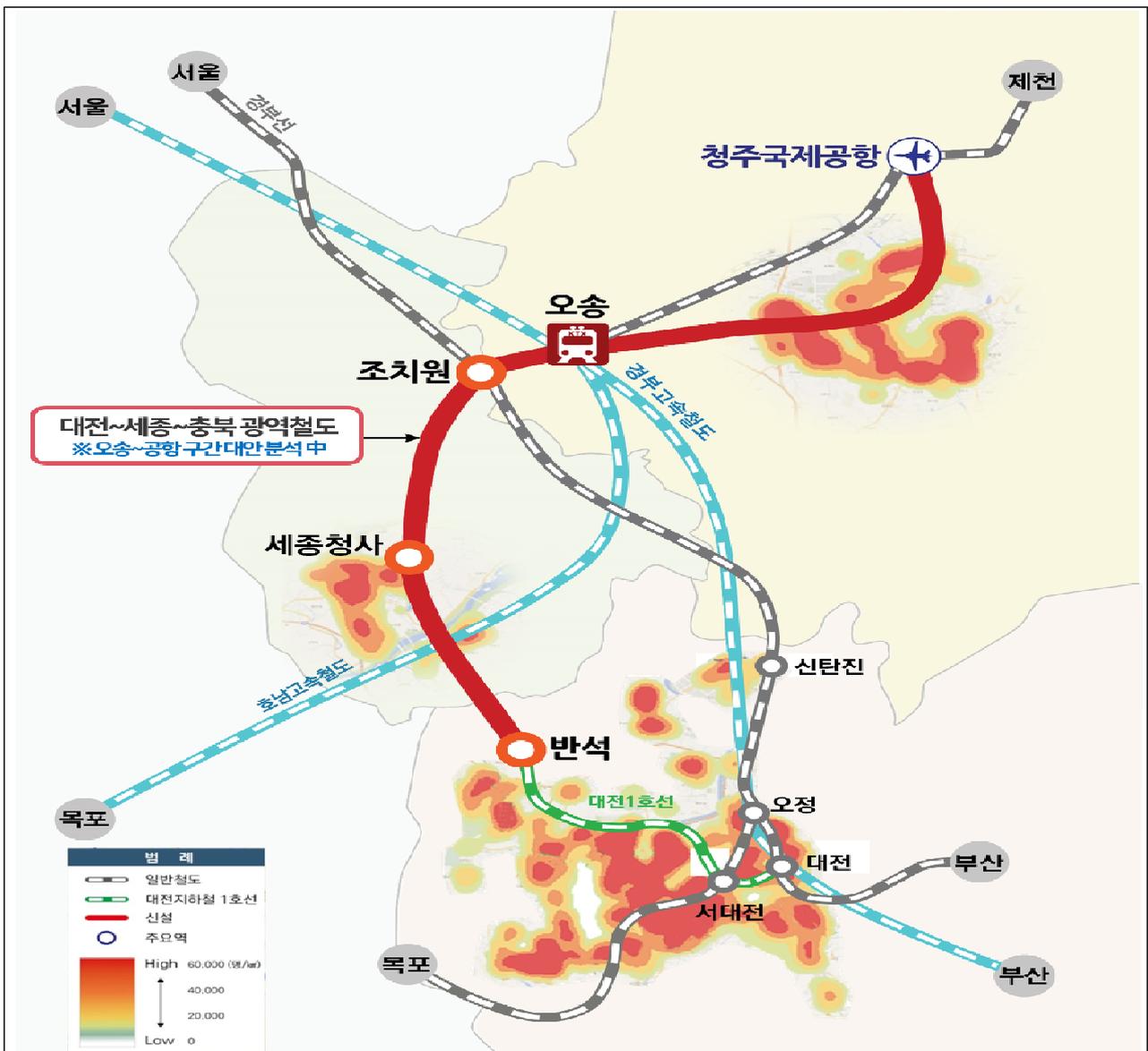
※ 노선도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 사업구간 : 대전(반석역)~세종~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 ※L=51.6km
- ※ 오송~청주공항 간은 청주도심 경유 노선을 포함한 최적대안 검토후 사업규모 결정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2022년 ~ 2031년 / 3조 4,904억원
- 사업내용 : 대전지하철 1호선과 연계, 대전·세종·청주 도심을 관통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 기대효과 : 청주/대전·세종 간 이동 시간 및 KTX오송역·청주공항 접근 시간 절감으로 인한 이용편의 증대 및 공항 수요 확보

※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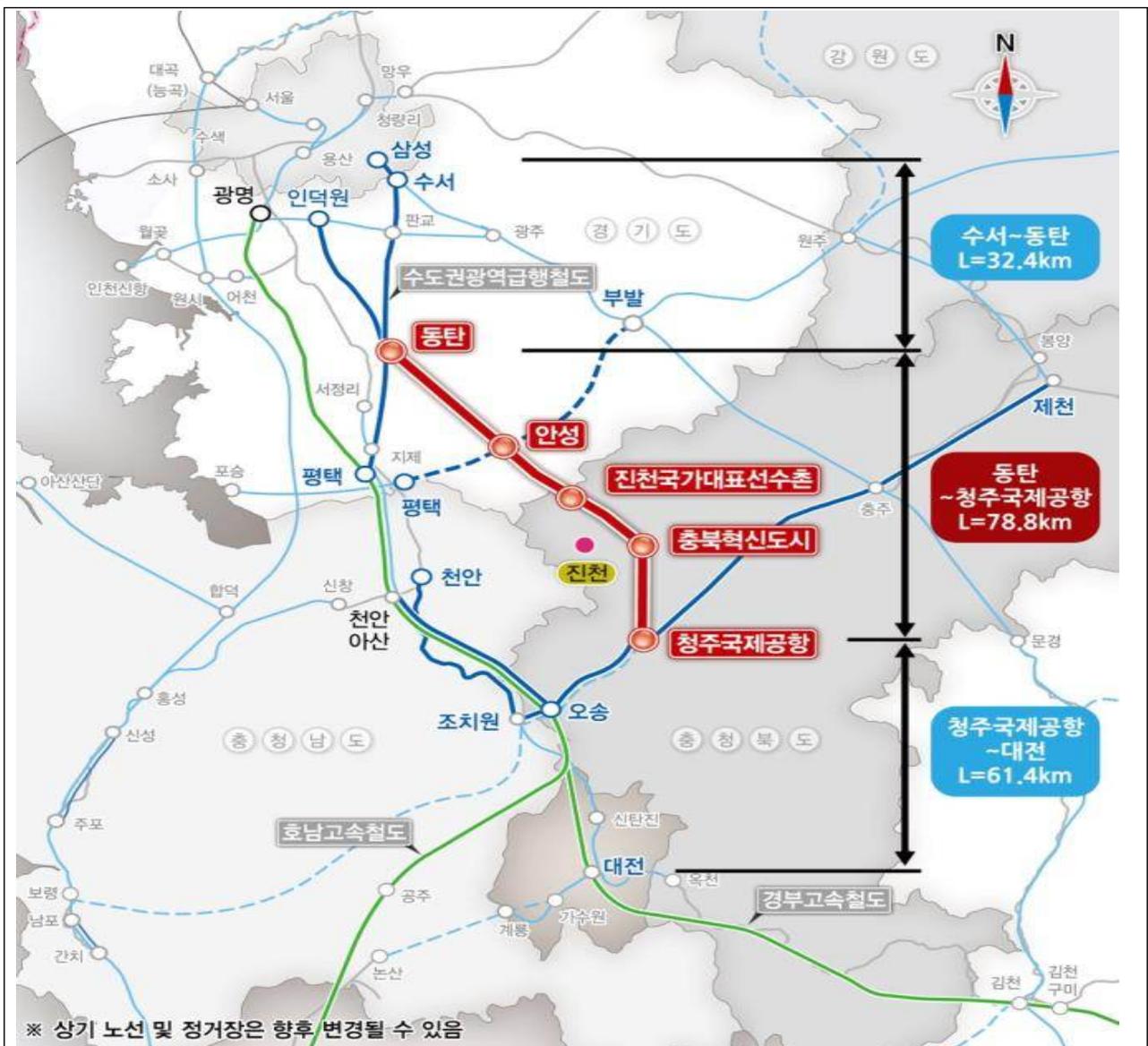


□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 사업구간 : 청주공항~충북혁신도시~동탄 ※ L=78.8km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2023년 ~ 2031년 / 2조 2,466억원
- 사업내용 : 수도권(GTX-A 동탄역)과 충북 내륙지역을 남북으로 관통, 청주국제공항(충북선)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신설
- 기대효과 : 동탄~청주공항 약 34분 소요로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 수도권 이용객 증대 및 흡수, 청주공항 수요확보 및 활성화

* 동탄 ↔ 청주공항 : 대중교통 60분 ~ 229분 → 34분(감 26~195분),
승용차 74분 → 34분(감 40분)

※ 노선도





'22. 3. 24.(목) 16:00
특별위원회회의실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1.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2.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3.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4. 도심형항공교통 특화단지 조성사업

1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일원
- 사업면적 : 133천㎡(4.0만평)
- 사업기간 : 2013년 ~ 2022년 ※ 유치업종 : 항공정비 및 항공운송
- 사 업 비 : 409억원(도비 260, 시비 149)
- 공 정 률 : 70%

□ 추진상황

- '13.02.14. :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 '14.07.08. : 에어로폴리스지구 개발계획 변경(1·2지구 분할)
- '15.04.13. : 단지조성공사 착공
- '17.09.01. : 단지조성공사 부분 준공
- '19.09.10. : 1지구 재추진 결정
- '20.12.23. :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공사 재착공
※ 現 전체 공정률 70%(토공, 구조물공 등 추진 중)
- '21.03.11.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1.12.28. : 전기설비공사 착공
※ 2개 업체는 분양계약 완료('21.6.), 1개업체는 MOU체결('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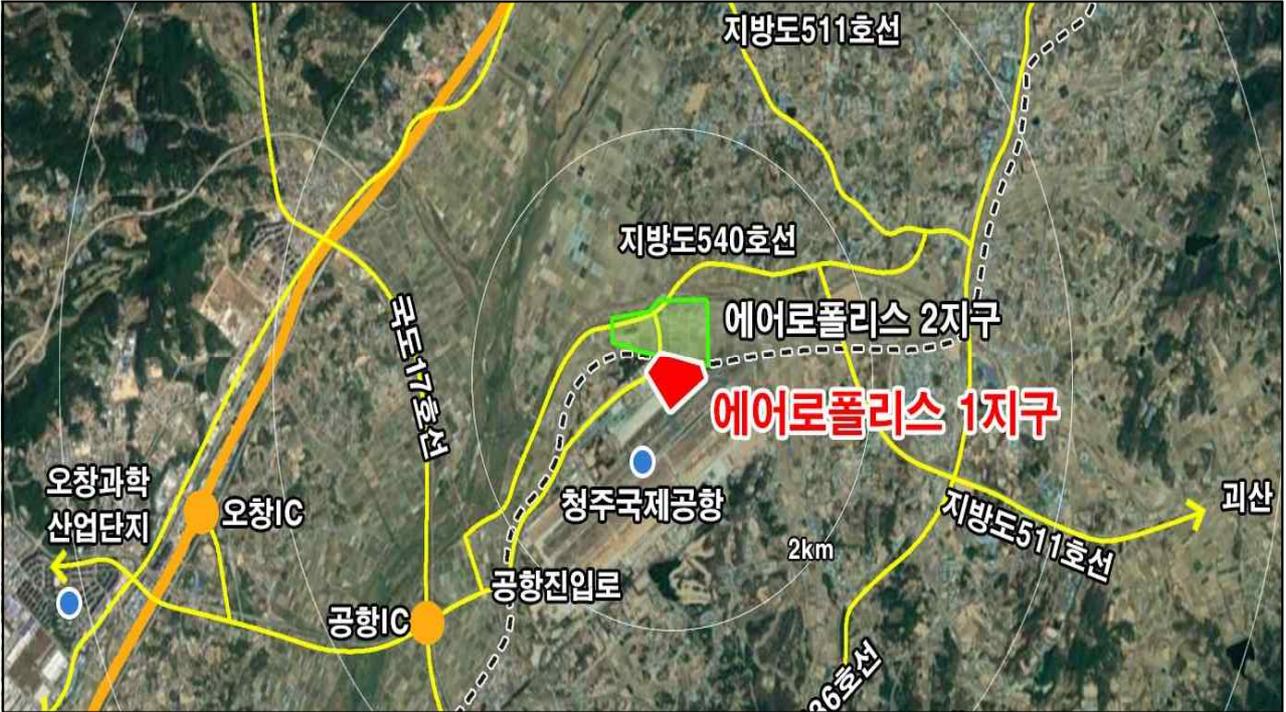
□ 향후 추진계획

- 2개 분양계약 업체 착공 및 1개 업체 부지계약 체결 : '22. 12.
- 단지조성공사 준공 : '22. 12.

참 고

에어로폴리스 1지구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도



2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신안리 일원
- 사업면적 : 411천㎡(12.5만평)
- 사업기간 : 2013년 ~ 2022년
- 사 업 비 : 1,025억원(국비 199, 도비 424, 시비 402)
- 유치업종 : 항공기관관련 부품제조 등
- 공 정 률 : 58%

□ 추진상황

- '13.02.14. :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 '14.10.24. : 에어로2지구 공동개발협약(도·청주시·경자청)
- '16.08.26. : 아시아나(주) MRO사업 포기 ⇒ 추진 중지
- '17.07.03. : 에어로2지구 재추진 결정
- '19.02.11. : 조성공사 착공
- '21.11.25. : 에어로2지구 개발계획변경(산업부고시 제2021-200호)
- '22.02.25. : 에어로2지구 실시계획변경(충청북도고시 제2022-44호)
 - 면적 : 당초 411,152㎡(약 12.4만평) → 변경 411,520㎡(약 12.4만평)

□ 문제점 또는 특이사항

- '22.02.25. 실시계획 변경고시 완료되어 공사 진행 중임
 - 이주자택지 성토 작업 중
- 이주자택지 추가반영(17가구→33가구)에 따른 변경계획 수립 중으로 '22.4월 중 개발계획변경 신청 예정임

□ 향후계획

- 에어로2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22. 6
- 단지조성 공사 준공 : '2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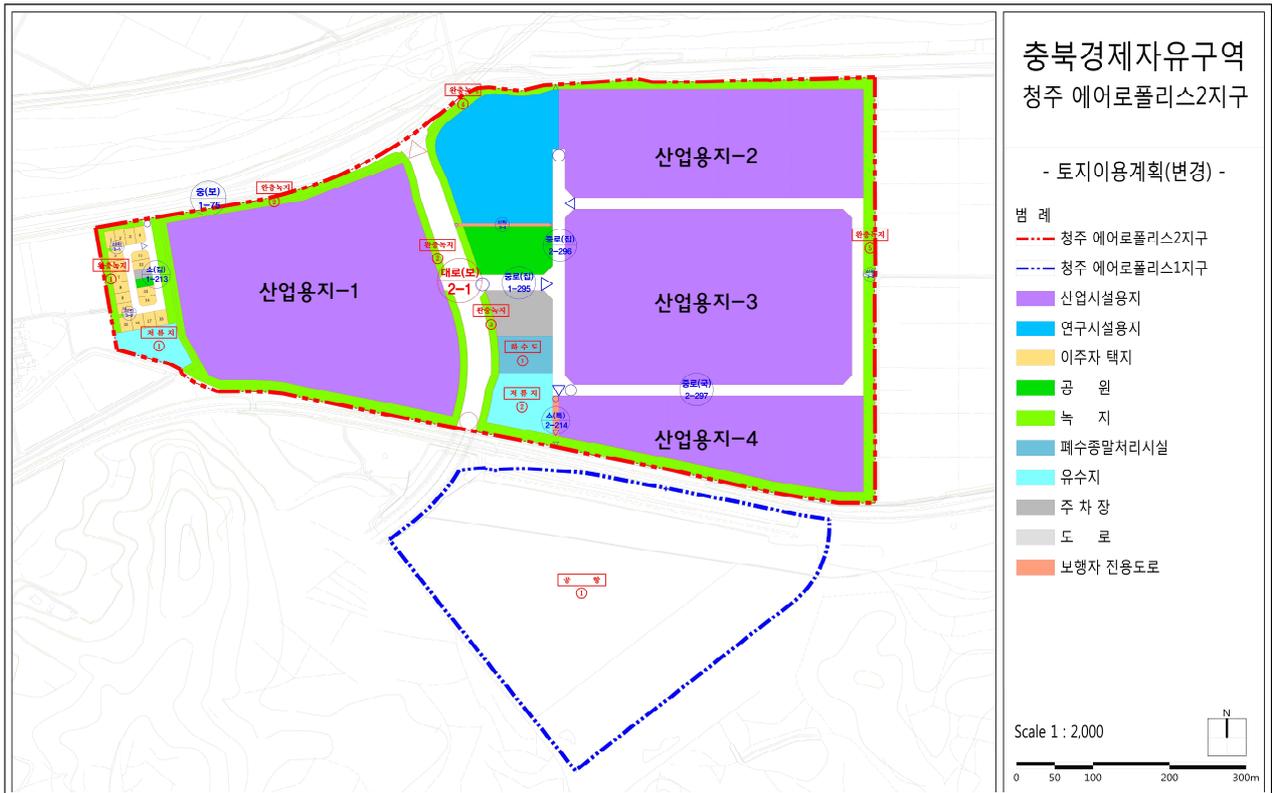
참 고

에어로폴리스 2지구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도



3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화상·화하리 일원
- 사업면적 : 1,290천m²(39만평)
- 사업기간 : 2018년 ~ 2025년
- 사 업 비 : 2,750억원 ※ 유치업종 : 항공부품제조, 반도체, BT 등

□ 추진상황

- '18.11.15. : 경제자유구역 제2차 기본계획 수립(산업부, 3지구 반영)
- '19.12.27. : 산업부 경자위원회 심의·의결(충북 미선정)
- '19.12.30. : 에어로폴리스 3지구 추진방안 수립(산업단지)
- '21.03.10. : 산업단지 지정계획 조정회의(국토부, 반영)
- '21.06.25. : 타당성조사 완료(지방행정연구원) B/C:1.34
- '21.08.09. : 조사설계용역 착수
- '21.10.25.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 '21.11.25. : 부대용역(환경, 재해, 교통, 토질, 측량) 착수

□ 문제점 또는 특이사항

-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지정)절차를 선 추진하여 지정목적, 토지이용계획 등 산업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부합된 구체적 계획 수립으로 경제자유구역 중복 지정 요건 마련

□ 향후계획

-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승인 : '22.10.
- 편입토지 보상 협의 : '22.11. ~
- 단지조성공사 추진 : '23.01. ~ '2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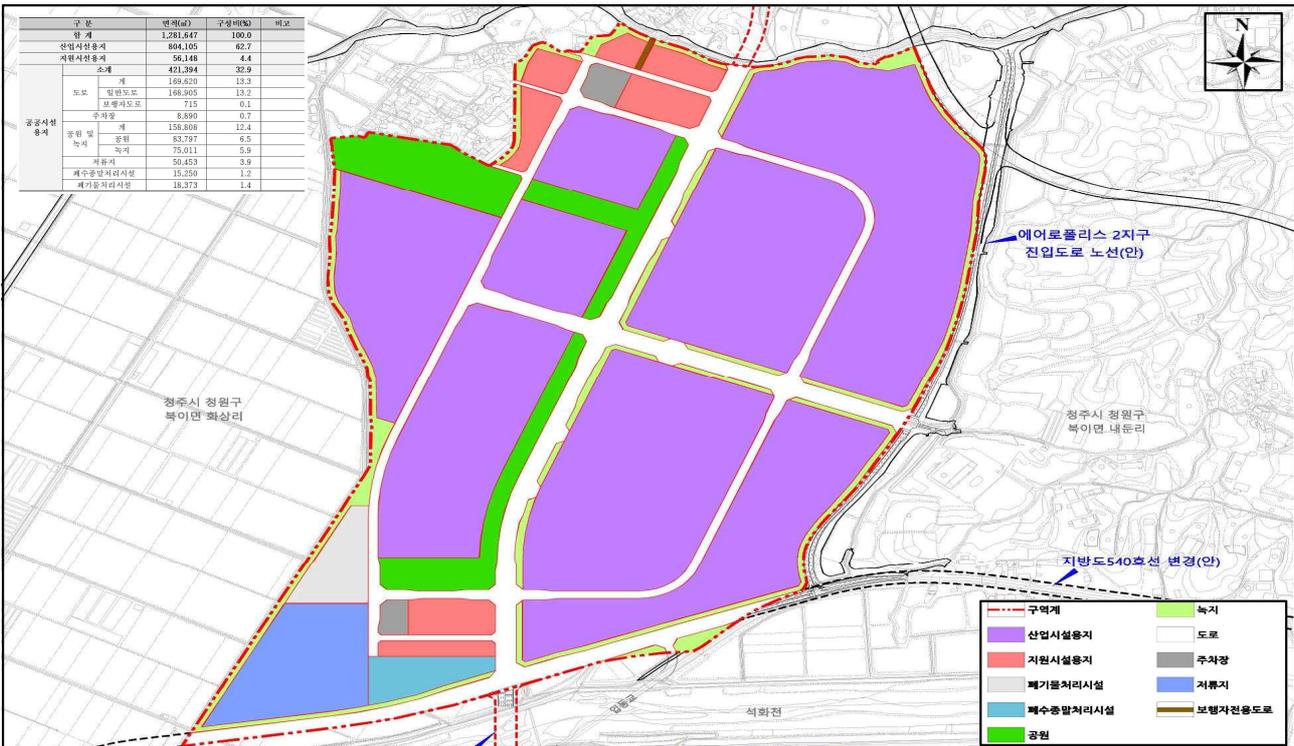
참 고

에어로폴리스 3지구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도



4

도심형항공교통(UAM) 특화단지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 일원(에어로폴리스 3지구)
- 사업기간 : 2022년 ~ 2027년(6년)
- 규 모 : 1,290천㎡(39만평)
- 총사업비 : 8,335억원(국비 1,000억원, 지방비 500억원, 민자 6,835억원)
- 주요내용 : 도심항공교통(UAM) 생태계 거점 산업단지 조성

□ 추진상황

- '20. 3~'20. 5 UAM특화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한국교통대)
- '20.11~'23.12 충북 드론·UAM연구센터 운영(청주대학교 내)
 - 연구센터 개소('21.3.24) 및 드론·UAM 관련 연구 수행중
- '22. 5~'22. 11 충북형 스마트 드론 콜드체인 실증 추진

□ 문제점 또는 특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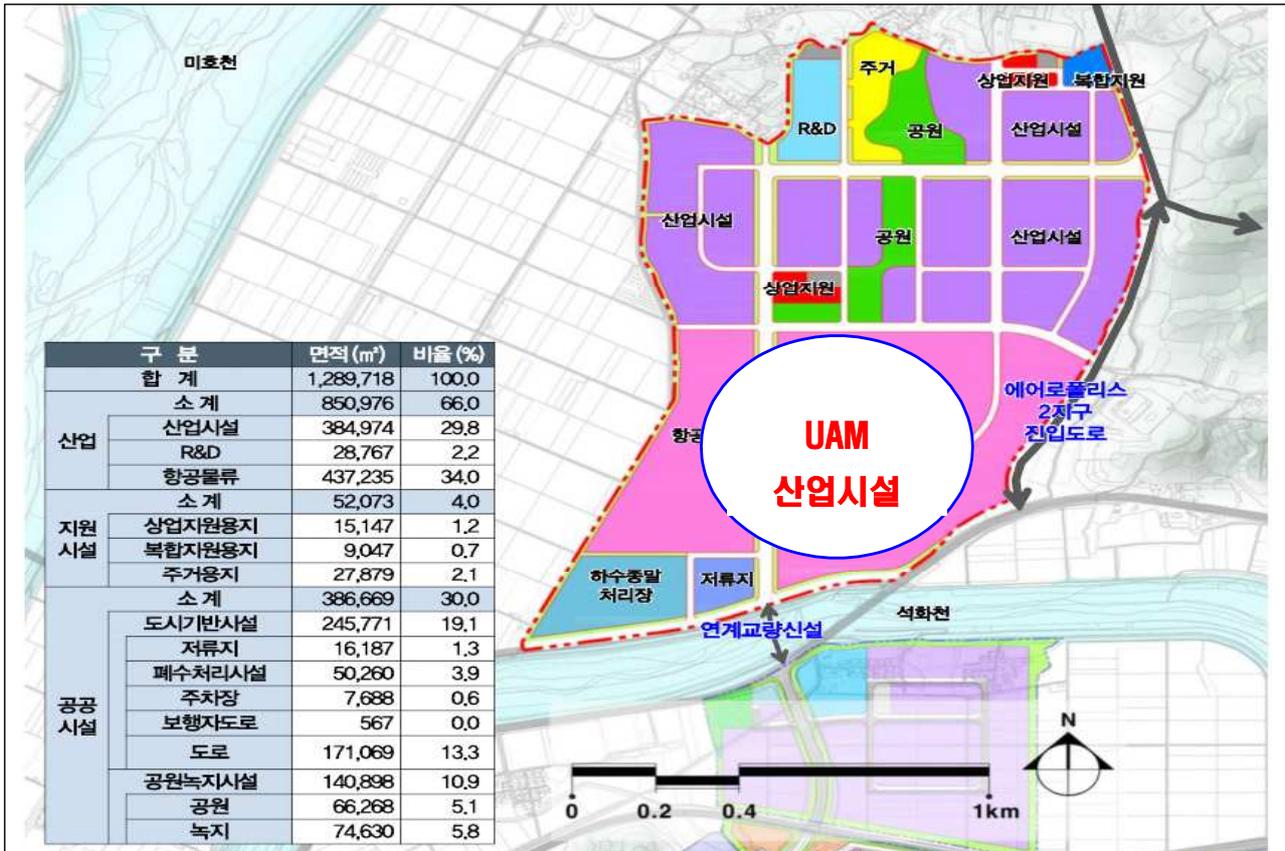
- K-UAM 안정성 확보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K-UAM 제도화 방안 연구』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 중(~'22.3.28)
 - ⇒ '24년 국토부 주도 'UAM 특별법 제정' 시행 예정에 따라 특화단지 지정 법률 근거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2022~2025년(준비기) 특화단지 지정 및 UAM시범운항 여건확보
- 2025~2030년(실증기) UAM 운항실증
- 2030~2035년(성장기) UAM 산업생태계 확산 및 완성

참고

UAM 특화단지 조성 위치도



4.4. 충청북도 간담회 보고자료

- I. 2차 간담회 자료(2019. 10. 14.)
- II. 4차 간담회 자료(2020. 10. 5.)
- III. 6차 간담회 자료(2021. 1. 13.)

I. 2차 간담회 업무보고 자료
(2019. 10. 14.)



'19. 10. 14.(월) 16:00

충북도의회 회의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확충 방안 간담회

< 간담회 주요내용 >

1. 1차 간담회(7.25.) 개요 및 후속조치
2. 관광 인프라 및 콘텐츠 확충 방안



문화체육관광국

1. 1차 간담회 개요 및 후속조치

I 간담회 개요 및 추진상황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9. 7. 25.(목) 10:00 ~ 13:00
- 장 소 :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대회의실)
- 참석자 : 충북도, 청주시, 국토부 청주출장소, 충북관광협회,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항공사
- 주요내용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관광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지원방안 마련과 정보 공유

□ 그간 추진상황

- 한국공항공사에서 사업제안 조치 및 세부계획 수립 : 9. 18.
 - ※ 관광·항공 분야 도출과제
 - 관광 : 특수목적관광 가이드북 충북도 해외의료 홍보관 비치, 인바운드관광 유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대상 충북관광지 할인 혜택, 해외 인플루언서
 - 항공 : 충북 산업체 및 기관 대상 청주국제공항 이용 협조(기추진)
- 간담회 결과 후속조치 실무자회의 개최 : 9. 25.
 - ※ 주요내용 : 기관별 제안사업 후속조치 업무공유

□ 향후일정

- 한국공항공사 주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11월경

II

후속조치 세부계획

1. 특수목적관광 가이드북 충북도 해외의료 홍보관 비치

□ 주요내용

- 도내 특수목적관광(화장품·뷰티·바이오·의료) 활성화를 위해 청주시가 제작한 가이드북 등을 충북도 해외의료 홍보관에 비치할 통한 홍보 추진

□ 검토의견

- 도 보건정책과(해외의료팀)와 협의 결과, 청주시 자료를 받아 해외의료 홍보관에 비치 추진

* 해외의료 홍보관(5개소) :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카자흐스탄

□ 추진계획

- 홍보물 비치 요청(도 보건정책과 → 도 해외의료 홍보관) : '19. 10월
- 홍보물 발송(청주시 → 도 해외의료 홍보관) : '19. 11월

2. 인바운드관광 유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주요내용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 및 업계 간 협력마케팅 강화를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운영

□ 검토의견

- 우리 도의 경우, 해외관광객 유치 기반은 다소 부족하나,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충청권과 협력 추진 필요
-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충청권을 하나로 묶는 협의회를 구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기여

□ 추진계획

- 인바운드관광 유치 협의회 구성 협의 : '19. 11월(예정)

3.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 주요내용

- 인천 및 김포공항을 이용해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충북1일 패키지상품 개발
- 충청권(충북, 충남) 협업을 통한 백제문화권 관광상품 개발

□ 검토의견

- 외국인 관광객 대상 충북1일 패키지상품 개발
 - 도는 금년부터 「외국인 관광객 대상 충북전담관광상품*」을 운영 중이며, 향후 확대 추진 예정
 - * 충북전담관광상품 : 서울 출발-충북 관광 당일상품으로 6월부터 주 2회(화, 금) 서울 출발-제천·단양 코스 운영
- 충청권(충북, 충남) 협업을 통한 백제문화권 관광상품 개발
 - 대다수 해외 관광객은 한국의 관광지로 서울, 부산, 제주를 인식하고 있기에 충북관광 인지도 제고가 선행되어야 함
 - 충북관광 인지도 향상을 위해 유사한 역사·문화권을 가진 충청권(충북·충남·대전·세종) 공동 마케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홍보 추진 가능

- 2004년부터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를 통해 4개 시·도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백제 문화권 등 관광상품 개발 가능

*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 충북·충남·대전·세종 해외 공동마케팅 협의회

□ 추진계획

- 외국인 관광객 대상 충북1일 패키지상품 개발 : '20.
 - 외국인 관광객 대상 충북전담관광상품 공모·운영
- 충청권(충북, 충남) 협업을 통한 백제문화권 관광상품 개발 : '20.
 -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요청
 - 관광상품 개발·운영, 팸투어 등을 통한 홍보

4.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대상 충북관광지 할인 혜택

□ 주요내용

- 청주국제공항 이용객(탑승권소지자)에 충청북도 관광지 등 입장권 할인 혜택 부여로 충북관광 유인

□ 검토의견

- 청주국제공항 이용객(탑승권소지자)이 일정기간(예, 탑승 후 1주일 등) 내에 충북 관광지 방문 시 할인혜택을 부여할 경우,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도내 관광지 할인 관련하여 시·군에서 운영 또는 관리하는 관광지는 협조 가능 예상, 다만 민간운영 관광지의 경우는 할인 동의 여부에 따라 추진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추진계획

- 시·군 운영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협조 요구
- 민간운영 관광지, 방문 독려를 통해 협조 요청
- 충북관광 채널 등 활용, 도내 할인 관광지 리스트 안내 및 홍보

5. 해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홍보

□ 주요내용

-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를 초청, 충북관광 홍보 영상 제작 및 SNS 송출 등을 통한 충북관광 인지도 제고

□ 검토의견

- 크리에이터, 왕홍 등으로 불리는 해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는 201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임

<2019년 추진사업>

- 중국 왕홍(이소초, 250만 팔로워) 활용, 청주공항 및 도내 주요 관광지 촬영(6월), 아리랑TV 및 왕홍 SNS를 통해 송출

<2018년 추진사업>

- 대만 크리에이터(BHEC不韓而栗) 활용, 제천·단양 관광자원 홍보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맞춤 관광프로그램 사업’ 매칭사업)
- 멕시코 인플루언서(크리스티안) 활용, 청주·제천 관광자원 홍보 (한국관광공사 ‘글로벌 관광상품 사업’)

□ 추진계획

- 2020년 당초예산 요구 : '19. 9월 ※ 12월 예산 확정

2. 관광 인프라 및 콘텐츠 확충 방안

I 충북 관광테마 개발, 정립 (충북도)

□ 필요성

- 공항은 교통인프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전략의 첨병 역할 수행
- 지역의 관광자원과의 협력적 연계를 통해 관광활성화 도모

□ 추진상황 (청주국제공항 중심 관광인프라)

- (중심권) 공항으로부터 40km 이내
 - (청주) 세계3대 광천수 초정 관광 클러스터 육성
 - '21년 준공/ 249억원/ 약25,000m², L=5km
 -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조성
 - '22년 준공/ 1,594억원/ 도농 교류 테마 관광단지 2,622,825m²
 - (진천) 농다리 관광명소화 사업
 - '22년 준공/ 58억원/ 10,415m²(전시관 리모델링 주차장 먹거리타운 등)
 - (괴산) 화양구곡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 '20년 준공/ 42억원/ 탐방로 L=2km(탐방로, 쉼터 등)
 - (보은) 속리산 중판지구 관광단지 조성
 - '22년 준공/ 1,288억원/ 산림휴양관광단지 2,430,000m²
- (시외권) 공항으로부터 40km 초과
 - (충주) 고구려수변테마마을 조성
 - '20년 준공/ 50억원/ 37,000m²(고구려 역사길, 삼죽오 광장 등)

- (제천) 청풍물길100리 생태탐방로
 - '21년 준공/ 65억원/ 생태탐방로 1.9km(출렁다리, 데크 등)
- (제천)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 '21년 준공/ 115억원/ 28,370m²(농경문화체험관, 물놀이마당 등)
- (단양) 소백산 리프레쉬 관광단지 조성
 - '22년 준공/ 1,870억원/ 힐링테마 4계절 복합 관광단지
- (옥천) 장계관광지 정비사업
 - '21년 준공/ 55억원/ 503,350m²(숲속놀이터, 수변산책로 등)
- (영동)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 '21년 준공/ 92억원/ 23,000m²(잔도, 전망타워, 복합놀이시설 등)

□ 향후계획

- 단편적인 시·군 단위 개별 관광개발에서 벗어나 각 시·군이 보유한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경쟁력을 갖춘 신개념 관광벨트 구축 계획 수립·추진
- 지역별 관광자원 특성이 유사한 시·군 간 통합적 관광개발을 위해 관광 소권을 설정하고 소권별 차별화된 관광개발 계획 수립·추진

□ 현황 및 시사점

- 중부권 거점 공항과 KTX 등 대중교통편 보유
→ 수도권 연계형 관광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전개 유리
- 청주-제주 간 항공 이용 수요 양호

| 구 분 | 운항(편수) | 여객(명) | 항공사 |
|-------------|--------|-----------|-------|
| 2017년 | 14,246 | 2,385,611 | 진에어 |
| 2018년 | 12,811 | 2,135,097 | 대한항공 |
| 2019년(1~8월) | 9,729 | 1,642,497 | 아시아나 |
| 2018년(1~8월) | 8,448 | 1,428,401 | 제주항공 |
| | | | 이스타항공 |

→ 공항 이용객 지속적 확대와 도내 주요 관광지 방문 유도

- 내국인 출국(아웃바운드 관광) 중심 국제항공편 운영
→ 일반 단체여행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 불리
(인센티브 정비,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 가능한 틈새시장 발굴)
-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 유치를 위한 관광소재, 인프라 부족
→ 충북도 관광 이미지 제고와 획기적인 인프라 개선 노력 필요

□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사업(사례)

- 해외언론인, 여행업자 팸투어

| 2018년 사업 내역 | 2019년 사업 내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주요기업 인센티브 담당자 초청 팸투어(10월) · 오송 화장품 엑스포, 의료관광 연계 - 홍콩 언론인 초청 팸투어(11월) · 충북 가을 단풍관광지 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 상품 개발을 위한 오사카 지역 언론매체 초청 팸투어(4월) - 자카르타 여행업계 초청 팸투어(10월 예정) · 미용 및 한방 체험 중심 - 홍콩 SNS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11월) |

- 한국관광공사 본사와 연계한 주한 외국인 SNS 기자단 팸투어
 - 구미주 기자단 대상 팸투어('18.10월) : 보은 법주사, 영동 국악 체험촌 방문(SNS 콘텐츠 36건 생성, 6건 기사화)
 - 중국팀 기자단 대상 팸투어('18.11월) : 단양 도담삼봉, 제천 고려청풍 한지체험관 방문(SNS 콘텐츠 56건 생성, 5회 기사화)
 - 충청북도 최초 관광단지 '블랙스톤 벨포레('19.6.14. 개장) 홍보를 위한 팸투어('19.10.19~20 예정)

- 외국인 관광객 지방 유치를 위한 글로벌 관광 사업(2019년)
 - 청주 글로벌 관광상품 출시('19.7월~)
 - 인바운드 여행사 대표 초청 팸투어(7.5) 및 수도권 여행업계 대상 상품설명회(8.29) : 3개 상품 출시(숙박1, 당일2)
 - 공사 해외지사(23개) 홍보, 서울시내 관광안내소(11개) 홍보물 비치
 - 제천 글로벌 관광상품 추진 중('19.10월~)

□ 제안사항 : 전략적·체계적 관광 마케팅 실행

- 충북 관광 기초통계 및 비전 설정 등 R&D 기능 확보
- 충북 관광 제반과제 설정과 의사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세부과제 실행, 성과 창출을 위한 실행 역량성 강화 필요
- <기타> 충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과제 제안
 - 충북도 3개 권역별(북부, 중부, 남부) 대표상품 기획·마케팅
 - 홍보 마케팅 : 팸투어, 해외 설명회, 해외 광고 등
 - 수도권 및 주요 관광 목적지와의 연계성 강화
 - 소비자 맞춤형 인프라 구축
 - 외국어 전문 관광가이드 양성, 관광안내 체계 구축
 -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 공급 등

2019.10.14.(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간담회 자료

○ 에어로폴리스 1지구 여건과 추진방향

에어로폴리스 1지구 여건과 추진방향

□ 사업여건

- 1지구 입지제약, 국내 MRO물량 과소, 타 지역(사천, 인천)과 경쟁의 어려움 등으로 고정익 중심의 MRO 추진 곤란
- 그간, 일반 제조·물류업체의 입지 의향 표명도 있었으나, 부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부지활용이란 공감대 형성 미흡
- 최근, 에어로폴리스의 접근성, 향후 사업확장 가능성을 감안, 1지구에 입지를 희망하는 다수의 회전의 정비업체 등장
 - ※ 국방부, 국방개혁차원에서 군용헬기정비 민간 외주 우선고려
- 최근 청주공항 이용객의 증가추세('19. 300만예상), 에어로-K 출범, 발전전망 등과 맞물려 1지구 희소가치 상승

□ 활용가능 방안

<제1안> : 회전의 항공기 정비단지

- 한국, 아시아 1위 헬기운용국(1천대:민간(200)/군(800)) 정비사업화 유망
- 헬기MRO 메이저, 엔진 정비업체 및 격납고 임차업체(2곳) 동반 유치(최소 5개업체)로 헬기정비 집적단지 조성가능
- 에어로-K, 화물전용 항공사 출범에 따른 1지구 입지수요 대비 미흡
 - ⇒ 고정익 확장 등 미래 수요 대비 곤란

<제2안> : 고정익 항공기 정비단지

- 국내정비물량 과소*, 입지제약에 따라 대규모 MRO추진 곤란
 - * 국내대형여객기 400대('19.2), KAL/아시아나 계열(자체정비) 제외시 정비대상 물량 90대, 규모의 경제 달성위해 정비물량 160대 이상 확보필요(아시아나항공 의견)
- 최근 국내업체는 정비고 및 부지 무상대여 시 (독)루프트한자테크닉*과 합작가능 주장(1천억원 소요) → 신뢰 어려움
 - * 현재 국내 MRO사업 검토없음(루프트한자테크닉 본사 David Doyle부사장 확인)
 - ⇒ 입지 제약, MRO물량 과소 등으로 실현가능성 희박

<제3안> : 회전익+유보지의 혼합형 정비단지

- 헬기정비관련 주요업체 집적으로 항공정비클러스터화 유망
- 국방부 추진*, 군용헬기 민간외주 시 수주유망
* 육해공 군직정비 민간외주방안 연구('19.8~' 20.7), 헬기MRO 민간외주 우선고려
- 고정익 항공업체의 정비 수요도 일부 충족 가능
- 회전익업체 직접 유치과급효과 탁월(투자 약 2천억원, 고용 약 1천명)
⇒ 헬기정비 산업화를 통해 항공정비 클러스터로 단기간내 도약가능

<제4안> : F-35전투기 정비창

- 창정비, 해외 정비방침(미 국방부)/공군, 격납고 등 정비시설 기구축
- 국내업체, 구성품 정비 일부 수주하였으나, 기존시설 활용방침
⇒ 실현 가능성 희박

<제5안> : 공항 발전전망 연계 추후 부지활용 검토(당분간 유보)

- 1지구 개발 매몰비용(195억원) 회수불가능
- 부지의 장기방치 비판제기, 산업화 기회상실 가능성
⇒ 에어로폴리스 2·3지구 연계 개발도 불투명

❖ 검토의견

현실적으로 입주의향을 보이는 회전익 정비업체를 입지시키고, 에어로-K 등 입지소요를 수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바람직,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필요

참고 : 각 방안별 장단점 분석

| 구분 | 장 점 | 단 점 |
|---|--|--|
| ① 회전익 단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전익 입주수요 확보(최소5곳) ▶ 군 정비 민간외주 시 확보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기정비 메이저(2곳) 등 집적 ▶ 개발비용 전액회수 가능 ▶ 2,3지구 연계 MRO클러스터 구축용이 ▶ 부지매각대, 지역세수(등록세/재산세) 증대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로-K, 화물전용 LCC 출범 등에 따른 대비 곤란 ▶ 소음 발생 우려 등 민원제기 가능 |
| 에어로-K, 화물전용 LCC 등 미래수요 대처곤란 | | |
| ② 고정익 단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조성목적 최대부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량과소 입지제약으로 본격적 MRO추진 곤란 ▶ 격납고, 부지무상 제공 등 과도한 지원 요구(1천억원) ▶ 경제적 파급효과 당초 기대보다 크지 않음 |
| 실현가능성 희박 | | |
| ③ 혼합형 단지 (회전익+유보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전익 입주수요 확보(최소5곳) ▶ 에어로K화물전용 LCC 등의 사업 확장 지원가능 ▶ 소음민원 발생우려 낮음 ▶ 2,3지구 연계 헬기MRO 클러스터 구축 가능 (향후 경향항공기 클러스터로 발전가능) ▶ 도내 6개학교 항공정비인력 고용촉진 (연 300여명 배출) ▶ 경제적 파급효과 탁월 (투자 약 2천억원, 고용 약 1천명) ▶ 부지매각대, 지역세수(등록세/재산세) 증대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 발생 우려 등 민원제기 가능 ▶ 부지분양 면적 축소로 입주 포기업체 발생 가능 |
| 국내 항공정비 클러스터로 단기간내에 도약가능 | | |
| ④ F-35 정비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용기 정비시설 집적의 계기 ▶ 첨단분야 정비시설 유치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정비방침 결정(창정비, 해외 대륙별 정비창 정비) ⇒ 재협상이 어려움 ▶ 17비내 정비시설(격납고 등) 기 구축, 별도 정비창 신설은 중복투자 |
| 실현가능성 희박 | | |
| ⑤ 부지활용 유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로-K 부지소요에 대한 신속적 대응가능 ▶ 에어로K화물전용 LCC 등의 사업 확장 지원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한 회전익 정비 산업화 기회 상실 가능성 ▶ 에어로폴리스 2,3지구 연계 개발에 차질 ▶ 부지개발 매몰비용 발생(195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개발비용 회수기회 상실 ▶ 회전익업체 투자유치 미실현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약 2천억원) ▶ 부지의 장기 방치비판 제기 |
| 회전익 정비산업 기회상실 및 에어로폴리스 2,3지구 개발도 불투명 | | |

II. 4차 간담회 업무보고 자료
(2020. 10. 5.)



'20. 10. 5.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추진상황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운항증명 추진상황

운항증명(AOC)

- ◆ 개요 : 항공사의 조직·인력·장비·시설, 운항·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 프로그램 등 안전운항체계를 검사(서류검사+현장검사)
- ◆ 검사항목 : 85개 분야, 3,800여개 항목

□ 추진상황

- 항공운항증명 신청 : '19. 10. 7. ※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19.3.7)
- 에어로케이 1호기(A320, 180석) 도입 : '20. 2. 16.
※ 항공기 도입계획 : 6대('20년 3대, '21년 2대, '22년 1대)
- 본사 이전(청주시 오송읍, 7층 건물 임대) : '20. 4. 7.
- 운항증명 서류검사 완료 : '20. 6. 5.
- 운항증명 현장검사 진행 중 : '20. 6. 8. ~
 - 현장검사 비상탈출 시현(6.22), 50시간 시험비행(6.23~7.11)
※ 현장검사 중 총 319건 보완요구
- 국토위 박덕흠 의원 서면질의 : '20. 7. 29.
- 국토부 장관 운항증명 조기발급 건의(도지사) : '20. 8. 12.
-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면담(행정부지사) : '20. 8. 19.
 - 항공안전정책관 방윤석, 항공운항과장 오성운, 권시홍 사무관 배석
- 에어로케이, 현장검사 보완 조치계획 일괄 제출(1차) : '20. 7. 31.
- 에어로케이, 현장검사 보완 조치계획 일괄 제출(2차) : '20. 9. 9.
- 운항증명 발급 촉구 성명서 발표(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 '20. 9. 17.
- 국토위 정정순 의원 운항증명 발급 촉구(2회) : '20. 8. 25, 9. 22.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운항증명(AOC) 조기발급 지속 건의
- 에어로케이 출범 대비 취항식(청주-제주) 지원 및 홍보 마케팅 강화

□ 항공기 도입

- 기 종 : A320, 180석
- 운영방법 : 임차(Lease)
- 임차료 : 23.9만US\$/월/대
- 도입계획 : 6대 ※ ('20년) 3대* → ('21년) 2대 → ('22년) 1대
* 2020년 : 1호기(2월), 2호기(10월), 3호기(11월)

□ 인력 채용

- 現 총 직원수 : 148명(운항 25, 객실 22, 정비 36, 기타 65)
※ 특히, 올해 항공기 3대 도입계획을 감안해 기장 및 부기장 등 인력채용
- 연도별 채용계획

| 구분 | 운 영 항공기 | 조종사 | 객 실 승무원 | 정비사 | 기타 | 총계 |
|-------|------------|-----|------------|-----|------|------|
| 2020년 | 3대 | 36명 | 66명 | 55명 | 118명 | 275명 |
| 2021년 | 5대 | 60명 | 110명 | 69명 | 158명 | 397명 |
| 2022년 | 6대 | 72명 | 132명 | 78명 | 173명 | 455명 |

※ 항공기 1대당 운영인력 : 70명 정도(조종 12, 객실 22, 정비 12, 기타 24)

□ 노선 취항

- 운항지역 : 국내선(제주도), 국제선(5개국 11개 노선)

- 1년차(3대) : 일본(나리타나교야기타큐슈), 대만(타이베이), 중국(칭다오), 베트남(하이퐁)
- 2년차(2대) : 일본(하코다테), 마카오(마카오), 베트남(하노이)
- 3년차(1대) : 중국(하이커우), 대만(가오슝)

※ 면허발급시 사업계획 노선, 대내외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6차 간담회 업무보고 자료
(2021. 1. 13.)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오창 확정
대한민국 미래 100년, 충북이 선도합니다!

'21. 1. 13.(수) 14:00

특별위원회 회의실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

특별위원회 간담회

1. 에어로케이 운항증명(AOC) 추진경과
2. 에어로케이, 운송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문화체육관광국

1. 에어로케이 운항증명(AOC) 추진경과

□ 사업개요

- 자본금 : 480억원 * 강병호 에어로케이항공 대표
- 기재확보 : A320(180석) 6대 ※ 3대(1년차) → 2대(2년차) → 1대(3년차)
- 운항노선 : 제주도, 5개국 11개 국제선(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마카오)

□ 그간 추진상황

-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면허신청 : '18.11.) : '19. 3. 6.
 - 운항증명 신청 (→ 국토부) : '19.10. 7.
 - 항공기 1호기(A-320, 180석) 도입 : '20. 2.16.
 - 운항증명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완료 : '20. 6. 5. ~ 12.
 - 운항증명 발급 : '20.12.28.
 - 운항개시 이후 안전운항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 확보 여부를 운항증명에 포함시켜 면밀히 검토
- ※ 현재 추진중인 추가 자본확충(100억원 이상)과 운항개시 이후에 발생할 매출로 영업비용 충당 판단

〈운항증명 발급이후 안전관리 이행조건〉

-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 절차를 거친 후 운항개시 가능하며, 운항개시 이후에는 정부의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특별관리를 받음
 - ① 에어로케이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 지정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 상주하면서 운항규정 등 밀착 모니터링,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점검을 실시할 계획
 - ② 항공사가 제출한 재무건전성 확보계획 등 주기적으로 이행상태를 철저히 확인
- ※ 만약 제출된 재무건전성 확보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안전투자 부족 등에 따른 안전미흡사항 발견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취소 조치

□ 조치계획

-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안정화 지원대책 추진
 - 국제선(11개) 운항 시 3년간 재정지원 ※ 도 70%, 청주시 30% 재정분담
 - 취항노선 홍보 및 신규노선 개척 마케팅 지원 등
- 에어로케이 신규 취항을 위한 취항식(청주-제주) 지원

2. 에어로케이, 운송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 운송계획 (취항 후 3년간)

○ 항공기 도입

- 기 종 : A320, 180석(임차)
- 도입계획 : 6대 ※ **(1년차) 3대*** → (2년차) 2대 → (3년차) 1대
- * 1호기('20. 2. 도입 완), 2·3호기 도입예정 : '21. 상반기

○ 인력채용 * 現 147명 채용(운항증명 시 1·2호기 도입을 가정해 직원채용)

| 구 분 | 총 계(누 계) | 조종사 | 승무원 | 정비사 | 기 타 |
|-----|----------|-----|------|-----|------|
| 1년차 | 275명 | 36명 | 66명 | 55명 | 118명 |
| 2년차 | 397명 | 60명 | 110명 | 69명 | 158명 |
| 3년차 | 455명 | 72명 | 132명 | 78명 | 173명 |

※ 항공기 1대당 운영인력 : 70명 정도(조종 12, 객실 22, 정비 12, 기타 24)

○ 노선 취항

- 국내선 : 제주(일 3회) ※ '21. 2월초 취항예정

- ▶ 국토부, 노선허가(정기 2회, 부정기 1회) 신청 : '20. 12. 30~ * 14일 소요
- ▶ 항공기 운임 등 예고 신청 : '20. 12. 30~ * 20일 이상
- ▶ 슬롯 확보 완(일 2회 / 운항기간 2.5 ~ 2.20) : '21. 1. * 부정기 1회 미확보

- 국제선 : 5개국 11개노선 ※ **코로나19 진정 시 취항계획**

- 1년차(3대) : 제주 / 일본(나리타,나고야,기타큐슈), 대만(타이베이), 중국(칭다오), 베트남(하이퐁)
- 2년차(2대) : 일본(하코다테), 마카오, 베트남(하노이)
- 3년차(1대) : 중국(하이커우), 대만(가오슝)

※ 면허발급 시 사업계획 노선, 대내외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향후계획

○ 국토부, 국내선 노선허가(청주~제주) 등 대응(지속)

○ 지주회사(에어로케이홀딩스)로부터 추가자본(100억원이상) 확보 : '21. 2월

○ 항공기 도입(2·3호기) 및 인력채용(3호기) : 21. 상반기